



주요국의 장기재정전망과 국제비교



주요국의
장기재정전망과
국제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www.kipf.re.kr



주요국의 장기재정전망과 국제비교

2021. 12.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

주요국의 장기재정전망과 국제비교

2021. 12.

참여 연구진

▪ 연구책임

고 창 수 조세재정전망센터 재정전망팀장

▪ 공동연구원

권 미 연 조세재정전망센터 선임연구원(EU, 스웨덴)

오 수 정 조세재정전망센터 선임연구원

(미국(CBO), 미국(OMB))

정 상 기 조세재정전망센터 연구원(일본)

목 차

I. 미국 CBO	1
1. 추진근거 및 추이	1
2. 전망의 범위, 분야 및 방법	2
3. 전망 기간, 거버넌스 및 절차	4
4. 보고서의 구조	5
5. 전망전제	6
6. 전망 결과	11
7. 민감도 분석	16
II. 미국 OMB	18
1. 추진근거 및 추이	18
2. 전망의 범위와 분야	19
3. 전망 기간, 거버넌스 및 절차	20
4. 보고서의 구조	21
5. 전망전제	22
6. 전망 결과	26
III. EU	29
1. 추진근거 및 추이	29
2. 전망의 범위와 분야	31
3. 전망 기간, 거버넌스 및 절차	31
4. 보고서의 구조	32
5. 전망전제	34
6. 전망 결과	44
7. 평가	48
8. 시나리오 및 민감도 분석	58

IV. 스웨덴	72
1. 추진근거 및 추이	72
2. 전망의 범위와 분야	74
3. 전망 기간, 거버넌스 및 절차	74
4. 보고서의 구조	75
5. 전망전제	76
6. 전망 결과	92
7. 시나리오 분석	107
8. 평가	121
V. 일본	122
1. 추진근거 및 추이	122
2. 전망의 범위와 분야	123
3. 전망 기간, 거버넌스 및 절차	127
4. 보고서의 구조	127
5. 전망전제	128
6. 전망 결과	132
참고문헌	141
부록	143

표 목차

〈표 Ⅰ-1〉 지출 항목별 별도 가정(2032~2051년)	3
〈표 Ⅰ-2〉 기준 시나리오 거시전제	10
〈표 Ⅱ-1〉 중기 거시전제 전망	22
〈표 Ⅲ-1〉 EU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현황	30
〈표 Ⅲ-2〉 EU 총인구 전망	34
〈표 Ⅲ-3〉 연령 그룹별 인구 전망	35
〈표 Ⅲ-4〉 합계출산율, 기대수명, 순이민인구 전망	37
〈표 Ⅲ-5〉 노년 부양비 전망	38
〈표 Ⅲ-6〉 노동 관련 비율 전망	39
〈표 Ⅲ-7〉 잠재 GDP 성장률 전망	41
〈표 Ⅲ-8〉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	42
〈표 Ⅲ-9〉 노동 투입(노동시간) 증가율	42
〈표 Ⅲ-10〉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전망	43
〈표 Ⅲ-11〉 EU 분야별 전망 결과(기본 시나리오)	45
〈표 Ⅲ-12〉 부채 개념	46
〈표 Ⅲ-13〉 EU GDP 대비 총정부부채 전망 결과	47
〈표 Ⅲ-14〉 S0지표의 임계값, 신호력 및 구성 변수	48
〈표 Ⅲ-15〉 재정 지수(Fiscal index)의 세부 변수 평가 결과	53
〈표 Ⅲ-16〉 재정-경쟁력 지수(Financial-competitiveness index)의 세부 변수 평가 결과	53
〈표 Ⅲ-17〉 S1지표 구성요소별 결과	54
〈표 Ⅲ-18〉 S2 구성요소별 결과	55
〈표 Ⅲ-19〉 EU 분야별 전망 결과(TFP 시나리오)	59
〈표 Ⅲ-20〉 EU 분야별 시나리오 전망 결과(AWG risk 시나리오)	60
〈표 Ⅲ-21〉 연금지출 전망 민감도 분석 시나리오 개요	62

〈표 Ⅲ-22〉 2019~2070년 GDP 대비 연금지출 전망치 변화분 민감도 분석 결과	63
〈표 Ⅲ-23〉 건강보험지출 전망 민감도 분석 시나리오 개요	66
〈표 Ⅲ-24〉 2019~2070년 GDP 대비 건강보험지출 전망치 변화분 민감도 분석 결과	67
〈표 Ⅲ-25〉 장기요양지출 전망 민감도 분석 시나리오 개요	69
〈표 Ⅲ-26〉 2019~2070년 GDP 대비 장기요양지출 전망치 변화분 민감도 분석 결과	70
〈표 Ⅲ-27〉 시나리오별 2019~2070년 교육지출 전망 민감도 분석 결과	71
〈표 Ⅳ-1〉 스웨덴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현황	73
〈표 Ⅳ-2〉 거시전제 전망 결과(기간 평균)	90
〈표 Ⅳ-3〉 거시전제 전망 결과(10년 단위)	91
〈표 Ⅳ-4〉 기본 시나리오의 공공 재정 전망 결과	106
〈표 Ⅳ-5〉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1)	109
〈표 Ⅳ-6〉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2)	111
〈표 Ⅳ-7〉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3)	114
〈표 Ⅳ-8〉 전망 결과(재정 흑자 목표 시나리오)	117
〈표 Ⅳ-9〉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4)	117
〈표 Ⅳ-10〉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5)	120
〈표 Ⅳ-11〉 기본 시나리오의 S2지표(2100년 기준)	121
〈표 Ⅴ-1〉 「기본방침 2001」 내 재정전망 근거 항목	122
〈표 Ⅴ-2〉 일본 재정전망의 전망 범위	125
〈표 Ⅴ-3〉 일본의 장래추계인구 결과	128
〈표 Ⅴ-4〉 거시경제전제 전망 결과: 기준 시나리오	129
〈표 Ⅴ-5〉 거시경제전제 전망 결과: 성장실현 시나리오	130
〈표 Ⅴ-6〉 기준 시나리오 전망 결과: 중앙정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132
〈표 Ⅴ-7〉 기준 시나리오 전망 결과: 지방정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133
〈표 Ⅴ-8〉 기준 시나리오 전망 결과: 기초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동일본 자원 제외)	134
〈표 Ⅴ-9〉 기준 시나리오 전망 결과: 기초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동일본 자원 포함)	135
〈표 Ⅴ-10〉 성장실현 시나리오 전망 결과: 중앙정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136

〈표 V-11〉 성장실현 시나리오 전망 결과: 지방정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136
〈표 V-12〉 성장실현 시나리오 전망 결과: 기초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동일본 자원 제외) ..	137
〈표 V-13〉 성장실현 시나리오 전망 결과: 기초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동일본 자원 포함) ..	138
〈표 V-14〉 시나리오별 기초재정수지 전망 결과(동일본 자원 제외)	139
〈표 V-15〉 시나리오별 국가채무 전망 결과(동일본 자원 제외)	140

그림 목차

[그림 Ⅰ-1] CBO 장기 전망 모형	5
[그림 Ⅰ-2] 연령대별 인구 전망	7
[그림 Ⅰ-3]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8
[그림 Ⅰ-4] 잠재 GDP 연평균 증가율	8
[그림 Ⅰ-5] 국가채무 전망	11
[그림 Ⅰ-6] 재정수지 전망	12
[그림 Ⅰ-7] 개인소득세 증가 요인	13
[그림 Ⅰ-8] 분야별 수입 전망	13
[그림 Ⅰ-9] 비이자지출(의무 및 재량) 전망	15
[그림 Ⅰ-10] 분야별 지출 전망	15
[그림 Ⅰ-11] 수입과 지출 전망	16
[그림 Ⅰ-12] 총요소생산성과 이자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	17
[그림 Ⅱ-1] OMB 재정수지 전망	27
[그림 Ⅱ-2] OMB 국가채무 전망	27
[그림 Ⅲ-1] 연령 그룹별 성별 인구 전망	36
[그림 Ⅲ-2] 생산함수 산식 및 생산함수접근법 개요	40
[그림 Ⅲ-3] EU GDP 대비 총정부부채 전망 결과 그래프	47
[그림 Ⅲ-4] S0 산출방법	49
[그림 Ⅲ-5] S1 산출방법	50
[그림 Ⅲ-6] S2 산출방법	50
[그림 Ⅲ-7] S0지표 결과(2009년, 2020년 보고서 결과 비교)	51
[그림 Ⅲ-8] Fiscal/financial-competitiveness index 평가 결과 (2009년, 2020년 보고서 결과 비교)	52
[그림 Ⅲ-9] S2 구성요소별 결과 그래프	56

[그림 Ⅲ-10] 국가별 S2지표 결과 도면 그래프	57
[그림 Ⅲ-11] 시나리오별 EU 총고령화지출 전망 결과 비교	58
[그림 Ⅲ-12] 기본 시나리오 대비 2019~2070년 연금지출 전망치 변화분 민감도 분석 결과	63
[그림 Ⅲ-13] 시나리오별 2019~2070년 건강보험지출 전망 민감도 분석 결과	67
[그림 Ⅲ-14] 시나리오별 2019~2070년 장기요양지출 전망 민감도 분석 결과	70
[그림 Ⅳ-1] 총인구수 및 연간 변화율 전망	76
[그림 Ⅳ-2] 총부양비(유소년 부양비, 노인 부양비) 전망	77
[그림 Ⅳ-3] 연령 그룹별 인구 비율 전망	78
[그림 Ⅳ-4] 연령별 인구 분포 전망(2020년, 2050년, 2100년)	79
[그림 Ⅳ-5] 65세의 잔여 기대수명 및 은퇴 연령 전망	80
[그림 Ⅳ-6] 경제적 부양비	81
[그림 Ⅳ-7] GDP 격차 전망 그래프	82
[그림 Ⅳ-8]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전망	83
[그림 Ⅳ-9] 출신 국가별 경제활동인구 비율 전망	83
[그림 Ⅳ-10] 실업률 전망	84
[그림 Ⅳ-11] 연금 수급자 비율	85
[그림 Ⅳ-12] 생산, 노동시간 및 생산성 실적	86
[그림 Ⅳ-13] 생산, 노동시간 및 생산성 전망	86
[그림 Ⅳ-14] 공급 균형 전망	87
[그림 Ⅳ-15] 금리 전망	88
[그림 Ⅳ-16] 기본 지출 전망 결과	93
[그림 Ⅳ-17] 공공 소비 전망 결과	94
[그림 Ⅳ-18] 2018년 연령대별 복지서비스의 평균 비용	94
[그림 Ⅳ-19] 공공투자 전망 결과	95
[그림 Ⅳ-20] 정부 이전지출 전망 결과	96
[그림 Ⅳ-21] 시나리오별 소득연금 전망 결과	97
[그림 Ⅳ-22] 기본소득 및 세입 전망 결과	98
[그림 Ⅳ-23] 과세 기준 전망 결과	99

[그림 IV-24] 재정수지 전망 결과	100
[그림 IV-25] 기본 지출 및 기본 소득 전망 결과	101
[그림 IV-26] 공공 부문의 순자본 전망 결과	102
[그림 IV-27] 순재정상태 및 마스트리히트 부채 전망 결과	103
[그림 IV-28] 장기의 기본 소득 및 지출 전망 결과	104
[그림 IV-29] 장기의 재정수지 전망 결과	105
[그림 IV-30] 장기의 순재정상태 및 마스트리히트 부채 전망 결과	105
[그림 IV-31] 재정수지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1)	107
[그림 IV-32] 순재정상태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1)	108
[그림 IV-33] 마스트리히트 부채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1)	108
[그림 IV-34] 재정수지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2)	110
[그림 IV-35] 순재정상태 및 부채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2)	110
[그림 IV-36] 노령연금 순재정상태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3)	112
[그림 IV-37] 노령연금제도와 주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지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3)	113
[그림 IV-38] 공공 순재정상태 및 마스트리히트 부채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3)	113
[그림 IV-39] 재정수지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4)	115
[그림 IV-40] 기초 재정수지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4)	115
[그림 IV-41] 순재정상태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4)	116
[그림 IV-42] 마스트리히트 부채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4)	116
[그림 IV-43] 암묵적 이자율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5)	118
[그림 IV-44] 재정수지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5)	119
[그림 IV-45] 순재정상태 및 마스트리히트 부채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5)	119
[그림 V-1] 경제재정모델의 전망구조	126
[그림 V-2] 주요 거시전제 전망 결과	131
[그림 V-3] 시나리오별 기초재정수지 전망 결과(동일본 자원 제외)	139
[그림 V-4] 시나리오별 국가채무 전망 결과(동일본 자원 제외)	140

2021 The Long-Term Budget Outlook

- 30년 시계의 베이스라인 및 민감도 분석을 통해 장기재정전망 수행
- 의회에 가장 유용한 정보만을 제공하기 위해 현행 유지 시나리오 분석만 실시

1. 추진근거 및 추이

- (법적근거) 미국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이하 CBO)의 장기재정전망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동 보고서는 경제 및 재정상황에 관한 보고서 중 하나로 매년 발간
 - 1974년 「의회예산법」¹⁾에 따라 설립된 CBO는 의회 예산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 및 재정에 대한 분석을 제공
 - 경제 및 재정전망(10년 시계), 대통령 예산안 분석, 비용추계 등을 수행하며, 장기재정전망 역시 CBO의 의회 활동 보좌 업무의 하나
- (추진배경) 인구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장기재정전망 시행
 - 1996년 5월 *The Economic and Budget Outlook: Fiscal Years 1997-2006* 에서 205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결과 최초 발표
- (추진추이) 1996년 이후 장기재정전망은 다양한 보고서의 이름으로 연간 또는 격년으로 발표되다가 2009년부터 현재와 같이 매년 발간
 - 1996년 5월 *The Economic and Budget Outlook: Fiscal Years 1997-2006* 제4장에서 205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게재
 - CBO에서 발표한 최초의 장기재정전망²⁾

1)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2) 미국의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편에서는 최소 25년 이상 전망을 장기재정전망으로 간주

- 1996년 8월 *Reducing the Deficit: Spending and Revenue Options*에서 사회보장과 의료(Medicare) 지출에 한해 향후 75년 전망 시행
- 이후 장기재정전망은 *Long-Term Budgetary Pressures and Policy Options*(1997년, 1998년), *Long-Term Budget Outlook*(1999년,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2020년) 등을 통해 연간 또는 반년 주기로 발표

2. 전망의 범위, 분야 및 방법

- (전망 분야) CBO의 장기재정전망은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재정수입 및 지출(비이자 지출 및 이자지출), 재정수지, 연방정부 부채에 대해 전망
 - (재정수입) 개인소득세, 급여세(payroll tax), 법인세, 소비세(Excise tax), 유산세 및 증여세, 기타수입원으로 나누어 세목별 가정에 따라 전망
 - 전망 시계열 첫 10년 동안 CBO의 증기재정전망보고서³⁾의 GDP 대비 재정수입 전망치를 이용하며, 이후 기본적으로 현행법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세목별로 전망
 - 기타수입원은 2031년 이후 GDP 대비 일정한 비율로 유지
 - (재정지출) 비이자지출과 이자지출로 구분하고, 비이자지출은 다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누어 항목별 가정에 따라 전망
 - (비이자지출: 의무지출) 사회보장, 주요 건강보험 프로그램(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아동의료보험(CHIP), 민간 건강보험 보조금(Marketplace Subsidie)⁴⁾, 기타의무지출⁵⁾로 구분하여 전망
 - 사회보장지출(Social Security)*은 전망 기간 동안 신탁기금(Trust Fund)**의 고갈 여부***에 상관없이 현재 현행법에 따라 2051년까지 예정대로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가정
 - * 사회보장 노령 및 유족 연금(Old-Age Survivor Insurance, OASI)와 장애연금(Disability Insurance,

3)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1 to 2031*, 2021. 2.

4) 오바마케어라 불리는 「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에서는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가구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거래소(Marketplace)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Marketplace Subsidie는 해당 시장에서 구입되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보조금 지출액을 말함

5) 공무원 및 군인연금, 특정 재향군인 지출, 푸드스탬프(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생활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실업급여, 환급형 세액공제를 포함

D)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임

** 사회보장지출의 재원으로 기금의 96% 정도는 급여세로부터 충당되고, 나머지는 사회보장혜택에 대한 소득세로부터 충당

*** CBO는 현행법상 OASI 신탁기금은 2032년, DI 신탁기금은 203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민간 건강보험 보조금은 2030년까지 CBO 중기전망을 따르고 2031년부터 수혜자 수, 초과비용 증가율 가정을 고려하여 전망
- 아동의료보험은 2031년 이후 GDP의 일정 비율로 고정
- 기타 의무지출 중 환급형 세액 공제(refundable tax credit)는 수입전망의 일부로 전망하며, 그 외 기타 의무지출은 2026년부터 2030년의 연간 감소 비율을 2031년부터 유지시킴으로써 2031년 기타 의무지출이 감소한다는 가정을 반영(2020년 3월 전망보고서 가정을 그대로 사용)

- (비이자지출: 재량지출) 2031년까지 CBO의 중기전망을 따르고, 그 이후 2031년 명목 GDP에 따라 증가

〈표 1-1〉 지출 항목별 별도 가정(2032~2051년)

항목	가정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 (메디케어) 초과의료비 2032년 1.3% → 2051년 1% • (메디케이드) 초과의료비 2032년 1.53% → 2051년 1%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	• 2031년 GDP 대비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 비율 유지
민간 건강보험 보조금	• 초과의료비 2032년 1.53% → 2051년 1%
기타 의무지출	• 2031년 GDP 대비 기타 의무지출 비율 유지 • 환급 세액공제는 수입의 일부로 추정
재량지출	• 2031년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 유지

출처: C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 3., p. 52.

○ 재정수지, 기초재정수지, 연방정부 부채 등 전망

3. 전망 기간, 거버넌스 및 절차

- (전망 주기) 2009년 이후 매년 장기재정전망을 추계하여 보고서 발간
 - 1996년 이후 2007년까지 연간 또는 격년으로 발표

- (전망 기간) 최초 55년 전망에서 75년 전망으로 확대되었으나, 2016년 이후 다시 30년 전망으로 축소⁶⁾
 - 장기재정전망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재정지출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인구고령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회보장 지출 및 의료지출의 장기전망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 1996년 5월 *The Economic and Budget Outlook: Fiscal Years 1997-2006* 제4장에서 2050년까지 55년 전망
 - 1996년 8월 *Reducing the Deficit: Spending and Revenue Options*에서 사회보장과 의료(Medicare) 지출에 한해 향후 75년 전망
 - 1997년 및 1998년 *Long-Term Budgetary Pressures and Policy Options*에서는 2070년까지 전망
 - 이후 2015년까지 격년 또는 연간 발간된 *Long-Term Budget Outlook*에서는 일정하지는 않으나 대략 70년 이상 기간을 전망
 - 2016년 이후 연간 발간되고 있는 *Long-Term Budget Outlook*에서는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분야의 일부⁷⁾에 한해 향후 75년을 전망하며 그 외 분야는 향후 30년 전망

- (중기전망과의 연계성) CBO의 장기재정전망의 첫 10년은 중기재정전망과 연계
 - 장기재정전망의 최초 10년은 CBO에서 수행하는 중기재정전망을 따르며, 이후 기간에 대해서 전망

- (전망 주체) CBO의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는 노동, 소득보장, 장기분석국(Labor, Income Security, and Long-Term Analysis Division)에서 주관

6) 미래의 적자 및 부채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자체적인 평가 후 전망 기간 축소

7) 사회보장분야의 수입과 지출, 메디케어의 수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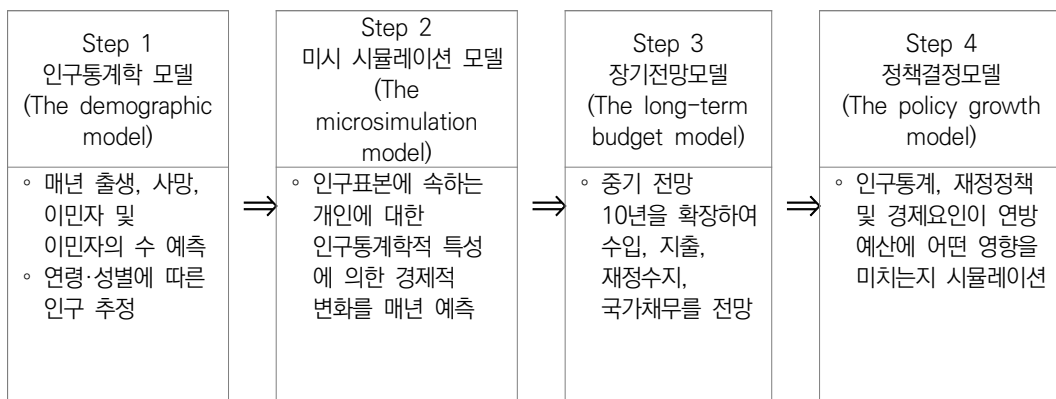
4 주요국의 장기재정전망과 국제비교

○ 주제에 따라 일부 내용은 거시경제분석국(Macroeconomic Analysis Division), 조세분석국(Tax Analysis Division) 등에서 작성

□ (전망 절차) CBO의 자체 장기재정전망 모형인 CBOLT(Congressional Budget Office's longterm model)를 이용해 각 항목 전망

○ (모형) CBO 장기재정전망 모형인 CBOLT(CBO's long-term model)을 이용하여 인구 및 거시경제전제,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국가채무 등을 추계

[그림 1-1] CBO 장기 전망 모형



출처: CBO, "An Overview of CBOLT: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Long-Term Model," 2018. 4. 저자 요약

4. 보고서의 구조

□ 전반적인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하고 주요 지출 분야별 전망, 재정수입 전망, 민감도 분석 및 재정건전화 정책 등으로 구성

- 1 개요
- 2 연방채무의 증가 및 증가의 결과
- 3 장기전망을 위한 인구 및 거시전제
- 4 2051년까지 정부지출
- 5 2051년까지 정부수입
- 6 경제적 요인 변화에 따른 민감도분석
- 7 CBO 장기재정전망의 불확실성
- 8 지난해 장기재정전망과의 비교

부록 1 CBO의 인구 및 경제동향 예측

부록 2 2020년 9월 이후 CBO의 장기재정전망 변경

부록 3 CBO 전망의 가정과 전망방법

출처: C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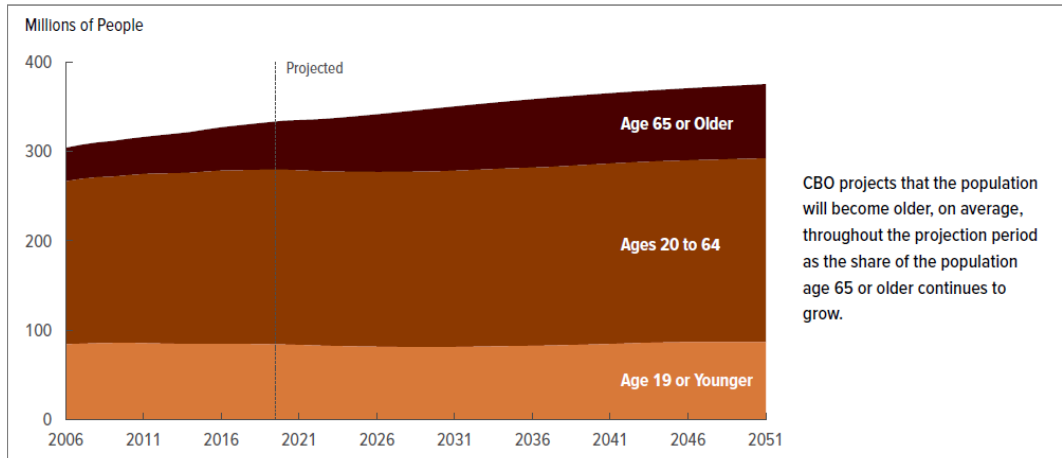
5. 전망전제

- 2021년부터 2031년까지의 CBO 10년 예측은 장기전망의 주요 전제가 되며 특히 이번 전망에서는 전염병의 단기적 영향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CBO의 평가를 반영함
 - 이번 보고서에서는 전염병 발발 이후 대응 법률과 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추정치를 포함하고 CBO는 이 법안이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악화를 부분적으로 상쇄할 것이라 예측
- (인구전제) 2031년까지 인구통계학적 전망은 CBO의 10년 중기전망의 기준시나리오 가정과 동일하며, 그 이후 20년 동안에는 장기 추세에 대한 CBO의 평가에 따라 인구전제 가정 및 전망
 - (인구수) 2021년 3억 3,500만 명에서 2051년 3억 7,5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0.4%씩 증가하고, 이는 지난 50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0.9%보다 낮은 수준임
 - (65세 이상 인구) 65세 이상인구 비중은 향후 수십년 동안 확대되며 현재 미국 인구의 17%가 65세 이상 인구인 반면, 2050년에는 현재 인구의 22%가 65세 이상이 될 것

6 주요국의 장기재정전망과 국제비교

[그림 1-2] 연령대별 인구 전망

(단위: 백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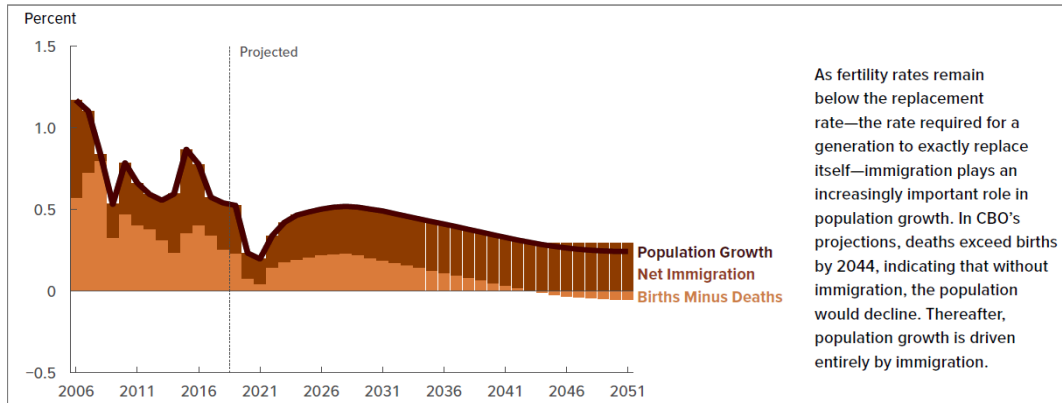


출처: C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 3., p. 15.

- (합계출산율) 2020년 여성 1인당 1.71명에서 2021년 1.61명으로 감소하나 2029년까지 1.85명으로 증가하여 2051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함
- (순이민율) 전망 기간의 첫 10년 동안은 평균 90만명에서 전망 기간의 세 번째 10년 동안은 평균 110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측
 - CBO의 순이민 전망은 작년부터 거의 변동이 없음
- (기대여명) 2021년부터 2031년까지 평균 79.1세에서 2042년부터 2051년까지 평균 81.7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65세 이상 인구의 기대수명) 2021년부터 2031년까지 평균 19.8세에서 세 번째 10년 평균 21.3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CBO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작년보다는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 예측
- 향후 10년 동안 이민은 전체 인구 증가의 약 60%를 차지하고 출산 및 사망률의 순기여는 나머지 40%를 차지하여 출산율이 대체율을 밑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민은 미국 전체 인구증가에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될 것
 - CBO는 2044년까지 사망자는 출생자를 초과하여, 이민자가 없으면 인구가 감소할 것이고 그 이후 증가는 전적으로 이민자 수 증가에 기인할 것으로 예측

[그림 1-3]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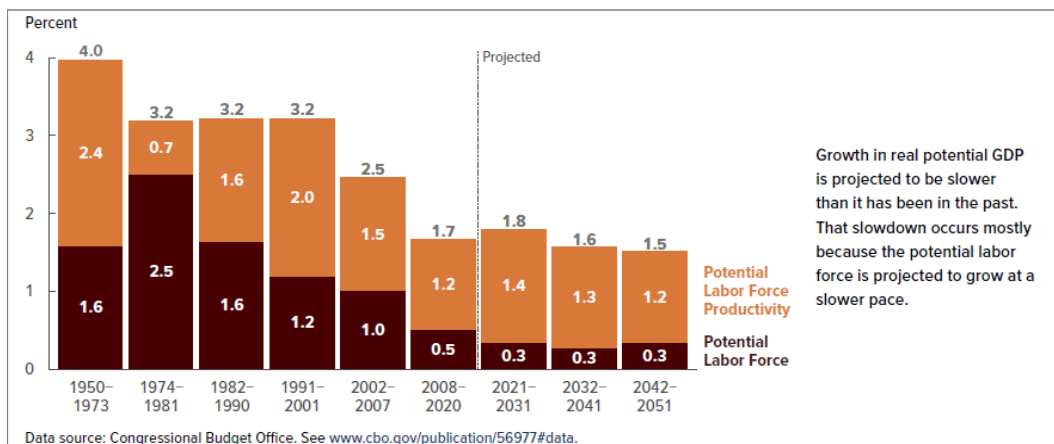


출처: C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 3., p. 15.

- (거시전제) 2031년까지의 거시전제 가정은 CBO의 10년 중기전망의 기준시나리오 가정과 동일하며, 이후 20년 동안에는 장기 추세에 대한 CBO의 평가에 따라 거시전제 가정 및 전망
- (잠재 GDP) CBO의 확장된 기준선 예측에서 향후 30년 동안의 잠재 GDP 성장은 지난 70년 동안보다 느릴 것으로 전망
 - 2021년부터 2051년까지 실질 잠재 GDP는 연평균 1.6% 증가하는 반면, 1951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평균 3.1%의 성장률이었음

[그림 1-4] 잠재 GDP 연평균 증가율

(단위: %)



Data sourc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See www.cbo.gov/publication/56977#data.

출처: C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 3., p. 16.

- (실질 GDP) 향후 30년간 연평균 1.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 30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보다 약 0.5%p 느린 수준
- (노동력, Size of the Labor Force) 30년 시계열의 상반기에 하락세가 지속되다가 하반기에 안정화 및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며, 2021년부터 2051년까지 연평균 0.4%의 비율로 16세 이상 인구성장률보다 훨씬 더 느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
 - 2020년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 및 노동시장의 회복이 예측보다 빠르게 적극적으로 돌아섰고, 장기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한 영향을 재평가한 결과
- (비농업부문 총요소생산성, TFP) 전망 기간 동안 평균 1.1%로 전망
 - 이는 1950년 1.4%를 나타낸 이후의 연평균 성장률보다 0.3%p 더 느리고, 1990년 이후의 연평균 성장률보다 0.1%p 더 느린 예측치
- (이자율, Interest rate) 금리는 전망 기간 내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나 과거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10년 만기 채권에 대한 실질 이자율) CBO의 현재 전망치인 2021~2050년 실질 금리는 평균 작년 전망치와 거의 변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 2009년 이후 평균 이자인 0.7%를 유지하다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마이너스 금리를 나타낼 것이고, 이후 2031년에 이르러 1%로 회복 후 상승 및 유지하여 2051년 2.7%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
 - (10년 만기 재무부 채권 명목 금리) 2021년 1.1%에서 2031년 3.4%, 2051년 4.9%로 1995~2004년 평균(5.4%)보다 절반 가량 낮은 수준으로 예측
- (기후변화의 영향, Effects of Climate Change) 기후변화 조건이 변하는 대로 2051년까지 그대로 둘 경우 2051년 실질 GDP는 2021년부터 2051년까지 기후변화 조건이 변하지 않고 유지될 경우의 실질 GDP 수준보다 1% 낮을 것으로 예측
 - CBO는 2020년부터 기후변화에 의한 GDP 영향을 측정하고 장기재정전망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바 있으며, 현재는 그 과정 중
 - CBO는 기후변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GDP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Average Annual Values for Economic Variables That Underlie CBO's Extended Baseline Projections					
Percent	1991-2020	2021-2031	2032-2041	2042-2051	2021-2051
Growth of GDP					
Real GDP	2.3	2.2	1.6	1.5	1.8
Real potential GDP ^a	2.4	1.8	1.6	1.5	1.6
Potential labor force	0.9	0.3	0.3	0.3	0.3
Potential labor force productivity	1.5	1.4	1.3	1.2	1.3
Nominal GDP (Fiscal year)	4.3	4.2	3.6	3.5	3.8
Real GDP per person	1.3	1.7	1.1	1.2	1.4
Growth of the Labor Forc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65.2	61.6	60.3	60.1	60.7
Unemployment					
Unemployment rate	5.9	4.4	4.4	4.2	4.3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b	5.0	4.4	4.1	4.0	4.2
Growth of Average Hours Worked					
	*	*	*	*	*
Growth of Total Hours Worked					
Earnings as a Share of Compensation	81	81	80	79	80
Growth of Real Earnings per Worker	1.3	0.8	0.9	0.8	0.8
Share of Earnings Below the Taxable Maximum	84	83	82	81	82
Growth of Productivity					
Total factor productivity in the nonfarm business sector	1.2	1.1	1.1	1.1	1.1
Real GDP per hour worked	1.6	1.3	1.3	1.2	1.3
Inflation					
Growth of the CPI-U	2.3	2.3	2.2	2.2	2.3
Growth of the GDP price index	1.9	2.1	2.0	2.0	2.0
Interest Rates					
Real rates					
On 10-year Treasury notes and the OASDI trust funds	2.0	*	1.6	2.3	1.3
Nominal rates					
On 10-year Treasury notes and the OASDI trust funds	4.3	2.4	3.8	4.6	3.5
On all federal debt held by the public ^c	4.6	1.5	3.2	4.1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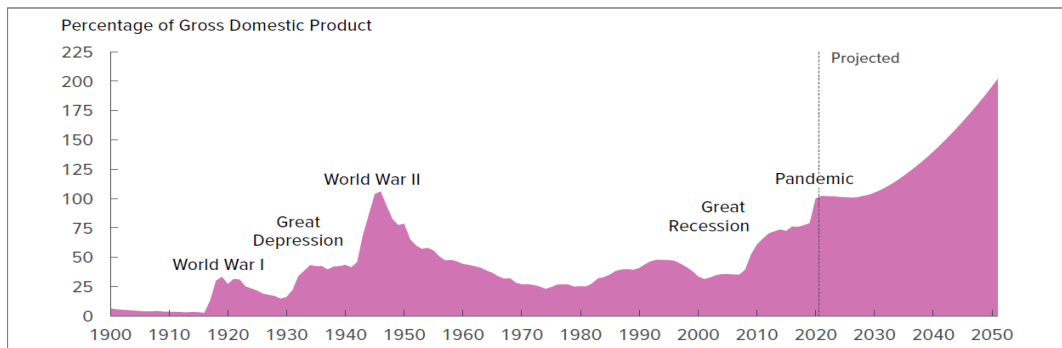
주: 1. CPI-U=도시 소비자 대상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for urban consumers)
출처: C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 3., p. 34.

6. 전망 결과

-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재정수입 및 주요 지출 분야, 재정수지, 기초재정수지, 연방정부 부채 등 전망 결과 제시
 - (재정수입) 매년 전망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입 포함 전체 재정수입으로 제시하며, 10년 단위로 재정수입 전망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급여세 (payroll taxes), 법인소득세, 기타수입으로 나누어 제시
 - (기타수입) 소비세, 유산세 및 증여세, 연방준비제도의 송금, 관세, 잡부금 등
 - (재정지출) 비이자지출과 이자지출로 나누어 제시되고 있으며, 비이자지출 항목은 사회보장, 메디케어 그 외 의료지출*, 기타지출**로 구성
 - * 메디케이드, 아동의료보험, 민간 건강보험 보조금
 - ** 재량지출, 공무원·군인연금, 실업급여, 푸드스탬프(SNAP), 생활보조금(SS) 등
 - 10년 단위 전망치의 경우 비이자지출 항목을 사회보장과 의료지출 등을 포함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여 제시
- (전망 결과) 2020년 1분기에 발생한 전염병 대유행으로 미국 경기가 빠르게 침체되어 관련 지출증가와 수입감소를 유발함에 따라 2019년 GDP 대비 79% 수준이었던 연방부채가 2020년 100%로 급증
 - (국가채무) 2021년 말까지 연방부채는 GDP 대비 102%로 추산되었고 2031년 107%에 도달할 것이며,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부채를 나타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51년 202%가 될 것이라 전망

[그림 1-5] 국가채무 전망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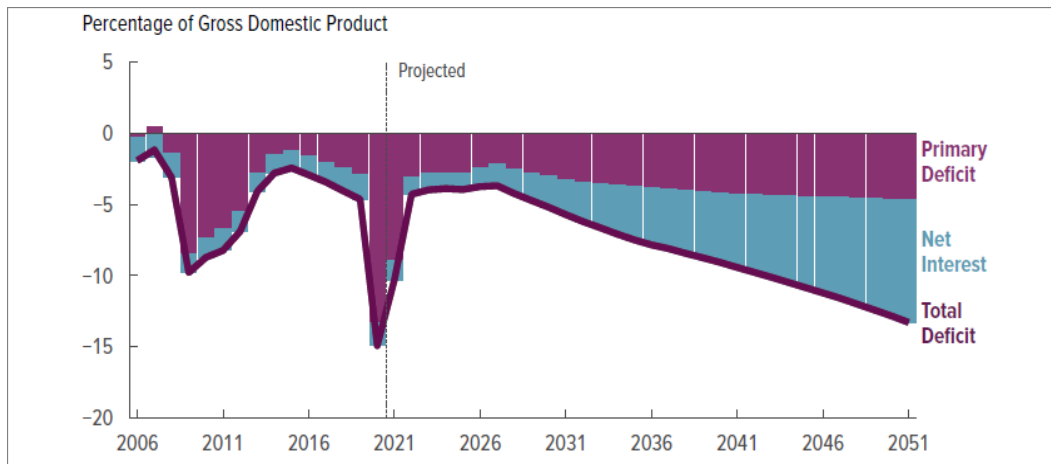


출처: C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 3., p. 1.

- (재정수지) 2021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10.3%로 추산되고 이는 1945년 이후 두 번째로 큰 적자이나, 2020~2021년 전염병의 영향이 감소함에 따라 적자가 감소하여 2030년 5.2%를 차지함
 - 2031년 이후 의무지출, 특히 주요 의료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과 연방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이 세입보다 더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적자가 계속 증가하여 2031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5.7% 이후 2051년 13.3%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

[그림 1-6] 재정수지 전망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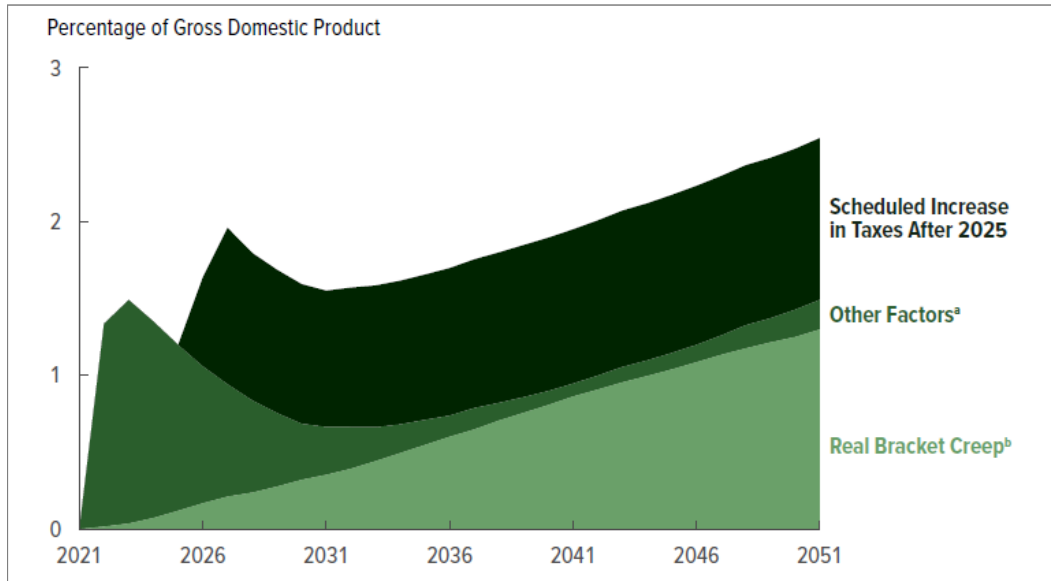


출처: C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 3., pp. 1~2.

- (수입) 2020년 GDP 대비 16.3%에서 2021년 16.0%로 감소한 후 2025년 17.2%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이후 개인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2017년 세법 일부 조항의 만료로 인한 세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2025년 이후 세입이 증가하여 2027년 총수입은 GDP 대비 17.9%에 이를 것
 - 개인소득세 수입은 2021년부터 2051년까지 GDP대비 총수입의 2.5%p 상승함
 - 법인소득세 수입은 전망 기간 동안 GDP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급여세 및 기타 원천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
 - 2028년부터 2031년까지 수입은 GDP보다 느리게 성장하고 2031년 이후 다시 GDP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2051년 GDP 대비 18.5%를 차지

[그림 1-7] 개인소득세 증가 요인

(단위: GDP 대비 %)



- 주: 1. 기타 요인(other factors): 2020년과 2021년에 수입을 감소시키는 전염병에 대응하여 제정된 임시 세금 조항뿐만 아니라 임금 분포 변화 및 의료 비용 상승으로 인한 비과세 보상 증가 등과 같은 장기간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함
 2. 실질과표구간 상승(real bracket creep): 소득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빨리 증가함에 따라 소득의 많은 부분이 더 높은 세율을 받게 되는 과정

출처: C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 3., p. 25.

[그림 1-8] 분야별 수입 전망

(단위: GDP 대비 %)



출처: C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 3., p. 19.

○ (지출) 총지출은 2021년 GDP 대비 26.3%에서 2031년 23.2%로 점차 감소하고 이후 2051년 31.8%로 증가하는데, 이는 경제규모 확장과 이자비용의 증가로 부터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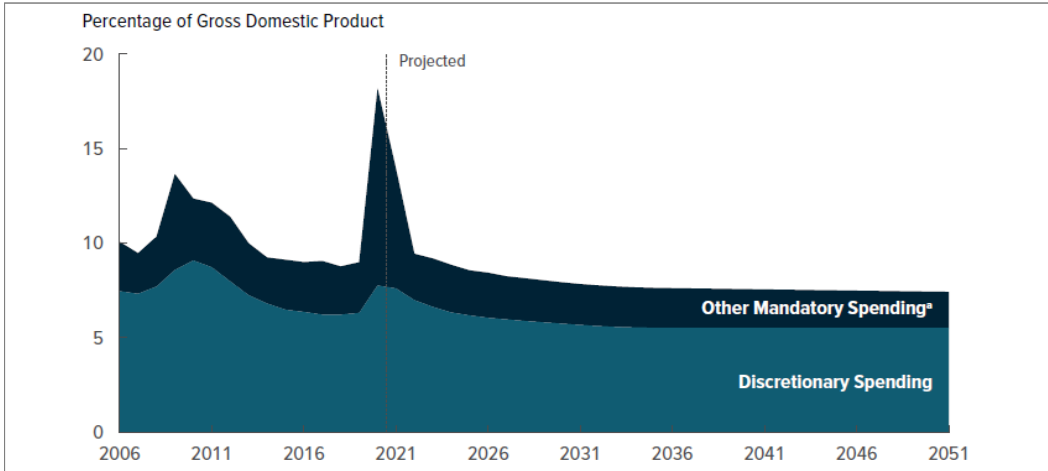
- (비이자지출) 이자지출을 제외한 비이자지출은 2021년 GDP 대비 24.9% → 2031년 20.8% → 2051년 23.1%로 전망

- (사회보장) 지난 50년의 증가 추세와 다르지 않으며, 사회보장 수급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출액은 2021년 GDP 대비 5.2%에서 2051년 6.3%로 증가
* 추정 수급자 수 2021년 약 6,600만명 → 2051년 약 9,700만명
- (주요 의료 프로그램) 해당 분야 지출은 지난 50년간의 경제성장률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할 것이며 2021년 GDP 대비 5.8% 수준이었던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여 2050년 GDP 대비 9.4%로 지출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
- (기타 의무지출) 2019년 GDP 대비 2.7%를 기록했던 의무지출 비중은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2020년 GDP 대비 10.4%에 달하고 이후 전염병 관련 경기침체 대응 재정정책으로 인해 2021년 6.3%를 기록, 2031년 2.2%, 2051년 1.9%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재량지출) 지난 반 세기 동안 재량 지출은 1970년 GDP 대비 11.5%에서 2019년 6.3%로 감소했으나 전염병 대응정책으로 인해 2020년 7.8%로 증가하고 이후 2021년 7.6%, 2031년 5.7%로 꾸준히 감소
- ① 2021년까지 대부분의 재량지출은 2019년 「초당적 예산법」(Bipartisan Budget Act of 2019, P.L. 116- 37)⁸⁾에 명시되어 있는 연간 재량지출 상한선으로 제한됨
- ② 2031년부터 이후 5년 동안 재량지출은 인플레이션 비율에 따라 증가하던 것에서 명목 GDP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2036년부터 2051년까지 GDP 대비 5.5%로 일정하게 유지

8) 2개년 동안의 예산방향을 설정한 법으로 「예산통제법(BCA4) of 2011」상의 강제 삭감 기간과 지출 한도의 수정 및 국가채무 한도 유예 규정 등을 포함

[그림 1-9] 비이자지출(의무 및 재량) 전망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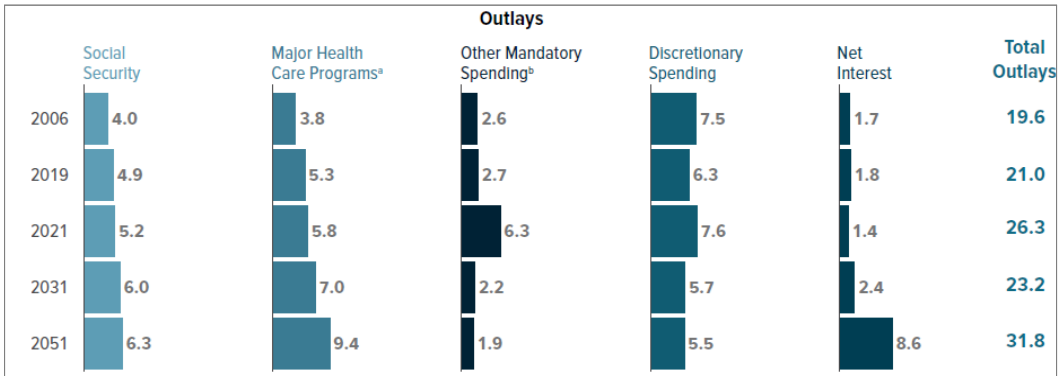


출처: C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 3., p. 23.

- (이자지출) 지속적인 저금리와 GDP 상승으로 인해 순이자 비용이 2021년 GDP 대비 1.4%에서 2024년 1.1%로 감소하나, 이러한 비용은 연방 부채가 증가하고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2031년까지 2.4%, 2051년 8.6%까지 증가
 - 순이자 비용이 전망대로 증가한다면 2030년 기타 의무지출 수준을 초과하고 2043년 모든 재량지출 수준을 초과, 2045년 사회보장 지출 수준을 초과하게 될 것

[그림 1-10] 분야별 지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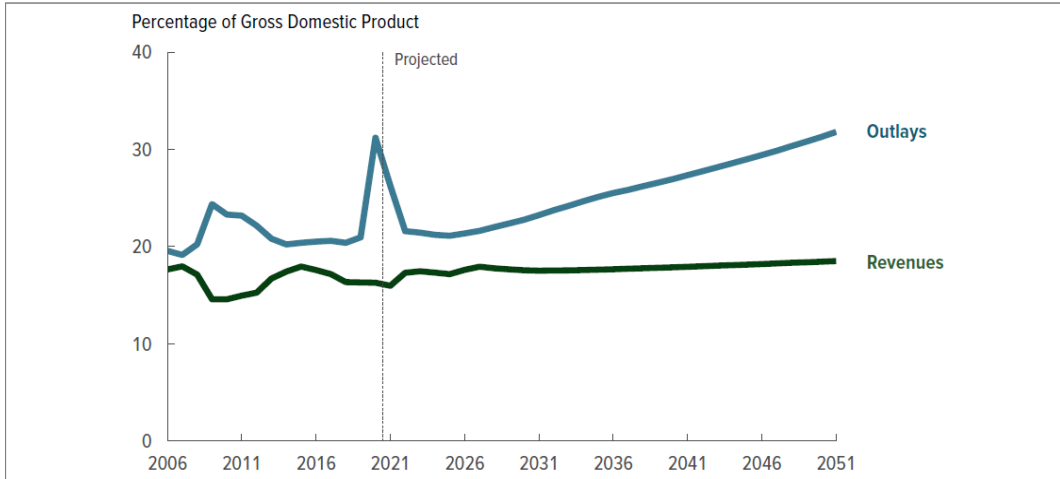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출처: C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 3., p. 19.

[그림 1-11] 수입과 지출 전망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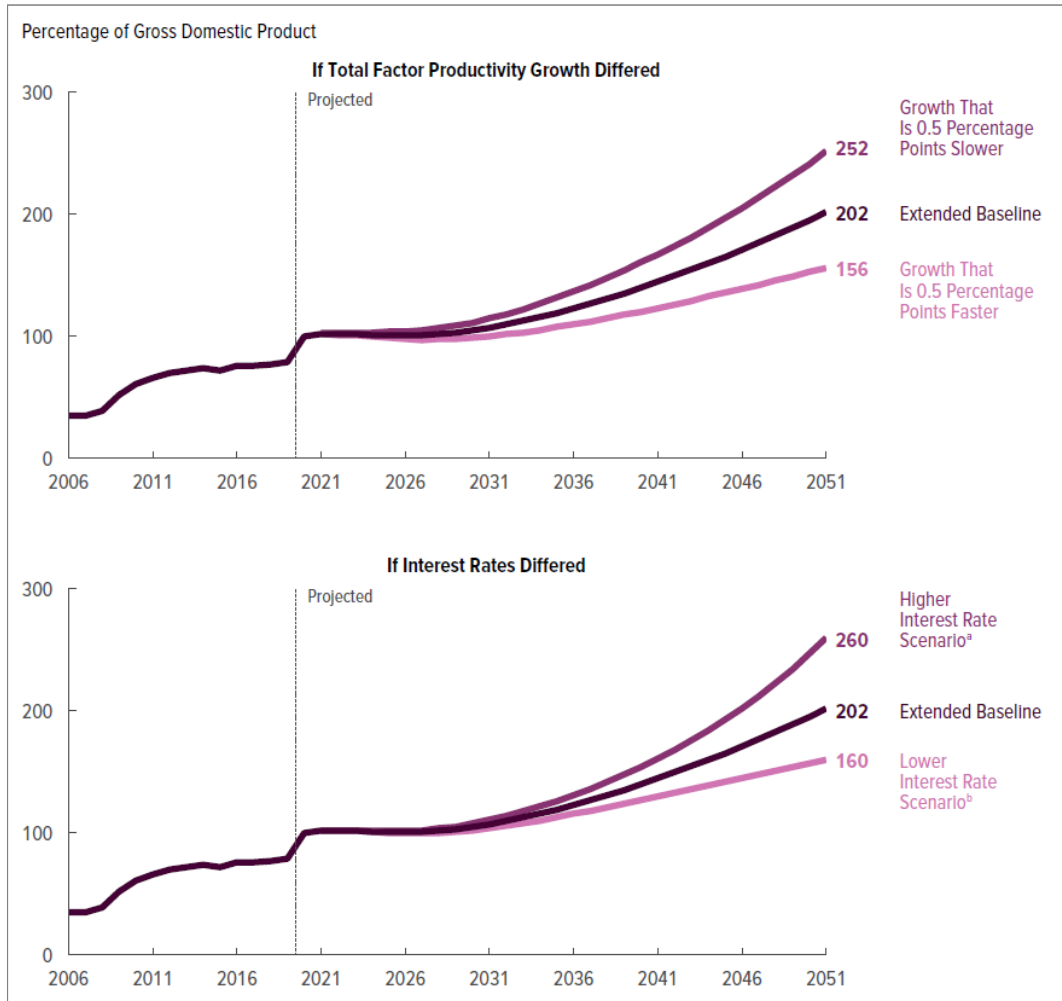
출처: C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 3., p. 2.

7. 민감도 분석

- (민감도 분석) 총요소생산성과 이자율의 가정을 다르게 적용하여 연방부채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함
 - (총요소생산성) 거시전제인 2021년부터 2031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GDP 대비 1%에 $\pm 0.5\text{p}$ 만큼 변화하도록 설정
 - (10년 평균 GDP 대비 1.0%-0.5%p): 연방부채 (2021년) 102% \rightarrow (2051년) 252%
 - (10년 평균 GDP 대비 1.0%+0.5%p): 연방부채 (2021년) 102% \rightarrow (2051년) 156%
 - (이자율) 연방차입금리가 기준선 요율에 비해 $\pm 5\text{bp}$ 만큼 변화하도록 설정
 - (기준선 금리+5bp): 연방부채 (2021년) 102% \rightarrow (2051년) 260%
 - (기준선 금리-5bp): 연방부채 (2021년) 102% \rightarrow (2051년) 160%

[그림 1-12] 총요소생산성과 이자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

(단위: GDP 대비 %)



출처: C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 3., p. 27.

FY2022 Analytical Perspectives

- OMB는 매년 예산안 수립 시 현 정책 시나리오 유지와 예산안 반영 시나리오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지만 FY2022는 대통령 교체에 따라 축약된 분석을 실시
- FY2022 예산은 '더 나은 재건(Building back better)'이라는 예산기조로 국가 생산성 증대를 위한 투자, 조세 개편을 통한 적자개선을 목표로 함

1. 추진근거 및 추이

- (법적근거) 연방정부 예산안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예산회계법(1921년)」에서는 장기재정전망을 예산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 다만 장기에 있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재정 전망 수행
- (추진배경) 1996년 의회에 제출된 FY1997 예산안에서 최초로 2050년까지 장기재정 전망 시행
 - 당시 미국은 OBRA 93⁹⁾ 등 재정건전화 정책 시행으로 재정상황이 개선되는 추세에 있었으나,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와 은퇴 등으로 인한 사회보장지출 및 의료지출 증가를 재정의 장기 위험요인으로 인식
 - 이에 따라 상기 요인의 위험 정도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장기재정 전망 시행
- (추진추이) 1996년 최초 수행된 이래 현재까지 OMB의 장기재정전망은 매년 예산안 Analytical Perspectives의 한 부분으로 수록
 - FY1997에서 FY2010까지는 예산안(Analytical Perspectives)의 Stewardship 장(章)에서 장기재정전망(Long-Run Budget Projection)의 내용 수록

9)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3

- FY2011 이후부터 장기재정전망은 예산안(Analytical Perspectives)의 ‘*Long Term Budget Outlook*’이라는 별도의 장(章)으로 편성되어 수록

2. 전망의 범위와 분야

- (전망 범위) OMB의 장기재정전망은 자체 경제·인구 전망을 토대로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추계
- (전망 분야) 현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시나리오와 FY2022년 예산안을 반영하는 시나리오로 나누어 재정수입 및 지출, 순이자지출, 재정수지, 기초재정수지, 국가채무에 대해 전망
 - (현 정책 유지 시나리오) FY2022년 예산안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의 정책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전망
 - (재정수입) 세입을 포함하여 전체 재정수입(Total receipts) 전망
 - (재정지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
 - (의무지출) 의무지출은 다시 주요 복지지출인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의료 지출인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와 기타 의무지출로 구분
 - (재량지출) 재량지출은 국방분야와 비국방분야로 구분
 - (예산안 시나리오) 2031년까지는 FY2022년 예산안의 정책 추정치를 따르며, 이후 FY2022년 예산안 정책을 반영하여 전망
 - (재정수입) 세입을 포함하여 전체 재정수입(Total receipts) 전망
 - 2031년까지는 FY2022 예산안의 전망을 따르고, 이후 GDP 대비 수입 비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소득세 수입은 실제 Real bracket creep¹⁰⁾가 통합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하여 예측
 - (재정지출: 의무지출) 중기전망 이후 사회보장지출, 메디케어 등의 의무지출은 예산안의 중기전망과는 별도의 모형으로 추계
 - (사회보장지출) 예산안의 경제 및 인구 전망을 사용하여 사회보장 보험수리

10) Real bracket creep이란, 누진세제하에서 소득구간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물가상승에 의한 실질소득의 증가가 소득구간을 상향 이동시키고 그 결과 이로 인한 증세가 일어나는 것을 말함

국(Social Security Actuaries)에서 전망

- (메디케어) 2020 Medicare Trustees' Report의 수혜자 수 증가와 초과외료지출 성장률을 기반으로 전망
 - (메디케이드) 2031년 이후 수혜자 1인당 GDP 성장률보다 0.9%p 더 높은 속도로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재정지출: 재량지출) 인플레이션과 인구증가율에 속도 연계

3. 전망 기간, 거버넌스 및 절차

- (전망주기) 매년 예산안에 장기재정전망 결과 수록
- (전망 기간) FY1997예산안에서는 2050년까지 전망하였고 FY1999년부터 FY2017년까지는 70년 이상의 상이한 기간에 대해 전망하였으나, FY2018년 이후 25년의 기간에 대해서 전망
 - 사회보장(OASDI) 및 건강보험의 계리적 전망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75년의 기간에 대해서 전망
- (중기전망과의 연계성) 약 10년 전망까지는 예산안의 중기전망과 연계, 이후 전망은 장기모형으로 추계
 - 매년 예산안에 실리는 OMB의 중기 이후 장기재정전망은 OMB가 장기전망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별도의 모형으로 추계
- (전망주체) OMB의 예산심사국(Budget Review)에서 수행하나, 사회보장지출의 경우 사회보장 보험수리국에서 전망
 - 예산심사국은 예산조정 업무와 지출추계 등 대통령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기술적 업무를 담당
 - 사회보장 보험수리국은 예산안의 장기 경제 및 인구 전망을 사용하여 사회보장 지출 전망
- (전망절차) OMB 모형으로 전 분야 자체 추계

- 자체 인구 및 거시전망을 사용하여 장기재정전망 수행
 - 인구 및 노동력 증가율의 경우는 사회보장 재정보고서(Social Security Trustees' Report)의 중위가정을 이용하여 전망
- 수입, 지출 전 분야를 추계하며 지출추계를 이루는 사회보장지출*, 의료지출(Medicare, Medicaid 등) 등도 자체 추계
 - * 예산안의 장기 경제 및 인구 전망을 사용하여 사회보장 보험수리국에서 별도 전망
- 상기 과정을 거친 장기재정전망 결과는 연방정부 예산안 Analytical Perspectives 에 수록되며, 이는 OMB의 이름으로 발간

4. 보고서의 구조

- 현정책 시나리오 및 예산안 시나리오의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한 후 전망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민감도 분석 결과 제시
 - FY2022예산안에서는 정권 이양에 따라 재정상황 파악이 지체됨에 따라 민감도 분석에 대한 내용은 미포함이며 추후 공개 예정

참고 II-1 보고서 Analytical Perspectives FY2022 목차

- 1 도입
- 2 경제 및 예산안 분석(Economic and Budget Analyses)
 - 거시전제(Economic Assumptions and Overview)
 - 장기전망(Long-Term Budget Outlook)
 - 연방정부 차입과 부채(Federal Borrowing and Debt)
3. 연방정부 인력관리
4. 예산 개념과 예산 수립 과정
5. 예산수입
6. 특별 항목에 대한 설명
7. 기술적 예산 분석

출처: OMB, *Analytical Perspective 2022*, 2021.

5. 전망전제

- (전망전제) 인구 및 거시전제는 2021년부터 2031년까지 예산안의 중기전망과 동일한 전제를 사용하며 이후 기간은 가정을 통해 외생적으로 설정
 - (인구) 인구 및 노동력 증가율은 2020년 사회보장재정보고서(2020 Social Security Trustees' Report)의 중위가정을 확대하여 전망
 -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0.5%를 약간 웃돌던 수준에서 2046년 그 비율의 3/4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 (거시) 2021년부터 2031년까지는 <표 II-1>의 중기전망을 따르며 2031년 이후 중기전망의 마지막 연도(2031년)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
 - 인구증가세 둔화 및 65세 이상 인구 비중 증가로 노동공급증가율이 감소함에 따라 실질 GDP 성장률은 연간 2.5% 안팎으로 전망되며, 10년 예산 기간이 끝난 후 연평균 1.7%에서 1.8% 사이로 전망
 - 2032년부터 2031년 전망치가 일정하게 유지(CPI 물가상승률은 2.3%, 실업률은 3.8%, 10년 만기 재무부 채권 수익률은 2.8%, 91일 만기 재무부 어음 금리는 2.2%)

<표 II-1> 중기 거시전제 전망

	Actual 2019	Projections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Gross Domestic Product (GDP)													
Levels, Dollar Amounts in Billions:													
Current Dollars	21,433	20,933	22,411	23,799	24,808	25,778	26,767	27,794	28,860	29,986	31,166	32,414	33,723
Real, Chained (2012) Dollars	19,092	18,423	19,375	20,200	20,652	21,039	21,418	21,803	22,196	22,609	23,039	23,491	23,961
Chained Price Index (2012=100), Annual Average ..	112	114	116	118	120	123	125	128	130	133	135	138	141
Percent Change, Fourth Quarter over Fourth Quarter:													
Current Dollars	4.0	-1.2	7.1	5.2	4.0	3.8	3.8	3.8	3.8	3.9	3.9	4.0	4.0
Real, Chained (2012) Dollars	2.3	-2.5	5.2	3.2	2.0	1.8	1.8	1.8	1.8	1.9	1.9	2.0	2.0
Chained Price Index (2012=100)	1.6	1.3	1.8	1.9	2.0	2.0	2.0	2.0	2.0	2.0	2.0	2.0	2.0
Incomes, Billions of Current Dollars													
Domestic Corporate Profits	1,745	1,616	1,529	1,725	1,795	1,861	1,880	1,854	1,828	1,825	1,849	1,900	1,955
Employee Compensation	11,432	11,489	12,247	12,907	13,416	13,909	14,435	15,018	15,642	16,305	17,002	17,730	18,491
Wages and Salaries	9,309	9,369	10,047	10,491	10,918	11,383	11,818	12,296	12,812	13,352	13,930	14,526	15,159
Nonwage Personal Income	5,413	5,409	5,324	5,522	5,806	6,096	6,436	6,747	7,094	7,371	7,650	7,984	8,265
Consumer Price Index (All Urban)³:													
Level (1982-1984 = 100), Annual Average	249	252	258	263	269	275	281	287	294	301	307	314	321
Percent Change, Fourth Quarter over Fourth Quarter	1.9	1.3	2.0	2.1	2.2	2.3	2.3	2.3	2.3	2.3	2.3	2.3	2.3
Unemployment Rate, Civilian, Percent													
Annual Average	3.7	8.1	5.5	4.1	3.8	3.8	3.8	3.8	3.8	3.8	3.8	3.8	3.8
Interest Rates, Percent													
91-Day Treasury Bills ²	2.1	0.4	0.1	0.2	0.4	0.8	1.2	1.5	1.6	1.7	1.8	2.1	2.3
10-Year Treasury Notes	2.1	0.9	1.2	1.4	1.7	2.1	2.4	2.6	2.7	2.8	2.8	2.8	2.8

주: 각 변수별 단위가 다르므로 표에서 직접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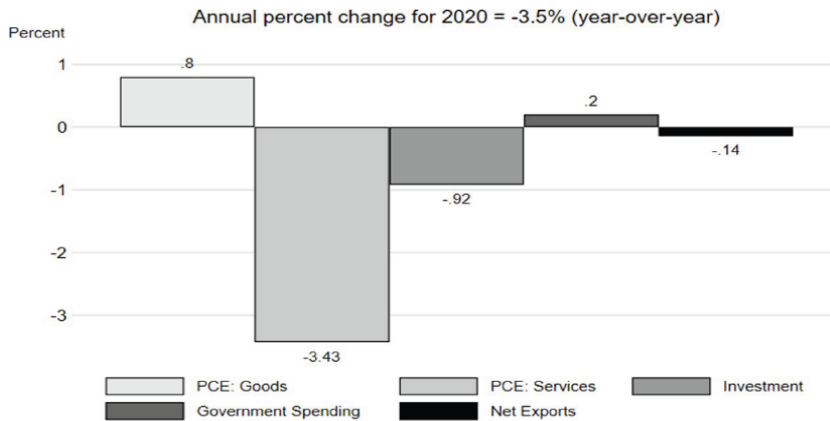
출처: OMB, *Analytical Perspective 2022*, 2021, p. 9.

참고 II-2 최근 미국 경제 현황

- FY2022 예산안에서는 전염병 확산 및 통제에 의한 당해 주요 경제지표 현황 파악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예산안까지 연도별로 제시했던 경제지표를 분기별로 제시하는 등 자세히 다루었으며, 보고서 작성 기준 비공개 실적치를 반영하는 등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반영
- GDP는 2020년 2/4분기 급락한 이후 4/4에 부분적으로 반등했으나 여전히 전염병 확산 이전 최고점보다는 낮은 수준
-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의한 영향으로 전반적인 소비와 활동이 제한됐던 서비스업과 소매업에서 가장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남

[참고 그림 1] 2020년 실질 GDP 변화에 대한 부문별 기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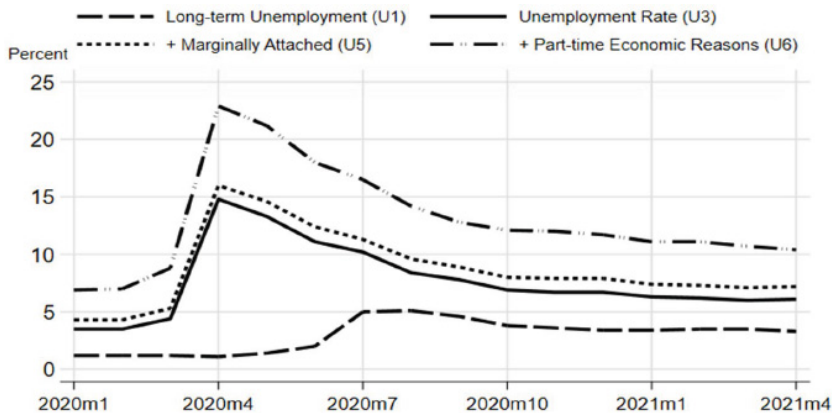


출처: OMB, *Analytical Perspective 2022*, 2021, p. 8.

- 2021년 초부터 고용주가 15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노동력 참여는 계속 증가

[참고 그림 2] 노동력 저활용 대체지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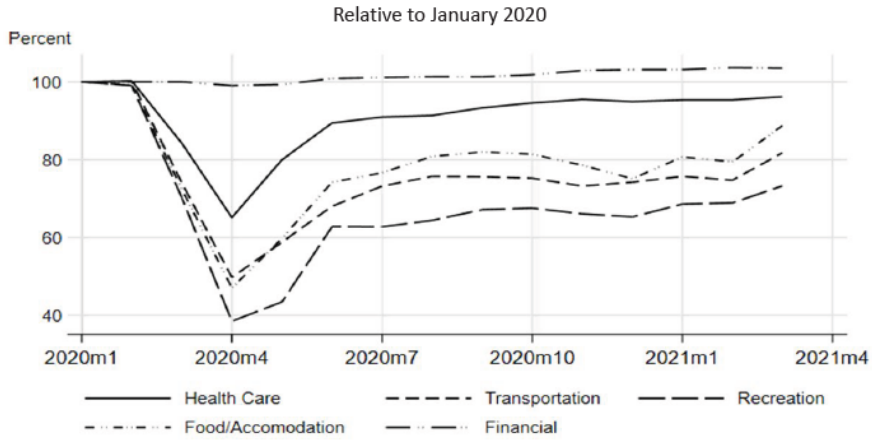


출처: OMB, *Analytical Perspective 2022*, 2021, p. 7.

- 「2021년 미국 구조 개혁법(the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통과 및 전염병 확산 통제의 상당한 진전으로 인해 미국경제 낙관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비심리 개선,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점차 회복되고 있음

[참고 그림 3] 2020년 1월 대비 부문별 CPI 추세

(단위: %)



출처: OMB, *Analytical Perspective 2022*, 2021, p. 8.

참고 II-3 다른 전망 기관과의 거시전제 차이

- 미국 재정전망을 실시하는 기관은 크게 CBO, OMB, 연방준비제도이사회(FOMC), 그리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및 민간부문 예측자들로 구성된 블루칩패널(the Blue Chip Panel)이 있음
- 전망 결과는 거시전제의 전망방식에 따라 전망 끝 연도의 연방정부 부채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남
 - (방법 차이) 행정부는 현행법 유지 및 정책실행의 완전한 이행을 염두하고 거시경제를 예측하나, CBO는 현행법 유지만을 고려하고 정책실행은 고려하지 않음
 - 반면 FOMC과 블루칩은 어느 정도 정책을 포함시키지는 명확하지 않음
 - (발표일의 상이함) CBO는 1월에 가용가능데이터를 바탕으로 2월 발표, FOMC는 3월 중순 발표, 행정부는 5월, 블루칩은 2월 및 10월에 발표되어 실적치를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다름
 - 행정부의 예측이 확정된 이후 몇 달이 경과하는 동안 거시경제와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결과는 대부분 긍정적이었으며 소비자 지출이 이전의 예상을 앞질렀고, 의회는 미국 구조 계획을 통과시켰으며, 1억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백신 접종을 받았음
-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네 기관은 모두 지속적인 경제회복과 노동 시장의 개선을 예상했으며, Fed의 정책 금리 인상 시기를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까지 연기하는 환경 설정도 동일함

〈참고 표 2〉 기관별 거시전제 전망 비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Real GDP (Year-over-Year):												
2022 Budget	-3.5	5.2	4.3	2.2	1.9	1.8	1.8	1.8	1.9	1.9	2.0	2.0
CBO	-3.4	4.6	2.9	2.2	2.3	2.3	1.9	1.6	1.6	1.6	1.5	1.6
Blue Chip ²		4.9	3.8	2.3	2.4	2.0	2.0	1.9	1.9	1.9	1.9	1.9
Real GDP (Fourth-Quarter-over-Fourth-Quarter):												
2022 Budget	-2.5	5.2	3.2	2.0	1.8	1.8	1.8	1.8	1.9	1.9	2.0	2.0
Federal Reserve ³	-2.4	4.2	3.2	2.4	1.8	1.8	1.8	1.8	1.8	1.8	1.8	1.8
Consumer Price Index (CPI-U) (Fourth-Quarter-over-Fourth-Quarter):												
2022 Budget	1.3	2.0	2.1	2.2	2.3	2.3	2.3	2.3	2.3	2.3	2.3	2.3
CBO	1.1	1.9	2.2	2.3	2.3	2.4	2.4	2.5	2.5	2.4	2.4	2.3
Blue Chip ^{2,4}		2.3	2.1	2.2	2.2	2.2	2.2	2.2	2.2	2.2	2.2	2.2
Federal Reserve, PCE ^{3,5}	1.2	1.8	1.9	2.0	2.0	2.0	2.0	2.0	2.0	2.0	2.0	2.0
Unemployment Rate: (annual averages)												
2022 Budget	8.1	5.5	4.1	3.8	3.8	3.8	3.8	3.8	3.8	3.8	3.8	3.8
CBO	8.1	5.7	5.0	4.7	4.4	4.1	3.9	3.9	4.0	4.1	4.3	4.3
Blue Chip ²		5.8	4.7	4.8	4.5	4.3	4.4	4.3	4.3	4.3	4.3	4.3
Federal Reserve ^{3,6}	6.7	5.0	4.2	3.7	4.1	4.1	4.1	4.1	4.1	4.1	4.1	4.1
Interest Rates:												
91-Day Treasury Bills (discount basis):												
2022 Budget	0.4	0.1	0.2	0.4	0.8	1.2	1.5	1.6	1.7	1.8	2.1	2.3
CBO	0.4	0.1	0.1	0.2	0.3	0.6	1.0	1.4	1.6	1.9	2.2	2.3
Blue Chip ²		0.1	0.2	0.6	0.9	1.1	1.3	1.7	1.7	1.7	1.7	1.7
10-Year Treasury Notes												
2022 Budget	0.9	1.2	1.4	1.7	2.1	2.4	2.6	2.7	2.8	2.8	2.8	2.8
CBO	0.9	1.1	1.3	1.5	1.8	2.1	2.5	2.7	3.0	3.2	3.3	3.4
Blue Chip ²		1.2	1.6	1.7	2.0	2.2	2.3	2.5	2.5	2.5	2.5	2.5

Sources: Administration;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1 to 2031, February 2021; October 2020 and February 2021 Blue Chip Economic Indicators, Aspen Publishers, Inc.; Federal Reserve Open Market Committee, December 16, 2020

¹ Calendar Year

² 2028-2031 are 5 year averages; 2023-2031 values derived from October 2020 report

³ Median Projection

⁴ Year-over-Year

⁵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⁶ Average rate during 4th quarter

출처: OMB, *Analytical Perspective 2022*, 2021, p.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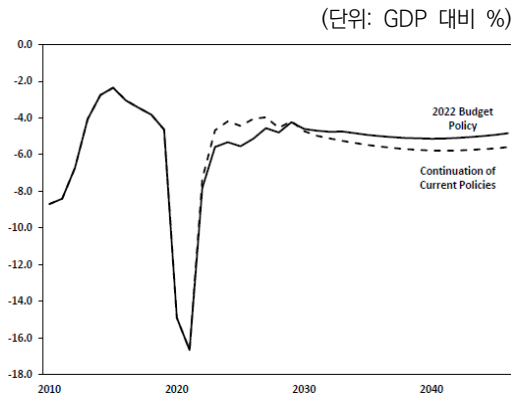
6. 전망 결과

-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재정수입 및 주요 지출 분야, 재정수지, 기초재정수지, 연방정부 부채 등 전망 결과를 현 정책 시나리오와 예산안 시나리오로 나누어 제시
 - (재정수입) 세입 포함 전체 재정수입으로 제시
 - (재정지출) 이자지출과 비이자지출인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누어 제시
 - (특이사항) FY2022 예산안에서는 단년도 재량지출만이 포함된 10년 중기전망만을 담고 있으며 재량·의무를 포함한 총량 전망은 추후 공개될 예정
 - FY2022 예산안이 행정부의 재정정책의 세부사항이 확정되기 전 공식화됨에 따라 매우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
 - 이 외 트럼프행정부로부터 예산교서(豫算敎書, budget message)를 늦게 전달 받아 재정상황 파악이 늦어지고 바이든의 공약에 따른 정책실행 일정이 지연되는 등 FY2022 예산안에서 장기전망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안보다는 매우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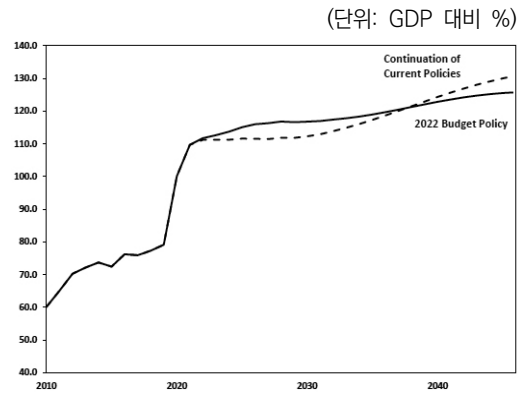
- (전망 결과) FY2022 예산안에 담긴 행정부의 인프라계획(AJP)과 가족계획(AFP)에 의한 수입 및 지출 증가는 장기적으로 절감효과를 창출하면서 15년 안에 상쇄될 것으로 예측
 - (재정수지) FY2022 예산안 정책의 초기 투자는 단기적으로 더 큰 적자에 기여하지만 그 추세는 역전되고 장기적으로 재정수지를 개선
 - (현행 유지 시나리오) GDP 대비 16.7%('21) → 4.4%('25) → 5.0%('31) → 5.7% ('46)
 - (예산안 시나리오)¹¹⁾ GDP 대비 16.7%('21) → 5.5%('25) → 4.7%('31)
 - (국가채무) FY2022 예산안의 정책은 2031년과 2046년 사이 부채 증가율을 매년 GDP 대비 0.6%p 미만으로 줄였고, 이는 현 정책 시나리오에 비해 부채 증가를 상당히 완화시킴
 - (현행 유지 시나리오) GDP 대비 109.7%('21) → 117.0%('31) → 130.8%('46)
 - (예산안 시나리오) 구체적인 수치 미공개, 추후 공개

11) OMB, "FY2022 Budge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able S-2. Effect of Budget Proposals on Projected Deficits, 2021, p. 38.

[그림 11-1] OMB 재정수지 전망



[그림 11-2] OMB 국가채무 전망



출처: OMB, *Analytical Perspective 2022*, 2021, p. 18. 출처: OMB, *Analytical Perspective 2022*, 2021, p. 19.

참고 11-4 FY2022 예산안의 주요 재정정책

- 바이든 대통령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는 예산기조하에 3월 11일 American Rescue Plan(1.9조달러) 서명, 3월 31일 American Jobs Plan(2.25조달러) 발표, 4월 28일 American Family plan(1.8조달러) 발표
 - 그러나 관련 부양책의 미국 상·하원 입안, 수정 및 동의과정이 매우 지연되었고 American Jobs Plan의 경우 7월 상원, 11월 하원 통과
 - 따라서 FY2022 예산안 시나리오는 5월에 발표되었으나 관련 재정정책의 세부사항이 결정되기 전이므로, 초기 American Jobs Plan과 American Family plan만이 반영
- FY2022 예산안에 담겨 있는 초기 10년에 대한 재정규모 내용은 그대로 반영하되, 2032년부터 2046년도 장기전망에서는 재정정책 항목별로 각기 다른 전망 가정을 수립

〈참고 표 2〉 FY2022 예산안 재정정책 항목별 별도 가정(2032~2046년)

항목	가정
American Jobs Plan	· American Jobs Plan 투자에 대해 제안된 지출액은 예산계획을 넘어서 지속되지는 않음
American Family plan	· 높은 보수를 지불함으로써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의 임금은 GDP증가율로 증가 · 일정한 질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의 경우 인플레이션과 인구에 따라 증가
Made in America Tax Plan	· 세액공제 확대 계획 외에 세액 총당금은 GDP성장률로 증가한다고 가정 · 예산범위를 초과한 공제액은 각 지출항목별로 별도로 전망되며 재무부 조세분석국(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Tax Analysis, OTA)의 지침에 따라 지출경로를 다르게 설정
Paid Leave and Child Care Initiatives	· 유급 돌봄 및 의료 휴가 보장, 4세 이상 공립 어린이집(universal preschool) 설립 및 유아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15달러 이상의 소득 보장과 관련된 금액은 GDP 성장률에 따라 증가 가정

〈참고 표 2〉의 계속

항목	가정
Education Initiatives	· 커뮤니티칼리지 무상교육비용은 인구증가율과 등록금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증가
Nutrition Initiatives	·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th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의 적격성과 학교 급식 프로그램의 확대는 인구증가율과 인플레이션에 따라 증가
Family Coordinators at Veterans Affairs Medical Centers	· 보훈 의료센터 내 가족 코디네이터 관련 비용은 GDP 증가율로 증가
Investments in Maternal Health	· 산모증진건강에 대한 비용 지원은 2031년 만료 예정으로 이후 금액은 0으로 가정
Tax Investments	· American Rescue Plan(ARP)중 자녀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로 영구 확대하고, 자녀 및 부양 가족 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CDCTC), 아동세액공제도의 ARP 변경 연장 및 영구적 전액 환급에 관한 전망은 2041년까지 OTA에 의해 직접 추정 · 2032년부터 2041년까지 성장 패턴에 따라 2042~2046년 총당금이 증가하며 영구 CDCTC와 같은 비율로 증가 · 2031년 이후 GDP 성장률보다 평균 1.3%p 이상 초과비용이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프리미엄 세액공제의 ARP 영구적 확대 예상

출처: OMB, *Analytical Perspective 2022*, 2021, pp. 20~21, 저자 요약 및 재작성

The 2021 Ageing Report &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

■ EU 회원국 비교에 방점

1. 추진근거 및 추이

- (추진근거) EU의 안정·성장협약¹²⁾ 및 안정·수렴프로그램¹³⁾의 집행지침에 따라 회원국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위원회¹⁴⁾ 내 고령화워킹그룹(AWG)을 설치¹⁵⁾
 - 고령화워킹그룹은 EU 회원국의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해 양적 평가를 시행하고 고령화지출의 전망을 담당
 - 일찍이 경제정책위원회는 2001년 Stockholm European Council에서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의 필요성 강조
- (추진추이) *2021 Ageing Report* 보고서 시리즈는 2001년 이후 일곱 번째 장기 재정전망보고서이며 본 보고서는 약 3년 주기로 작성
 - 2001년 보고서에서는 연금, 의료, 장기요양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만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였으나 2003년 보고서부터 교육 및 실업급여에 대한 전망 추가
 - 2009년 보고서부터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계 결과를 발표하기 이전에 전망 전제 및 방법론에 대한 별도의 보고서를 발표

12) Stability and Growth Pact(SGP)

13) Stability and Convergence Programmes(SCPs)

14) Economic Policy Committee(EPC)

15) EU, <http://europa.eu/epc/working-group-ageing-populations-and-sustainability>, 검색일자: 2021. 11. 16.

〈표 III-1〉 EU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현황

발간연도	보고서 명
2001	Budgetary challenges posed by ageing populations
2003	The impact of ageing populations on public finances: overview of analysis carried out at EU level and proposals for a future work programme
2006	The impact of ageing on public expenditure: projections for the EU25 Member States on pensions, health care, long-term care, education and unemployment transfers
2008. 7.	The 2009 Ageing Report: Underlying Assumptions and Projection Methodologies
2009. 2.	2009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27 Member States
2009. 9.	Sustainability Report 2009
2011. 4.	The 2012 Ageing Report: Underlying Assumptions and Projection Methodologies
2012. 2.	The 2012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27 EU Member States
2012. 12.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2
2014. 11.	The 2015 Ageing Report: Underlying Assumptions and Projection Methodologies
2015. 2.	The 2015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28 EU Member States (2013-2060)
2016. 1.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5
2017. 1.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16
2017. 11.	The 2018 Ageing Report: Underlying Assumptions and Projection Methodologies
2018. 1.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17
2018. 5.	The 2018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28 EU Member States(2016-2070)
2019. 1.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8
2020. 1.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19
2020. 11.	The 2021 Ageing Report: Underlying Assumptions and Projection Methodologies
2021. 2.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
2021. 5.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2019-2070)

출처: 저자 작성

2. 전망의 범위와 분야

- (전망 범위) EU 27개 회원국 및 노르웨이의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기준 지출을 전망
 -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나 EU는 일반정부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하는 지출을 전망¹⁶⁾
 - 다만 중앙정부, 주정부 등으로 구분한 전망치는 미제공
 - 세입 전망은 2021 *Ageing Report*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간략히 언급
 - 세목별 전망 결과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며 재산세 수입과 연금과세 수입은 모형에 의해 별도로 전망하고, 그 외 수입은 GDP의 일정 비율 유지 가정

- (전망 분야)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교육 등 4개 지출 분야*를 전망
 - * 직전 2018년 보고서까지는 실업급여를 포함하였으나 엄밀하게는 고령화와 관련된 지출이 아니므로 이번 전망부터는 실업급여를 전망 분야에서 제외
 - 주로 회원국 간 비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분야별 세부 항목의 자세한 전망은 미실시

3. 전망 기간, 거버넌스 및 절차

- (전망 기간) 2021년 보고서의 전망 기간은 약 51년(2019~2070년)
 - 장래인구추계 및 거시전제 등 전망전제도 2019~2070년까지 전망

- (거버넌스) 유럽연합의 경제·재무이사회(ECOFIN Council)에 의해 설치된 경제정책위원회(이하 EPC) 및 실무작업반인 고령화워킹그룹(이하 AWG)에서 주관
 - EPC는 각 회원국,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및 유럽중앙은행의 각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며 대부분 경제부처의 고위관리자임
 - AWG는 EPC의 4개 작업반 중 하나로서 EU 회원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유

16) EU집행위원회, *Manual on Government Deficit and Debt - Implementation of ESA 2010*, 2016, p. 11.

럽중앙은행의 각 전문가 2명으로 구성

- 유럽연합통계청(이하 Eurostat)과 각 회원국 통계청, IMF, 세계은행, OECD 등 국제기구, 다른 유럽위원회(예: Social Protection Committee) 등과 협력

- EPC의 주도로 전망작업이 추진됨으로써 회원국에 통일된 전제 및 방법론에 근거한 장기재정전망이 가능

□ (전망절차) 각 분야별 전망 결과를 도출한 뒤, 이를 종합하여 회원국 및 EU 전체 장기재정전망을 발표

- (공통 전제) 인구전제는 각 회원국 통계청 및 Eurostat이 2020년 4월 발표한 'EUROPOP 2019'를 활용하였으며 거시전제 전망은 AWG에서 작업

- (분야별 전망) 연금은 EU 회원국이 자체 모형을 통한 전망 결과를 EPC에 제공, 연금 외 4개 분야는 AWG에서 공통모형을 사용하여 전망

- EPC와 AWG는 기타 위원회들(예: Social Protection Committee)과의 작업 및 조정 역할을 담당

- (전망 결과 종합) 분야별 전망 결과를 종합하여 회원국별 장기재정전망 결과 도출

- (전망 결과 발표) 보고서를 EU 집행위원회(EC) 및 AWG의 이름으로 발간

4. 보고서의 구조

□ 2권의 *The 2021 Ageing Report* 보고서 발간

- (제1권) *The 2021 Ageing Report: Underlying Assumptions and Projection Methodologies*에서는 전망전제 및 전망 방법론 기술

- (제2권)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2019-2070)*에서는 전망전제 요약 및 전망 결과(시나리오 분석 및 민감도 분석) 등을 정리

- 부록: statistical annex에서는 국가별로 장기재정 전망 결과를 정리

□ 고령화 보고서의 후속 보고서로 *Fiscal Sustainability Report*(이하 FSR)가 3년 주기로 발간되며, 발간 주기 사이에 업데이트 형태인 *Debt Sustainability Monitor*(이하 DSM) 보고서가 발간

- (FSR) EU 회원국의 부채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를 제시
- (DSM) FSR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부채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내용을 다루되 가장 최근 거시경제 전망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참고 III-1 보고서의 목차

The 2021 Ageing Report: Underlying Assumptions and Projection Methodologies

PART I. 전망전제 및 전망 방법론

1. 인구
2. 노동력 전망
3. 노동생산성과 잠재 GDP
4. 이자율
5. 민감도 테스트 및 대안 시나리오

PART II. 고령과 지출 항목: 커버리지, 전망 방법 및 데이터

1. 연금
2. 건강보험
3. 장기요양
4. 교육

PART III. 부록: 국가별 데이터

PART IV. 자료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28 EU Member States (2019-2070)

PART I. 인구 및 거시전제

1. 인구전제
2. 거시전제
3. 민감도 분석

PART II. 고령화 관련 지출

1. 연금
2. 건강보험
3. 장기요양
4. 교육

PART III. 부록: 항목별 회원국 간 비교

PART IV. 부록: 국가별 데이터

Debt Sustainability Report 2020

1. 소개
2. 단기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
3. 중기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
4.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
5.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 악화 및 완화 요소
6.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종합평가

부록: 회원국 간 비교, 국가별 데이터 등

출처: 각 보고서를 참고하여 목차 내용을 재작성

5. 전망전제

□ (인구전제) 각 회원국 통계청 및 Eurostat이 2020년 4월 발표한 2019년 기준 인구전제인 'EUROPOP 2019'를 활용

○ (총인구) EU 회원국의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이동 전망에 따라 총인구는 2019년 447백만명에서 2070년 424백만명으로 감소 전망

〈표 III-2〉 EU 총인구 전망

(단위: 백만명, %p)

Table I.1.2: Total population projections, 2019-2070

	Total population (annual average - millions)						% change 2019-70
	2019	2030	2040	2050	2060	2070	
BE	11.5	11.8	11.9	11.9	11.9	11.8	3.1
BG	7.0	6.4	6.0	5.6	5.3	5.0	-27.8
CZ	10.7	10.8	10.6	10.5	10.4	10.2	-4.4
DK	5.8	6.0	6.1	6.1	6.1	6.2	6.0
DE	83.1	83.4	83.2	82.6	81.8	81.7	-1.6
EE	1.3	1.3	1.3	1.3	1.2	1.2	-10.2
IE	4.9	5.5	5.9	6.2	6.4	6.5	31.7
EL	10.7	10.3	9.9	9.5	9.0	8.6	-19.8
ES	47.1	48.8	49.4	49.3	48.3	47.0	-0.2
FR	67.1	68.8	69.8	70.0	69.7	69.4	3.5
HR	4.1	3.8	3.6	3.4	3.2	3.0	-25.5
IT	60.3	59.9	59.3	58.0	55.9	53.9	-10.7
CY	0.9	1.0	1.0	1.0	1.1	1.1	24.7
LV	1.9	1.7	1.5	1.4	1.3	1.2	-38.4
LT	2.8	2.6	2.3	2.1	2.0	1.8	-34.8
LU	0.6	0.7	0.7	0.8	0.8	0.8	27.0
HU	9.8	9.6	9.4	9.3	9.1	8.9	-8.7
MT	0.5	0.6	0.6	0.7	0.7	0.7	41.4
NL	17.3	18.0	18.2	18.1	18.0	18.0	3.7
AT	8.9	9.2	9.3	9.3	9.3	9.2	4.1
PL	38.0	37.0	35.6	34.0	32.4	30.8	-18.8
PT	10.3	10.1	9.8	9.4	8.9	8.5	-17.7
RO	19.3	17.7	16.5	15.5	14.5	13.7	-29.4
SI	2.1	2.1	2.1	2.0	2.0	1.9	-7.3
SK	5.5	5.4	5.3	5.1	4.9	4.7	-13.6
FI	5.5	5.5	5.4	5.3	5.1	5.0	-8.9
SE	10.3	11.1	11.7	12.3	12.7	13.1	27.3
NO	5.3	5.8	6.1	6.4	6.6	6.7	25.6
EA	342	347	347	344	338	333	-2.7
EU	447	449	447	441	432	424	-5.2

Source: Eurostat, 2019-based population projections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2019-2070)*, 2021, p. 22.

○ (연령그룹별 인구 비중) 유소년인구는 다소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감소 추세를 보임

- (유소년인구) 2019년 20.3%에서 2070년 18.5%로 다소 감소
- (고령인구) 65세 이상 인구는 2019년 20.4%에서 2070년 30.3%로 증가하고, 80세 이상 인구는 2019년 5.9%에서 2070년 13.2%로 증가
- (생산가능인구) 2019년 59.3%에서 2070년 51.2%로 감소
- (원인) 고령인구 비율 증가는 1950~60년대에 대규모 코호트가 출생했으며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라 점차 이들이 고령인구 비율에 포함되기 때문
 - 출산율이 자연 대체율 이하로 유지되고 가임기 여성이 감소함에 따라 25~59세 그룹이 크게 감소
 - 또한 순이민인구 유입은 인구고령화 추세를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표 III-3〉 연령 그룹별 인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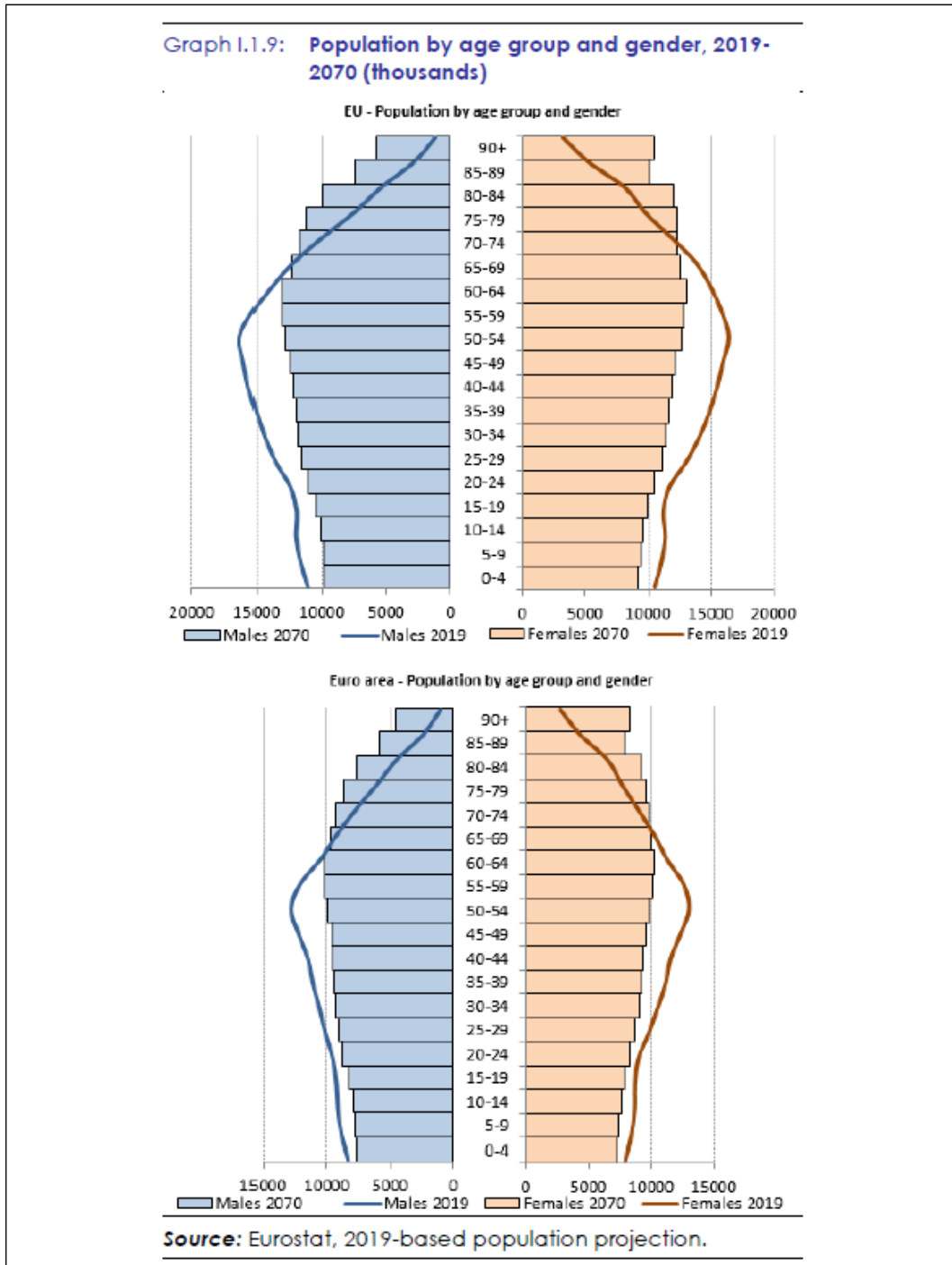
(단위: 전체 인구 대비 비율)

Table I.1.3: Breakdown of the population by age groups, 2019 and 2070

	2019				2070			
	(0-19)	(20-64)	(65+)	(80+)	(0-19)	(20-64)	(65+)	(80+)
BE	22.4%	58.6%	19.0%	5.7%	19.5%	52.5%	28.0%	11.7%
BG	18.9%	59.6%	21.5%	4.9%	18.2%	50.8%	30.9%	14.0%
CZ	20.4%	59.8%	19.8%	4.1%	20.0%	52.1%	27.9%	12.6%
DK	22.4%	57.9%	19.7%	4.6%	20.7%	51.6%	27.7%	10.9%
DE	18.4%	59.9%	21.7%	6.7%	19.5%	52.1%	28.4%	11.9%
EE	21.1%	59.0%	19.9%	5.7%	18.2%	51.3%	30.5%	13.9%
IE	26.9%	58.8%	14.3%	3.4%	20.6%	51.9%	27.5%	11.5%
EL	19.4%	58.4%	22.2%	7.2%	16.9%	50.3%	32.8%	15.2%
ES	19.7%	60.8%	19.5%	6.1%	16.8%	51.2%	32.0%	14.6%
FR	24.1%	55.6%	20.3%	6.2%	20.8%	50.5%	28.7%	12.6%
HR	19.3%	59.8%	20.8%	5.4%	16.7%	50.6%	32.7%	13.5%
IT	17.9%	59.1%	23.0%	7.3%	15.8%	50.8%	33.3%	14.5%
CY	21.6%	62.1%	16.2%	3.7%	19.4%	53.5%	27.1%	10.5%
LV	20.6%	59.0%	20.4%	5.7%	18.3%	50.0%	31.8%	14.9%
LT	19.9%	60.2%	19.8%	5.8%	17.3%	49.8%	32.9%	14.3%
LU	21.4%	64.2%	14.5%	4.0%	17.5%	52.9%	29.7%	12.3%
HU	19.6%	60.8%	19.6%	4.5%	18.7%	51.7%	29.6%	12.2%
MT	18.1%	63.1%	18.7%	4.3%	15.6%	52.0%	32.4%	13.2%
NL	21.8%	58.8%	19.3%	4.7%	19.7%	51.8%	28.6%	11.3%
AT	19.4%	61.7%	18.9%	5.2%	18.4%	52.3%	29.3%	12.2%
PL	20.1%	61.9%	17.9%	4.4%	15.9%	50.1%	34.0%	15.7%
PT	19.0%	59.0%	22.0%	6.5%	17.7%	49.2%	33.1%	14.7%
RO	21.0%	60.2%	18.7%	4.7%	17.8%	50.7%	31.5%	14.3%
SI	19.6%	60.4%	20.0%	5.4%	17.8%	51.8%	30.4%	13.8%
SK	20.6%	63.1%	16.3%	3.3%	18.1%	50.2%	31.7%	14.6%
FI	21.2%	56.7%	22.1%	5.6%	16.5%	51.4%	32.1%	13.4%
SE	23.3%	56.8%	20.0%	5.2%	20.9%	52.8%	26.3%	10.6%
NO	23.4%	59.2%	17.4%	4.3%	19.2%	53.0%	27.8%	10.9%
EA	20.3%	58.9%	20.8%	6.3%	18.6%	51.2%	30.2%	13.1%
EU	20.3%	59.3%	20.4%	5.9%	18.5%	51.2%	30.3%	13.2%

Source: Eurostat, 2019-based population projections.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2019-2070)*, 2021, p. 24.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2019-2070)*, 2021, p. 23.

- (합계출산율) 2019년 1.52명에서 증가세를 보이며 2070년 1.65명에 도달
- (기대수명) 남자의 경우 2019년 78.7세에서 2070년 86.1세로 7.4세 증가하고, 여자는 2019년 84.2세에서 2070년 90.3세로 6.1세 증가할 전망
- (순이민인구) 2019년 131.7만명에서 2070년 103.7만명으로 감소 전망

〈표 III-4〉 합계출산율, 기대수명, 순이민인구 전망

(단위: 명, 세, 천명)

	Projection exercise 2021 Ageing Report											
	Fertility rate (live births/woman)			Life expectancy at birth (y)						Net migration ('000)		
	2019	2070	change 2019-70	Males			Females			2019	2070	cum. change 2019-70 (1)
2019				2070	change 2019-70	2019	2070	change 2019-70				
BE	1.58	1.68	0.10	79.8	86.3	6.5	84.3	90.3	6.0	45.0	20.5	9.7%
BG	1.58	1.71	0.13	71.5	82.9	11.4	78.8	87.7	8.9	-3.9	10.0	2.9%
CZ	1.71	1.78	0.07	76.5	84.8	8.3	82.3	89.2	6.9	44.2	18.2	9.2%
DK	1.72	1.77	0.05	79.5	86.1	6.6	83.3	89.8	6.5	-1.6	11.0	9.9%
DE	1.53	1.67	0.13	79.1	86.0	6.9	83.7	89.9	6.2	277.4	214.2	14.9%
EE	1.51	1.70	0.18	74.9	84.3	9.4	83.4	89.9	6.5	6.6	2.6	8.7%
IE	1.78	1.81	0.02	81.1	86.8	5.7	84.8	90.4	5.6	32.7	10.5	18.0%
EL	1.34	1.54	0.20	79.0	86.4	7.4	84.3	90.3	6.0	13.7	26.0	8.7%
ES	1.27	1.49	0.22	81.2	87.1	5.9	86.8	91.4	4.6	438.5	169.0	21.3%
FR	1.85	1.84	-0.01	80.1	86.7	6.6	86.3	91.4	5.1	38.1	80.2	5.6%
HR	1.43	1.59	0.16	75.3	84.3	9.0	81.6	88.8	7.2	-3.8	6.0	1.7%
IT	1.31	1.52	0.21	81.3	87.0	5.7	85.7	90.9	5.2	134.7	206.6	18.3%
CY	1.33	1.53	0.20	80.8	86.6	5.8	85.1	90.2	5.1	7.8	2.3	18.3%
LV	1.58	1.71	0.13	70.6	82.6	12.0	80.2	88.5	8.3	-3.9	0.7	-10.1%
LT	1.61	1.70	0.09	71.3	82.9	11.6	81.1	88.8	7.7	10.1	2.6	-6.0%
LU	1.34	1.56	0.22	80.3	86.6	6.3	85.0	90.8	5.8	10.2	2.5	30.3%
HU	1.51	1.70	0.18	72.9	83.6	10.7	79.8	88.5	8.7	36.3	23.5	12.7%
MT	1.14	1.47	0.33	80.5	86.8	6.3	84.5	90.6	6.1	12.8	3.8	57.4%
NL	1.58	1.68	0.10	80.7	86.6	5.9	83.6	89.9	6.3	105.4	33.2	11.0%
AT	1.45	1.60	0.15	79.8	86.3	6.5	84.3	90.2	5.9	44.3	25.5	16.7%
PL	1.36	1.56	0.20	74.1	84.3	10.2	82.0	89.5	7.5	3.3	72.4	5.8%
PT	1.43	1.59	0.16	78.6	85.7	7.1	84.8	90.4	5.6	40.1	18.6	7.4%
RO	1.65	1.74	0.10	71.9	83.5	11.6	79.5	88.5	9.0	-73.5	21.0	-4.4%
SI	1.55	1.68	0.13	78.7	85.9	7.2	84.5	90.4	5.9	15.7	5.2	13.4%
SK	1.56	1.67	0.11	74.4	84.1	9.7	81.2	89.0	7.8	3.4	7.4	5.1%
FI	1.35	1.53	0.19	79.5	86.1	6.6	84.8	90.4	5.6	17.6	13.2	11.6%
SE	1.71	1.78	0.07	81.4	86.8	5.4	84.7	90.3	5.6	66.7	30.3	22.5%
NO	1.53	1.65	0.12	81.4	86.9	5.5	84.6	90.3	5.7	25.3	23.4	24.9%
EA	1.51	1.65	0.13	79.9	86.5	6.6	85.0	90.6	5.6	1,249.9	844.5	13.4%
EU	1.52	1.65	0.14	78.7	86.1	7.4	84.2	90.3	6.1	1,317.5	1,036.8	11.8%

(1) Cumulated net migration as % of total population in 2019 (EUROPOP2019).

(2) Cumulated difference as % of total population in 2019 (ESSPOP2015).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2019-2070)*, 2021, p. 26.

- (노년부양비) 2019년 34.4%에서 2070년 59.2%로 전망 기간 내 24.7%p 증가
- 65세 이상 인구 1명에 대해 생산가능인구 2.9명이 부양하는 것에서 1.7명이 부양하는 것으로 부담 확대

〈표 III-5〉 노년 부양비 전망

(단위: %)

Table I.1.4: Demographic dependency ratios, 2019-2070 (%)

	Old-age dependency ratio (65+/20-64)				Very-old-age dependency ratio (80+/20-64)				Total dependency ratio ((0-19 & 65+)/20-64)			
	2019	2045	2070	2019-2070 (pps change)	2019	2045	2070	2019-2070 (pps change)	2019	2045	2070	2019-2070 (pps change)
BE	32.5	47.7	53.3	20.8	9.7	17.8	22.2	12.5	70.8	84.8	90.5	19.8
BG	36.0	55.8	60.8	24.8	8.1	16.9	27.5	19.4	67.7	89.8	96.7	29.0
CZ	33.0	51.3	53.7	20.6	6.8	15.5	24.1	17.3	67.1	88.1	92.1	25.0
DK	34.1	48.2	53.8	19.7	8.0	17.2	21.1	13.2	72.7	88.3	94.0	21.3
DE	36.1	52.2	54.6	18.5	11.1	20.3	22.9	11.8	66.9	87.1	92.1	25.2
EE	33.8	49.5	59.4	25.6	9.7	17.5	27.0	17.3	69.5	83.3	94.9	25.4
IE	24.2	42.2	53.0	28.7	5.8	13.3	22.2	16.4	70.0	82.6	92.6	22.7
EL	37.9	64.0	65.2	27.3	12.2	22.7	30.3	18.0	71.1	96.3	98.7	27.6
ES	32.1	61.2	62.5	30.5	10.0	21.1	28.5	18.5	64.4	93.1	95.3	30.9
FR	36.5	53.1	56.9	20.4	11.1	20.8	25.0	13.9	79.8	95.1	98.1	18.3
HR	34.8	53.7	64.6	29.8	9.0	18.7	26.7	17.7	67.1	85.0	97.5	30.4
IT	38.9	65.4	65.6	26.7	12.3	23.7	28.5	16.2	69.2	95.8	96.8	27.6
CY	26.2	36.7	50.7	24.6	6.0	13.4	19.6	13.7	61.0	71.4	86.9	26.0
LV	34.6	57.4	63.6	29.0	9.7	20.6	29.9	20.2	69.5	92.0	100.2	30.7
LT	32.9	58.9	66.0	33.1	9.7	21.5	28.7	19.0	66.0	91.5	100.8	34.8
LU	22.6	41.6	56.1	33.6	6.2	13.4	23.3	17.1	55.9	72.9	89.2	33.4
HU	32.2	49.6	57.4	25.1	7.3	14.4	23.5	16.2	64.4	84.1	93.6	29.2
MT	29.7	39.3	62.4	32.7	6.8	13.7	25.4	18.7	58.5	65.7	92.3	33.9
NL	32.9	49.3	55.2	22.4	7.9	18.5	21.7	13.8	69.9	87.0	93.2	23.2
AT	30.7	49.5	55.9	25.2	8.4	18.1	23.3	14.9	62.1	82.8	91.1	29.0
PL	29.0	49.5	67.8	38.8	7.1	17.2	31.4	24.3	61.5	78.6	99.5	38.0
PT	37.3	65.9	67.3	30.0	11.0	23.4	30.0	19.0	69.4	100.7	103.3	33.9
RO	31.1	55.6	62.1	31.0	7.8	15.9	28.2	20.4	66.0	89.6	97.1	31.1
SI	33.2	55.9	58.8	25.5	8.9	19.8	26.7	17.8	65.7	88.9	93.2	27.5
SK	25.9	49.9	63.1	37.2	5.3	15.5	29.1	23.8	58.5	82.8	99.1	40.6
FI	38.9	49.9	62.5	23.6	9.8	19.8	26.1	16.2	76.4	81.7	94.7	18.3
SE	35.2	41.8	49.8	14.6	9.1	14.8	20.1	11.0	76.2	81.3	89.4	13.2
NO	29.4	42.6	52.4	23.0	7.2	14.7	20.6	13.4	69.0	78.8	88.6	19.6
EA	35.3	55.8	58.9	23.6	10.6	20.7	25.5	14.9	69.7	91.1	95.2	25.5
EU	34.4	54.6	59.2	24.7	9.9	19.7	25.7	15.8	68.8	89.4	95.3	26.5

Source: Commission services, Eurostat 2019-based population projections.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2019-2070)*, 2021, p. 24.

- (거시전제) GDP, 경제활동참가율 등 거시전제는 AWG에서 직접 전망을 담당
- (이자율, 물가상승률) 2030년까지는 각 회원국 선물 이자율에 수렴하고 2050년까지는 실질 이자율은 2%, 물가상승률은 2%, 명목 이자율은 4%에 수렴 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 최근 위원회의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직전 전망 전제* 대비 이자율 수준을 하락
 - * 실질 이자율 3%, 물가상승률 2%, 명목 이자율 5%를 전망 기간 내내 유지

○ (노동 관련 전망) 취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전망 결과에 따르면 EU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전망이 긍정적인 추세

- (취업률) 20~64세의 취업률은 2019년 73.1%에서 2070년 76.2%로 3.1%p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 20~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9년 78.2%에서 2070년 80.7%로 2.5%p 증가 전망
- (실업률) 15~64세의 실업률은 2019년 6.8%에서 2070년 5.8%로 1.0%p 감소

〈표 III-6〉 노동 관련 비율 전망

(단위: %, %p)

Projection exercise 2021															
	Employment rate						Participation rate						Unemployment rate		
	(20-64y)			(55-64y)			(20-64y)			(55-64y)			(15-64y)		
	2019	2070	pps. change	2019	2070	pps. change	2019	2070	pps. change	2019	2070	pps. change	2019	2070	pps. change
BE	70.6	70.9	0.3	52.4	60.8	8.5	74.5	75.7	1.1	54.6	64.0	9.4	5.4	6.4	1.0
BG	75.2	73.5	-1.7	64.5	64.5	0.0	78.5	77.5	-0.9	67.1	67.7	0.6	4.3	5.4	1.1
CZ	80.4	78.5	-1.9	67.1	68.3	1.3	82.0	81.3	-0.7	68.4	70.7	2.3	2.1	3.7	1.6
DK	78.4	80.9	2.5	71.9	79.7	7.8	82.3	83.7	1.4	74.4	81.7	7.3	5.1	3.6	-1.6
DE	80.6	80.7	0.2	72.6	73.4	0.7	83.2	84.2	1.0	74.6	76.0	1.4	3.2	4.2	1.0
EE	80.2	82.5	2.3	72.7	82.7	10.0	83.8	88.0	4.1	75.7	87.6	11.9	4.6	6.6	2.0
IE	75.1	75.2	0.1	61.8	64.3	2.5	78.8	80.4	1.6	64.1	67.7	3.6	5.1	7.0	1.9
EL	60.9	76.5	15.6	43.7	76.4	32.7	73.8	82.2	8.4	50.4	80.8	30.4	17.6	7.0	-10.6
ES	68.1	76.2	8.2	53.9	73.5	19.6	79.0	81.8	2.8	61.7	78.3	16.6	14.2	7.0	-7.2
FR	71.6	74.5	2.9	53.0	63.3	10.2	78.0	80.0	1.9	56.9	67.0	10.1	8.6	7.0	-1.6
HR	66.8	69.6	2.8	44.3	52.5	8.2	71.4	74.6	3.2	45.8	54.5	8.6	6.7	7.0	0.3
IT	63.6	69.8	6.2	54.4	73.2	18.8	70.5	74.9	4.4	57.5	75.9	18.4	10.2	7.0	-3.2
CY	75.1	80.1	5.0	61.2	75.4	14.2	80.9	85.9	4.9	65.3	80.1	14.8	7.5	7.0	-0.5
LV	77.6	77.4	-0.2	67.7	64.7	-3.0	82.9	83.0	0.1	72.5	69.4	-3.1	6.6	7.0	0.4
LT	78.3	80.4	2.2	68.7	69.1	0.4	83.6	86.4	2.8	73.8	74.5	0.7	6.5	7.0	0.5
LU	72.7	74.1	1.4	43.3	43.6	0.3	76.8	77.5	0.8	45.2	45.2	0.0	5.7	4.9	-0.9
HU	75.4	81.9	6.5	56.9	81.4	24.5	77.9	85.3	7.3	58.2	83.7	25.5	3.5	4.2	0.7
MT	77.3	82.7	5.5	51.5	67.5	16.0	79.7	86.0	6.4	52.3	69.2	16.8	3.4	4.4	1.0
NL	80.2	80.7	0.6	69.7	74.7	4.9	82.6	84.6	1.9	72.0	78.5	6.5	3.4	5.0	1.7
AT	76.8	79.5	2.7	54.6	62.1	7.5	80.3	82.9	2.6	56.5	63.9	7.4	4.6	4.3	-0.3
PL	73.3	72.1	-1.2	49.9	53.1	3.2	75.7	75.9	0.2	51.1	55.1	4.0	3.3	5.2	1.8
PT	76.2	80.4	4.2	60.4	73.8	13.3	81.4	85.7	4.3	64.5	78.4	14.0	6.7	6.4	-0.2
RO	71.0	72.7	1.7	47.9	55.7	7.8	73.7	76.0	2.2	49.0	57.2	8.2	4.0	4.8	0.7
SI	76.4	78.3	1.9	48.0	60.7	12.8	79.9	83.0	3.1	50.3	64.6	14.3	4.5	5.8	1.3
SK	73.6	71.3	-2.3	57.7	56.4	-1.3	78.0	76.4	-1.6	60.5	59.6	-0.9	5.8	7.0	1.2
FI	77.1	79.7	2.6	66.8	76.0	9.2	82.2	85.0	2.8	71.5	81.4	9.9	6.9	6.9	0.0
SE	82.1	83.0	0.8	77.9	76.0	-1.9	87.3	87.1	-0.3	81.7	78.9	-2.8	7.0	5.6	-1.4
NO	79.4	78.7	-0.7	72.8	69.2	-3.6	82.1	81.2	-0.9	73.9	70.3	-3.6	3.8	3.6	-0.2
EA	72.6	76.3	3.7	60.0	70.2	10.2	78.4	81.0	2.5	63.7	73.7	10.0	7.7	6.0	-1.7
EU	73.1	76.2	3.1	59.1	68.7	9.6	78.2	80.7	2.5	62.3	71.9	9.6	6.8	5.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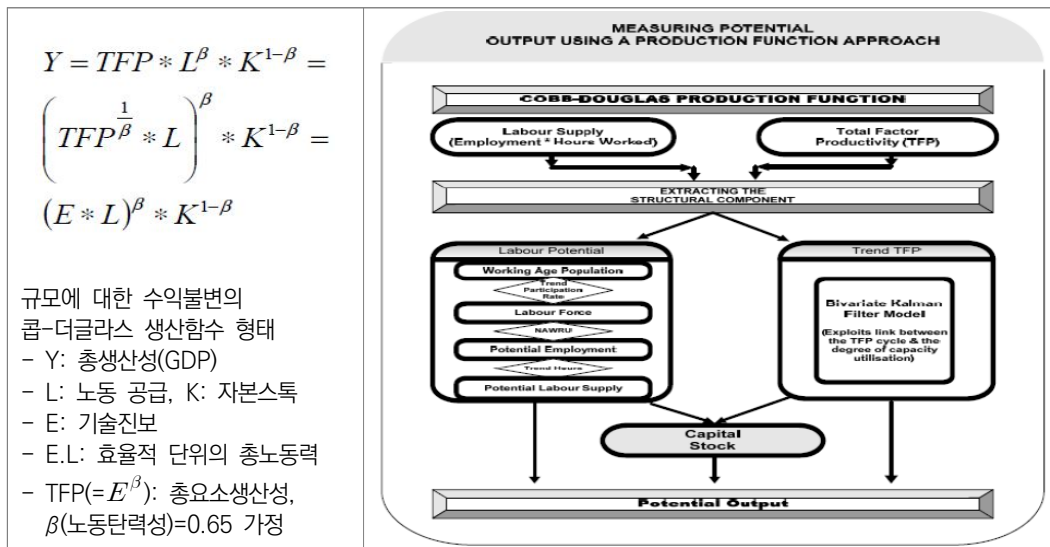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2019-2070)*, 2021, p. 45.

○ (잠재 GDP 성장률, potential GDP growth) 2019~2030년 평균 1.2%에서 증가하여 2061~2070년에는 1.4%에 도달

- (전망 방법) 생산함수접근법에 의해 총생산성(GDP)과 총요소생산성(TFP), 투입요소(L, K) 간의 구조적 관계를 이용하여 전망

- 총생산성의 경기 변동을 조정하기 위해 추세를 제거한 추세 총요소생산성 (Trend TFP)과 잠재적 노동 투입(실업률이 구조적 실업률(NAWRU)과 같아질 때의 총노동을 의미)을 사용

[그림 III-2] 생산함수 산식 및 생산함수접근법 개요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Underlying Assumptions and Projection Methodologies*, 2021, pp. 132~133.

Table I.3.1: Potential GDP annual growth rate - Period average (%)

	2019-2030	2031-2040	2041-2050	2051-2060	2061-2070	2019-2070	2019-2070 (TFP risk scenario)
BE	1.0	1.1	1.3	1.3	1.4	1.2	1.0
BG	1.3	1.2	1.1	1.1	1.3	1.2	0.9
CZ	2.0	1.6	1.3	1.5	1.7	1.6	1.3
DK	1.9	1.5	1.7	1.7	1.5	1.7	1.3
DE	0.9	1.1	1.4	1.3	1.5	1.2	1.0
EE	2.9	2.0	1.4	1.3	1.5	1.9	1.3
IE	2.4	1.8	1.6	1.6	1.6	1.8	1.4
EL	0.2	1.4	1.6	1.5	1.4	1.2	1.2
ES	1.5	1.6	1.4	1.4	1.4	1.4	1.2
FR	1.0	1.3	1.5	1.5	1.5	1.3	1.2
HR	0.8	1.2	1.4	1.1	1.0	1.1	0.9
IT	0.3	0.9	1.3	1.5	1.4	1.0	1.0
CY	1.7	2.1	2.3	1.8	1.6	1.9	1.7
LV	2.0	1.3	0.7	0.7	1.1	1.2	0.7
LT	2.2	1.2	0.9	0.7	1.0	1.2	0.7
LU	2.0	2.1	1.8	1.6	1.5	1.8	1.4
HU	2.7	1.9	1.5	1.5	1.4	1.8	1.3
MT	3.7	2.8	1.7	1.2	1.4	2.2	1.5
NL	0.9	1.1	1.6	1.5	1.4	1.3	1.1
AT	1.2	1.4	1.4	1.3	1.4	1.3	1.1
PL	2.7	1.8	1.0	0.9	1.1	1.5	0.9
PT	1.0	1.0	1.2	1.4	1.3	1.2	1.0
RO	3.0	1.7	1.1	1.2	1.1	1.7	1.0
SI	2.5	1.6	1.1	1.3	1.4	1.6	1.1
SK	1.7	1.5	1.1	1.1	1.3	1.3	0.9
FI	1.0	1.4	1.2	1.2	1.2	1.2	1.0
SE	1.8	1.9	1.8	1.7	1.7	1.8	1.5
NO	1.8	1.7	1.8	1.6	1.6	1.7	1.3
EA	1.0	1.2	1.4	1.4	1.4	1.3	1.1
EU27	1.2	1.3	1.4	1.4	1.4	1.3	1.1

Source: European Commission, EPC.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Underlying Assumptions and Projection Methodologies*, 2021, p. 67.

○ (임금상승률) 국가별로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 및 노동시간 증가율을 고려하여 전망하며 각각의 전망치를 제공

-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 2019~2030년 평균 1.2%에서 2041~2050년 평균 1.8%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해 2061~2070년 평균 1.6%로 전망

- (노동시간 증가율) 2019~2030년 0.0%에서 2041~2050년 -0.4%까지 감소 후 다시 증가해 2061~2070년 -0.2%에 도달

〈표 III-8〉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
(단위: %)

Table I.3.3: Labour productivity per hour, annual growth rate - Period average (%)

	2019-2030	2031-2040	2041-2050	2051-2060	2061-2070	2019-2070	2019-2070 (TFP risk scenario)
BE	0.5	1.3	1.5	1.5	1.5	1.2	1.0
BG	2.2	2.4	2.3	2.0	1.7	2.1	1.9
CZ	2.2	2.2	2.0	1.8	1.6	2.0	1.7
DK	1.5	1.5	1.5	1.5	1.5	1.5	1.3
DE	1.1	1.5	1.5	1.5	1.5	1.4	1.2
EE	3.2	2.3	1.8	1.7	1.6	2.2	1.9
IE	1.6	1.4	1.5	1.5	1.5	1.5	1.3
EL	0.3	1.7	2.1	1.9	1.6	1.5	1.3
ES	0.9	1.6	1.8	1.7	1.6	1.5	1.3
FR	0.7	1.3	1.5	1.5	1.5	1.3	1.1
HR	1.3	2.0	2.3	2.0	1.7	1.8	1.6
IT	0.3	1.3	1.7	1.7	1.6	1.3	1.1
CY	0.7	1.5	1.9	1.7	1.6	1.5	1.3
LV	3.3	2.5	2.1	1.9	1.6	2.3	2.1
LT	2.9	2.4	2.1	1.9	1.6	2.2	1.9
LU	0.0	1.3	1.5	1.5	1.5	1.1	0.8
HU	2.2	2.3	2.2	1.9	1.7	2.1	1.8
MT	2.2	1.9	1.6	1.6	1.6	1.8	1.5
NL	0.8	1.4	1.5	1.5	1.5	1.3	1.1
AT	0.9	1.4	1.5	1.5	1.5	1.4	1.1
PL	3.2	2.6	2.2	1.9	1.7	2.3	2.0
PT	1.1	1.9	2.1	1.9	1.6	1.7	1.5
RO	3.9	2.8	2.3	2.0	1.7	2.6	2.4
SI	2.3	2.1	1.8	1.7	1.6	1.9	1.6
SK	2.3	2.3	2.1	1.9	1.7	2.1	1.8
FI	1.2	1.5	1.5	1.5	1.5	1.5	1.2
SE	0.9	1.4	1.5	1.5	1.5	1.4	1.1
NO	1.3	1.5	1.5	1.5	1.5	1.5	1.1
EA	0.9	1.5	1.7	1.6	1.6	1.4	1.2
EU27	1.2	1.6	1.8	1.7	1.6	1.6	1.3

Source: European Commission, EPC.

〈표 III-9〉 노동 투입(노동시간) 증가율
(단위: %)

Table I.3.2: Labour input (total hours worked), annual growth rate - Period average (%)

	2019-2030	2031-2040	2041-2050	2051-2060	2061-2070	2019-2070
BE	0.5	-0.1	-0.2	-0.2	-0.1	0.0
BG	-0.9	-1.1	-1.2	-0.8	-0.4	-0.9
CZ	-0.2	-0.6	-0.7	-0.3	0.0	-0.3
DK	0.4	0.0	0.2	0.1	0.0	0.2
DE	-0.2	-0.3	-0.1	-0.2	0.0	-0.2
EE	-0.4	-0.2	-0.5	-0.4	-0.1	-0.3
IE	0.7	0.4	0.1	0.1	0.0	0.3
EL	-0.1	-0.3	-0.5	-0.4	-0.2	-0.3
ES	0.6	0.0	-0.4	-0.2	-0.2	0.0
FR	0.3	0.1	0.0	-0.1	-0.1	0.1
HR	-0.5	-0.7	-0.9	-0.9	-0.7	-0.7
IT	0.0	-0.4	-0.4	-0.2	-0.2	-0.2
CY	1.0	0.6	0.4	0.1	0.0	0.4
LV	-1.3	-1.2	-1.3	-1.2	-0.5	-1.1
LT	-0.8	-1.3	-1.2	-1.2	-0.6	-1.0
LU	2.1	0.8	0.3	0.1	-0.1	0.7
HU	0.5	-0.5	-0.7	-0.5	-0.3	-0.3
MT	1.5	0.9	0.0	-0.4	-0.2	0.4
NL	0.1	-0.3	0.1	0.0	-0.1	0.0
AT	0.3	0.0	-0.2	-0.2	-0.1	0.0
PL	-0.5	-0.7	-1.1	-1.0	-0.6	-0.8
PT	0.0	-0.9	-0.8	-0.4	-0.4	-0.5
RO	-0.9	-1.1	-1.2	-0.8	-0.5	-0.9
SI	0.1	-0.5	-0.7	-0.4	-0.1	-0.3
SK	-0.6	-0.8	-1.0	-0.8	-0.3	-0.7
FI	-0.2	-0.1	-0.3	-0.4	-0.3	-0.3
SE	0.9	0.5	0.3	0.1	0.2	0.4
NO	0.5	0.2	0.2	0.1	0.0	0.2
EA	0.1	-0.2	-0.2	-0.2	-0.1	-0.1
EU27	0.0	-0.3	-0.4	-0.3	-0.2	-0.2

For Luxembourg, an adjustment has been made to take account of the non-resident work force (cross-border workers).
Source: European Commission, EPC.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Underlying Assumptions and Projection Methodologies*, 2021, p. 70.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Underlying Assumptions and Projection Methodologies*, 2021, p. 67.

-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EU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19~2030년 평균 0.8%에서 점차 증가해 2041~2050년 평균 1.2%에 도달, 이후 감소하며 2061~2070년은 평균 1.0%로 전망

〈표 III-10〉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전망

(단위: %)

Table I.3.4: Annual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rate - Period average (%)

	2019-2030	2031-2040	2041-2050	2051-2060	2061-2070	2019-2070	2019-2070 (TFP risk scenario)
BE	0.3	0.8	1.0	1.0	1.0	0.8	0.7
BG	1.3	1.4	1.5	1.3	1.1	1.3	1.2
CZ	1.5	1.4	1.3	1.2	1.1	1.3	1.1
DK	1.1	1.0	1.0	1.0	1.0	1.0	0.9
DE	0.7	1.0	1.0	1.0	1.0	0.9	0.8
EE	1.9	1.4	1.2	1.1	1.0	1.4	1.2
IE	1.3	1.0	1.0	1.0	1.0	1.1	0.9
EL	0.5	1.2	1.4	1.2	1.1	1.0	0.9
ES	0.6	1.0	1.1	1.1	1.0	1.0	0.8
FR	0.4	0.9	1.0	1.0	1.0	0.8	0.7
HR	0.5	1.3	1.5	1.3	1.1	1.1	1.0
IT	0.3	0.9	1.1	1.1	1.0	0.8	0.7
CY	0.2	1.0	1.2	1.1	1.0	0.9	0.8
LV	1.9	1.6	1.3	1.2	1.1	1.4	1.2
LT	1.6	1.5	1.3	1.2	1.1	1.3	1.1
LU	0.0	0.8	1.0	1.0	1.0	0.7	0.5
HU	1.3	1.5	1.4	1.3	1.1	1.3	1.1
MT	1.4	1.2	1.1	1.0	1.0	1.2	1.0
NL	0.5	0.9	1.0	1.0	1.0	0.9	0.7
AT	0.5	0.9	1.0	1.0	1.0	0.9	0.7
PL	1.9	1.6	1.4	1.2	1.1	1.5	1.3
PT	0.8	1.2	1.3	1.2	1.1	1.1	1.0
RO	2.4	1.7	1.5	1.3	1.1	1.6	1.5
SI	1.9	1.4	1.1	1.1	1.0	1.3	1.1
SK	1.3	1.5	1.4	1.2	1.1	1.3	1.1
FI	0.6	1.0	1.0	1.0	1.0	0.9	0.7
SE	0.7	0.9	1.0	1.0	1.0	0.9	0.7
NO	0.7	1.0	1.0	1.0	1.0	0.9	0.6
EA	0.6	1.0	1.1	1.0	1.0	0.9	0.8
EU27	0.8	1.1	1.2	1.1	1.0	1.0	0.9

Source: European Commission, EPC.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Underlying Assumptions and Projection Methodologies*, 2021, p. 70.

6. 전망 결과

- (결과 제시방식) 시나리오별 각 지출 분야별 GDP 대비 비중(%)을 단순 합산하여 산출
 - 2019년도 GDP 대비 비중 값과 2019~2045년간 증가분(%p) 및 2019~2070년 간 증가분(%p)을 병기
 - 지출 분야에는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교육이 해당되며 이를 합산한 총 고령화 지출 전망 결과를 함께 제시
 - 기본 시나리오 이외에 TFP risk 시나리오, AWG risk 시나리오 등을 가정하여 민감도 분석 시행

- (지출 전망 결과) EU 총고령화지출은 2019년 GDP 대비 24.0%에서 2045년까지 2.4%p 증가하여 26.4%, 이후 전망치가 주춤하며 2070년 25.9%로 전망
 - (연금) GDP 대비 연금지출은 2019년에서 2045년 12.7%까지 증가하나 2070년에는 전망치가 다소 감소하며 11.7% 수준
 - (건강보험) GDP 대비 건강보험지출은 2019년 6.6%에서 2045년 7.4%, 2070년 7.5%까지 증가할 전망
 - AWG reference 시나리오: 고령화지출 계산 시 사용되는 건강보험의 기본 시나리오로서 기대수명 증가로 발생하는 미래 소득의 절반이 건강과 관련하여 소비되고, 의료비 지출의 소득 탄력성은 2019년 1.1에서 2070년에 1로 수렴한다고 가정
 - (장기요양) 인구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장기요양 지출 비중은 2019년 GDP 대비 1.7%에서 증가해 2045년 2.4%, 2070년 2.8%에 도달
 - (교육) 교육 지출 비중은 2019년 GDP 대비 4.1%에서 0.2%p 감소해 2070년에는 3.9%로 전망

Table 1: Overview of the 2021 long-term budgetary projections – Baseline scenario

	Ageing Report 2021 - Baseline scenario																			
	Pensions						Health-care				Long-term care				Education		Total age-related items			
	CH 19-46		CH 19-70		CH 19-45		CH 19-70		CH 19-46		CH 19-70		CH 19-46		CH 19-70		CH 19-45		CH 19-70	
	2019 level	CH 19-46	CH 19-70	CH 19-46	CH 19-70	CH 19-45	CH 19-70	CH 19-46	CH 19-70	CH 19-46	CH 19-70	CH 19-46	CH 19-70	CH 19-46	CH 19-70	2019 level	CH 19-45	CH 19-45	CH 19-45	CH 19-70
BE	12.2	2.9	3.0	5.7	0.5	0.6	2.2	1.2	2.1	2.1	5.5	-0.5	-0.4	25.6	4.2	5.4	BE			
BG	8.3	0.6	1.4	4.6	0.4	0.2	0.3	0.1	0.1	2.9	0.2	0.4	16.1	1.3	2.1	BG				
CZ	8.0	2.7	2.9	5.6	0.8	0.9	1.5	0.9	1.7	3.4	0.4	0.6	18.6	4.8	6.1	CZ				
DK	9.3	-1.5	-2.0	6.7	0.7	0.9	3.5	2.4	3.4	6.1	-0.6	-0.8	25.4	1.0	1.5	DK				
DE	10.3	1.8	2.1	7.4	0.5	0.4	1.6	0.3	0.2	4.0	0.3	0.5	23.3	2.8	3.3	DE				
EE	7.8	-1.5	-2.3	4.9	0.6	0.8	0.4	0.2	0.3	4.2	-0.5	-0.4	17.2	-1.2	-1.6	EE				
IE	4.6	2.7	3.0	4.1	0.9	1.4	1.3	0.9	1.9	3.3	-0.1	-0.1	13.2	4.3	6.2	IE				
EL	15.7	-2.0	-3.8	4.4	0.7	0.8	0.2	0.0	0.0	3.2	-0.6	-0.6	23.6	-1.9	-3.7	EL				
ES	12.3	0.8	-2.1	5.7	1.2	1.3	0.7	0.4	0.8	3.6	-0.5	-0.4	22.3	2.0	-0.4	ES				
FR	14.8	-0.2	-2.2	8.4	1.0	1.1	1.9	0.6	0.8	4.4	-0.5	-0.6	29.5	1.0	-0.8	FR				
HR	10.2	-0.1	-0.7	5.9	0.6	0.7	0.4	0.1	0.2	5.0	-0.7	-0.5	21.5	0.0	-0.3	HR				
IT	15.4	1.9	-1.8	5.9	1.2	1.2	1.7	0.7	1.0	3.5	-0.4	-0.4	26.5	3.4	-0.1	IT				
CY	8.8	1.5	2.1	2.9	0.2	0.3	0.3	0.2	0.3	5.3	-0.6	-0.7	17.3	1.2	2.0	CY				
LV	7.1	-0.9	-1.2	4.6	0.6	0.4	0.5	0.1	0.2	3.6	-0.2	0.0	15.8	-0.4	-0.6	LV				
LT	7.1	1.2	0.4	4.2	0.5	0.6	1.0	0.5	0.8	3.0	-0.3	-0.1	15.3	1.9	1.6	LT				
LU	9.2	4.6	8.7	3.6	0.7	1.1	1.0	0.5	1.4	3.0	-0.8	-0.8	16.9	5.0	10.4	LU				
HU	8.3	2.4	4.1	4.8	0.7	0.9	0.6	0.3	0.7	3.4	-0.3	-0.1	17.1	3.2	5.5	HU				
MT	7.1	0.1	3.8	5.4	1.2	2.6	1.1	0.8	1.9	4.3	-0.7	-0.3	17.9	1.4	8.0	MT				
NL	6.8	2.2	2.3	5.7	0.7	0.8	3.7	2.0	2.7	4.9	-0.3	-0.5	21.0	4.6	5.4	NL				
AT	13.3	1.6	1.0	6.9	1.0	1.2	1.8	1.0	1.8	4.7	-0.3	-0.1	26.7	3.3	3.8	AT				
PL	10.6	-0.1	-0.2	4.9	2.0	2.6	0.8	0.8	1.6	3.8	-0.4	-0.1	20.1	2.3	4.0	PL				
PT	12.7	1.0	-3.2	5.7	1.4	1.6	0.4	0.3	0.4	4.3	-0.1	-0.1	23.1	2.5	-1.3	PT				
RO	8.1	6.6	3.8	3.9	0.8	0.9	0.4	0.2	0.4	2.5	-0.2	-0.1	14.9	7.4	5.1	RO				
SI	10.0	4.8	6.0	5.9	1.3	1.5	1.0	0.8	1.3	3.8	-0.1	0.1	20.7	6.8	8.9	SI				
SK	8.3	4.2	5.9	5.7	2.0	2.5	0.8	1.0	2.1	3.4	0.1	0.4	18.3	7.3	10.8	SK				
FI	13.0	-0.4	1.3	6.1	0.6	0.8	2.0	1.4	2.1	5.3	-0.8	-0.9	26.5	0.7	3.4	FI				
SE	7.6	-0.7	-0.1	7.2	0.4	0.8	3.3	1.1	2.2	5.9	-0.6	-0.5	24.1	0.3	2.3	SE				
NO	11.0	1.7	2.6	7.0	0.8	1.1	4.0	2.2	3.9	7.2	-0.6	-0.6	29.2	4.1	7.1	NO				
EA	12.1	1.2	0.1	6.7	0.8	0.9	1.7	0.6	0.9	4.1	-0.2	-0.2	24.6	2.5	1.7	EA				
EU	11.6	1.1	0.1	6.6	0.8	0.9	1.7	0.7	1.1	4.1	-0.2	-0.2	24.0	2.4	1.9	EU				

Source: Commission services, EPC.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2019-2070), 2021, p. 13.

- (부채 전망) DSM 보고서에서 부채 전망을 2020년부터 2031년까지 11여 년에 대해 전망
 - (부채 개념¹⁷⁾) EU에서 사용하는 부채 개념은 마스트리히트 조약¹⁸⁾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D2)를 사용하며 현금 및 예금에서의 부채, 채무 증권, 대출을 포함

〈표 III-12〉 부채 개념

The debt concept used in this report is general government¹⁾ debt, also referred to as 'Maastricht debt' or 'EDP debt'. It comprises financial liabilities related to the following debt instruments: currency, deposits, debt securities and loans. The stock of gross consolidated debt at year-end is measured at nominal (face) value rather than at market value. Making use of gross debt means that government owned assets vis-à-vis counterparts outside the general government are not netted out. The fact that figures are consolidated across the general government sector means that any liability of which the counterpart is another general government unit is netted out.

주: 1)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을 포함
출처: EC,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 2021*, p.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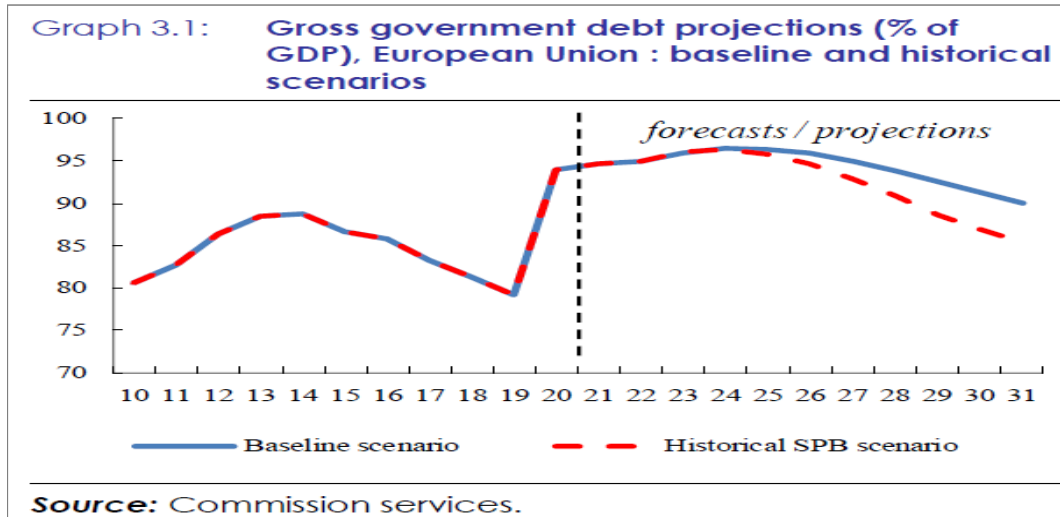
- (총부채 전망 결과) EU의 GDP 대비 총 정부부채 비율(gross government debt ratio)은 2020년 93.9%에서 2024년 96.5%까지 증가 후 감소해 2031년 90.1%로 전망
 - (재정수지) 기초재정수지 결과는 제공하지 않지만 기초재정수지로 인한 총부채 비율 변화분을 제시하는데 2020년 -6.9%p에서 2031년까지 -0.8%p로 전망

17) 마스트리히트 조약 내 '과도한 적자 규정에 대한 보충협약(PROTOCOL ON THE EXCESSIVE DEFICIT PROCEDURE)의 2번 조항(article 2)에서 부채가 일반정부 기준임을 명시
EU, "Consolidated version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https://eur-lex.europa.eu/eli/treaty/teu_2008/pro_12/oj, 검색일자: 2022. 1. 17.

18) 정식명칭은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으로서 EC(유럽집행위)가 EU(유럽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통합의 수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약으로 역내 시장통합 후의 정치연합, 경제·통화연합의 완성을 20세기 말까지 목표로 함

[그림 III-3] EU GDP 대비 총정부부채 전망 결과 그래프

(단위: GDP 대비 %)



출처: EC,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 2021*, p. 36.

[표 III-13] EU GDP 대비 총정부부채 전망 결과

(단위: GDP 대비 %)

Table 3.1: **Gross government debt projections (% of GDP) and underlying macro-fiscal assumptions, European Union - Baseline**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8	2031
Gross debt ratio	93.9	94.6	94.9	96.0	96.5	96.4	93.8	90.1
of which <i>Oustanding (non maturing) debt</i>	68.3	72.6	73.9	75.1	76.1	76.4	75.2	72.3
<i>Rolled-over short-term debt</i>	7.8	8.2	8.3	8.4	8.5	8.5	8.3	7.9
<i>Rolled-over long-term debt</i>	7.9	8.2	8.3	8.5	8.6	8.7	8.5	8.2
<i>New short-term debt</i>	0.9	0.5	0.4	0.3		0.2	0.1	0.1
<i>New long-term debt</i>	9.1	5.0	4.0	3.6	3.0	2.5	1.6	1.5
Changes in the debt ratio (-1+2+3)	14.7	0.7	0.3	1.1	0.5	-0.1	-1.2	-1.2
of which (1) <i>Overall primary balance (1.1+1.2+1.3)</i>	-6.9	-4.8	-3.3	-2.8	-2.2	-1.8	-0.9	-0.8
(1.1) <i>Structural primary balance (1.1.1-1.1.2+1.1.3)</i>	-3.3	-2.8	-2.3	-1.9	-1.5	-1.1	-0.6	-0.7
(1.1.1) <i>Structural primary balance (before CoA)</i>	-3.3	-2.8	-2.3	-1.9	-1.4	-1.0	-0.3	-0.1
(1.1.2) <i>Cost of ageing (incl. revenues pensions tax)</i>				0.1	0.1	0.2	0.4	0.7
(1.1.3) <i>Property incomes</i>				0.0	0.0	0.1	0.1	0.1
(1.2) <i>Cyclical component</i>	-3.6	-2.0	-1.0	-0.9	-0.7	-0.6	-0.3	-0.1
(1.3) <i>One-off and other temporary measures</i>	0.0	0.0	0.0	0.0	0.0	0.0	0.0	0.0
(2) <i>Snowball effect (interest rate/growth differential) (2.1+2.2+2.3)</i>	5.8	-3.5	-2.9	-1.7	-1.7	-1.8	-2.0	-1.9
(2.1) <i>Interest expenditure</i>	1.5	1.3	1.2	1.1	1.0	1.0	0.9	0.9
(2.2) <i>Growth effect (real)</i>	6.1	-3.7	-2.7	-1.4	-1.3	-1.2	-1.2	-1.0
(2.3) <i>Inflation effect</i>	-1.7	-1.1	-1.3	-1.4	-1.5	-1.6	-1.7	-1.8
(3) <i>Stock flow adjustments</i>	1.9	-0.6	-0.1	0.0	0.0	0.0	0.0	0.0
PM : Structural balance	-4.8	-4.2	-3.5	-3.0	-2.5	-2.1	-1.4	-1.5
Key macroeconomic assumptions								
Actual GDP growth (real)	-7.3	4.1	3.0	1.5	1.4	1.3	1.3	1.1
Potential GDP growth (real)	0.8	0.9	1.2	1.2	1.1	1.1	1.0	1.0
Inflation (GDP deflator)	2.1	1.2	1.5	1.5	1.6	1.7	1.9	2.0
Implicit interest rate (nominal)	1.7	1.4	1.3	1.2	1.1	1.0	1.0	1.0

(1) Given that the drivers of the EU28 change in the government debt ratio are calculated as GDP-weighted averages of country-specific debt projections, small differences may exist between the total change in the government debt ratio and the sum of its drivers.

Source: Commission services.

출처: EC,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 2021*, p. 37.

7. 평가

가. 평가 지표 개념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기간별로 구분해 단기(S0), 중기(S1), 장기(S2) 지표로 평가
- S0(단기 지표)
 - (정의) 재정 및 거시변수를 바탕으로 단기 시계(1년간)의 재정 위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
 - (구성요소) 기초재정수지, 총부채, 순부채 등 12개의 재정 변수(fiscal variables)와 명목 인건비 변화율, 실질GDP 성장률 등 13개의 재정-경쟁력 지수(financial-competitiveness index) 등 총 25개 변수로 구성
 - S0의 단기위험 식별 3단계: (1)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단기 위험을 측정 (2) 하위지표(재정 및 재정-경쟁력 변수)는 두 가지 영역에서의 취약성을 확인 (3) S0의 개별 변수를 통하여 재정 위험의 정확한 원인을 식별

〈표 III-14〉 S0지표의 임계값, 신호력 및 구성 변수

Table 2.1: **Thresholds and signalling power of S0 indicator, fiscal and financial-competitiveness sub-indices and individual variables**

Variables	safety	threshold	signaling power	type I error	type II error	crisis number	no-crisis number
Balance, % GDP	>	-9.61	0.07	0.04	0.89	44	1080
Primary balance, % GDP	>	0.23	0.13	0.47	0.40	43	1058
Cyclically adjusted balance, % GDP	>	-2.50	0.23	0.52	0.25	40	981
Stabilizing primary balance, % GDP	<	2.34	0.08	0.13	0.79	38	983
Gross debt, % GDP	<	68.44	0.12	0.23	0.65	40	1047
Change in gross debt, % GDP	<	8.06	0.12	0.06	0.82	39	1018
Short-term debt gen. gov., % GDP	<	13.20	0.20	0.14	0.67	21	430
Net debt, % GDP	<	59.51	0.20	0.18	0.62	26	586
Gross financing need, % GDP	<	15.95	0.26	0.24	0.50	26	621
Interest rate-growth rate differential	<	4.80	0.08	0.11	0.82	38	977
Change in expenditure of gen. government, % GDP	<	1.90	0.11	0.13	0.76	41	1051
Change in final consumption expend. of gen. governm	<	0.61	0.07	0.17	0.76	38	972
Fiscal index	<	0.36	0.28	0.30	0.42	45	1083
L1.net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 GDP	>	-19.80	0.29	0.47	0.24	25	500
L1.net savings of households, % GDP	>	2.61	0.33	0.42	0.25	28	699
L1.private sector debt, % GDP	<	164.70	0.18	0.22	0.60	20	418
L1.private sector credit flow, % GDP	<	11.70	0.37	0.28	0.35	20	409
L1.short-term debt, non-financial corporations, %	<	15.40	0.20	0.54	0.26	19	403
L1.short-term debt, households, % GDP	<	2.90	0.21	0.52	0.26	19	403
L1.construction, % value added	<	7.46	0.22	0.27	0.51	43	1006
L1.current account, 3-year backward MA, % GDP	>	-2.50	0.34	0.35	0.31	42	983
L1.change (3 years) of real eff. exchange rate, based on	<	9.67	0.11	0.18	0.71	24	460
L1.change (3 years) in nominal unit labour costs	<	7.00	0.18	0.64	0.18	38	967
Yield curve	>	0.59	0.37	0.34	0.29	35	813
Real GDP growth	>	-0.67	0.10	0.09	0.81	48	1124
GDP per capita in PPP, % of US level	>	72.70	0.22	0.44	0.33	51	1129
Financial-competitiveness index	<	0.49	0.55	0.32	0.13	52	1158
Overall index	<	0.46	0.55	0.22	0.23	52	1158

[1] Variable names preceded by L1 are taken in lagged value. [2] The signalling power is defined as $(1 - \text{type I error} - \text{type II error})$. See Annex A4 for more details.
 Source: Commission services.

출처: EC,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 2021*, p. 23.

[그림 III-4] S0 산출방법

$SO_{jt} = \sum_{i=1}^n w_i d_{jt}^i$ $= \sum_{i=1}^n \frac{z_i}{\sum_{k=1}^n h_{jt}^k \cdot z_k} d_{jt}^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 재정 위험을 나타내는 변수 개수 · d: 재정 위험 더미변수 (재정 위험이 존재하면 1, 아니면 0) · z: 변수 i의 신호력(1-(1종 오류+2종 오류)) · h: j국가에서 t기의 k 변수의 존재 여부 (존재하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짐)
---	--

출처: EC,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 2021*, p. 224.

□ S1(중가지표)

- (정의) 향후 **15년 이후**에 GDP 대비 부채비율이 목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5년간 조정되어야 할 누적 구조적 기초재정수지의 개선 폭
 - 목표 부채비율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GDP 대비 60%로 설정되거나 위기 이전의 부채비율 또는 전망 종료 시점의 부채비율로 설정
- (해석) S1값이 0%p 미만은 저위험, 0%p 이상(5년간 기초재정수지 조정이 매년 GDP의 0.5%p 이하)은 중위험, 2.5%p 초과(5년간 기초재정수지 조정이 매년 GDP의 0.5%p 초과)는 고위험으로 구분
 - S1지수가 음(-)의 값을 나타내는 국가는 부채비율이 60% 미만을 의미¹⁹⁾
- (구성요소) S1은 (1) 기초재정수지 격차(Gap to the debt stabilizing primary balance) (2) 지연 비용(Cost of delaying adjustment, CoD) (3) 부채 요건(Debt Requirement, DR) (4) 고령화 비용(Long-term cost of ageing, CoA)으로 구성
 - (1) 기초재정수지 격차: 현 수준과 부채안정화일 때의 기초재정수지의 격차
 - (2) 지연 비용(CoD): 기초재정수지의 점진적인 개선에 따라(즉각적인 조정이 아닌) 추가로 필요한 조정을 의미하는 지연 비용
 - (1)+(2) 기초재정수지 격차와 지연 비용의 합을 초기 재정 상태(Initial Budgetary Position, IBP)라고 함
 - (3) 부채 요건(DR): 목표 부채를 위한 조정분으로서 달성 기한과 목표 부채비율(GDP 대비 60%) 등에 따라 결정되며 초기 부채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큼
 - (4) 고령화 비용(CoA): 고령화지출(연금, 장기요양 등)에 따른 추가적인 필요 조정분을 의미하며 각국의 인구 구성 및 사회보호정책 등에 따라 상이

19) S1의 개념상 목표시점에 목표 수준에 대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므로 음(-)의 값이라도 재정이 절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

[그림 III-5] S1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 총 조정분(S1) · A: 기초재정수지 격차 · B: 지연비용(조정 기간에 따른 비용, CoD) · IBP(초기 재정 상태) = A+B · C: 부채 요건(부채 목표 달성을 위한 조정분, DR) · D: 고령화 비용(CoA) 	$S_1 \equiv \frac{c(t_1 - t_0)}{T} =$ $= \frac{D_{t_0}(\alpha_{t_0;t_2} - 1)}{\sum_{i=t_0+1}^{t_2} (\alpha_{i;t_2})} - \text{SPB}_{t_0} - \frac{\sum_{i=t_0+1}^{t_2} (\Delta PI_i \alpha_{i;t_2})}{\sum_{i=t_0+1}^{t_2} (\alpha_{i;t_2})} - \frac{\sum_{i=t_0+1}^{t_2} (CC_i \alpha_{i;t_2})}{\sum_{i=t_0+1}^{t_2} (\alpha_{i;t_2})}$ $+ c \frac{\sum_{i=t_0+1}^{t_1} ((t_1 - i) \alpha_{i;t_2})}{\sum_{i=t_0+1}^{t_2} (\alpha_{i;t_2})} + \frac{D_{t_0} - D_{t_2}}{\sum_{i=t_0+1}^{t_2} (\alpha_{i;t_2})}$ $+ \frac{\sum_{i=t_0+1}^{t_2} (\Delta A_i \alpha_{i;t_2})}{\sum_{i=t_0+1}^{t_2} (\alpha_{i;t_2})}$
---	--

출처: EC,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 2021, p. 226.

□ S2(장기지표)

- (정의) 고령화로 인한 미래의 추가 지출을 포함했을 때 GDP 대비 부채비율이 **문한 시계하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데 필요한 구조적 기초재정수지 개선 폭
 - S2지표 계산 시 목표 부채비율 60%, 제약조건은 없는 것으로 가정
- (해석) S2값이 2%p 미만은 저위험, 2%p 이상은 중위험, 6%p 초과는 고위험으로 구분
- (구성요소) S2는 초기 재정여건(IBP)과 고령화 비용(CoA)으로 구성
 - 목표 부채비율 조건이 없으므로 부채 요건(DR)은 구성요소에서 제외

[그림 III-6] S2 산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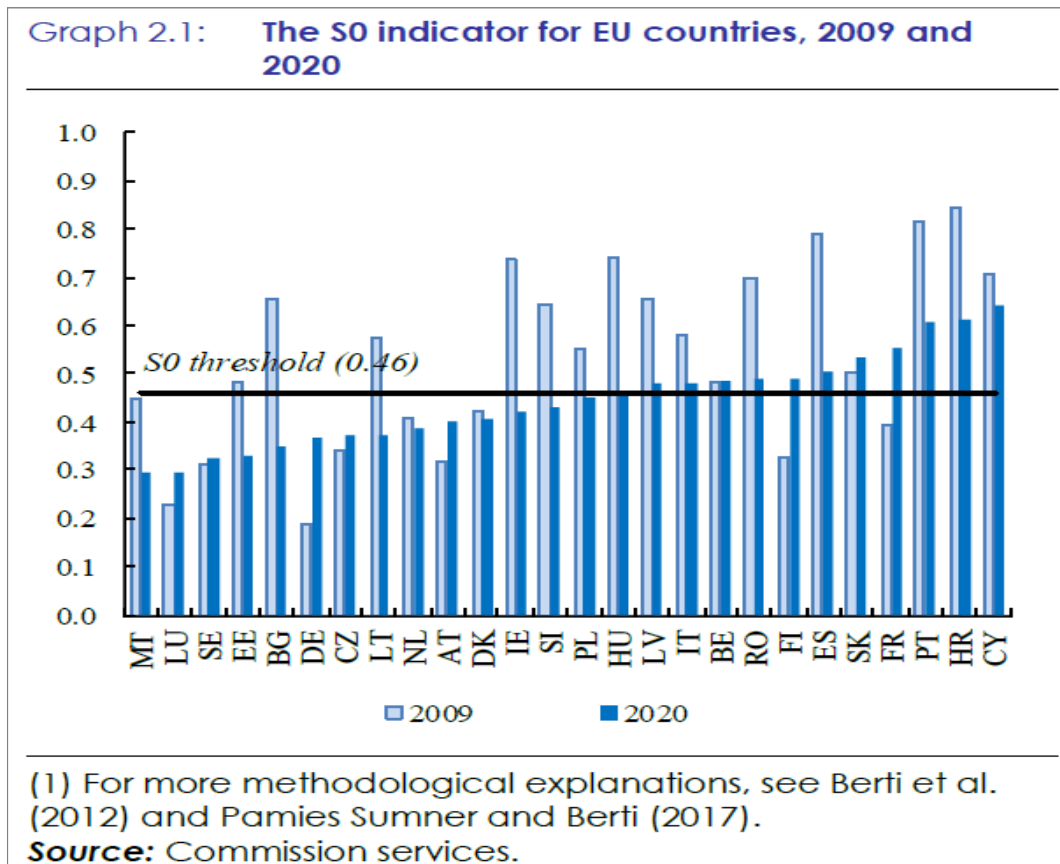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초기 재정 상태(기초재정수지 격차) · B: 고령화 비용(CoA) 	$S_2 =$ $= \frac{D_{t_0}}{\sum_{i=t_0+1}^{\infty} \left(\frac{1}{\alpha_{t_0;i}} \right)} - \text{SPB}_{t_0} - \frac{\sum_{i=t_0+1}^{\infty} \left(\frac{\Delta PI_i + CC_i}{\alpha_{t_0;i}} \right)}{\sum_{i=t_0+1}^{\infty} \left(\frac{1}{\alpha_{t_0;i}} \right)}$ $+ \frac{\sum_{i=t_0+1}^{\infty} \left(\frac{\Delta A_i}{\alpha_{t_0;i}} \right)}{\sum_{i=t_0+1}^{\infty} \left(\frac{1}{\alpha_{t_0;i}} \right)}$
--	--

출처: EC,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 2021, p. 227.

나. 평가결과

- (S0지표) 3단계로 구분하여 단기간의 재정 지속가능성 위험을 측정하는 종합 지표
 - (1단계) S0지표: 2020년 결과에 따르면 11개 회원국이 재정 위험 기준선(0.46) 이상의 수준
 - 2009년에는 절반 이상 회원국들이 단기적으로 고위험을 나타냈으나 이후 모든 국가에서 재정 위험이 어느 정도는 개선되어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 국가도 재정 위험 기준선을 초과하지 않음
 -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이후로 11개 회원국(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핀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등)이 재정 위험 단계에 진입

[그림 III-7] S0지표 결과(2009년, 2020년 보고서 결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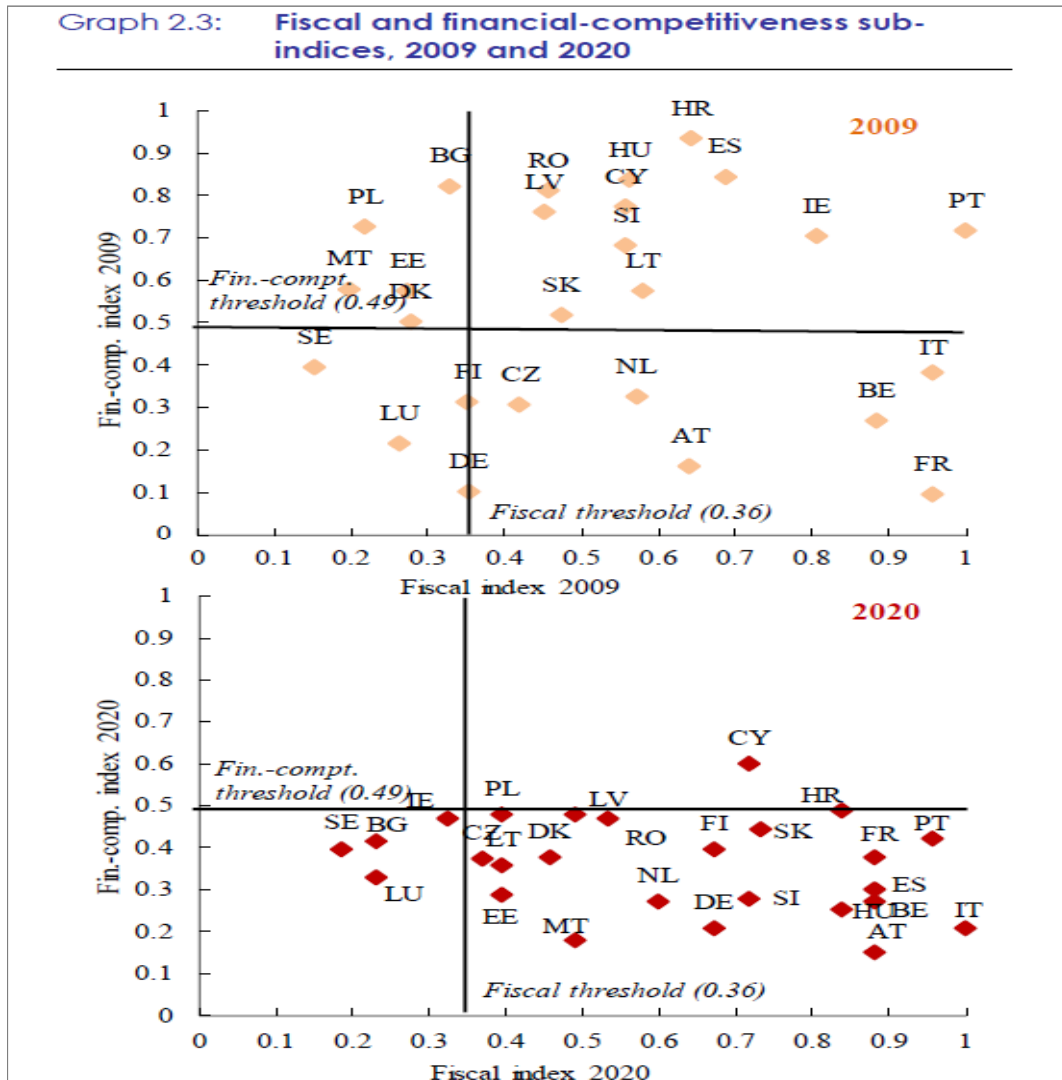


출처: EC,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 2021*, p. 24.

- (2단계) 재정/재정-경쟁력 지수(fiscal/financial-competitiveness index) 평가: 재정 지수 측면에서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사이프러스 등이, 재정-경쟁력 지수 측면에서는 사이프러스가 유일하게 단기 재정 위험이 있음
 - 2009년 대비 재정-경쟁력 지수 측면에서 재정 위험이 있는 국가는 감소했으나, 재정 지수 측면에서 재정 위험이 있는 국가는 증가

[그림 III-8]

Fiscal/financial-competitiveness index 평가 결과
(2009년, 2020년 보고서 결과 비교)



출처: EC,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 2021*, p. 25.

- (3단계) Fiscal/Financial-competitiveness index의 세부 변수 평가: 각 국가별 음영 표시된 부분이 기준을 넘어선 항목을 나타냄
- 2019년 보고서 대비 세부 변수의 음영 표시된 개수가 현저히 증가

〈표 III-15〉 재정 지수(Fiscal index)의 세부 변수 평가 결과

Table 2.2: Fiscal variables used in the S0 indicator, 2020

	Balance (% GDP)	Primary balance (% GDP)	Cycl. adj. balance (% GDP)	Stabil. primary balance (% GDP)	Gross debt (% GDP)	Change gross debt (% GDP)	Short-term debt (% GDP)	Net debt (% GDP)	Gross financing need (% GDP)	Interest growth rate diff. (pps.)	Change expend. gen. gov. (% GDP)	Change consumpt. gen. gov. (% GDP)
BE	-11.2	-9.2	-6.2	9.3	117.7	19.7	7.5	103.8	26.0	8.8	9.4	2.5
BG	-3.0	-2.4	-2.0	1.4	25.7	5.5	0.0	8.8	5.8	6.5	6.2	2.4
CZ	-6.2	-5.4	-4.0	1.9	37.9	7.6	0.5	27.3	10.6	6.1	7.0	2.2
DK	-4.2	-3.5	-1.2	1.9	45.0	11.7	3.4	14.8	16.2	5.5	7.3	1.8
DE	-6.0	-5.3	-3.2	2.6	71.2	11.5	3.8	54.1	22.0	4.3	7.0	2.2
EE	-5.9	-5.8	-3.9	0.4	17.2	8.8	0.5	9.2	8.5	4.3	6.4	3.0
IE	-6.8	-5.7	-5.3	2.2	63.1	5.7	7.2	58.6	12.4	3.8	6.1	1.9
ES	-12.2	-9.9	-5.5	15.2	120.3	24.8	6.4	106.9	27.8	14.0	11.3	4.4
FR	-10.5	-9.1	-4.8	8.5	115.9	17.8	8.3	110.0	26.5	8.1	7.5	2.5
HR	-6.5	-4.2	-3.8	9.5	86.6	13.8	3.3	60.9	18.6	11.8	8.4	3.3
IT	-10.8	-7.2	-5.1	16.5	159.6	24.9	19.7	148.8	32.7	11.2	10.1	2.8
CY	-6.1	-3.7	-4.7	7.8	112.6	18.5	2.0	47.4	23.5	7.8	7.3	4.7
LV	-7.4	-6.7	-5.5	2.5	47.5	10.6	0.8	35.1	13.0	6.5	7.1	1.6
LT	-8.4	-7.8	-7.6	0.8	47.2	11.3	0.4	42.0	15.4	2.3	9.4	3.0
LU	-5.1	-4.8	-2.1	1.4	25.4	3.4	0.7	-4.8	7.2	6.1	8.6	2.6
HU	-8.4	-5.9	-6.4	3.3	78.0	12.6	7.6	70.4	28.2	4.9	6.7	2.8
MT	-9.4	-8.4	-6.5	4.2	55.2	12.6	5.3	29.6	15.4	9.2	10.3	5.2
NL	-7.2	-6.5	-4.4	2.4	60.0	11.3	4.3	48.1	18.4	4.7	7.3	2.2
AT	-9.6	-8.2	-6.2	5.3	84.2	13.7	3.0	61.0	18.4	7.1	9.1	1.9
PL	-8.8	-7.4	-7.8	1.5	56.6	10.9	0.5	53.5	13.9	3.2	7.6	1.1
PT	-7.3	-4.4	-3.6	12.2	135.1	17.9	20.9	130.3	20.0	9.6	7.4	2.4
RO	-10.3	-8.6	-8.1	2.5	46.7	11.4	1.1	36.6	14.3	7.0	7.3	2.2
SI	-8.7	-7.0	-6.8	5.3	82.2	16.6	2.0	50.2	21.8	7.7	10.5	3.2
SK	-9.6	-8.3	-7.4	3.5	63.4	15.0	0.7	·	16.8	7.0	9.3	4.4
FI	-7.6	-6.9	-5.1	2.4	69.8	10.5	5.5	32.0	18.0	4.0	6.3	2.6
SE	-3.9	-3.5	-1.3	1.0	39.9	4.8	7.3	9.2	10.7	2.8	4.2	1.4
Threshold	-9.6	0.2	-2.5	2.3	68.4	8.1	13.2	59.5	15.9	4.8	1.9	0.6
Safety	>	>	>	<	<	<	<	<	<	<	<	<

Source: Commission services.

출처: EC,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 2021, p. 26.

〈표 III-16〉 재정-경쟁력 지수(Financial-competitiveness index)의 세부 변수 평가 결과

Table 2.3: Financial-competitiveness variables used in the S0 indicator, 2020

	Yield curve (pps.)	Real GDP growth (%)	GDP per capita PPP (% US level)	LNet Intern. Invest. Position (% GDP)	LJet savings households (% GDP)	LPrivate debt (% GDP)	LPrivate credit flow (% GDP)	LShort debt Non-fin. corp. (% GDP)	LShort debt households (% GDP)	LConstruct on (% value added)	LCurrent account (% GDP)	LChange real eff. exchange rate (pps.)	LChange nom. Unit Labour Costs (pps.)
BE	0.3	-8.4	80.5	50.6	3.4	179.1	3.8	30.2	1.5	5.4	0.1	2.5	5.3
BG	0.3	-5.1	38.0	-31.2	·	91.8	5.6	13.0	1.8	4.5	2.5	8.7	19.5
CZ	-1.2	-6.9	64.6	-20.3	3.9	80.8	3.1	14.1	1.0	5.6	0.6	1.4	14.4
DK	-0.1	-3.9	92.7	76.9	1.8	221.2	11.4	39.6	2.6	6.0	8.0	2.0	1.4
DE	-0.2	-5.6	85.4	71.7	6.4	105.4	5.4	13.4	1.7	5.4	7.4	-0.6	7.9
EE	·	-4.6	59.5	-21.4	5.2	97.8	3.8	7.7	0.9	6.4	1.7	1.8	19.9
IE	0.4	-2.3	141.4	-174.0	2.4	202.4	-9.1	23.9	0.8	2.6	-1.6	-2.2	-4.4
ES	0.7	-12.4	59.3	-73.9	1.2	129.4	1.3	6.2	2.6	6.4	2.3	0.3	4.0
FR	0.2	-8.4	71.4	-22.9	5.4	153.3	8.0	25.3	1.4	5.8	-0.7	-1.4	1.3
HR	0.4	-8.6	44.0	-50.3	1.7	91.2	1.7	5.9	2.9	5.7	2.6	3.1	4.7
IT	2.0	-9.9	64.1	-1.5	1.6	106.6	0.2	14.7	2.7	4.3	2.7	0.2	3.2
CY	0.9	-6.2	62.6	-122.3	-2.1	259.1	2.7	20.2	5.6	6.4	-5.2	-2.6	5.2
LV	0.4	-5.6	48.9	-41.7	-1.8	67.1	1.5	6.3	1.2	6.5	0.1	2.3	17.0
LT	0.7	-2.2	60.4	-24.1	0.4	55.1	3.0	3.8	0.8	7.3	1.4	3.7	16.4
LU	-0.1	-4.5	182.5	56.2	5.7	318.7	3.8	89.3	1.8	6.0	4.7	7.0	11.9
HU	1.9	-6.4	52.0	-43.7	3.3	66.6	3.2	11.1	2.3	5.6	0.7	-3.0	10.0
MT	0.7	-7.3	67.1	54.6	·	123.0	8.5	10.7	2.2	4.1	5.1	1.9	8.2
NL	0.0	-5.3	90.1	90.0	4.9	234.0	0.0	36.5	2.0	5.0	10.5	1.1	5.9
AT	0.1	-7.1	87.7	12.1	4.6	120.1	4.5	10.9	2.4	6.8	1.8	-0.6	5.5
PL	0.2	-3.6	52.8	-49.4	-0.9	74.0	3.3	7.6	2.4	7.2	-0.4	4.1	9.2
PT	0.6	-9.3	53.3	-100.3	-1.4	149.2	2.2	15.4	2.3	4.3	0.5	1.9	7.6
RO	1.1	-5.2	49.5	-43.5	-3.4	46.7	2.0	9.9	0.7	7.1	-4.0	3.5	24.5
SI	0.3	-7.1	61.0	-15.4	3.3	86.7	0.8	7.3	1.9	6.0	5.9	0.9	6.4
SK	0.3	-7.5	50.8	-66.3	2.7	91.6	5.0	12.9	1.6	7.6	-2.3	-0.1	14.5
FI	0.2	-4.3	79.0	3.6	0.2	147.5	7.6	15.3	3.8	7.5	-0.9	3.3	0.8
SE	-0.4	-3.4	86.4	18.2	8.0	203.7	9.8	37.4	15.2	6.8	3.3	-4.8	8.1
Threshold	0.6	-0.7	72.7	-19.8	2.6	164.7	11.7	15.4	2.9	7.5	-2.5	9.7	7.0
Safety	>	>	>	>	>	<	<	<	<	<	<	<	<

(1) Variable names preceded by L are taken in lagged values.

Source: Commission services.

출처: EC,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 2021, p. 26.

- (S1지표) 구조적 기초재정수지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해(x 연도)부터 15년 후($x+15$ 연도)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목표 수준 60%를 달성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x \sim x+5$ 연도) 필요한 재정 개선 정도
 - EU의 S1지표는 2.3(GDP 대비 2.3%p)으로 코로나를 회복한 연도부터 매해 약 0.4%p의 구조적 기초재정수지를 개선함으로써 15년 후에 부채비율 60%를 달성
 - S1값이 0~2.5 사이임에 따라 중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중위험 수준
 - 부채비율 60%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 조정분인 부채요건(DR)은 2.3%p, 고령화 비용(CoA)은 0.9%p에 해당
 - 회원국별로는 루마니아,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 고위험 결과
 - ※ 참고: S1지표의 정의가 기보고서들과는 상이함. 직전 2019년 보고서에서는 S1을 현재(t)로부터 15년 이후($t+15$)에 부채가 GDP 대비 60%를 달성하기 위해 전망 시작연도($t+2$)부터 5년간 구조적 기초재정수지의 개선 정도로 정의함. 이번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를 감안하여 S1의 정의를 수정하였으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시점은 회원국마다 다르므로 재정 개선 정도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연도가 상이함

〈표 III-17〉 S1지표 구성요소별 결과

Table 3.12: The medium-term sustainability indicator (S1) and its components, pps. of GDP

	S1	Due to		
		Initial Budgetary position (IBP)	Debt requirement	Ageing costs
BE	4.3	-1.2	4.6	0.9
BG	-3.1	-1.2	-2.5	0.7
CZ	-0.9	-0.8	-1.2	1.1
DK	-4.2	-2.8	-1.5	0.1
DE	-1.1	-2.3	0.2	1.0
EE	-2.9	-0.7	-2.3	0.1
IE	-1.8	-2.8	-0.1	1.0
ES	7.7	0.8	5.4	1.5
FR	4.4	-0.6	4.8	0.3
HR	-1.5	-2.2	1.6	-0.9
IT	9.2	1.4	6.5	1.4
CY	-0.6	-3.4	2.2	0.6
LV	-1.8	-1.1	-1.0	0.3
LT	-1.0	-0.9	-1.0	1.0
LU	-3.9	-2.8	-2.6	1.4
HU	-0.3	-1.8	0.6	0.9
MT	-3.5	-3.3	-1.1	0.9
NL	0.1	-1.8	0.3	1.6
AT	-0.3	-2.9	1.4	1.2
PL	-1.6	-1.2	-0.5	0.1
PT	2.0	-2.9	4.0	0.9
RO	14.8	8.8	4.3	1.7
SI	1.6	-1.6	0.9	2.2
SK	3.2	-0.2	1.5	1.9
FI	0.9	-0.8	1.0	0.8
SE	-3.1	-1.8	-1.6	0.3
EU	2.3	-0.9	2.3	0.9
EA	2.8	-1.1	2.9	1.0

Source: Commission services.

출처: EC,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 2021*, p. 54.

- (S2지표) 현 부채 수준을 무한히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필요한 기초재정수지 개선 폭
- EU의 S2값은 1.5(GDP 대비 1.5%p)로 나타나며 0.6%p인 초기 재정 상태(IBP)와 0.9%p인 고령화 비용(CoA)으로 구성
 - S2값이 2 미만임에 따라 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저위험 수준
 - 고령화 비용(CoA) 중에서도 장기요양보험(0.9%p)이 크게 작용

〈표 III-18〉 S2 구성요소별 결과

Table 4.1: Results of the S2 long-term sustainability indicator

	S2			CoA			
	S2	IBP	CoA	Pensions	HC	LTC	Others
BE	3.7	1.0	2.7	0.9	0.3	1.4	0.0
BG	2.5	-0.1	2.5	1.9	0.1	0.1	0.5
CZ	4.8	0.2	4.6	2.6	0.6	1.1	0.3
DK	1.0	0.1	0.9	-1.3	0.7	1.7	-0.3
DE	2.1	-0.1	2.2	1.0	0.5	0.3	0.5
EE	0.7	0.6	0.2	-0.8	0.4	0.4	0.3
IE	2.4	-0.9	3.3	1.0	0.7	1.8	-0.3
ES	0.2	1.1	-0.8	-1.9	0.0	1.0	0.0
FR	-1.1	1.7	-2.8	-3.2	0.2	0.5	-0.3
HR	-2.1	-0.3	-1.8	-2.5	0.8	0.3	-0.3
IT	1.1	0.5	0.6	-1.8	0.6	1.8	-0.1
CY	0.2	-1.7	1.9	1.8	0.2	0.2	-0.4
LV	-0.3	0.5	-0.8	-1.3	0.2	0.1	0.2
LT	0.3	0.3	-0.1	-1.6	0.2	0.9	0.5
LU	10.7	-0.7	11.4	7.4	1.0	2.6	0.3
HU	3.3	-1.1	4.3	2.9	0.5	0.4	0.6
MT	4.6	-1.7	6.3	3.5	1.5	0.9	0.4
NL	3.3	0.3	3.0	0.9	0.4	1.7	0.0
AT	2.4	-0.6	3.0	0.0	1.0	1.6	0.3
PL	1.6	0.6	1.0	-0.9	0.7	0.7	0.5
PT	-1.5	-1.7	0.2	-2.0	1.5	0.7	0.0
RO	6.5	4.9	1.6	0.7	0.3	0.2	0.4
SI	3.4	-0.3	3.7	2.4	0.3	0.6	0.4
SK	7.7	1.4	6.3	4.7	0.7	0.4	0.4
FI	3.2	2.1	1.2	-0.4	0.5	1.5	-0.4
SE	2.9	0.7	2.2	-0.2	0.6	1.5	0.4
EU	1.5	0.6	0.9	-0.6	0.4	0.9	0.1
EA	1.2	0.5	0.7	-0.7	0.4	0.9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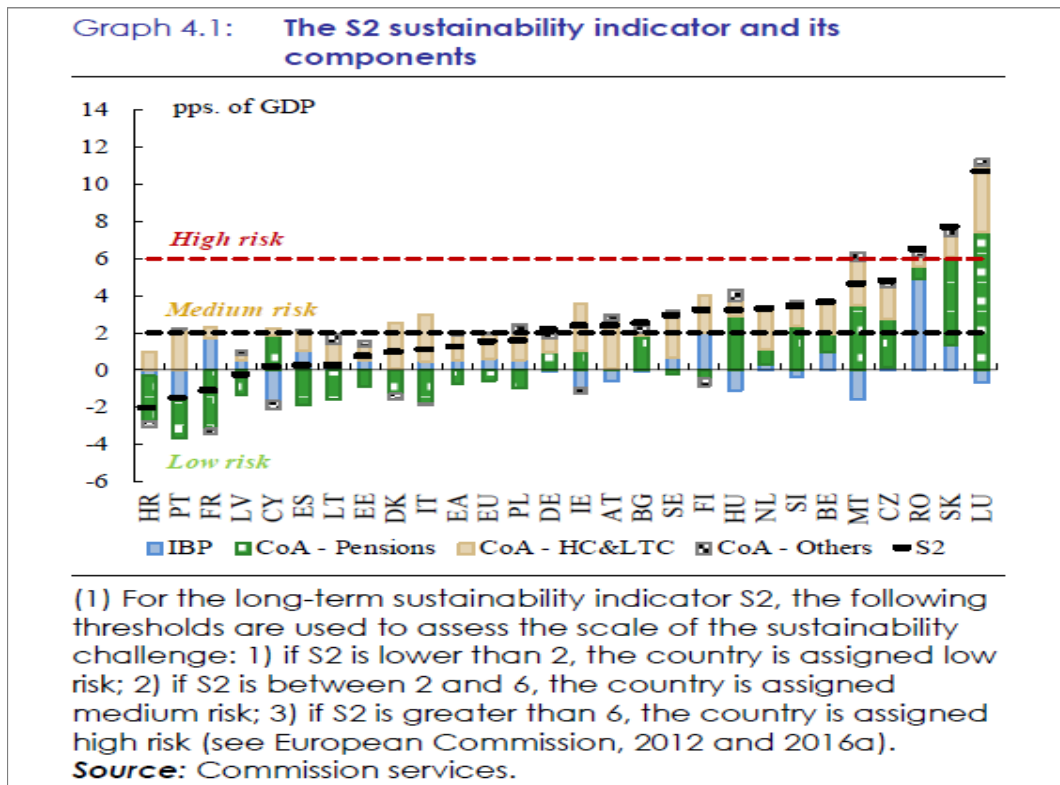
Source: Commission services.

출처: EC,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 2021*, p. 67.

- 회원국별로는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에서 S2지표가 각각 10.7, 7.7, 6.5로 장기 재정 위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12개국(체코, 말타, 벨기에 등)은 중위험 수준
 - 루마니아는 초기 재정여건이 불리한 영향이 크며 슬로바키아와 룩셈부르크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지출 증가 영향이 큼

[그림 III-9] S2 구성요소별 결과 그래프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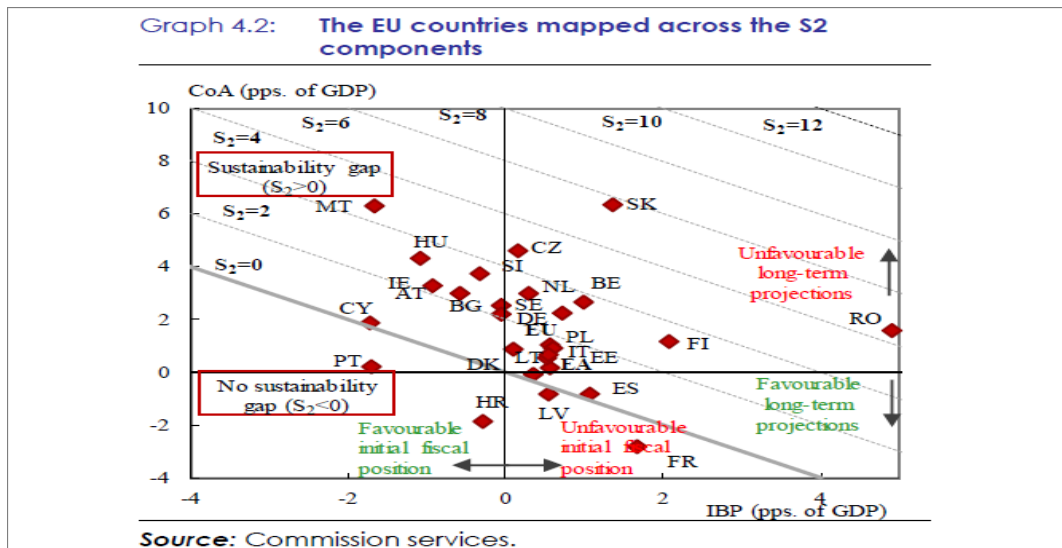
출처: EC,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 2021*, p. 68.

- [그림 III-10]에서 S2는 IBP(그래프상의 수평축)와 CoA(수직축) 거리의 합으로서 그래프상 대각선으로 나타나며 우상향할수록 S2지표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그래프의 수직축 값이 클수록 고령화 비용(CoA) 조정분이 크며 수평축 값이 클수록 초기 재정여건(IBP) 조정분이 큼을 의미
- 대부분 EU 회원국은 불리한 고령화지출 증가로 인하여 상단에 위치함
 - 크로아티아는 초기 재정여건과 고령화지출 측면에서 모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 저 위험 수준($S_2 \leq 2$)의 11개 회원국 중에서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프랑스, 라트비아는 S_2 가 음수(-)의 값을 나타냄
- 불가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룩셈부르크, 헝가리, 말타,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는 초기 재정여건은 유리하나 고령화지출 영향이 불리하게 나타나면서 그래프 좌측 상단에 위치
 - 사이프러스, 포르투갈을 제외하고는 심한 고령화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여건이 개선되어도 재정 지속가능성 회복에는 불충분
- 스페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프랑스는 고령화지출 측면은 유리하나 초기 재정여건이 불리함에 따라 오른쪽 하단에 위치
 - 프랑스와 라트비아는 고령화지출 감소가 불리한 초기 재정여건에 대해 상쇄 이상의 영향을 미쳐 장기 재정지속가능성 평가에 긍정적 결과를 초래
 - 반면 스페인, 리투아니아는 고령화지출 감소가 초기 재정여건을 상쇄하지 못했으나 여전히 낮은 S_2 수준을 나타냄
 - 이탈리아는 최근 개혁으로 인해 고령화지출 측면에서는 덜 불리하나 여전히 고령화지출은 계속 상승세를 유지

[그림 III-10] 국가별 S_2 지표 결과 도면 그래프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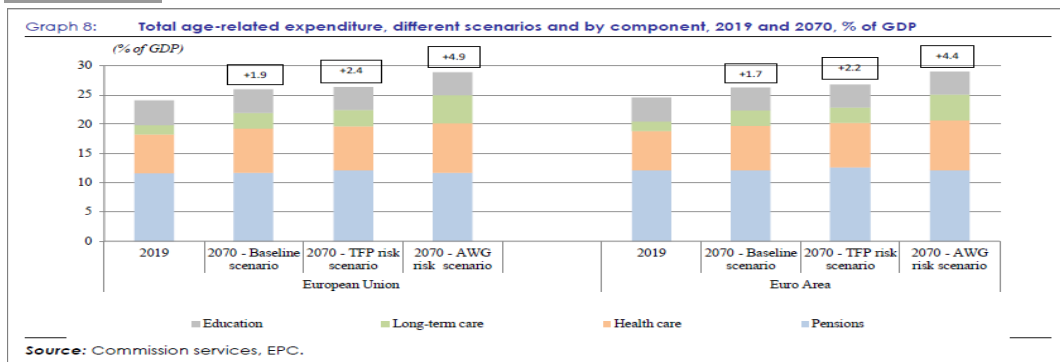
주: EU 국가명 약어는 보고서 부록을 참조
출처: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 2021, p. 68.

8. 시나리오 및 민감도 분석

가. Risk 시나리오 분석

- (TFP risk 시나리오) 총요소생산성(TFP) 감소 추세를 반영한 시나리오로서 TFP 성장률은 2045년까지 0.8%(기본 시나리오 1.0%)에 수렴하며 GDP 성장이 둔화되어 잠재 GDP는 2070년까지 평균 1.1%(기본 시나리오 1.3%)로 상승할 것
- (전망 결과) EU의 총고령화지출은 2070년까지 GDP 대비 2.4%p 증가한 26.4%로 기본 시나리오 대비 0.5%p 증가
 - TFP risk는 특히 연금지출에 영향을 미치는데, 2070년의 GDP 대비 연금지출 전망은 기본 시나리오보다 0.4%p 높은 12.1%에 도달
- (AWG risk 시나리오) 의료분야의 기술 및 시스템 발전을 반영한 시나리오로서 주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지출에 영향
- (시나리오 비교) AWG reference 시나리오(기본 시나리오)가 인구 변화에 중점을 두는 반면, AWG risk 시나리오는 비인구학적 영향을 분석
 - 의료비 지출의 소득 탄력성에 대해 AWG risk 시나리오는 2019년 1.5에서 2070년 1로 수렴하는 것으로 설정(기본 시나리오는 2019년 1.1 → 2070년 1로 수렴)
- (전망 결과) 2070년 EU의 총고령화지출은 2070년까지 GDP 대비 4.9%p 상승한 28.9%를 나타내며 기본 시나리오 대비 3.0%p 증가한 결과
 - 특히 2070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전망 결과는 기본 시나리오보다 GDP 대비 0.9%p, 2.0%p 높은 8.4%, 4.8%를 나타냄

[그림 III-11] 시나리오별 EU 총고령화지출 전망 결과 비교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2019-2070)*, 2021, p. 11.

〈표 III-19〉 EU 분야별 전망 결과(TFP 시나리오)

Table 2: Overview of the 2021 long-term budgetary projections – TFP risk scenario

Ageing Report 2021 - TFP risk scenario

Age-related spending, percentage points of GDP, 2019-2070

	Ageing Report 2021 - TFP risk scenario															
	Pensions				Health-care				Long-term care				Education			
	2019 level	CH 19-46	CH 19-70	2019 level	CH 19-46	CH 19-70	2019 level	CH 19-46	CH 19-70	2019 level	CH 19-46	CH 19-70	2019 level	CH 19-46	CH 19-70	
BE	12.2	3.2	4.0	5.7	0.5	0.6	2.2	1.2	2.1	2.1	-0.5	-0.4	25.6	4.5	6.4	
BG	8.3	0.7	2.4	4.6	0.4	0.2	0.3	0.1	0.1	0.1	0.2	0.4	16.1	1.4	3.1	
CZ	8.0	2.9	3.2	5.6	0.8	0.9	1.5	0.9	1.6	1.6	0.4	0.6	18.6	5.0	6.3	
DK	9.3	-1.5	-2.1	6.7	0.7	0.8	3.5	2.4	3.4	6.1	-0.6	-0.8	25.4	0.9	1.4	
DE	10.3	1.8	2.2	7.4	0.4	0.4	1.6	0.3	0.3	0.3	0.3	0.5	23.3	2.9	3.4	
EE	7.8	-1.4	-2.1	4.9	0.6	0.7	0.4	0.2	0.3	4.2	-0.5	-0.4	17.2	-1.1	-1.6	
IE	4.6	2.7	3.1	4.1	0.9	1.4	1.3	0.9	1.9	3.3	-0.1	-0.1	13.2	4.4	6.3	
EL	15.7	-1.7	-3.1	4.4	0.7	0.8	0.2	0.0	0.0	3.2	-0.6	-0.6	23.6	-1.6	-3.0	
ES	12.3	1.2	-1.2	5.7	1.2	1.3	0.7	0.4	0.8	3.8	-0.5	-0.4	22.3	2.3	0.5	
FR	14.8	0.3	-1.2	8.4	1.0	1.1	1.9	0.6	0.9	4.4	-0.5	-0.6	29.5	1.4	0.1	
HR	10.2	0.0	-0.5	5.9	0.6	0.7	0.4	0.1	0.2	5.0	-0.7	-0.5	21.5	0.0	0.0	
IT	15.4	2.5	-1.2	5.9	1.2	1.2	1.7	0.7	1.0	3.5	-0.4	-0.4	26.5	4.0	0.5	
CY	8.8	1.6	2.4	2.9	0.2	0.3	0.3	0.2	0.3	5.3	-0.6	-0.7	17.3	1.4	2.3	
LV	7.1	-0.8	-1.1	4.6	0.6	0.4	0.5	0.1	0.2	3.6	-0.2	0.0	15.8	-0.3	-0.5	
LT	7.1	1.2	0.5	4.2	0.5	0.5	1.0	0.5	0.8	3.0	-0.3	-0.1	15.3	1.9	1.6	
LU	9.2	5.0	9.5	3.6	0.7	1.0	1.0	0.5	1.4	3.0	-0.8	-0.8	16.9	5.4	11.1	
HU	8.3	2.8	4.6	4.8	0.7	0.8	0.6	0.3	0.7	3.4	-0.3	-0.1	17.1	3.5	6.0	
MT	7.1	0.3	4.5	5.4	1.2	2.6	1.1	0.8	1.8	4.3	-0.7	-0.3	17.9	1.5	8.8	
NL	6.8	2.1	2.3	5.7	0.6	0.8	3.7	2.0	2.7	4.9	-0.3	-0.5	21.0	4.5	5.2	
AT	13.3	1.7	1.4	6.9	1.0	1.1	1.8	1.0	1.8	4.7	-0.3	-0.1	26.7	3.4	4.2	
PL	10.6	0.3	0.2	4.9	2.0	2.5	0.8	0.8	1.6	3.8	-0.4	-0.1	20.1	2.6	4.3	
PT	12.7	1.3	-2.4	5.7	1.4	1.6	0.4	0.3	0.4	4.3	-0.1	-0.1	23.1	2.8	-0.6	
RO	8.1	7.4	4.6	3.9	0.8	0.9	0.4	0.2	0.4	2.5	-0.2	-0.1	14.9	8.2	5.8	
SI	10.0	4.9	6.2	5.9	1.3	1.4	1.0	0.8	1.3	3.8	-0.1	0.1	20.7	6.9	9.0	
SK	8.3	4.4	6.2	5.7	1.9	2.4	0.8	1.0	2.1	3.4	0.1	0.4	18.3	7.4	11.0	
FI	13.0	-0.1	1.9	6.1	0.6	0.8	2.0	1.4	2.1	5.3	-0.8	-0.9	26.5	1.1	3.9	
SE	7.6	-0.7	-0.1	7.2	0.4	0.7	3.3	1.1	2.2	5.9	-0.6	-0.5	24.1	0.3	2.3	
NO	11.0	1.7	2.6	7.0	0.7	1.1	4.0	2.2	3.9	7.2	-0.6	-0.6	29.2	4.0	7.0	
EA	12.1	1.5	0.5	6.7	0.8	0.9	1.7	0.7	0.9	4.1	-0.2	-0.2	24.6	2.7	2.2	
EU	11.6	1.3	0.5	6.6	0.8	0.9	1.7	0.7	1.1	4.1	-0.3	-0.2	24.0	2.6	2.4	

Source: Commission services, EPC.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2019-2070), 2021, p. 14.

Table 3: Overview of the 2021 long-term budgetary projections – AWG risk scenario

		Ageing Report 2021 - AWG risk scenario																			
		Pensions				Health-care				Long-term care				Education				Total age-related items			
		2019 level	CH 19-45	CH 19-70	2019 level	CH 19-45	CH 19-70	2019 level	CH 19-45	CH 19-70	2019 level	CH 19-45	CH 19-70	2019 level	CH 19-45	CH 19-70	2019 level	CH 19-45	CH 19-70		
BE	12.2	2.9	3.0	5.7	0.9	1.2	2.2	1.7	3.5	5.5	-0.5	-0.4	25.6	5.1	7.3	BE					
BG	8.3	0.6	1.4	4.6	1.1	1.1	0.3	0.4	1.3	2.9	0.2	0.4	16.1	2.3	4.1	BG					
CZ	8.0	2.7	2.9	5.6	1.6	2.1	1.5	1.2	2.4	3.4	0.4	0.6	18.6	5.9	8.0	CZ					
DK	9.3	-1.5	-2.0	6.7	1.5	2.1	3.5	2.7	4.3	6.1	-0.6	-0.8	25.4	2.1	3.5	DK					
DE	10.3	1.8	2.1	7.4	1.0	1.3	1.6	0.9	1.8	4.0	0.3	0.5	23.3	4.0	5.7	DE					
EE	7.8	-1.5	-2.3	4.9	1.6	2.0	0.4	1.2	5.1	4.2	-0.5	-0.4	17.2	0.8	4.4	EE					
IE	4.6	2.7	3.0	4.1	1.2	2.0	1.3	1.5	3.7	3.3	-0.1	-0.1	13.2	5.2	8.6	IE					
EL	15.7	-2.0	-3.8	4.4	1.3	1.6	0.2	0.3	2.4	3.2	-0.6	-0.6	23.6	-1.0	-0.4	EL					
ES	12.3	0.8	-2.1	5.7	1.8	2.2	0.7	1.0	2.8	3.8	-0.5	-0.4	22.3	3.1	2.4	ES					
FR	14.8	-0.2	-2.2	8.4	1.6	2.1	1.9	1.5	3.3	4.4	-0.5	-0.6	28.5	2.5	2.6	FR					
HR	10.2	-0.1	-0.7	5.9	1.3	1.7	0.4	0.7	2.3	5.0	-0.7	-0.5	21.5	1.2	2.9	HR					
IT	15.4	1.9	-1.8	5.9	1.5	1.9	1.7	1.1	2.0	3.5	-0.4	-0.4	26.5	4.2	1.6	IT					
CY	8.8	1.5	2.1	2.9	0.4	0.7	0.3	0.8	2.8	5.3	-0.8	-0.7	17.3	1.9	4.9	CY					
LV	7.1	-0.8	-1.2	4.6	1.6	1.7	0.5	0.8	3.9	3.6	-0.2	0.0	15.8	1.4	4.3	LV					
LT	7.1	1.2	0.4	4.2	1.4	1.8	1.0	1.7	5.4	3.0	-0.3	-0.1	16.3	4.0	7.3	LT					
LU	9.2	4.6	8.7	3.6	1.0	1.6	1.0	1.1	3.5	3.0	-0.8	-0.8	16.9	6.0	13.1	LU					
HU	8.3	2.4	4.1	4.8	1.6	2.1	0.6	1.1	3.8	3.4	-0.3	-0.1	17.1	4.8	9.8	HU					
MT	7.1	0.1	3.8	5.4	2.1	3.9	1.1	1.4	4.6	4.3	-0.7	-0.3	17.9	2.9	12.1	MT					
NL	6.8	2.2	2.3	5.7	1.0	1.4	3.7	2.6	4.1	4.9	-0.3	-0.5	21.0	5.5	7.4	NL					
AT	13.3	1.6	1.0	6.9	1.6	2.1	1.8	1.5	2.9	4.7	-0.3	-0.1	26.7	4.3	5.8	AT					
PL	10.6	-0.1	-0.2	4.9	3.2	4.2	0.8	1.8	5.8	3.8	-0.4	-0.1	20.1	4.6	9.8	PL					
PT	12.7	1.0	-3.2	5.7	2.0	2.6	0.4	1.8	7.8	4.3	-0.1	-0.1	23.1	4.6	7.0	PT					
RO	8.1	6.6	3.8	3.9	1.9	2.4	0.4	1.0	3.9	2.5	-0.2	-0.1	14.9	9.3	9.9	RO					
SI	10.0	4.8	6.0	5.9	2.4	2.9	1.0	1.9	4.5	3.8	-0.1	0.1	20.7	8.0	13.5	SI					
SK	8.3	4.2	5.9	5.7	2.9	3.7	0.8	1.9	5.5	3.4	0.1	0.4	18.3	9.0	15.5	SK					
FI	13.0	-0.4	1.3	6.1	1.2	1.8	2.0	2.0	4.1	5.3	-0.8	-0.9	26.5	1.9	6.3	FI					
SE	7.6	-0.7	-0.1	7.2	1.1	1.7	3.3	2.3	6.1	6.9	-0.6	-0.5	24.1	2.2	7.2	SE					
NO	11.0	1.7	2.6	7.0	1.4	2.1	4.0	2.5	4.7	7.2	-0.6	-0.6	29.2	5.0	8.8	NO					
EA	12.1	1.2	0.1	6.7	1.4	1.7	1.7	1.3	2.8	4.1	-0.2	-0.2	24.6	3.6	4.4	EA					
EU	11.6	1.1	0.1	6.6	1.4	1.8	1.7	1.4	3.1	4.1	-0.2	-0.2	24.0	3.6	4.9	EU					

Source: Commission services, EPC.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2019-2070), 2021, p. 15.

나. 민감도 분석

□ (연금) 다음의 7가지 민감도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기본 시나리오 전망과 비교

○ 시나리오 소개

- 기대여명 상승 시나리오, High life expectancy: 2070년 기대여명을 기본 시나리오 대비 2년 상향 조정
- 이주율 하락·상승 시나리오, Lower/higher net migration: 전망 기간 동안 이주율 33% 감소·증가 가정
- 출산율 하락 시나리오, Lower fertility: 전망 기간 내내 출산율 20% 감소
- 장년층 고용률 상승 시나리오, Higher employment rate older workers: 55~74세 장년층에 대해 고용률을 기본 시나리오 대비 10%p 상향 조정
- 총요소생산성 상승 시나리오, Higher TFP growth: 2045년에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기본 시나리오보다 0.2%p 높은 1.2%에 수렴
- 총요소생산성 위험 시나리오, TFP risk scenario: 2045년에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기본 시나리오보다 0.2%p 낮은 0.8%로 수렴
- 은퇴연령 연동 시나리오, Linking retirement age: 코호트 시뮬레이션 모형에서 기대여명 증가에 따라 은퇴연령을 매년 증가시키는 가정
- 수급연령 유지 시나리오, Unchanged retirement age: 조기 및 법정 수급, 경력 요건이 기준 연도와 동일하게 유지 가정
- 연금 급여율 하락 상쇄 시나리오, Offset declining pension benefit ratio: 연금 급여율이 기준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 시 급여율 안정화 조치로서 남은 전망 기간 동안 90% 미만에서 일정하게 유지

○ 기본 시나리오 대비 2019~2070년 연금지출 변화분 전망 결과

- 기대여명 상승 시나리오, High life expectancy: 노동력 및 GDP 증가 효과보다 연금수급기간 연장 영향이 크므로 GDP 대비 연금지출 비중은 0.3%p 증가
- 이주율 하락/상승 시나리오, Lower/higher net migration: 수급자 수 감소 효과보다 노동력 및 GDP 감소 효과가 크므로 기본 시나리오 대비 0.4%p 증가(상승 시나리오는 반대 효과에 의해 약 0.3%p 감소)
- 출산율 하락 시나리오, Lower fertility: 부양비 증가로 연금지출 비율이 기본 시나리오 대비 1.2%p 상승
- 장년층 고용률 상승 시나리오, Higher employment rate older workers: 장년

고용률 상승은 연금지출의 증가 및 감소의 상반된 요인으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는 EU 회원국 평균 기본 시나리오 대비 연금지출 비율이 0.3%p 감소

- GDP 증가와 연금 수급자 및 수급 기간의 감소는 연금지출의 감소 요인
- 특정 연령 및 경력 이상의 수급권자에게 추가 연금 권리를 발생시키거나 보너스 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 연금지출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

- 총요소생산성 상승 시나리오, Higher TFP growth: 기술 발전 또는 교육 증가 등을 반영하면서 기본 시나리오보다 GDP 대비 연금지출이 0.5%p 감소
- 총요소생산성 위험 시나리오, TFP risk scenario: 총요소생산성 하락 위험을 반영한 결과 기본 시나리오보다 GDP 대비 연금지출 비중이 0.5%p 증가
- 은퇴연령 연동 시나리오, Linking retirement age: 은퇴연령 연장 시 수급자 수 감소 효과가 수급액 증가 효과를 상회하여 기본 시나리오보다 GDP 대비 연금지출의 비중이 1.1%p 감소
- 수급연령 유지 시나리오, Unchanged retirement age: 입법은 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개혁의 영향을 제외함에 따라 기본 시나리오보다 GDP 대비 연금지출의 비중이 0.9%p 증가
- 연금 급여율 하락 상쇄 시나리오, Offset declining pension benefit ratio: 연금 적정성을 유지함에 따라 기본 시나리오 대비 연금지출 비중이 3.2%p 증가

〈표 III-21〉 연금지출 전망 민감도 분석 시나리오 개요

Table I.3.1: Overview of sensitivity tests and alternative scenarios

Population			Labour force	Productivity	Policy risk scenarios		
Higher life expectancy	Lower/higher net migration	Lower fertility	Higher employment rate older workers	Higher TFP growth and TFP risk scenario	Linking retirement age	Unchanged retirement age	Offset declining pension benefit ratio
Increase in life expectancy at birth of two years by 2070 compared with the baseline projection.	33% less/more net migration compared with the baseline over the entire projection horizon.	20% lower fertility compared with the baseline over the entire projection horizon.	Employment rate of older workers (55-74y) 10 pps higher compared with the baseline projection. The increase is introduced linearly over the period 2021-2033 and remains 10 pps higher thereafter. The higher employment rate of this group of workers is assumed to be achieved through a reduction of the inactive population.	TFP growth assumed to converge to 0.8%/1.2% (instead of 1%). As done for the baseline scenario, a period of fast convergence for 'followers' is assumed (i.e. rising by up to 0.8% + 0.5% and 1.2% + 0.5%, respectively). Convergence to the target rate in 2045 from the latest outturn year, i.e. 2019.	The effective retirement age is shifted year-over-year in line with 3/4 of the change in life expectancy at current retirement ages (in the Cohort Simulation Model).	The early and statutory retirement ages, as well as career requirements, are frozen at the situation in the base year.	When the earnings-related public pension benefit ratio declines by 10% compared to the base year level, measures are taken to stabilise the benefit ratio.

Note: For details on the sensitivity scenarios, see Part I, Chapter 5 in EC-EPC (2020).
Source: Commission services, EPC.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 (2019-2070)*, 2021, p. 47.

〈표 III-22〉 2019~2070년 GDP 대비 연금지출 전망치 변화분 민감도 분석 결과

(단위: GDP 대비 %, GDP 대비 %p)

Table II.1.22: Summary table: impact of all sensitivity tests on the change in gross public pension expenditure in 2019-2070 (deviation from the baseline, pps of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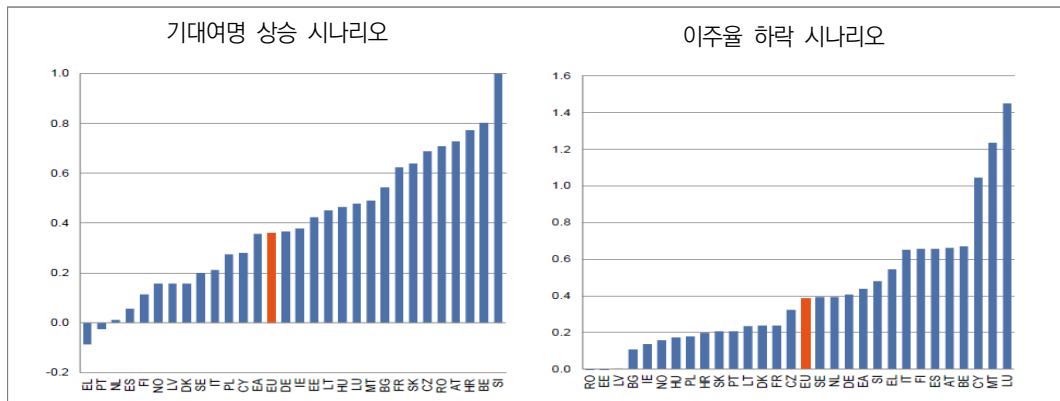
	baseline 2019-2070 (%GDP)	impact of unfavourable scenarios (pps of GDP)						impact of favourable scenarios (pps of GDP)			
		Higher life expectancy	Lower migration	Lower fertility	TFP risk scenario	Unchanged ret. age	Offset BR	Higher migration	Higher empl. 55-74	Higher TFP growth	Link to life expectancy
LU	8.7	0.5	1.5	2.2	0.7	0.0	2.0	-1.1	-0.1	-0.9	-1.6
SI	6.0	1.0	0.5	2.1	0.2	0.5	0.0	-0.4	-1.4	-0.4	-1.9
SK	5.9	0.6	0.2	2.1	0.3	0.6	1.3	-0.2	-0.4	-0.5	-2.3
HU	4.1	0.5	0.2	1.5	0.5	0.7	0.0	-0.4	-0.7	-0.5	-2.3
MT	3.8	0.5	1.2	1.0	0.6	0.2	1.2	-0.8	-0.3	-0.7	-0.4
RO	3.8	0.7	-0.3	1.9	0.8	0.1	0.0	0.4	-0.4	-0.5	-1.1
IE	3.0	0.4	0.1	1.0	0.1	0.0	0.0	-0.1	-0.3	-0.1	-1.0
BE	3.0	0.8	0.7	1.8	1.0	0.3	0.0	-0.5	-0.9	-1.1	-1.3
CZ	2.9	0.7	0.3	1.5	0.3	2.2	0.0	-0.3	0.2	-0.3	-1.4
NO	2.6	0.2	0.2	1.4	0.0	0.0	0.0	-0.7	-0.6	0.0	-0.4
NL	2.3	0.0	0.4	1.3	-0.1	1.2	0.0	-0.3	-0.2	0.0	-0.4
DE	2.1	0.4	0.4	1.0	0.0	0.5	0.0	-0.3	-0.2	0.0	-0.9
CY	2.1	0.3	1.0	1.2	0.3	2.2	4.0	-0.8	-0.2	-0.1	0.0
BG	1.4	0.5	0.1	1.5	1.0	0.3	0.4	-0.1	-0.3	-0.2	-0.8
FI	1.3	0.1	0.7	1.6	0.6	1.9	1.9	-0.6	-0.2	-0.5	0.0
AT	1.0	0.7	0.7	0.6	0.4	0.3	1.9	-0.6	-0.3	-0.4	-1.5
LT	0.4	0.5	0.2	0.1	0.1	0.2	1.7	-0.2	0.0	0.0	-0.6
EU	0.1	0.4	0.4	1.2	0.5	0.9	3.2	-0.3	-0.3	-0.5	-1.1
EA	0.1	0.4	0.4	1.2	0.5	0.9	3.2	-0.4	-0.3	-0.5	-1.1
SE	-0.1	0.2	0.4	1.0	0.0	0.0	3.4	-0.3	-0.2	0.0	-0.7
PL	-0.2	0.3	0.2	1.1	0.4	0.0	6.7	-0.2	-0.3	-0.4	-0.7
HR	-0.7	0.8	0.2	1.5	0.3	0.2	2.4	-0.2	-0.7	-0.4	-1.1
LV	-1.2	0.2	0.0	0.3	0.1	0.0	3.3	0.0	0.1	-0.1	0.0
IT	-1.8	0.2	0.7	1.0	0.6	0.4	2.7	-0.5	0.2	-0.6	0.0
DK	-2.0	0.2	0.2	0.9	-0.1	2.3	0.5	-0.2	-0.3	0.1	0.0
ES	-2.1	0.1	0.7	1.0	0.9	1.5	8.3	-0.5	-1.4	-0.9	-1.1
FR	-2.2	0.6	0.2	1.8	0.9	2.2	3.4	-0.2	-0.3	-1.0	-2.6
EE	-2.3	0.4	0.0	0.1	0.2	0.8	2.7	0.1	0.1	-0.1	0.0
PT	-3.2	0.0	0.2	1.3	0.7	0.6	5.6	-0.3	-0.3	-0.8	-0.3
EL	-3.8	-0.1	0.5	1.1	0.7	1.4	4.1	-0.5	-0.1	-0.7	0.0

Source: European Commission, EP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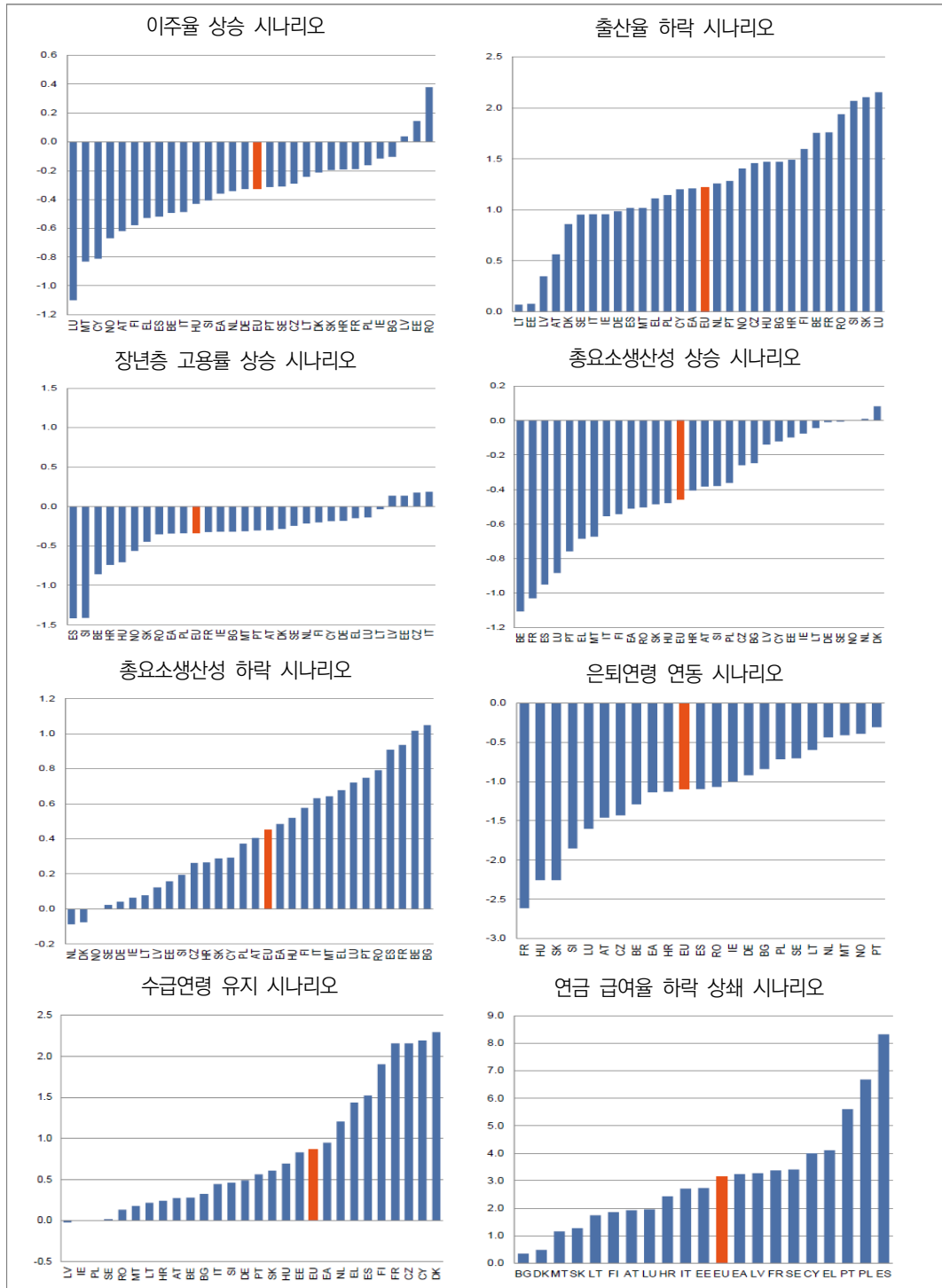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 (2019-2070)*, 2021, p. 96.

〔그림 III-12〕 기본 시나리오 대비 2019~2070년 연금지출 전망치 변화분 민감도 분석 결과

(단위: GDP 대비 %p)



[그림 III-12]의 계속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 (2019-2070)*, 2021, pp. 91-96.

□ (건강보험) 다음의 9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하고 전망 결과를 비교

○ 시나리오 소개

- 인구 시나리오, Demographic scenario: 인구고령화만 반영한 시나리오
- 기대여명 상승 시나리오, High life expectancy scenario: 2070년에 기대여명을 2년 상향 조정
- 건강한 고령화 시나리오, Health ageing scenario: 기대여명 상승 시나리오와 반대로 늘어난 기대수명은 건강한 상태로 가정하여 기준연도에서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변화분만큼 1인당 유병률(Morbidity rate) 감소
- 사망비용 시나리오, Death-related costs scenario: 사망률 개선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지연 가능성을 고려한 시나리오
- 소득 탄력성 시나리오, Income elasticity scenario: 의학기술 발달, 삶의 질 향상을 감안하여 의료비지출에 대한 소득 탄력성을 전망 시작연도에 1.1에서 2070년 1.0으로 하락
- 비용수렴 시나리오, Cost convergence scenario: 1인당 의료비지출이 EU 평균 이하인 국가들에 대해 2070년에는 EU 평균치로 수렴하는 가정
- 노동 집약도 시나리오, Labour intensity scenario: 1인당 의료비지출 증가 시 1인당 GDP 성장률 대신 근로자 1인당 GDP 성장률을 적용
- 의료부문 특수성 시나리오, Sector-specific composite indexation scenario: 1인당 의료비지출 전망 시 병원 진료, 외래 진료, 의약품 및 치료기기, 예방 의료 서비스 등 특성에 따라 항목별로 구분하여 과거 추세를 기반으로 추계
- 비인구적 요인 시나리오, Non-demographic determinants scenario: 소득, 의료 기술, 제도 등 비인구 요인만 고려하여 의료비 지출에 대한 소득 탄력성을 전망 시작연도는 기본 시나리오(1.1)보다 높은 1.5, 2070년에는 1로 수렴 가정

○ 기본 시나리오 대비 2019~2070년 건강보험 지출 변화분 전망 결과

- 인구 시나리오, Demographic scenario: 순인구고령화 효과로 인해 전망 기간의 지출 변화분이 기본 시나리오(0.9%p)보다 0.4%p 상승한 1.2%p 증가
- 기대여명 상승 시나리오, High life expectancy scenario: 건강 악화 기간의 연장으로 2070년 건강보험지출은 기본 시나리오보다 0.4%p 증가한 1.3%p 수준
- 건강한 고령화 시나리오, health ageing scenario: 건강한 상태에서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기본 시나리오 대비 0.6%p 감소한 0.3%p 수준

- 사망 비용 시나리오, Death-related costs scenario: 의료비지출이 노년기에 집중된 본 시나리오는 17개 회원국에 대해서만 결과를 제공받았으며 기본 시나리오 결과 대비 건강보험지출이 증가 또는 감소하였으며 국가별로 상이함
- 소득 탄력성 시나리오, Income elasticity scenario: 의료비지출의 소득 탄력성을 조정함에 따라 기본 시나리오 대비 0.5%p 증가하여 1.4%p에 도달
- 비용수렴 시나리오, Cost convergence scenario: 전 회원국의 의료비지출을 EU 평균 수준으로 수렴하여 기본 시나리오 대비 0.5%p 증가한 1.4%p로 전망
- 노동 집약 시나리오, Labour intensity scenario: 의료비지출 전망 시 기본 시나리오에서 가정한 1인당 GDP 증가율보다 증가 속도가 빠른 근로자 1인당 GDP 증가율을 적용하므로 2070년 건강보험지출 비중은 기본 시나리오보다 0.8%p 높은 1.7%p만큼 2019~2070년 사이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의료부문 특수성 시나리오, Sector-specific composite indexation scenario: 의료기술 발전 등과 같은 비인구적 요인의 영향을 더 받게 되며 기본 시나리오 결과보다 0.8%p 높은 1.7%p만큼 2019~2070년 사이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비인구적 요인 시나리오, Non-demographic determinants scenario: 의료비지출에 대한 높은 소득 탄력성에 따라 기본 시나리오보다 2.1%p 높은 3.0%p

〈표 III-23〉 건강보험지출 전망 민감도 분석 시나리오 개요

Table II.2.1: Overview of the scenarios used to project health care spending

	Demographic scenario	High life expectancy scenario	Healthy ageing scenario	Death-related costs scenario	Income elasticity scenario	EU27 cost convergence scenario	Labour intensity scenario	Sector-specific composite indexation scenario	Non-demographic determinants scenario	AWG reference scenario	AWG risk scenario	TFP risk growth scenario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XI	XII
Population projection	Eurostat 2019-based population projections	Alternative higher life expectancy scenario (+2 years)	Eurostat 2019-based population projections	Eurostat 2019-based population projections	Eurostat 2019-based population projections	Eurostat 2019-based population projections	Eurostat 2019-based population projections	Eurostat 2019-based population projections	Eurostat 2019-based population projections	Eurostat 2019-based population projections	Eurostat 2019-based population projections	Eurostat 2019-based population projections
Age-related expenditure profiles	2019 profiles held constant over the projection period	2019 profiles held constant over the projection period	2019 profiles shift in line with changes in age-specific life expectancy	2019 profiles split into profiles of decedents and survivors and adjust in line with changes in age-specific life expectancy	2019 profiles held constant over the projection period	Individual country profiles converging upwards to the EU27 average profile over the projection period	2019 profiles held constant over the projection period	2019 profiles held constant over the projection period	2019 profiles held constant over the projection period	Intermediate scenarios I and III whereby 2019 profiles shift by half the change in age-specific life expectancy	Intermediate scenarios I and III whereby 2019 profiles shift by half the change in age-specific life expectancy	Intermediate scenarios I and III whereby 2019 profiles shift by half the change in age-specific life expectancy
Unit cost development	GDP per capita	GDP per capita	GDP per capita	GDP per capita	GDP per capita	GDP per capita	GDP per capita	Input-specific indexation	GDP per capita	GDP per capita	GDP per capita	GDP per capita
Elasticity of demand	1	1	1	1	Cost sensitivity of 1.1 in 2019 converging to 1 by 2070	1	1	1	Cost sensitivity of 1.5 in 2019 converging to 1 by 2070	Cost sensitivity of 1.1 in 2019 converging to 1 by 2070	Cost sensitivity of 1.5 in 2019 converging to 1 by 2070	Cost sensitivity of 1.1 in 2019 converging to 1 by 2070

Source: Commission services, EPC.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 (2019-2070)*, 2021, p. 117.

〈표 III-24〉 2019~2070년 GDP 대비 건강보험지출 전망치 변화분 민감도 분석 결과

(단위: GDP 대비 %p)

Table II.2.15: Overview of scenario results - increase in public expenditure on health care over 2019-2070, as pps. of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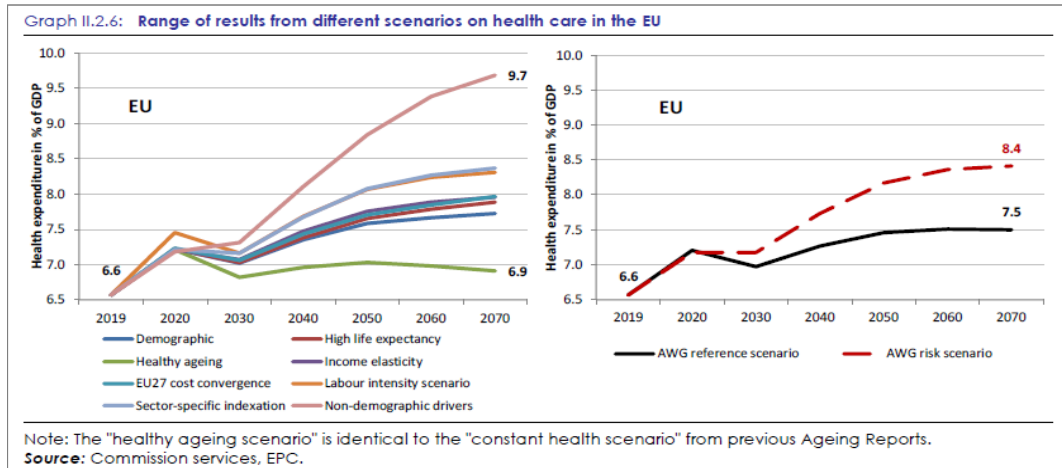
	Demographic scenario	High life expectancy scenario	Healthy ageing scenario	Death-related costs scenario	Income elasticity scenario	EU27 cost convergence scenario	Labour intensity scenario	Sector-specific composite indexation scenario	Non-demographic determinants scenario	AWG reference scenario	AWG risk scenario	TFP risk growth scenario	
BE	1.0	1.2	0.1	0.7	1.2	1.1	1.5	1.2	2.4	0.6	1.2	0.6	BE
BG	0.4	0.3	-0.3	0.4	0.6	2.0	1.1	1.5	2.2	0.2	1.1	0.2	BG
CZ	1.2	1.4	0.3	0.8	1.5	1.3	2.4	2.2	3.5	0.9	2.1	0.9	CZ
DK	1.0	1.1	0.2	0.8	1.3	1.0	0.9	1.8	3.4	0.9	2.1	0.8	DK
DE	0.7	0.9	-0.2	0.3	0.9	0.7	1.7	1.4	2.5	0.4	1.3	0.4	DE
EE	0.8	0.8	0.2	:	1.1	1.8	1.3	1.4	3.3	0.8	2.0	0.7	EE
IE	1.7	1.8	1.0	:	1.8	2.5	2.9	1.7	2.8	1.4	2.0	1.4	IE
EL	0.9	1.0	0.3	:	1.1	2.3	0.3	1.9	2.8	0.8	1.6	0.8	EL
ES	1.5	1.7	0.8	1.4	1.7	1.6	1.8	2.2	3.3	1.3	2.2	1.3	ES
FR	1.3	1.5	0.4	1.2	1.6	1.3	1.5	2.4	3.5	1.1	2.1	1.1	FR
HR	1.0	1.1	0.1	:	1.3	1.4	1.8	2.4	3.2	0.7	1.7	0.7	HR
IT	1.4	1.5	0.7	1.3	1.5	1.5	1.5	1.5	3.0	1.2	1.9	1.2	IT
CY	0.3	0.3	0.1	:	0.4	3.1	0.5	0.4	1.1	0.3	0.7	0.3	CY
LV	0.9	0.9	-0.6	0.9	1.2	2.3	1.5	1.6	3.5	0.4	1.7	0.4	LV
LT	0.7	0.7	0.1	:	0.9	2.6	1.3	0.6	2.7	0.6	1.6	0.5	LT
LU	1.3	1.4	0.7	:	1.4	2.9	0.9	1.1	2.5	1.1	1.6	1.0	LU
HU	1.2	1.3	0.1	0.8	1.5	2.0	1.7	1.9	3.7	0.9	2.1	0.8	HU
MT	2.9	3.2	1.8	:	3.3	3.5	4.8	3.1	5.4	2.6	3.9	2.6	MT
NL	1.0	1.2	0.4	0.8	1.1	1.2	1.6	1.7	2.4	0.8	1.4	0.8	NL
AT	1.4	1.6	0.5	1.2	1.7	1.5	2.1	2.1	3.3	1.2	2.1	1.1	AT
PL	2.8	2.9	1.8	2.6	3.2	3.6	4.7	2.8	5.9	2.6	4.2	2.5	PL
PT	1.9	2.2	0.9	:	2.1	2.5	2.5	1.7	4.0	1.6	2.6	1.6	PT
RO	1.0	1.1	0.3	:	1.4	2.7	1.7	3.1	3.7	0.9	2.4	0.9	RO
SI	1.6	1.8	0.8	1.3	1.9	1.6	2.4	2.6	4.3	1.5	2.9	1.4	SI
SK	2.9	3.1	1.5	2.4	3.3	3.1	5.5	3.9	5.6	2.5	3.7	2.4	SK
FI	1.2	1.3	0.2	1.0	1.4	1.5	1.5	2.1	3.1	0.8	1.8	0.8	FI
SE	0.9	1.1	0.2	0.7	1.2	0.9	1.1	1.1	3.0	0.8	1.7	0.7	SE
NO	1.4	1.5	0.5	:	1.7	1.4	2.5	2.7	3.4	1.1	2.1	1.1	NO
EA	1.2	1.3	0.3	:	1.4	1.3	1.7	1.8	3.0	0.9	1.7	0.9	EA
EU	1.2	1.3	0.3	:	1.4	1.4	1.7	1.8	3.1	0.9	1.8	0.9	EU

Notes: (1) The "healthy ageing scenario" is identical to the "constant health scenario" from previous Ageing Reports. (2) The EU and EA averages are weighted according to GDP.
Source: Commission services, EPC.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2019-2070)*, 2021, p. 130.

〈그림 III-13〉 시나리오별 2019~2070년 건강보험지출 전망 민감도 분석 결과

(단위: GDP 대비 %)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2019-2070)*, 2021, p. 130.

□ (장기요양) 장기요양은 인구, 장애, 제도정책 등을 고려한 8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민감도 분석 실시

○ 시나리오 소개

- 인구 시나리오, Demographic scenario: 인구고령화 영향만 반영한 시나리오로서 1인당 장기요양지출이 1인당 GDP 증가율에 따라 증가
- 일반 시나리오, Base case scenario: 높은 노동집약적 특성을 감안하여 1인당 장기요양지출이 근로시간당 GDP 증가율에 따라 증가
- 기대여명 상승 시나리오, High life expectancy scenario: 기대여명을 2년 상향 조정하며 늘어난 기간은 장기요양서비스 필요 기간으로 가정
- 건강한 고령화 시나리오, Healthy ageing scenario: 기대여명 상승으로 미래 연령별 장애 프로필을 오늘날 더 젊은 코호트의 프로필과 일치하도록 이동
- 공식서비스 전환 시나리오, Shift to Formal care scenario: 비공식적인 요양 서비스 수급자 중에서 매년 1%의 인구가 공적 요양서비스로 이동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예산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는 정책 변화 시나리오
- 가입률 수렴 시나리오, Coverage convergence scenario: 전망 시작 연도 기준의 공적 요양서비스 가입률이 EU 평균 수준에 못 미치는 국가의 경우 2070년까지 EU 평균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가정
- 비용수렴 시나리오, Cost convergence scenario: 1인당 GDP 대비 장기요양 서비스 지출의 비율이 기준 연도 시점에 EU 평균에 못 미치는 국가의 경우 2070년까지 EU 평균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가정
- 가입률 및 비용수렴 시나리오, Cost and coverage convergence scenario: 위 가입률 수렴 시나리오와 비용수렴 시나리오를 동시에 가정

○ 기본 시나리오 대비 2019~2070년 건강보험 지출 변화분 전망 결과

- 인구 시나리오, Demographic scenario: 순인구고령화만을 반영하면 전망 기간의 지출 변화분이 기본 시나리오(1.1%p)보다 0.4%p 하락한 0.7%p로 전망
- 일반 시나리오, Base case scenario: 1인당 장기요양지출을 1인당 GDP 증가율보다 증가 속도가 빠른 근로시간당 GDP 증가율을 적용하면 전망 변화분이 기본 시나리오보다 0.3%p 높은 1.4%p 수준
- 기대여명 상승 시나리오, High life expectancy scenario: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증가로 기본 시나리오 전망 결과보다 0.6%p 증가해 1.7%p로 전망

- 건강한 고령화 시나리오, Healthy ageing scenario: 장기요양 수요 완화로 장
기요양지출 결과는 기본 시나리오보다 GDP 대비 0.1%p 감소한 1.0%p 수준
- 공식서비스 전환 시나리오, Shift to Formal care scenario: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증가 영향으로 기본 시나리오 대비 0.7%p 높은 1.8%p로 전망
- 가입률 수렴 시나리오, Coverage convergence scenario: 장기요양 가입률
수렴으로 장기요양지출 변화분은 기본 시나리오 대비 1.3%p 증가한 2.4%p
- 비용수렴 시나리오, Cost convergence scenario: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을 일
정 수준으로 수렴함에 따라 기본 시나리오 대비 1.2%p 높은 2.3%p 도달
- 가입률 및 비용수렴 시나리오, Cost and coverage convergence scenario: 가
입률과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을 동시에 수렴함으로써 2019~2070년 전망치 변
화분은 기본 시나리오 대비 2.3%p 증가하여 3.4%p로 나타남

〈표 III-25〉 장기요양지출 전망 민감도 분석 시나리오 개요

Table II.3.1: Overview of different scenarios used to project long-term care spending

	Demographic scenario	Base case scenario	High life expectancy scenario	Healthy ageing scenario	Shift to formal care scenario	Coverage convergence scenario	Cost convergence scenario	Cost and coverage convergence scenario	AWG reference scenario	AWG risk scenario	TFP risk scenario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XI
Population projection	Eurostat population projections	Eurostat population projections	Alternative higher life expectancy scenario	Eurostat population projections	Eurostat population projections	Eurostat population projections	Eurostat population projections	Eurostat population projections	Eurostat population projections	Eurostat population projections	Eurostat population projections
Dependency status	2016-2019 average disability rates held constant over projection period	2016-2019 average disability rates held constant over projection period	2016-2019 average disability rates held constant over projection period	2016-2019 average disability rates held constant over projection period	2016-2019 average disability rates held constant over projection period	2016-2019 average disability rates held constant over projection period	2016-2019 average disability rates held constant over projection period	2016-2019 average disability rates held constant over projection period	Half of projected gains in life expectancy are spent without disability	Half of projected gains in life expectancy are spent without disability	Half of projected gains in life expectancy are spent without disability
Age-related expenditure profiles	2019 cost profiles	2019 cost profiles	2019 cost profiles	2019 profiles shift in line with changes in age-specific life expectancy	2019 cost profiles	2019 cost profiles	Cost profiles per Member State converge upwards to the EU27 average by 2070	Cost profiles per Member State converge upwards to the EU27 average by 2070	2019 cost profiles	Cost profiles per Member State converge upwards to the EU27 average by 2070	2019 cost profiles
Policy setting / Care mix	Probability of receiving each type of care held constant at 2019 level	Probability of receiving each type of care held constant at 2019 level	Probability of receiving each type of care held constant at 2019 level	Probability of receiving each type of care held constant at 2019 level	Gradual increase (1% per year during 10 years) of the share of the disabled population receiving formal care (at home or in an institution)	Probability of receiving any type of formal in-kind care converging until 2070 upwards to the EU27 average.	Probability of receiving each type of care held constant at 2019 level	Probability of receiving any type of formal in-kind care converging until 2070 upwards to the EU27 average.	Probability of receiving each type of care held constant at 2019 level	Probability of receiving any type of formal in-kind care converging until 2070 upwards to the EU27 average.	Probability of receiving each type of care held constant at 2019 level
Unit cost development	GDP per capita	In-kind: GDP per hours worked; cash benefits: GDP per capita	In-kind: GDP per hours worked; cash benefits: GDP per capita	In-kind: GDP per hours worked; cash benefits: GDP per capita	In-kind: GDP per hours worked; cash benefits: GDP per capita	In-kind: GDP per hours worked; cash benefits: GDP per capita	In-kind: GDP per hours worked; cash benefits: GDP per capita	In-kind: GDP per hours worked; cash benefits: GDP per capita	In-kind: GDP per hours worked; cash benefits: GDP per capita	In-kind: GDP per hours worked; cash benefits: GDP per capita	In-kind: GDP per hours worked; cash benefits: GDP per capita
Elasticity of demand	1	1	1	1	1	1	1	1	1 for MS in highest LTC expenditure quartile in 2019, for the rest 1.1 in 2019 converging to 1 by 2070	1	1 for MS in highest LTC expenditure quartile in 2019, for the rest 1.1 in 2019 converging to 1 by 2070

Notes: *
Unit cost development for the reference scenario also includes different country-specific assumptions for France, Germany and Slovenia.
Source: Commission services, EPC.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 (2019-2070)*, 2021, p. 146.

〈표 III-26〉 2019~2070년 GDP 대비 장기요양지출 전망치 변화분 민감도 분석 결과

(단위: GDP 대비 %p)

Table II.3.17: Overview of results across scenarios – Change in spending as % over GDP 2019-2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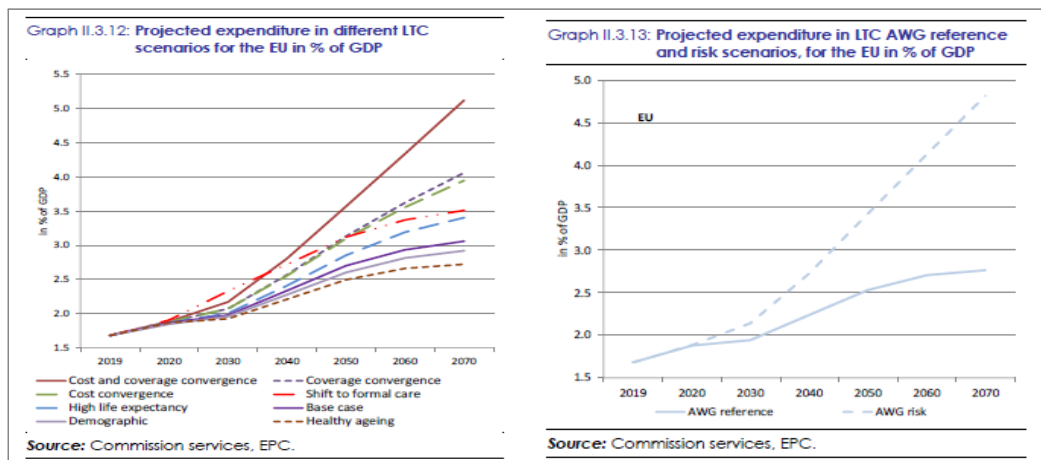
	AWG reference scenario	AWG risk scenario	Demographic scenario	Base case scenario	High life expectancy scenario	Healthy Ageing scenario*	Shift to formal care scenario	Coverage convergence scenario	Cost convergence scenario	Cost and coverage convergence scenario	
BE	2.1	3.5	1.0	2.4	3.1	1.9	2.7	2.4	3.9	3.9	BE
BG	0.1	1.3	0.4	0.2	0.2	0.1	0.4	0.8	0.5	1.5	BG
CZ	1.7	2.4	0.9	1.7	2.1	1.3	2.3	1.7	2.7	2.7	CZ
DK	3.4	4.3	1.2	3.9	5.0	3.1	4.5	4.7	3.9	4.8	DK
DE	0.2	1.8	0.5	1.0	1.2	0.7	1.4	1.3	1.6	2.0	DE
EE	0.3	5.1	0.7	0.3	0.4	0.2	0.4	0.3	5.4	5.5	EE
IE	1.9	3.7	1.1	1.9	2.3	1.6	2.5	4.0	1.9	4.0	IE
EL	0.0	2.4	0.1	0.0	0.0	0.0	0.0	0.2	1.1	2.6	EL
ES	0.8	2.8	1.0	0.8	1.0	0.7	1.1	2.4	1.2	2.9	ES
FR	0.8	3.3	0.5	1.0	1.3	0.8	1.6	2.7	1.6	3.5	FR
HR	0.2	2.3	0.4	0.2	0.3	0.1	0.5	0.5	1.6	2.5	HR
IT	1.0	2.0	0.6	1.1	1.3	0.7	1.4	1.3	1.9	2.2	IT
CY	0.3	2.8	0.9	0.3	0.4	0.2	0.4	0.3	3.0	3.1	CY
LV	0.2	3.9	0.3	0.2	0.2	0.1	0.5	1.6	1.0	4.2	LV
LT	0.8	5.4	0.7	0.8	1.0	0.6	0.9	0.8	6.0	6.0	LT
LU	1.4	3.5	1.6	1.5	1.8	1.3	2.1	3.5	1.7	3.8	LU
HU	0.7	3.8	1.1	0.7	0.9	0.5	1.2	3.7	0.8	4.2	HU
MT	1.9	4.6	1.3	1.9	2.6	1.5	2.2	3.7	2.9	5.0	MT
NL	2.7	4.1	0.7	3.2	3.9	2.3	3.5	3.2	4.6	4.7	NL
AT	1.8	2.9	1.0	1.9	2.4	1.6	2.7	2.0	3.2	3.2	AT
PL	1.6	5.8	2.0	1.6	1.9	1.4	1.9	2.0	5.4	6.3	PL
PT	0.4	7.8	0.9	0.4	0.5	0.3	1.5	8.0	0.5	8.2	PT
RO	0.4	3.9	0.9	0.4	0.5	0.3	0.8	1.1	2.2	4.3	RO
SI	1.3	4.5	1.2	1.4	1.7	1.1	1.8	1.5	4.4	4.8	SI
SK	2.1	5.5	1.9	2.2	2.5	1.8	2.6	2.2	6.0	6.0	SK
FI	2.1	4.1	1.1	2.3	2.8	1.9	2.8	2.4	4.4	4.5	FI
SE	2.2	6.1	0.7	2.6	3.3	1.9	3.2	6.6	2.6	6.7	SE
NO	3.9	4.7	0.9	4.5	5.5	3.5	5.1	4.5	5.3	5.3	NO
EA	0.9	2.8	0.7	1.2	1.6	0.9	1.7	2.1	2.0	3.1	EA
EU	1.1	3.1	0.7	1.4	1.7	1.0	1.8	2.4	2.3	3.4	EU

Source: Commission services, EPC.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 (2019-2070)*, 2021, p. 160.

〔그림 III-14〕 시나리오별 2019~2070년 장기요양지출 전망 민감도 분석 결과

(단위: GDP 대비 %)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 (2019-2070)*, 2021, p. 160.

□ (교육) 교육 분야는 입학률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

- (입학률 상승 시나리오, High Enrolment Rate) 2045년까지 ISCED(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3-4와 5-8 레벨에서 입학률이 가장 높은 세 국가(핀란드, 벨기에, 그리스)의 평균 입학률 수준으로 수렴하고, 2046년부터 2070년까지는 수렴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을 적용
 - (결과) 전망 기간 동안 기본 시나리오하에서는 GDP 대비 교육 지출이 0.2%p 감소하였으나 입학률 상승 시나리오하에서는 0.6%p 증가

〈표 III-27〉 시나리오별 2019~2070년 교육지출 전망 민감도 분석 결과

(단위: GDP 대비 %)

Table II.4.4: Baseline and Sensitivity Scenarios (Public Expenditure-to-GDP ratio) - Difference between 2019 and 2070

	2019 2070		Difference 2019-2070											
	Baseline	Baseline	Lower Migration	Higher Migration	Lower fertility	Older Emp.	HLE	Higher TFP	TFP risk	Policy Scenario	Lagged Recovery	Adverse Structural	High Enrolment	
BE	5.5	5.1	-0.4	-0.4	-0.3	-1.1	-0.6	-0.4	-0.4	-0.4	-0.7	-0.4	-0.3	0.2
BG	2.9	3.3	0.4	0.4	0.4	-0.3	0.2	0.4	0.4	0.4	0.1	0.4	0.4	0.9
CZ	3.4	4.1	0.6	0.6	0.7	-0.1	0.5	0.6	0.6	0.6	0.4	0.6	0.7	1.4
DK	6.1	5.2	-0.8	-0.9	-0.8	-1.7	-1.1	-0.9	-0.8	-0.8	-0.8	-0.8	-0.7	0.0
DE	4.0	4.5	0.5	0.4	0.5	-0.2	0.3	0.5	0.5	0.5	0.2	0.5	0.5	1.4
EE	4.2	3.8	-0.4	-0.4	-0.4	-1.1	-0.6	-0.5	-0.4	-0.4	-0.4	-0.4	-0.3	0.4
IE	3.3	3.2	-0.1	-0.2	-0.2	-0.7	-0.3	-0.2	-0.2	-0.2	-0.4	-0.2	-0.1	0.2
EL	3.2	2.6	-0.6	-0.7	-0.6	-1.1	-0.8	-0.7	-0.6	-0.6	-0.6	-0.7	-0.6	-0.4
ES	3.6	3.2	-0.4	-0.5	-0.4	-0.9	-0.6	-0.4	-0.4	-0.4	-0.4	-0.4	-0.4	-0.1
FR	4.4	3.9	-0.6	-0.6	-0.5	-1.3	-0.7	-0.6	-0.6	-0.6	-0.6	-0.6	-0.5	0.3
HR	5.0	4.6	-0.5	-0.5	-0.5	-1.4	-0.8	-0.5	-0.5	-0.5	-0.8	-0.5	-0.4	0.5
IT	3.5	3.1	-0.4	-0.4	-0.4	-1.0	-0.6	-0.5	-0.4	-0.4	-0.4	-0.4	-0.4	0.2
CY	5.3	4.6	-0.7	-0.7	-0.6	-1.5	-0.9	-0.8	-0.7	-0.7	-0.7	-0.7	-0.6	0.4
LV	3.6	3.6	0.0	-0.1	0.0	-0.7	-0.2	-0.1	0.0	0.0	-0.3	0.0	0.0	0.5
LT	3.0	2.9	-0.1	-0.1	-0.2	-0.8	-0.3	-0.1	-0.1	-0.1	-0.4	-0.1	-0.1	0.5
LU	3.0	2.2	-0.8	-0.8	-0.8	-1.2	-0.9	-0.8	-0.8	-0.8	-1.0	-0.8	-0.8	0.6
HU	3.4	3.3	-0.1	-0.1	-0.1	-0.7	-0.3	-0.1	-0.1	-0.1	-0.3	-0.1	0.0	0.6
MT	4.3	4.1	-0.3	-0.2	-0.3	-0.9	-0.5	-0.3	-0.3	-0.3	-0.5	-0.3	-0.1	1.1
NL	4.9	4.4	-0.5	-0.5	-0.4	-1.1	-0.7	-0.6	-0.5	-0.5	-0.5	-0.5	-0.4	0.0
AT	4.7	4.5	-0.1	-0.1	-0.1	-0.8	-0.3	-0.1	-0.1	-0.1	-0.4	-0.1	0.0	0.5
PL	3.8	3.8	-0.1	-0.1	-0.1	-0.8	-0.3	-0.1	-0.1	-0.1	-0.4	-0.1	0.0	0.5
PT	4.3	4.1	-0.1	-0.2	0.0	-0.9	-0.4	-0.2	-0.1	-0.1	-0.3	-0.1	0.0	0.5
RO	2.5	2.4	-0.1	-0.1	-0.1	-0.6	-0.2	-0.1	-0.1	-0.1	-0.3	-0.1	0.0	1.0
SI	3.8	3.9	0.1	0.1	0.1	-0.6	-0.1	0.1	0.1	0.1	-0.1	0.1	0.2	0.6
SK	3.4	3.8	0.4	0.3	0.4	-0.3	0.2	0.4	0.4	0.4	0.0	0.4	0.5	1.5
FI	5.3	4.4	-0.9	-0.9	-0.9	-1.5	-1.2	-1.0	-0.9	-0.9	-0.9	-0.9	-0.8	-0.5
SE	5.9	5.4	-0.5	-0.5	-0.5	-1.2	-0.7	-0.5	-0.5	-0.5	-0.9	-0.5	-0.4	0.3
NO	7.2	6.7	-0.6	-0.6	-0.5	-1.4	-0.8	-0.5	-0.6	-0.6	-0.9	-0.5	-0.4	0.4
EA	4.1	3.9	-0.2	-0.2	-0.2	-0.8	-0.4	-0.2	-0.2	-0.2	-0.3	-0.2	-0.1	0.5
EU	4.1	4.0	-0.2	-0.2	-0.1	-0.8	-0.4	-0.2	-0.2	-0.2	-0.3	-0.2	-0.1	0.6

Source: European Commission, EPC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 (2019-2070)*, 2021, p. 171.

Hållbarhetsrapport 2021

- ▣ 기본 시나리오 외에 다섯 가지 대안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을 실시하였으며, 시나리오별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함의를 포함

1. 추진근거 및 추이

- (추진근거) 재무부 산하의 연구기관인 국립경제연구원(Konjunkturinstitutet)은 매년 부처의 요청에 의하여 장기재정전망을 수행
 - 국립경제연구원의 권한은 공공 재정의 장기적인 계획 실행과 장기 지속가능성 평가를 포함
- (추진추이) 2012년 처음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계산 보고서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열 번째 전망 보고서를 출간
 - 2012년 1월에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S2 계산 보고서 발표 후, 같은 해 4월에는 정부가 직전 연도에 의뢰한 2035년까지의 공공 재정 전망 보고서를 출간
 - 2014년 3월에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공공 재정의 장기전망과 재정 평가(S2 지표 포함)를 함께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
 - 정부는 2015년부터 국립경제연구원에서 장기재정전망을 매년 발표하도록 명시, 평가는 정량적이어야 하며 여러 시나리오를 포함하도록 과제의 틀을 설정
 - 2016년부터 *Hållbarhetsrapport*(지속가능성 보고서) 이름으로 2021년까지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간헐적으로 영문 요약본 또는 번역본을 제공

〈표 IV-1〉 스웨덴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현황

발간일	보고서 명
2012. 1.	Konjunkturinstitutet, "Förstudie: Konjunkturinstitutets beräkning av S2-indikatorn"
2012. 4.	Konjunkturinstitutet, "Sveriges ekonomi - ett långsiktsscenario fram till år 2035"
2014. 3.	Konjunkturinstitutet, "Är ett bibehållet offentligt åtagande ett hållbart åtagande?"
2014. 4.	Konjunkturinstitutet, "An assessment of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Swedish public finances"(영문 번역본)
2015. 3.	Konjunkturinstitutet, "Den långsiktiga hållbarheten i de offentliga finanserna"
2015. 5.	Konjunkturinstitutet, "Longer working life and improved health strengthens the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s"(영문 번역본)
2016. 3.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16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16. 3.	Konjunkturinstitutet,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6"(영문 번역본)
2017. 2.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17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17. 4.	Konjunkturinstitutet,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7"(영문 번역본)
2018. 2.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18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19. 2.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19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19. 4.	Konjunkturinstitutet, "Summary of the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9"(영문 요약본)
2020. 2.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0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2.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3.	Konjunkturinstitutet, "Summary of the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21"(영문 요약본)

출처: 저자 작성

2. 전망의 범위와 분야

- (전망 범위)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기준의 수입, 지출, 부채 등을 제공
 - 기본 시나리오 외에 다섯 가지의 대안 시나리오에 대해 전망을 수행
- (전망 분야) 수입, 지출, 부채를 전망하되 포함하고 있는 세부 항목들의 전망은 대부분 미실시
 -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지 않으며 몇몇 변수에 대한 가정만 제시

3. 전망 기간, 거버넌스 및 절차

- (전망 기간) 2021년 보고서의 기본 전망 기간은 30년(2020~2050년)으로 설정하되 추가적으로 2050~2100년에 대한 결과도 별도로 제공
 - 인구 전망과 거시경제 전제 등 전망전제도 2020~2100년까지임
- (거버넌스) 재무부 산하의 연구기관인 국립경제연구원(Konjunkturinstitutet)에서 정부를 대신하여 장기재정전망을 수행
- (전망절차) 각 분야별 전망 결과를 도출한 뒤, 이를 종합하여 장기재정전망을 발표
 - (공동 전제) 2020년 4월 발표된 스웨덴 통계청(Statistiska centralbyrån, SCB)의 인구 전망을 사용, 거시전제 전망은 국립경제연구원에서 직접 작업
 - (분야별 전망) 지출 항목에서는 기본 지출, 공공 소비, 공공 투자, 이전 지출 등을 포함, 수입 항목에서는 세입, 세원 등을 포함
 - (전망 결과 종합) 수입·지출 전망 결과를 종합 후 재정수지와 부채비율을 계산
 - (시나리오 분석) 대안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전망을 실시하여 전망 결과에 대해 기본 시나리오 대비 평가를 제시
 - (전망 결과 발표) 보고서를 국립경제연구원(Konjunkturinstitutet) 이름으로 발간

4. 보고서의 구조

- 전망 보고서는 기본 시나리오와 대안 시나리오의 전망 결과를 순차적으로 제시
 - 전망전제는 인구와 거시경제 전제를 변수별로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거시경제 전제는 부록에서 보다 상세하게 제공
 - 전망 결과는 2020~2050년까지, 2050~2100년까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변수별로 10년 단위별 수치 및 그래프를 제공
 - 기본 시나리오 외에 다섯 가지 대안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를 제공하며 각 시나리오별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평가함
 -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로서 마스트리히트 부채 비율과 S2를 제시

참고 IV-1 보고서의 목차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요약

1. 기본 시나리오

인구 전망

지출

수입

2050년까지의 지속가능성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2. 대안 시나리오

복지서비스 증가

인구 고령화지출 부담 증가

연금제도의 잉여금 미분배

공공 재정의 균형 목표

이전 연도의 이자 및 수익 가정

참고 문헌

부록

1. 이전 계산과의 비교

2. 무한한 시계에서의 지속가능성

3. 장기 지속가능성의 정의

4. 거시 경제 및 재정 정책

5.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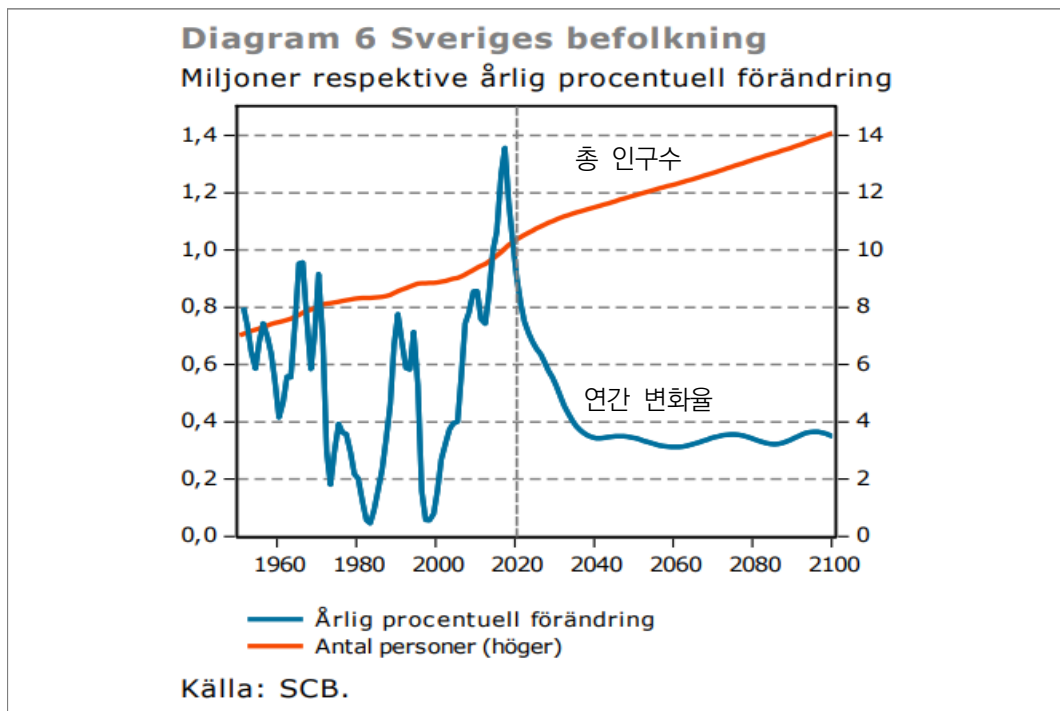
출처: 보고서를 참고하여 목차 내용을 재작성

5. 전망전제

- (인구전제) 2020년 4월 발표된 스웨덴 통계청(Statistiska centralbyrån, SCB)의 인구 전망²⁰⁾을 활용
 - (총인구) 총인구는 2020년 1천만명에서 2050년 1,150만명, 2100년 1,400만명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변화율) 2020년 0.8~1.0% 수준에서 감소하여 2030년대 중반 이후로는 0.3~0.4%일 것으로 전망

[그림 IV-1] 총인구수 및 연간 변화율 전망

(단위: 백만명, 연간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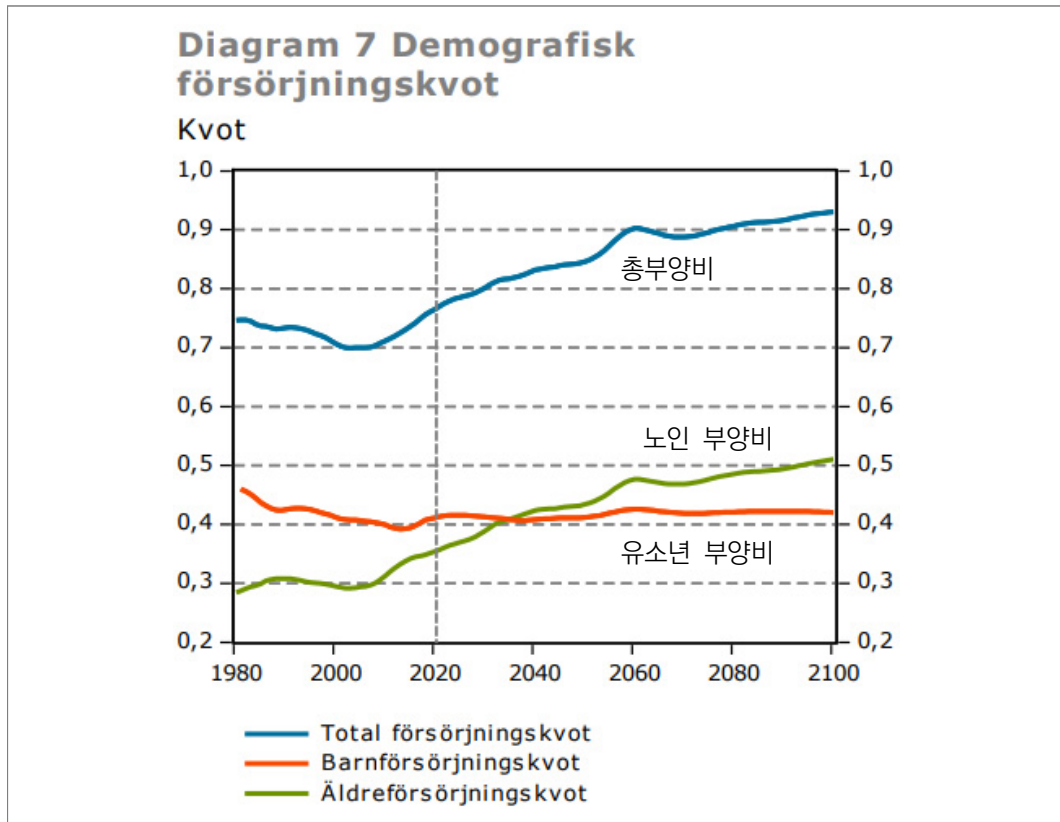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11.

20) SCB, *Sveriges framtida befolkning 2020-2070*, 2020.

- (부양비) 총부양비는 노인 부양비 증가로 인해 2020년 0.8 미만 수준에서 2100년 0.9 이상 수준에 도달
 - 유소년 부양비는 2020~2100년까지 0.4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노인 부양비는 2020년 0.35 수준에서 2100년 0.5 이상으로 증가

[그림 IV-2] 총부양비(유소년 부양비, 노인 부양비) 전망

(단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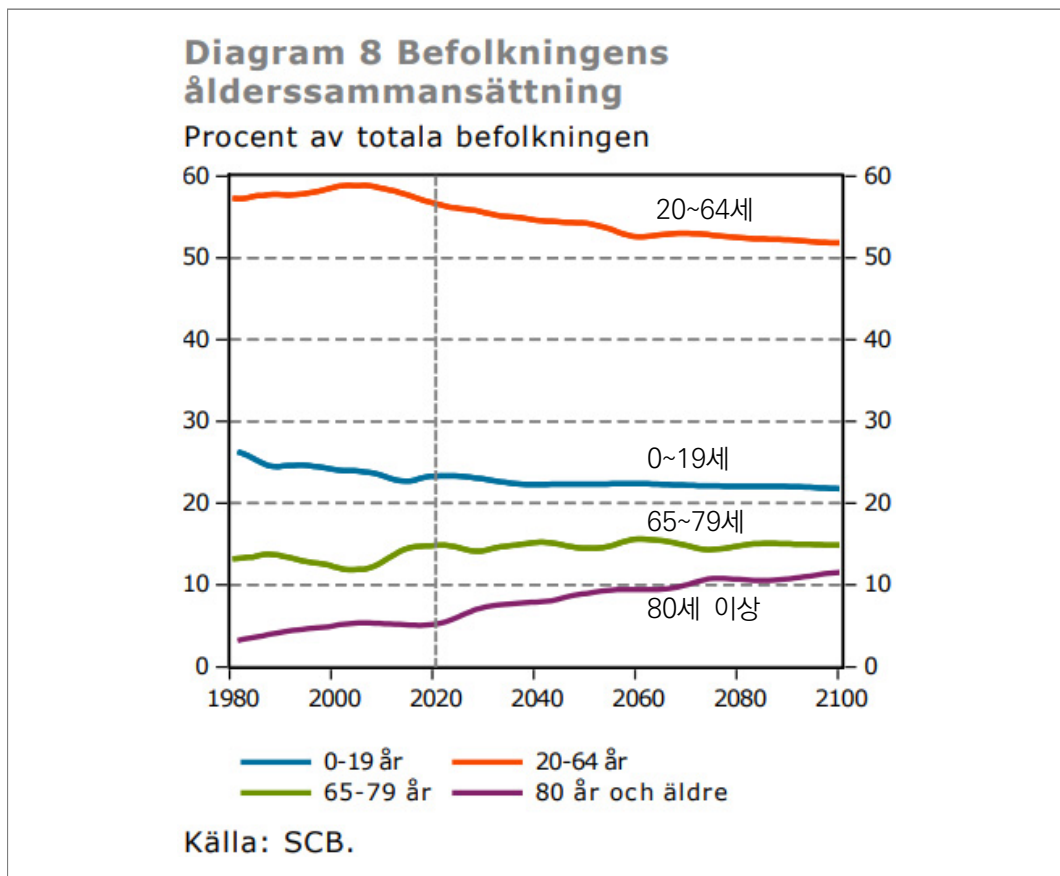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11.

- (연령그룹별 인구) 0~19세 인구 비율과 20~64세 인구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80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임
 - (0~19세 인구 비율) 2020년 23~24% 수준에서 2100년 약 21~22%로 다소 감소
 - (20~64세 인구 비율) 2020년 약 57%에서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100년 52% 수준
 - (65~79세 인구 비율) 2020년 15% 수준에서 여러 차례의 등락이 있으나 2100년 약 15%로 비슷한 수준에 도달
 - (80세 이상 인구 비율) 2020년 5%에서 2050년 9%, 2100년 12%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망 기간 동안 7%p 증가

[그림 IV-3] 연령 그룹별 인구 비율 전망

(단위: 총인구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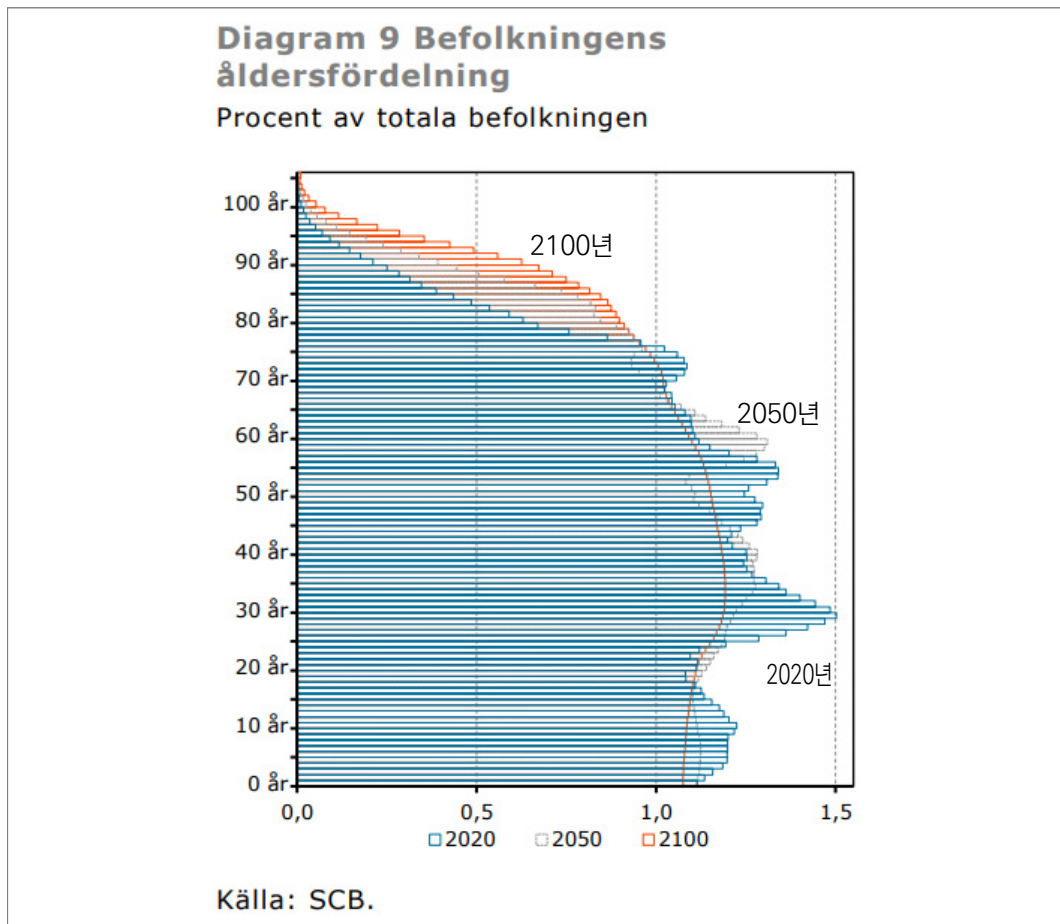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11.

- (연령별 인구 분포) 점차적으로 증앙이 좁아지고 상단이 넓어지는 형태로 변화
 - 2020년의 대규모 코호트는 1990년 초에 태어난 30세 전후이며 2050년에 이들이 60세로 고령인구에 진입
 - 또한 2020년에 1960~70년대 초에 태어난 연령대가 2050년에는 80~90세에 이르면서 80세 이상 인구 비율 증가에 기여

[그림 IV-4] 연령별 인구 분포 전망(2020년, 2050년, 2100년)

(단위: 총인구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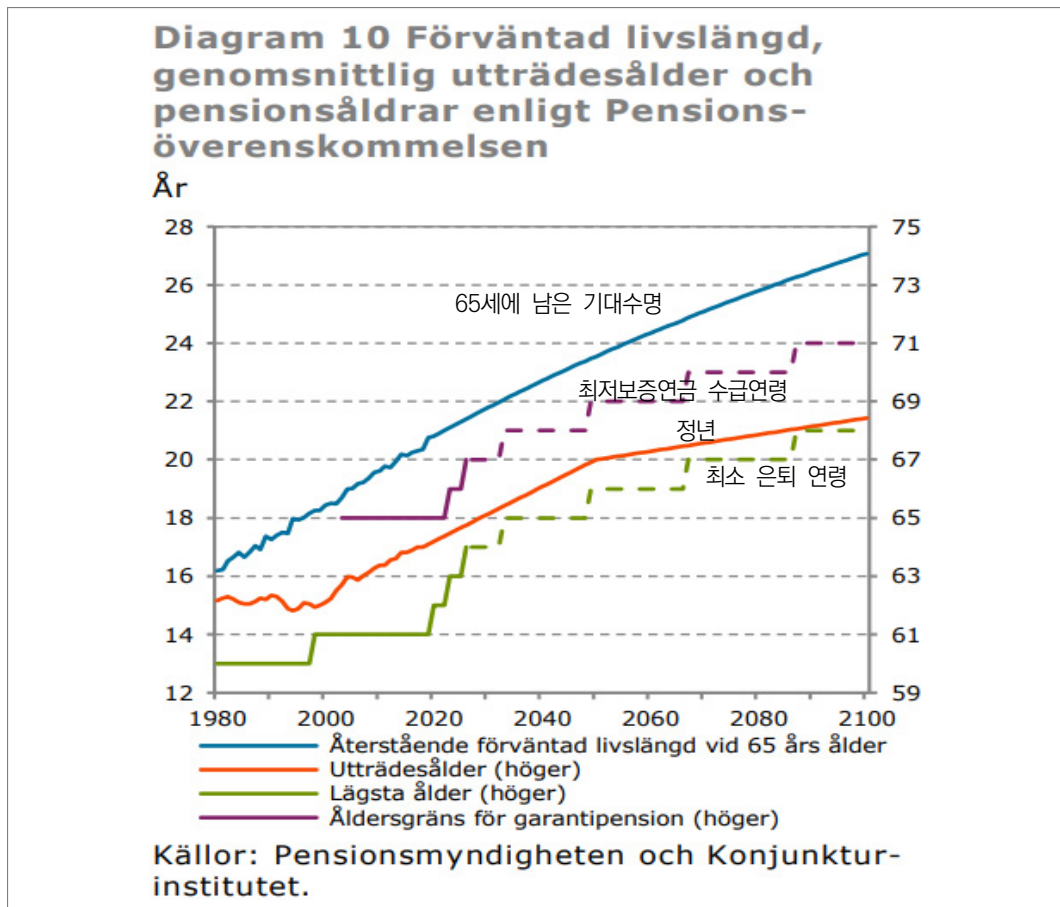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12.

- (기대수명) 65세의 잔여 기대수명은 2020년 기준 약 20~21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50년 23년, 2100년에는 27년일 것으로 전망
 - 평균 정년은 2020년 약 64세에서 2050년 약 3년, 2100년까지 5년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최저보증연금에 대한 연령 제한은 2020년 65세에서 2100년 71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

[그림 IV-5] 65세의 잔여 기대수명 및 은퇴 연령 전망

(단위: 연,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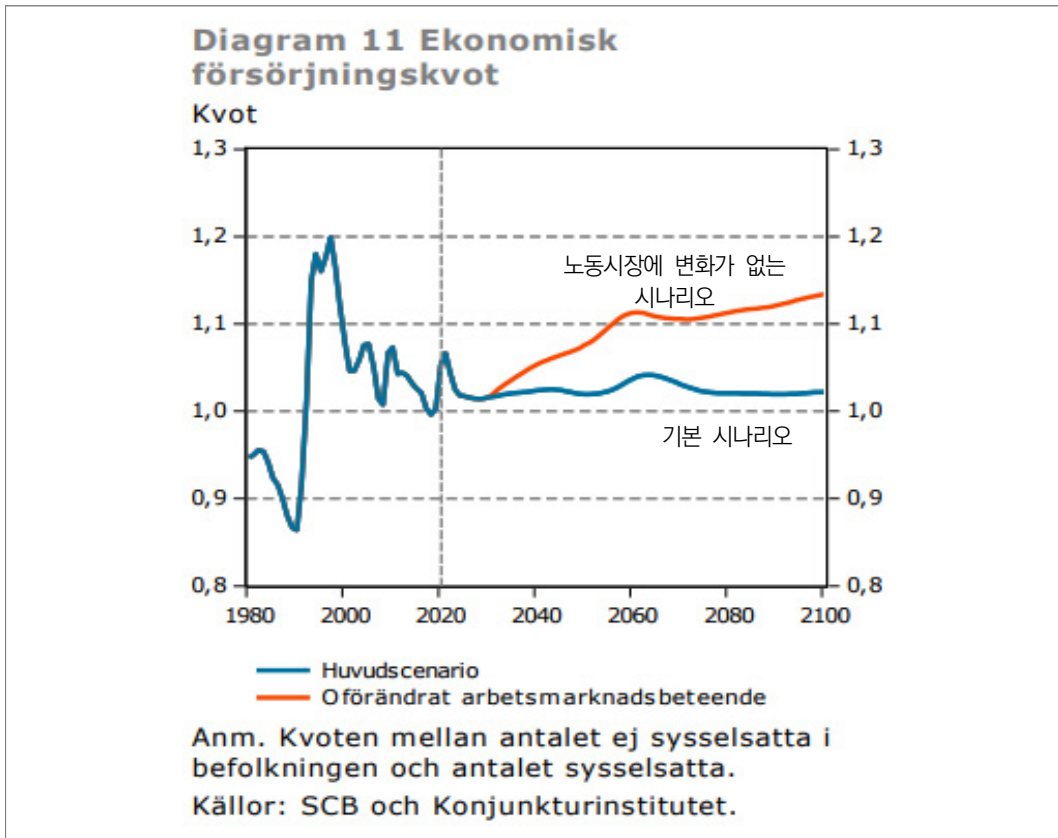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12.

- (경제적 부양비) 취업자 수 대비 실업자 수의 비율로 정의하는 경제적 부양비는 2020년 1.07에서 2020년대 초반 경제가 회복하면서 감소해 2100년까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다만 노동 시장에 변화가 없는 시나리오하에서는 경제적 부양비는 점차 증가해 1990년대 후반 수준까지 증가 전망

[그림 IV-6] 경제적 부양비

(단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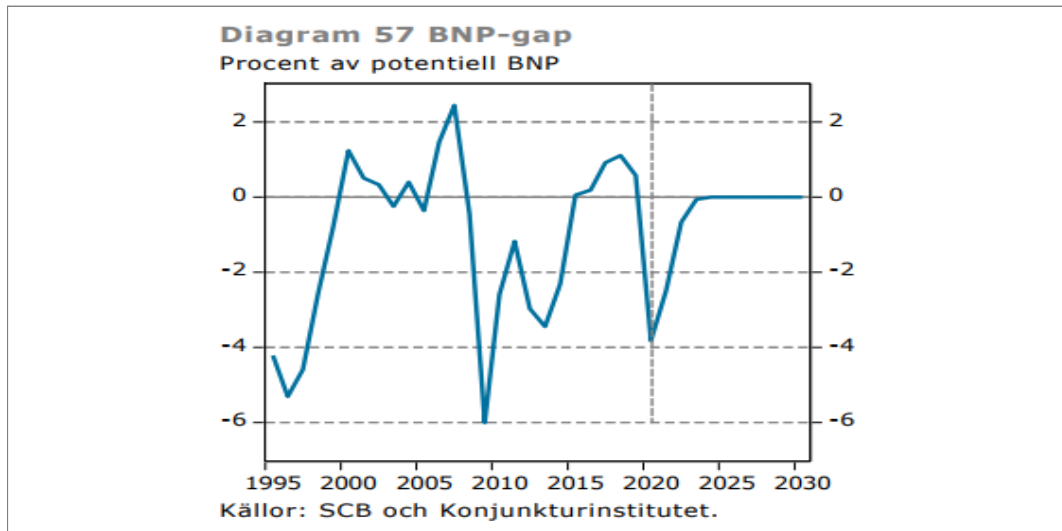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13.

- (거시전제) 국립경제연구원(Konjunkturinstitutet)에서 직접 전망하였으며 2100년까지 전망하되 방법론상 중기(2021~2030년)와 장기(2031~2100년)로 구분하여 전망
- (GDP 격차*)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은 여전히 불황 상태이나 점차 회복세에 이르며 2023~2030년까지 GDP 격차는 균형에 이를 것으로 전망
- * GDP 격차는 실질GDP와 잠재GDP와의 차이로 정의하고, 이것이 양수(+)의 경우 물가 상승으로 경기 과열일 수 있고, 음수(-)의 경우 물가 하락으로 경기가 침체 상황으로 판단됨
- 2030년부터는 경제가 어떠한 충격도 없을 것으로, 즉 잠재적 성장을 가정

[그림 IV-7] GDP 격차 전망 그래프

(단위: 잠재GDP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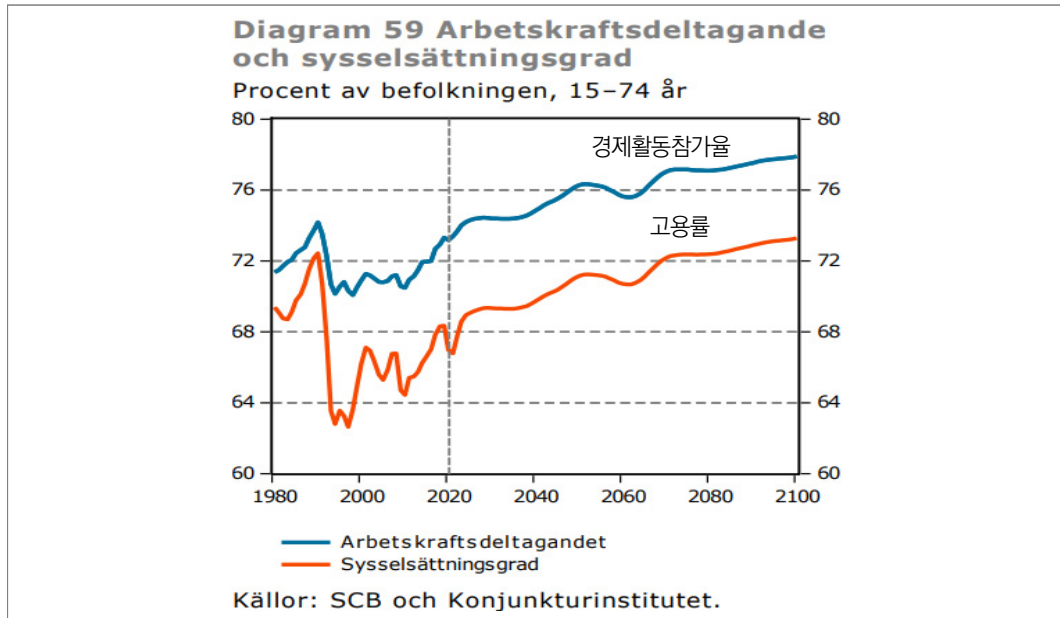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38.

- (경제활동참가율) 15~74세 인구 대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전망 기간에 각각 약 5%p, 6%p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40년 전후까지 스웨덴 출신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스웨덴 외 유럽 출신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해외에서 유입된 인구들은 초기에 언어 능력, 네트워크, 노동시장 관련 교육 등이 부족하나 평균 체류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의 참여 증가, 고용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결과적으로 2040년 이후로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그림 IV-8]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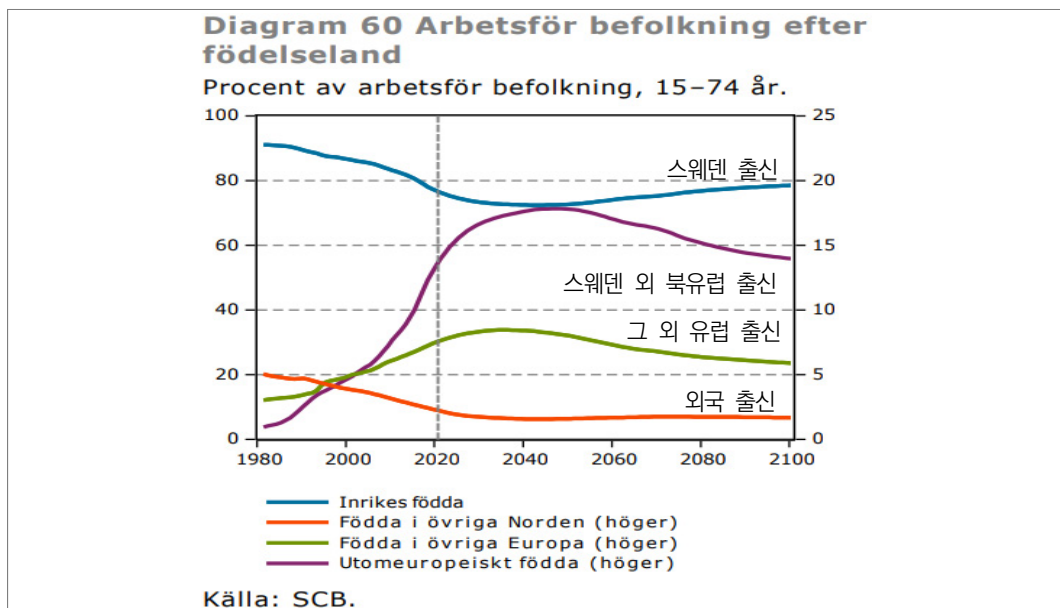
(단위: 15~74세 인구 대비 비율)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38.

[그림 IV-9] 출신 국가별 경제활동인구 비율 전망

(단위: 15~74세 인구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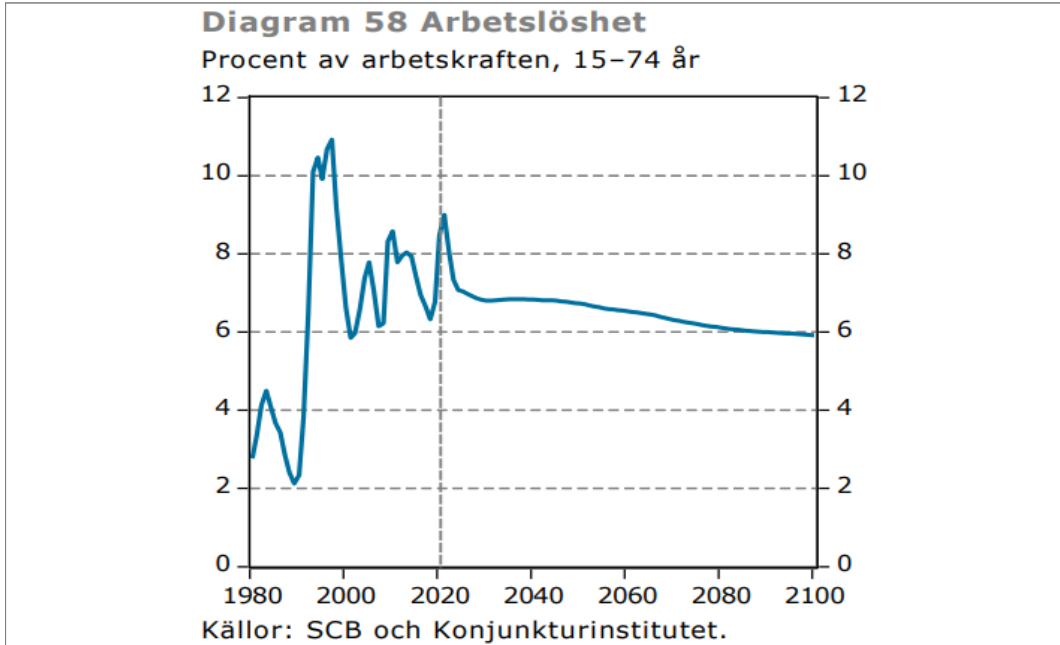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39.

- (실업률) 15~74세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은 2021년 9%에서 2025년 7%까지 급감한 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며, 2100년까지 6% 내외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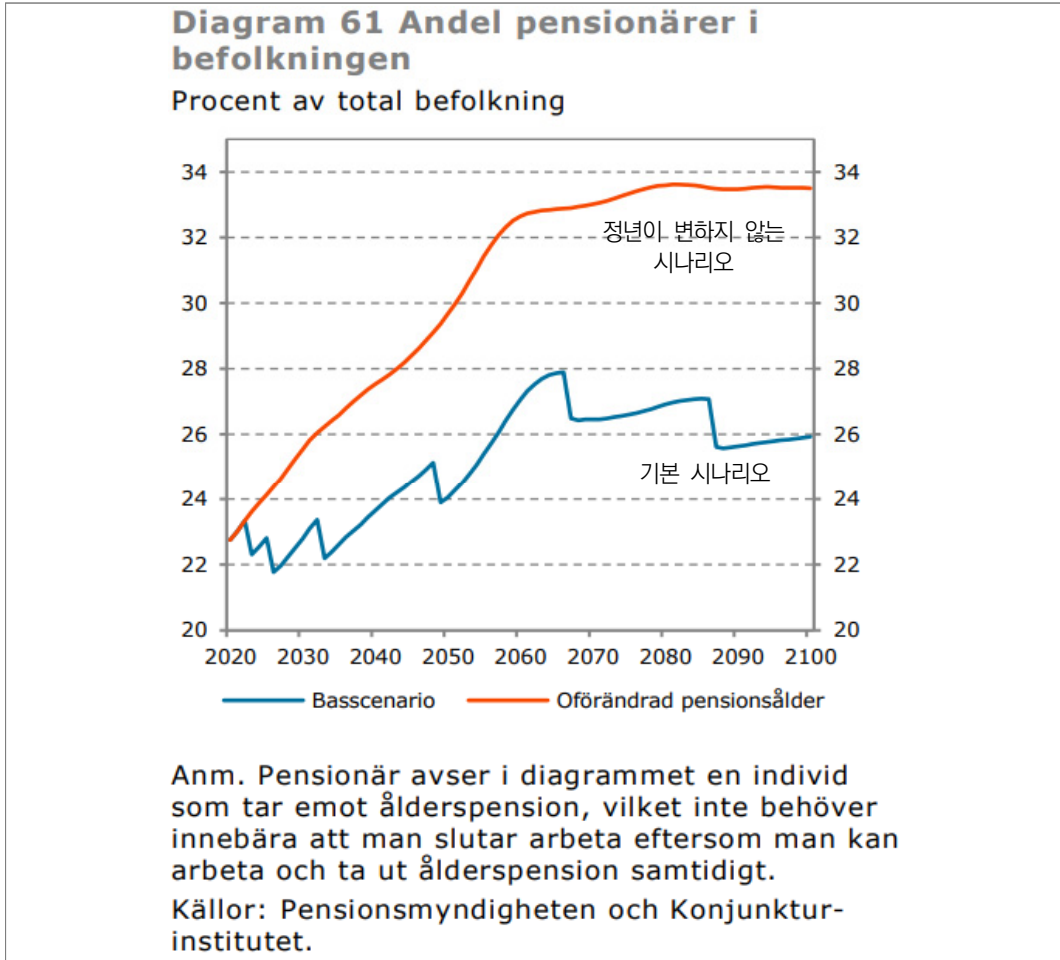
[그림 IV-10] 실업률 전망

(단위: 15~74세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율)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38.

- (연금수급자 비율) 기본 시나리오에서 총인구 대비 연금 수급자 비율은 2020년 23% 미만에서 여러 차례의 등락 후 2100년 26%로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 수차례의 등락은 정년 상승과 연금 연령 제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정년이 변하지 않는 시나리오하에서는 연금 수급자 비율이 2020년 약 23%에서 2100년 33% 이상 수준으로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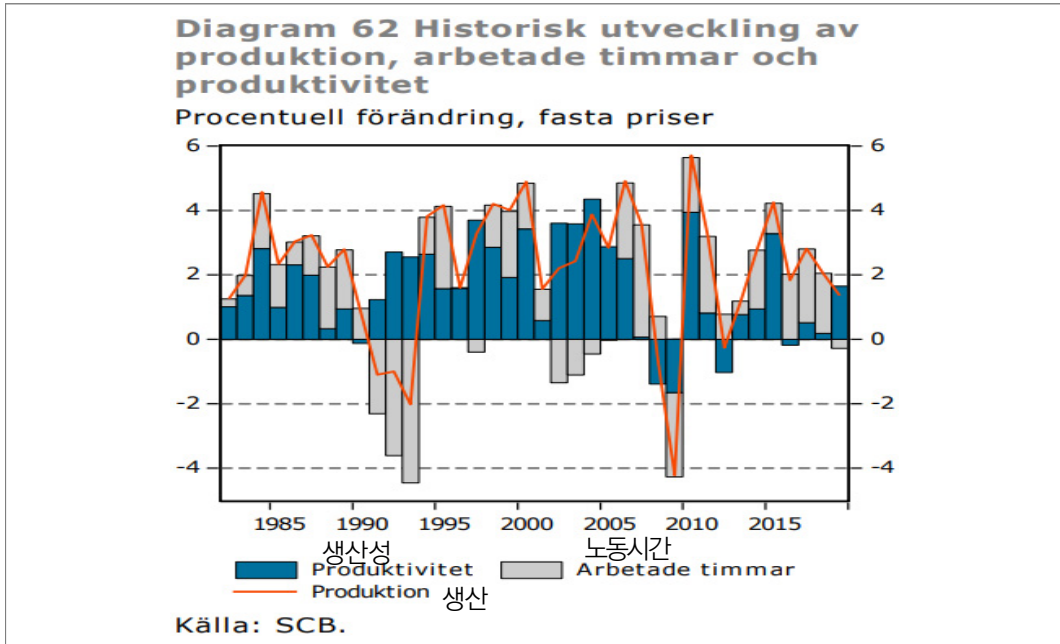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40.

- (생산성 증가율) 지난 10년간 1.1% 수준인 생산성 증가율은 2020년대 초반 큰 감소 후 회복해 2030년부터는 1.3%가 될 것으로 가정
- (노동시간) 2020년대 초반 급격한 변동을 제외하고는 1981~2020년에 비해 2050년 까지 더 천천히 증가할 전망
 - 이는 생산가능인구가 과거 대비 더디게 증가하고 경제활동 참여가 낮은 외국인 노동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
- (GDP 성장률) 노동시간 추이에 따라 평균 GDP 성장률도 2050년대 중반까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표 IV-2〉, 〈표 IV-3〉 참고)

[그림 IV-12] 생산, 노동시간 및 생산성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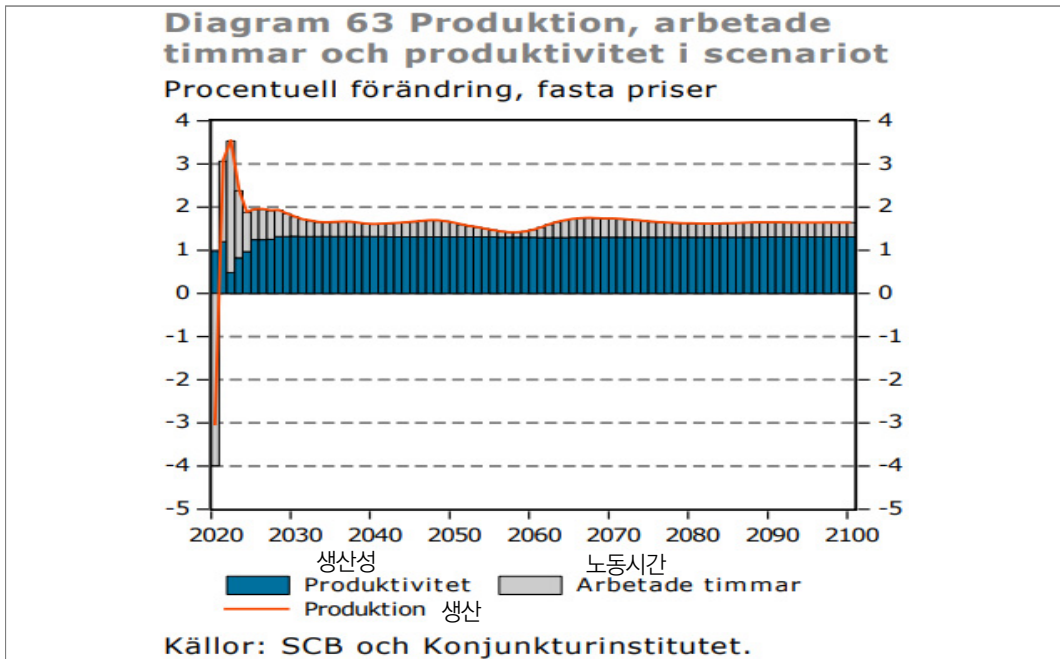
(단위: 백분율 변화, 고정가격 기준)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40.

[그림 IV-13] 생산, 노동시간 및 생산성 전망

(단위: 백분율 변화, 고정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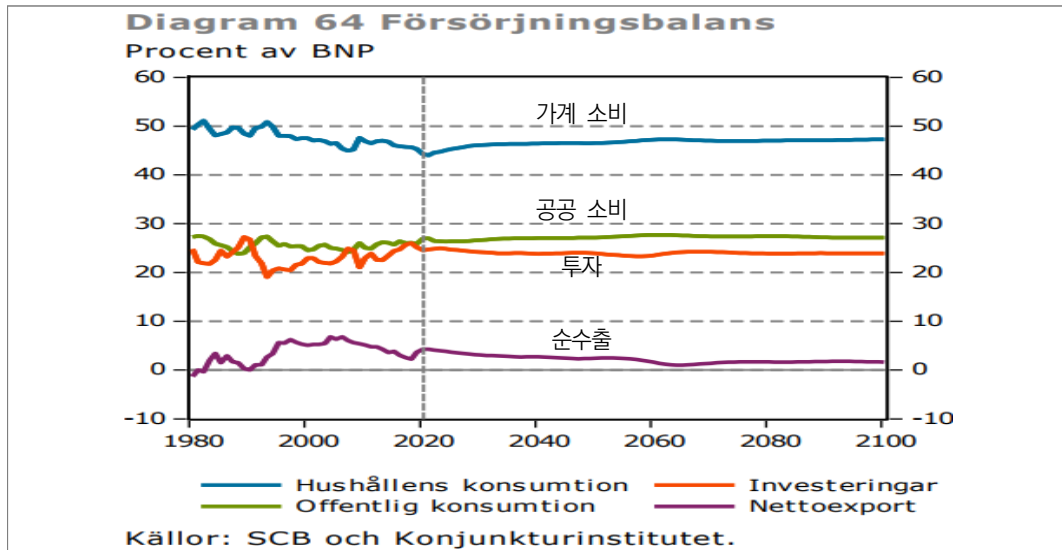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40.

- (가계 소비 및 저축) 가계 소비는 2021년 GDP 대비 44~45% 수준에서 증가해 2100년 약 48%로 전망
 - 가계 저축은 2021년 GDP 대비 7~8%에서 감소해 2100년 2~3% 수준으로 전망
 - 저축 성향이 높은 중년층에서 소비 성향이 높은 노인층으로의 인구 이동이 발생하면서 저축이 감소, 소비는 증가
- (공공 소비) 전망 기간 동안 GDP 대비 20%대 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2060년대에 정점에 도달할 전망
 - 공공 소비는 인구 전망과 복지서비스에 대한 직원 밀도 유지(Bibehållen Personaltätet) 가정²¹⁾으로 결정
- (투자) 전망 기간 동안 GDP의 25% 내외 수준으로 전망
 - 정부의 투자는 주로 인프라 및 국방에 대한 투자로 구성되어 인구 전망과는 연관이 미미해 GDP의 일정 비율로 추정
- (순수출) GDP 대비 순수출비율이 2021년 4~5%에서 2060년대 중반 1% 수준까지 감소 후 2100년 2% 미만으로 다소 증가할 전망

[그림 IV-14] 공급 균형 전망

(단위: GDP 대비 비율)



주: GDP는 가계 소비, 공공 소비(정부 지출), 투자, 순수출(수출-수입)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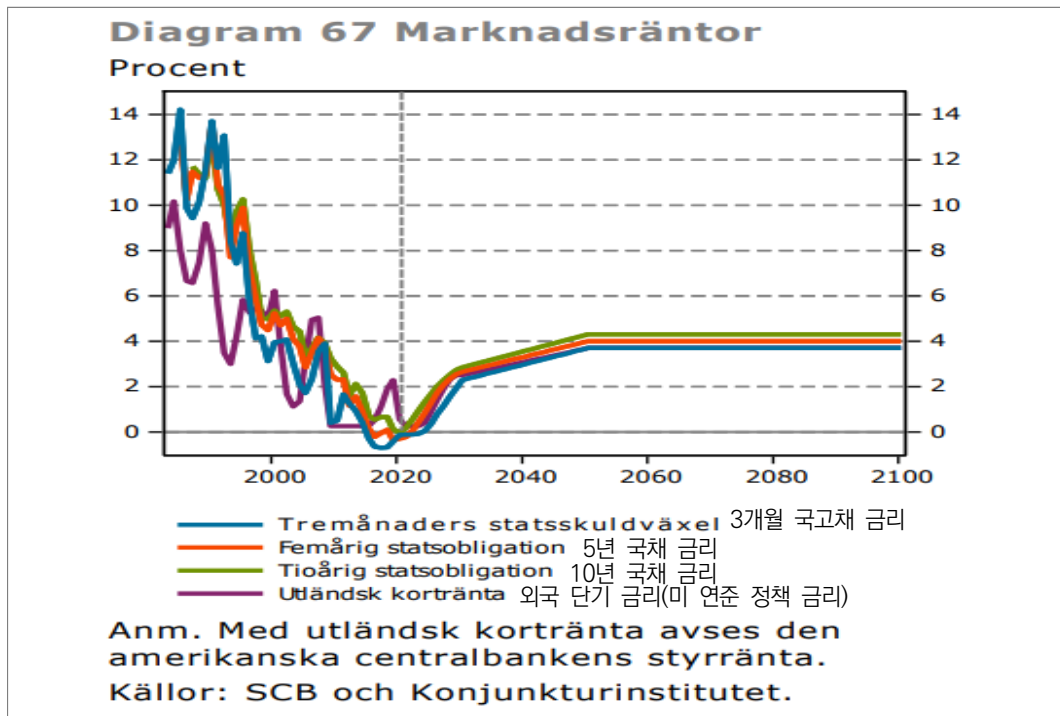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41.

21) <참고2> 공공 소비 전망 시 직원 밀도 유지(Bibehållen Personaltätet) 개념 설명을 참고

- (금리) 현재 금리는 낮은 수준이나 향후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
 - 현재 5년 만기 국채 금리의 경우 약 0%로 과거 1981~2018년 평균 5.6%에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
 - 향후 신흥국의 저축 성향 감소, 국외 상황 불확실성의 정상화, 다른 국가의 부채 증가 등 국외 요인에 따라 국고채와 국채의 명목 금리는 상승할 전망
 - 금리들은 2050년 3.7~4.3% 수준에 도달 후 2100년까지 일정한 것으로 가정
 - 정부 부채 비율은 2050년까지 상승해 그 이후 4.1%로 일정하게 유지할 전망

[그림 IV-15] 금리 전망

(단위: %)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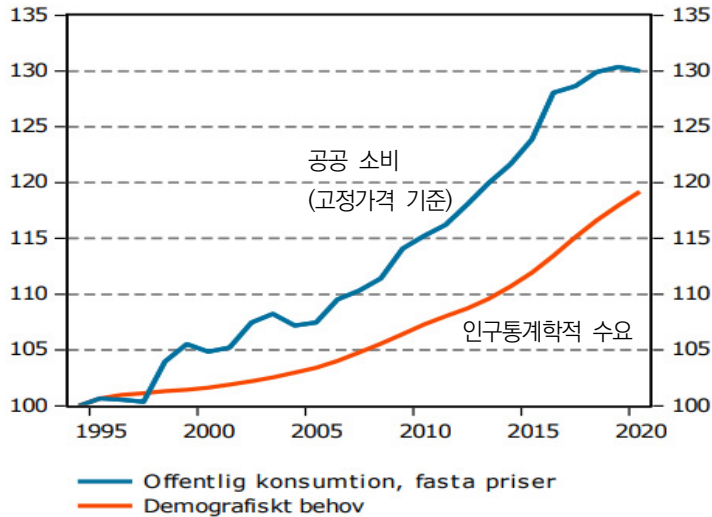
공공 소비는 복지 유지 약속의 가정에 따라 전망. 국립경제연구원의 정의에 따르면 복지가 현 수준으로 유지되려면 복지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한 명당 직원 밀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 즉 직원 밀도가 유지되어야 함. 따라서 공공 소비 전망 시 인구전망에 영향을 받음. 또한 개인의 복지서비스 요구는 연령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유소년인구는 교육을, 고령인구는 사회보호 및 건강보험 등을 주로 소비함. 일정한 수준의 직원 밀도 외에도 임금, 자본 및 투입 비용은 복지서비스 생산에 있어 일정 비용으로 구성되며 자본 및 투입 소비의 가격은 임금보다 느리게 상승한다고 가정함. 복지서비스는 기술 발전에 따라 속도를 맞추는 것으로 가정하여 연 0.4%씩 증가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이는 1994년부터 2019년까지의 과거 추세와도 동일함.

[참고 그림] 복지서비스의 표준적 증가

(단위: 지수 100이 1994년 수준을 의미)

Diagram 69 Standardhöjning av välfärdstjänster

Index 100=1994



Källor: SCB och Konjunkturinstitutet.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44.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p. 43~44.를 참고

Tabell 3 Arbetsmarknaden, produktivitet och BNP
Genomsnittlig procentuell förändring om inget annat anges

	1981- 2020	2021- 2050	2051- 2100
Befolkning 인구	0,6 (0,6)	0,5 (0,5)	0,3 (0,3)
Arbetskraft 노동력	0,6 (0,6)	0,5 (0,4)	0,3 (0,3)
Sysselsättning 고용	0,4 (0,5)	0,5 (0,4)	0,3 (0,4)
Arbetade timmar 노동시간	0,5 (0,6)	0,6 (0,4)	0,3 (0,3)
Produktivitet ¹⁾ 생산성	1,6 (1,6)	1,2 (1,4)	1,3 (1,4)
BNP, fast pris GDP(고정가격)	2,1 (2,2)	1,8 (1,8)	1,6 (1,7)
Hushållens konsumtion 가계 소비	1,8 (2,0)	2,2 (2,1)	1,9 (2,1)
Offentlig konsumtion 공공 소비	1,2 (1,2)	1,0 (1,0)	0,7 (0,8)
Investeringar 투자	2,8 (2,9)	2,1 (1,9)	2,1 (2,2)
Export 수출	4,7 (4,9)	2,9 (2,6)	2,5 (2,6)
Import 수입	4,1 (4,3)	3,0 (2,7)	2,5 (2,7)
BNP per capita, fast pris 1인당 GDP (고정가격)	1,5 (1,7)	1,4 (1,3)	1,3 (1,4)
BNP, löpande pris GDP(현재가격)	5,5 (5,6)	4,0 (4,0)	3,9 (4,0)
Ränta femårig statsobligation ²⁾ 5년물 국채이자율	5,2 (5,2)	2,7 (3,3)	4,0 (4,2)

¹ Genomsnittet är beräknat för åren 1982–2020 i första kolumnen. ² Procent, genomsnitt för perioden. Genomsnittet för räntan är beräknat för 1985–2020 i första kolumnen.

Anm. Värdena för 2021–2050 och 2051–2100 är från rapportens basscenario. Siffror från föregående års rapport inom parentes.

Källor: Macrobond, Riksbanken, SCB och Konjunkturinstitutet.

주: 1. () 안은 작년 보고서 수치

1) Produktivitet(생산성) 첫 번째 열의 값은 1982~2020년의 평균

2) 단위: 백분율, 해당 기간의 평균이며 첫 번째 열의 값은 1985~2020년의 평균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41.

Tabell 4 Arbetsmarknaden, produktivitet och BNP i basscenariot
 Procentuell förändring om inget annat anges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Befolkning 인구	0,2	0,9	0,9	0,5	0,3	0,3	0,3	0,3	0,3	0,3	0,3
Arbetskraft 노동력	0,8	0,8	0,3	0,5	0,3	0,4	0,1	0,4	0,3	0,3	0,3
Sysselsättning 고용	2,2	0,6	-1,6	0,5	0,3	0,4	0,2	0,5	0,3	0,4	0,3
Arbetade timmar 노동시간	1,4	1,7	-4,0	0,5	0,3	0,3	0,2	0,4	0,3	0,3	0,3
Produktivitet 생산성	0,2	0,9	0,9	0,5	0,3	0,3	0,3	0,3	0,3	0,3	0,3
BNP, fast pris GDP(고정가격)	4,9	5,7	-3,1	1,8	1,6	1,6	1,5	1,7	1,6	1,6	1,6
Hushållens konsumtion 가계 소비	5,5	4,1	-5,2	2,0	1,9	1,9	1,9	1,9	1,9	1,9	1,9
Offentlig konsumtion 공공 소비	-0,6	1,0	-0,3	1,2	0,7	0,8	0,7	0,7	0,7	0,6	0,7
Investeringar 투자	6,7	6,0	-1,8	2,0	2,0	1,7	2,5	2,2	2,1	2,1	2,1
Export 수출	12,3	10,2	-5,7	3,1	2,4	2,7	1,8	2,8	2,5	2,6	2,5
Import 수입	12,5	11,0	-7,1	3,2	2,5	2,5	2,3	2,7	2,5	2,6	2,6
BNP per capita, fast pris GDP(고정가격) 1인당	4,7	4,8	-3,9	1,2	1,3	1,3	1,2	1,4	1,3	1,3	1,3
BNP, löpande pris GDP(현재가격)	6,3	7,0	-1,9	3,9	3,9	3,9	3,8	4,0	3,9	3,9	3,9
Ränta femårig statsobligation ¹ 5년물 국채 이자율	5,2	2,3	-0,3	2,6	3,3	4,0	4,0	4,0	4,0	4,0	4,0

¹ Procent.

Källor: Macrobond, Riksbanken, SCB och Konjunkturinstitutet.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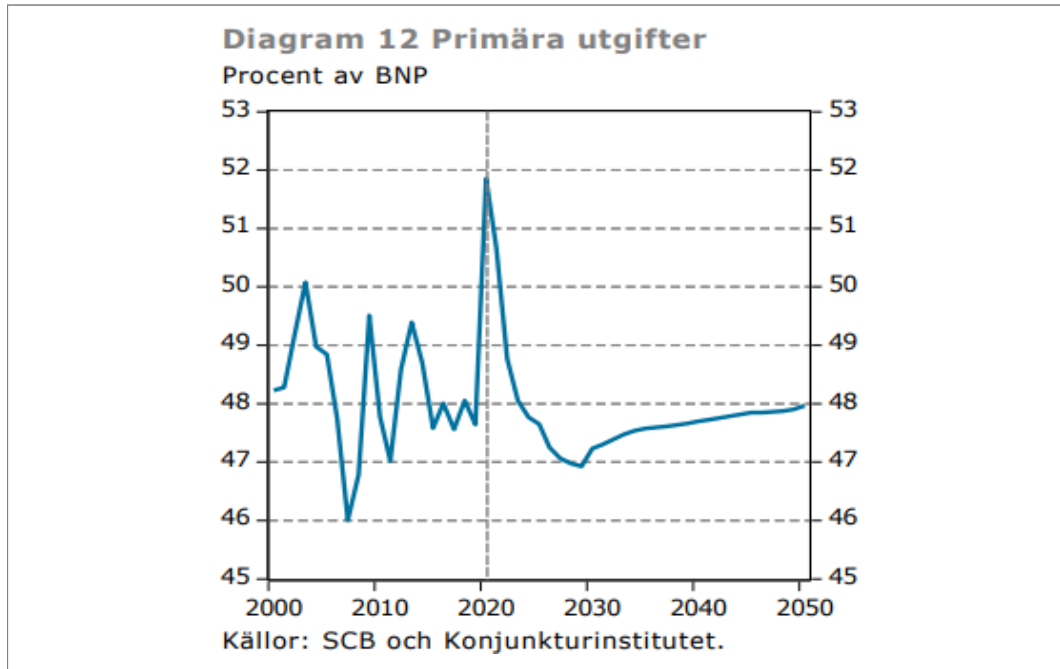
6. 전망 결과

- (방법 및 가정) 기간별로 2021~2030년까지는 국립경제연구원의 2020년 12월 기준 예측과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전망하였으며, 2030~2100년까지는 장기 모형을 사용하여 전망
 - 2020년 4월 스웨덴 통계청(SCB)의 인구 전망을 토대로 노동 관련 변수를 전망
 -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공공복지에 대한 공약이 유지되는 것을 가정
 - 국립경제연구원은 공공복지 약속을 다음과 같이 정의: 1) 공적 기금 활동에서 직원 밀도를 유지 2) 연간 표준 인상률 0.4%로 설정 3) 주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정으로의 이전 보상 비율(ersättningsgrader) 유지
 - 즉 인구 증가에 따라 공공 소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 수준이 과거 추세를 반영하여 증가함을 의미
 - 세율 및 기타 세금은 2021년 규정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소득연금은 평균 임금과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구가 더 건강해지고 개인이 더 오래 일할 것을 선택함에 따라 근로 연수가 늘어날 것으로 가정
 - 노령연금의 잉여분을 배분하지 않는 전년도 가정과는 다르게 잉여분을 연금액으로 배분하도록 가정을 변경
- (기본 지출)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기본 지출(primära utgifterna)²²⁾이 향후 몇 년은 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 급격히 감소
 - 2030년 이후에는 다시 천천히 증가세를 보이며 2050년 GDP의 48% 수준에 도달
 - 기본 지출은 공공 소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1/3은 가구로의 이전, 10%는 공공 투자로 구성되며 2020년 초반 기본 지출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소비, 투자, 이전 지출 비율 모두 하락할 것으로 예상
 - 2030년 이후에는 인구전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비((kommunala konsumtionen)가 빠르게 증가하고 늘어난 연금 수령자에 대한 소득연금의 지출이 증가하면서 기본 지출 비율이 증가

22) 기본 지출(primära utgifterna)은 자본 지출을 제외한 공공 지출 비율을 의미

[그림 IV-16] 기본 지출 전망 결과

(단위: GDP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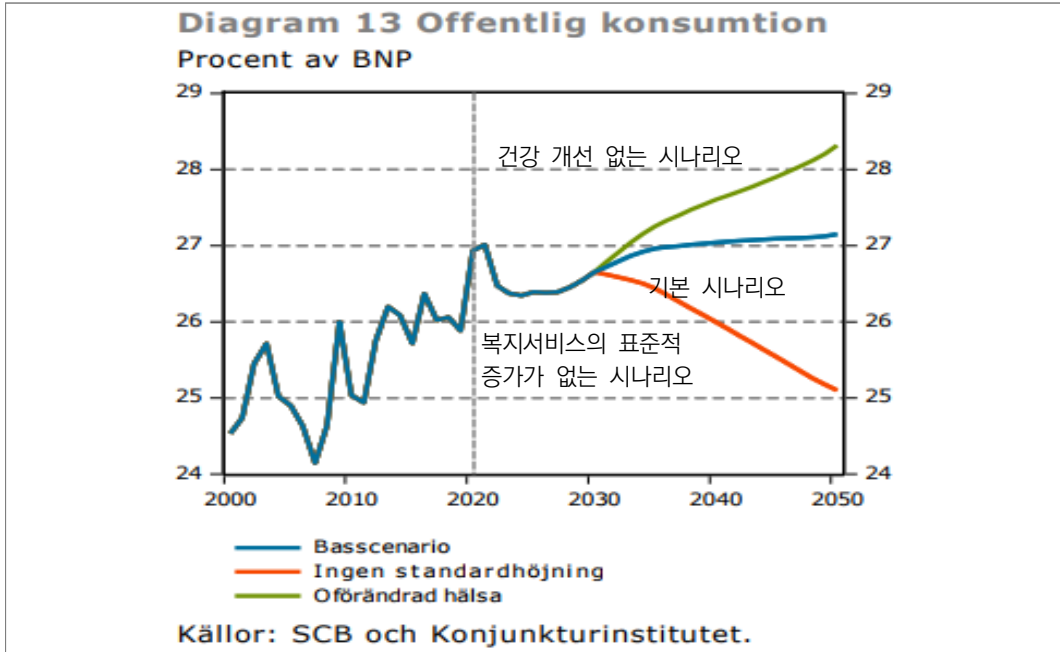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13.

- (공공 소비) 공공 소비(Offentlig konsumtion)는 코로나19의 결과로 정부 차원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2021년 GDP의 27%에서 경제가 회복되는 향후 몇 년간 26.5%로 다소 감소, 이후 다시 증가해 2050년 27.2%에 도달
- 공공 소비는 전망 시 복지 유지 가정을 전제하며 이는 공공 서비스에서 직원 밀도를 유지하고 역사적 패턴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연간 표준 증가 추이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
- 유소년과 노인이 평균적으로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요구하므로 인구고령화에 따라 공공 소비 비율이 증가하나 기대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인구가 더 건강해질 것이라는 건강 개선 가정에 의해 소비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
-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점차적으로 1인당 복지서비스를 점점 더 적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러한 추이를 전망에 적용
 - 동일한 양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2050년 고령인구와 현재 2020년 고령인구의 연령에 3년 차이를 가정하여, 즉 2050년 83세인 사람이 2020년 80세와 동일한 복지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으로 가정

[그림 IV-17] 공공 소비 전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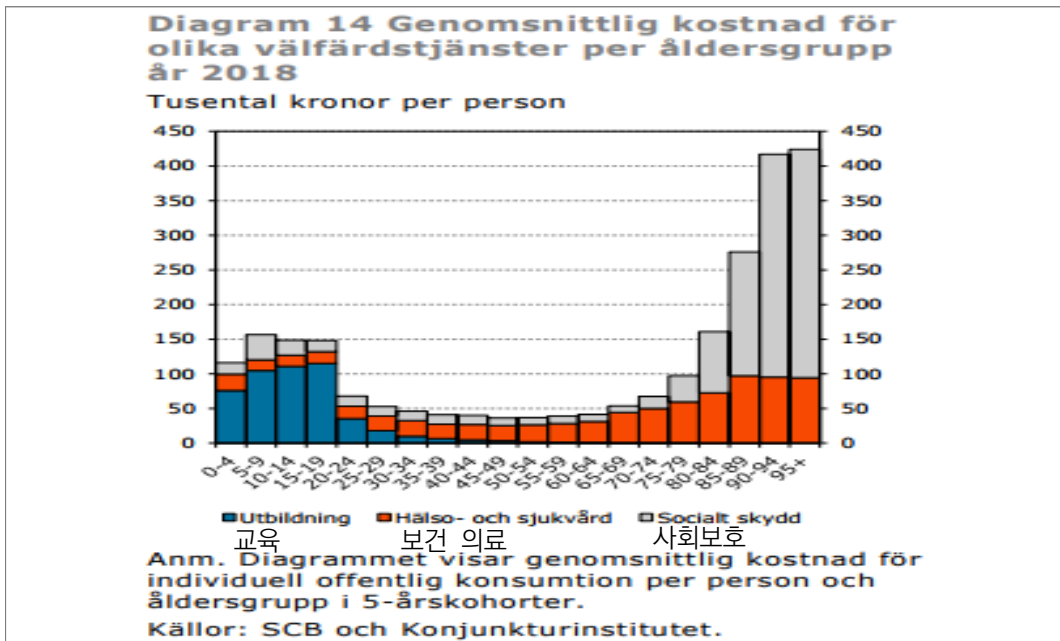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비율)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14.

[그림 IV-18] 2018년 연령대별 복지서비스의 평균 비용

(단위: 1인당 천크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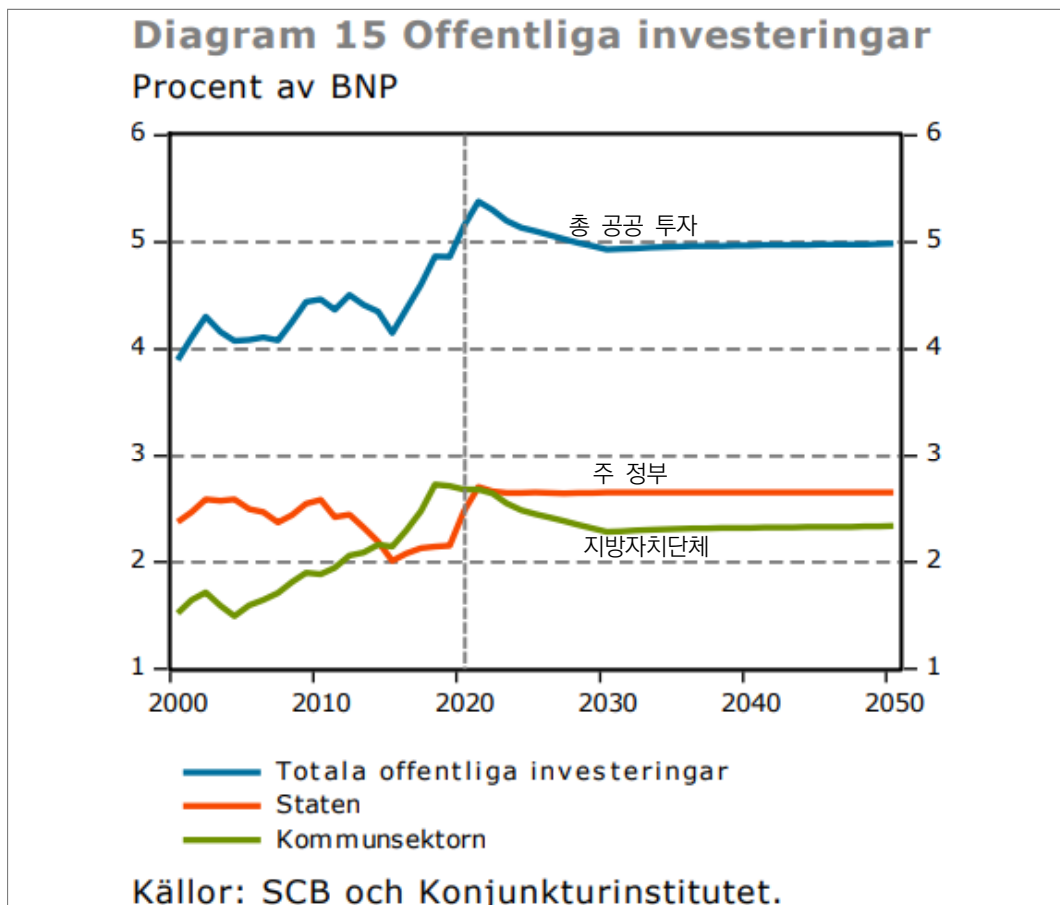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14.

- (공공 투자) 공공 투자(Offentliga investeringar)는 2020년 5.1%로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으나 향후 10년간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 약화됨에 따라 감소해 2050년까지 5%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는 2000년대 초부터 증가했으나 시설, 건물 및 인프라가 완성됨에 따라 향후 10년간은 다소 감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 소비의 비율에 따른 것으로 가정
- 즉 2030년 이후로는 GDP 대비 공공 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거의 변하지 않음

[그림 IV-19] 공공투자 전망 결과

(단위: GDP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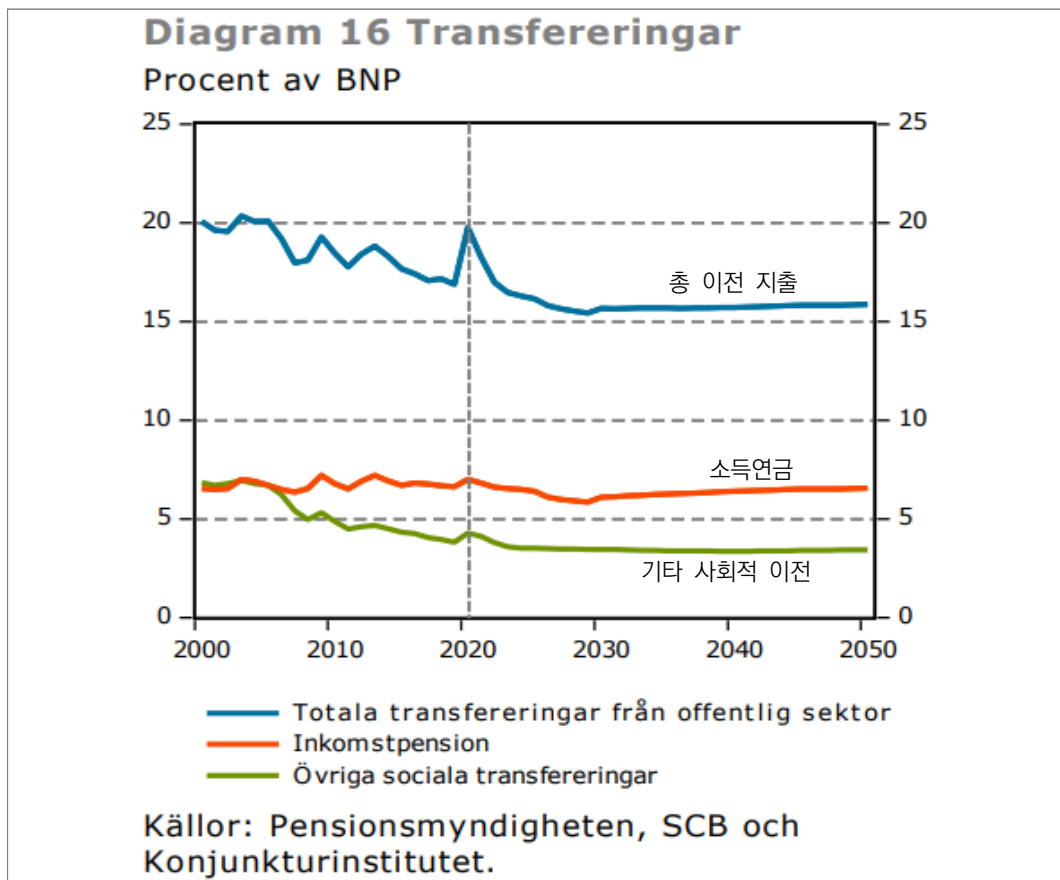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15.

- (정부 이전 지출) 2020년 GDP 대비 20%에서 2030년 약 15%까지 급격히 감소 후 2050년까지 15~16%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개혁 및 지원 조치가 대부분 가구 및 기업에 이전 지출 형태로 제공됨에 따라 2020년 이전 지출 비율이 급격히 증가
- 보조금이 단계적으로 중단되면 이전 지출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갈 것임
- 노령 연금의 잉여분이 고소득 연금의 형태로 배분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GDP 대비 소득연금(Inkomstpension) 비율은 2030년부터 증가할 전망
- 이러한 잉여분 배분 가정 없이는 소득연금은 감소 전망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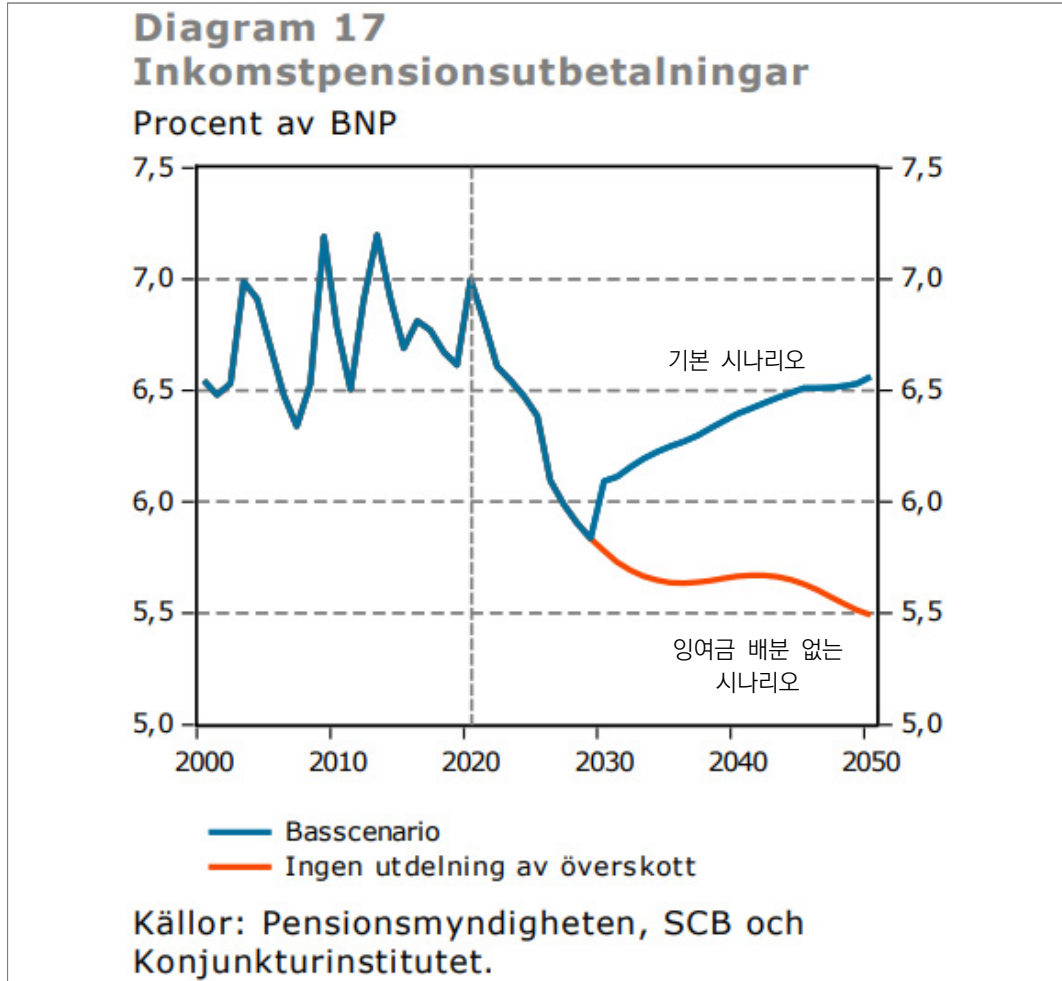
[그림 IV-20] 정부 이전지출 전망 결과

(단위: GDP 대비 비율)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15.

23) 제7장. 시나리오 및 민감도 분석에서 연금의 잉여금 배분이 없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분석 제공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15.

- (기본 소득) 자본 소득을 제외한 일반 정부 소득인 기본 소득(Primära inkomster)은 주로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으로 구성되며 2020년 47%대 후반 수준에서 2030년 46%대로 감소 후 2050년 47%까지 다소 증가
 - 세입은 임금 소득과 가구 소비가 과세 기준이 되며 세율은 일정하더라도 과세 기준에 변동이 발생하여 세입이 변경
 - 최근 자본 및 법인세 증가로 인해 GDP 대비 세입 비율이 높았으나 2021년 예산안에 여러 가지 감세 방안이 제시되면서 2023년까지 일시적인 감축이 예상
 - 2023년 이후 가계 소비 증가로 인해 세입 증가가 예상되나 과세 대상 이전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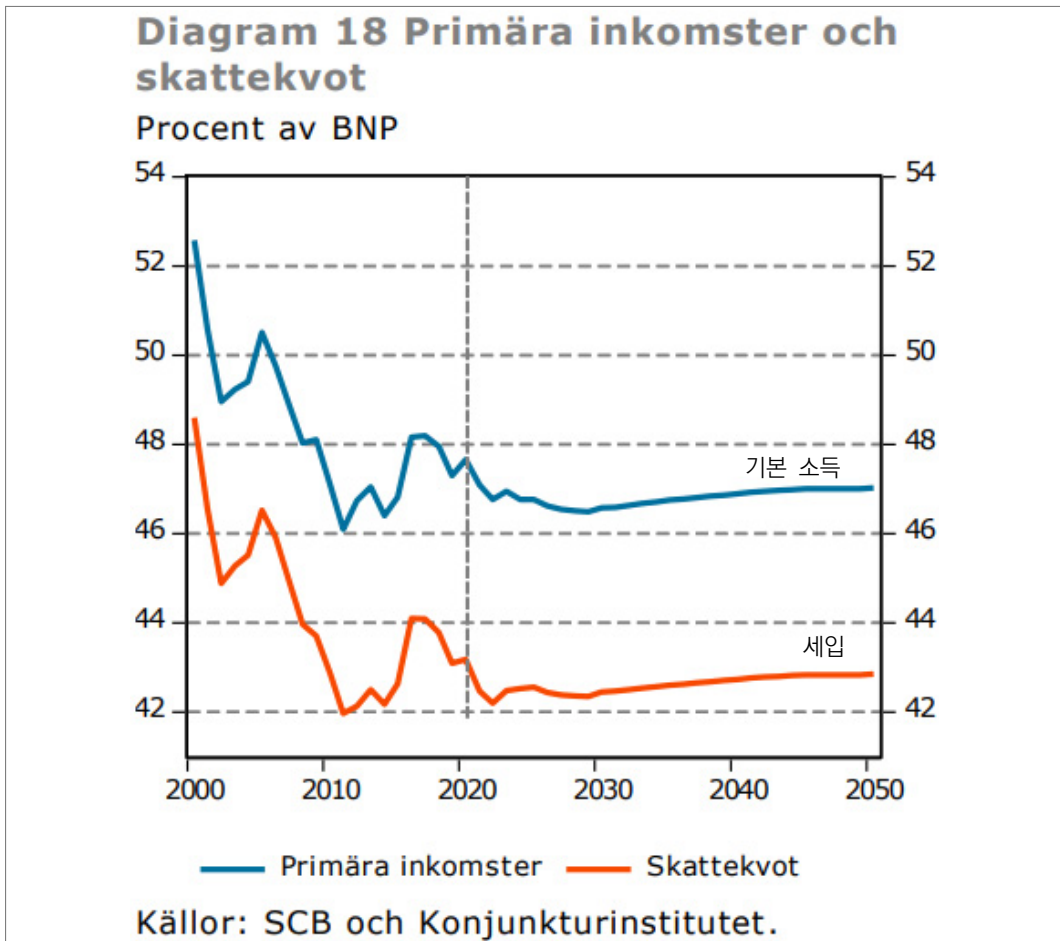
및 연금이 2030년까지 감소할 전망으로 세입 비율이 감소

○ 2030년부터는 GDP 대비 과세 대상 이전 소득 및 연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입 비율이 증가

- 향후 인구 전망에 따라 저축 성향이 높은 중년층에서 소비 성향이 높은 노인층으로의 인구 이동이 발생하면서 가계의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가정
- 노동시간과 명목 시급이 GDP와 같은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에 2030년 이후에는 GDP 대비 임금 비율이 일정

[그림 IV-22] 기본소득 및 세입 전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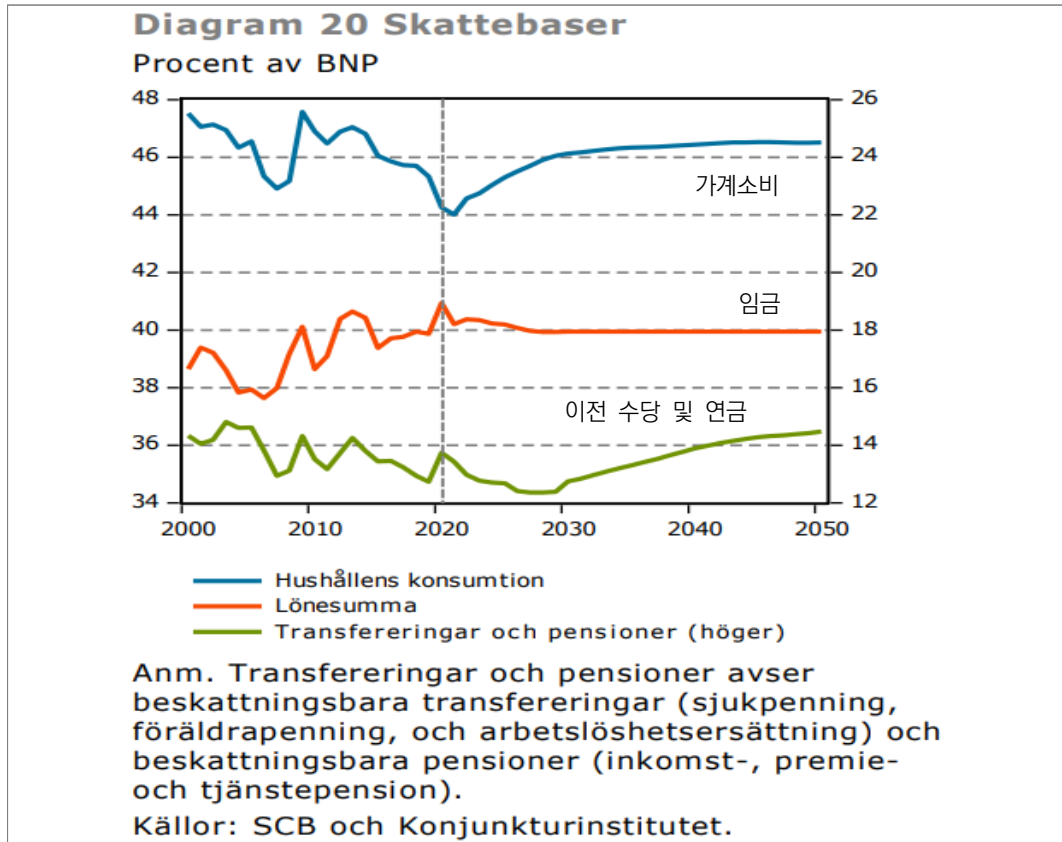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비율)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16.

[그림 IV-23] 과세 기준 전망 결과

(단위: GDP 대비 비율)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16.

- (기초 재정수지) 기본 소득에서 기본 지출을 차감한 기초 재정수지(Primärt finansiellt sparande)²⁴⁾는 음수(-)로 2020년 GDP 대비 -3.4%에 도달한 이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약 -1%, 2050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정부의 순재정상태(Finansiell nettoställning, net financial position)²⁵⁾에 따른 자본 수익은 재정수지*가 GDP의 약 0%가 되는 데 기여
 - * 재정수지는 기초 재정수지에 자본수익을 합산한 결과
- GDP 대비 기본 소득은 2030년까지 하락한 후 2050년까지 GDP 대비 47%로

24)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기초 재정적 절감'이나 개념상 기초 재정수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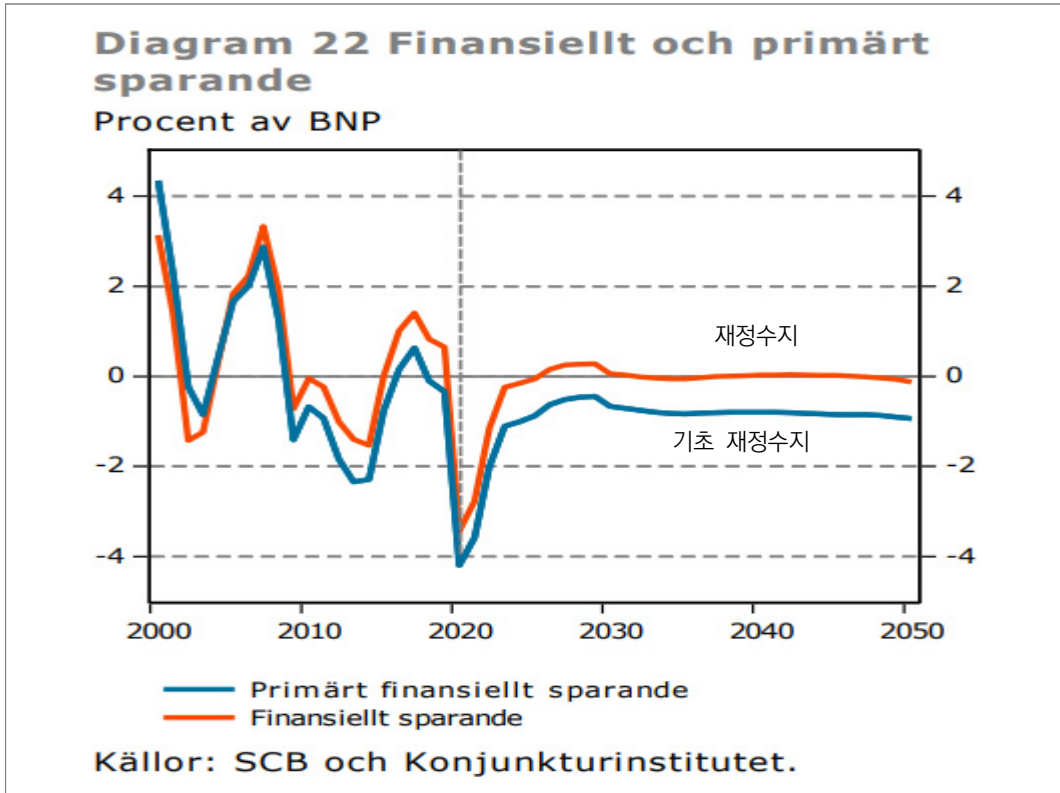
25) 순재정상태(finansiella nettoställning)는 금융자산(finansiella tillgångarna)과 일반정부 총부채(offentliga sektorns bruttoskuld)를 합한 것으로, 금융자산이 일반정부 총부채보다 값이 크면 순자산이 존재하고, 금융자산이 일반정부 총부채보다 값이 작으면 순부채가 존재

증가하고, 기본 지출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가 2030년 이후 기본 소득과 비슷한 비율로 증가

- 기본 지출이 기본 소득보다 높으며 2020년에 높았던 기본 지출이 정상화된 후에도 그 차이가 지속될 전망

[그림 IV-24] 재정수지 전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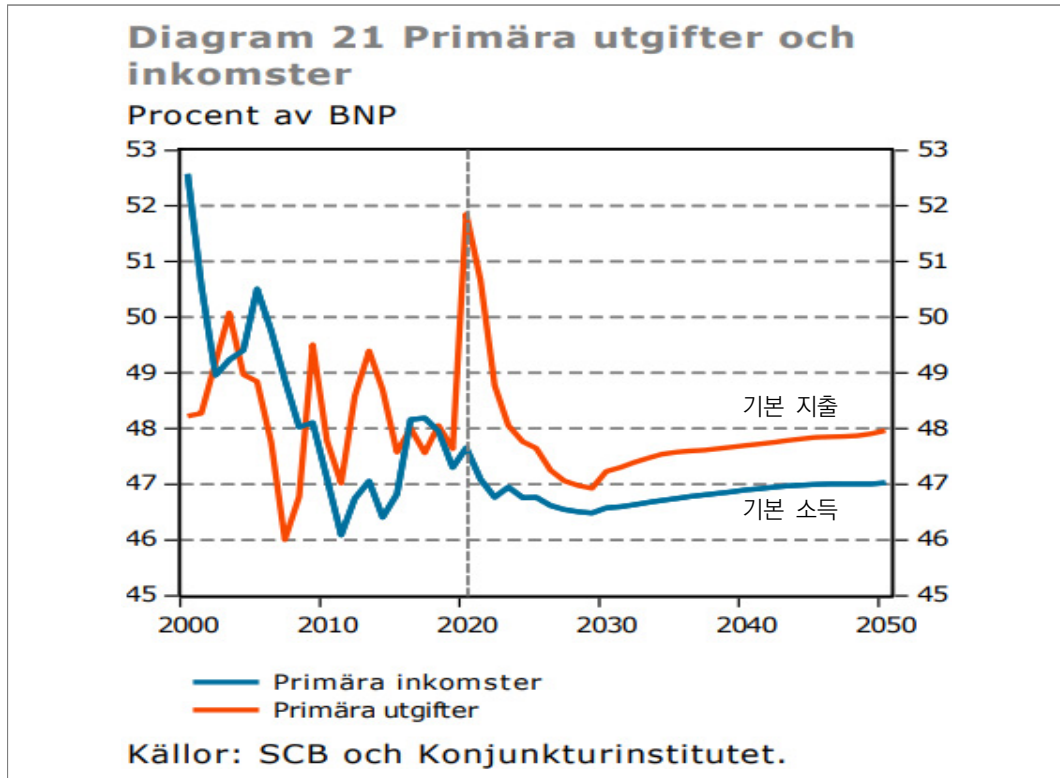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비율)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17.

[그림 IV-25] 기본 지출 및 기본 소득 전망 결과

(단위: GDP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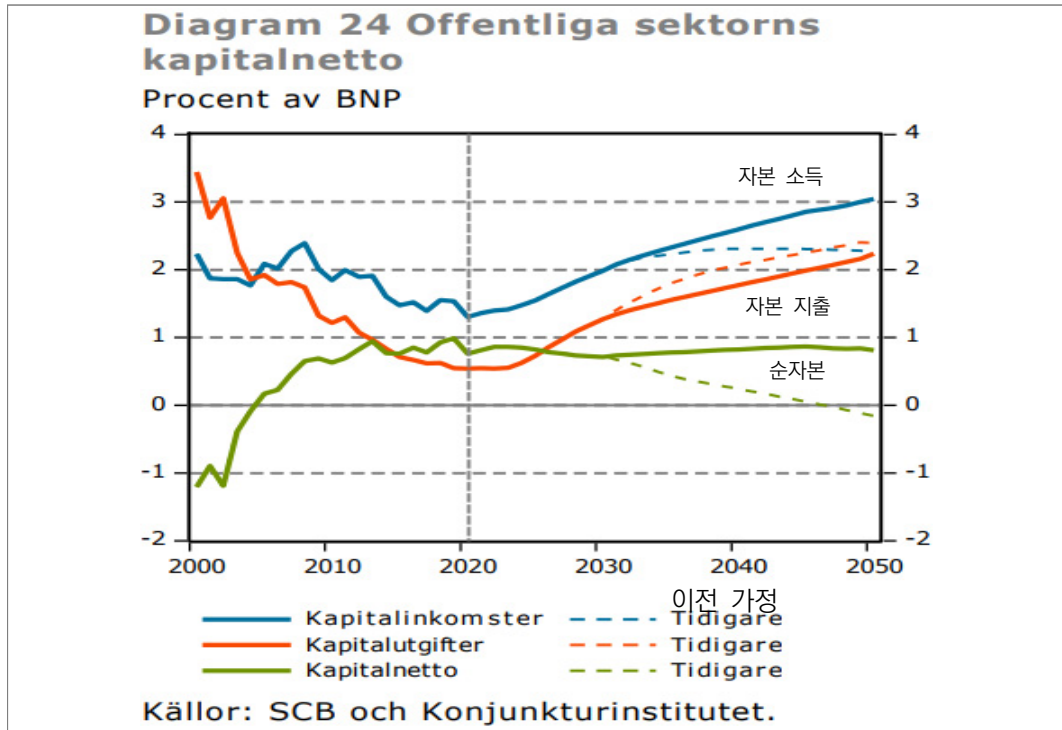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17.

- (순자본) 자본 소득에서 자본 지출을 뺀 순 자본은 크게 변화하지 않음
 -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장기 이자율과 금융자산 수익률에 대한 가정을 변경함으로써 금융자산에 대한 더 높은 수익을 가정, 이에 따라 순재정상태가 크게 감소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순자본이 크게 감소하지 않음

[그림 IV-26] 공공 부문의 순자본 전망 결과

(단위: GDP 대비 비율)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18.

참고 IV-3 이자율 및 수익률 가정 변경

국립경제연구원은 공공 부문 부채에 대한 장기이자율과 금융자산 수익률의 장기적 추이에 관한 가정을 검토하면서 이번 보고서에는 이자율 및 수익률에 대한 방법과 가정을 기존 보고서와는 다르게 변경함. 먼저 해외 단기 금리의 장기 균형 수준은 미국 30년 만기 국채의 시장 호가를 이용하여 계산. 이후에는 만기가 다양한 증권 시장의 금리를 계산할 시 외국 이자율과 만기 프리미엄 가정을 기초로 함. 일반 정부 부채와 이자부 자산에 대한 암묵적 이자율은 현재 저금리 상황에서 균형에 도달하는 2050년까지 시장 이자율을 따름. 무이자 자산의 직접 수익은 이자부 자산의 암묵적 이자율 수준과 동일하다고 가정함. 이는 이전 가정보다 총금융자산에 대한 더 높은 암묵적 이자율 즉, 더 높은 자본 소득을 의미(이전에는 총수익이 암묵적 이자율과 같다고 가정했었음). 또한 암묵적 금리가 더 빠르게 상승하고 만기 프리미엄이 균형에서 0에 가까운 것으로 가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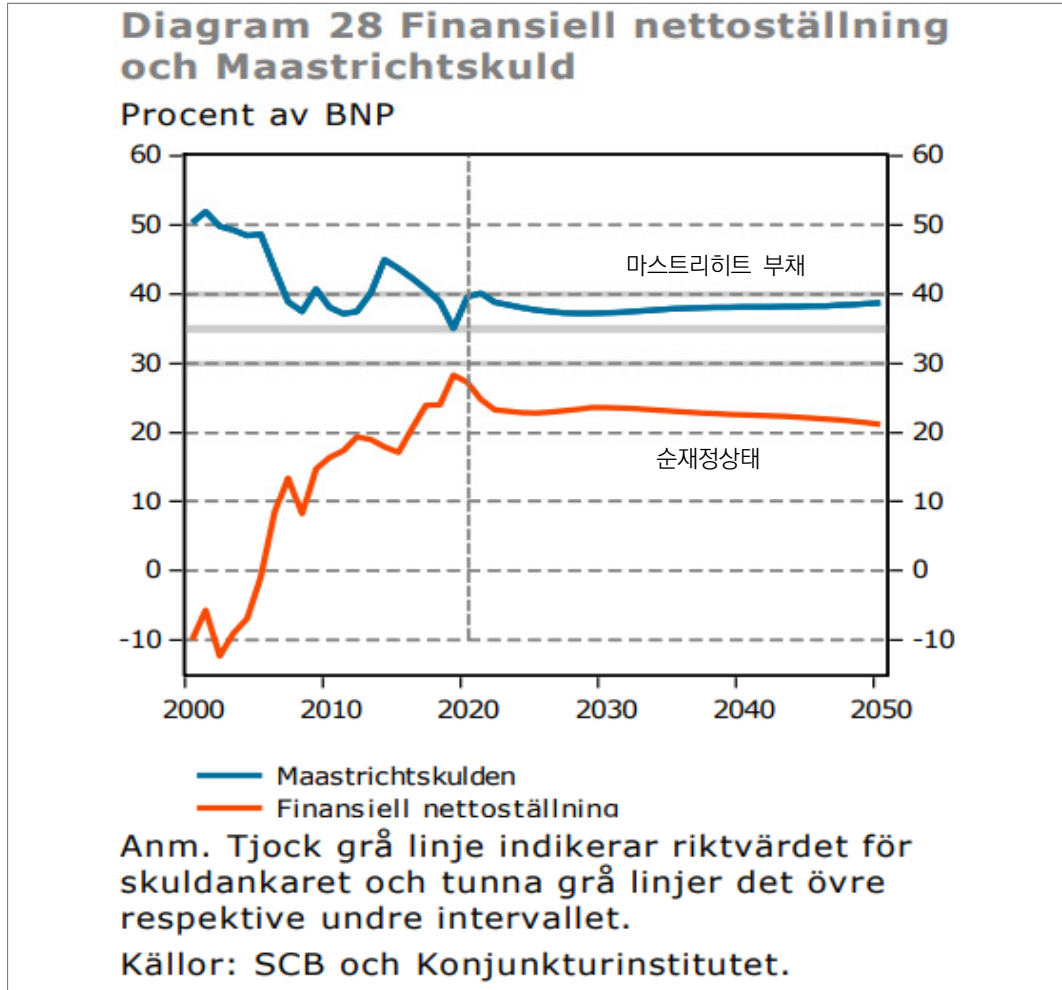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18.

- (순재정상태) 순재정상태(Finansiell nettoställning, net financial position)는 2020년대 초기 다소 감소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2050년 21%로 전망
- (부채) 마스트리히트 부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대략 현재 수준을 유지하며 2050년 GDP의 39%로 전망

- 스웨덴 재정 지속가능성의 기준값은 GDP 대비 40%로서 국립경제연구원은 기본 시나리오하에서 장기적으로 스웨덴의 재정이 지속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

[그림 IV-27] 순재정상태 및 마스트리히트 부채 전망 결과

(단위: GDP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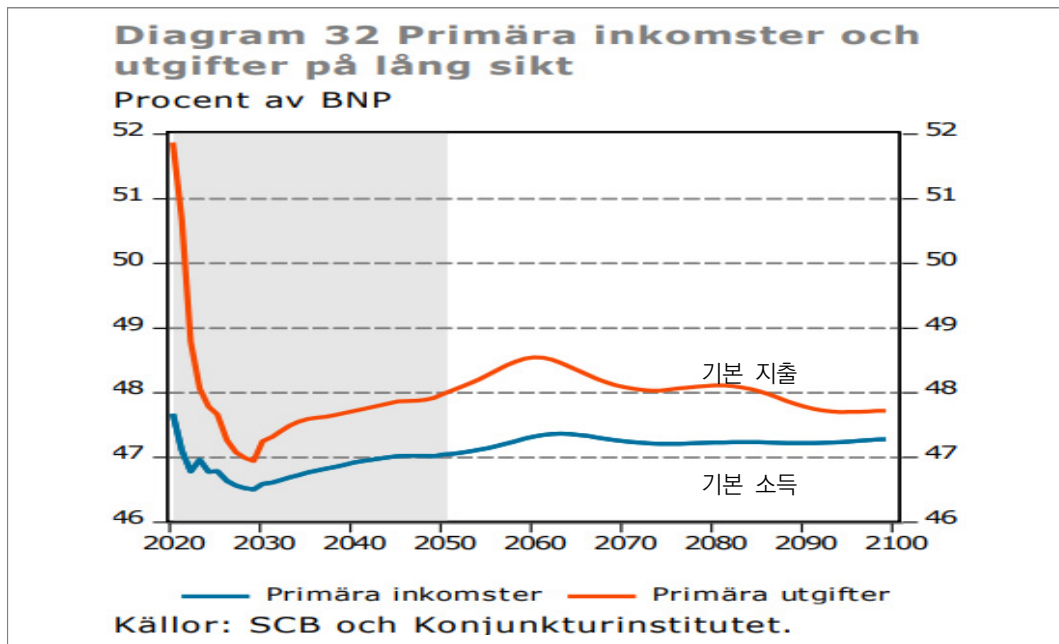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20.

- (2100년 전망) 2050~2100년까지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분석
 - 기본 소득은 2050년 이후 2060년대 중반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하락해 평준화
 - GDP 대비 기본 지출 비중은 증가해 2060년경 정점에 도달, 이후 감소세를 보임
 - 2060년까지 증가는 1960~1970년대 출생한 많은 인구수가 2060년 80세 이상일 때까지 건강 및 관리에 대한 공공 지출 비중 증가에 기여하기 때문

- 따라서 재정수지는 2060년 -0.6%까지 감소, 이후 회복하여 2100년 -0.1% 도달
 - 2060년경 기초 재정수지가 감소한 결과, GDP 대비 일반정부의 순재정상태는 2050년 GDP 대비 2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2100년 10% 미만으로 감소
 - 순재정상태의 감소로 인해 자본 소득과 순자본도 하락
 - 순재정상태 전망 결과는 현재 수준보다 낮지만 여전히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간주
- 마스트리히트 부채는 2050년 이후 증가해 2100년 GDP 대비 비율이 46%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스웨덴 재정의 기준선(40%)보다 높은 수준
 - 그러나 재정수지가 EU의 중기 예산 목표인 GDP의 -1%를 상회하고, 마스트리히트 부채 비율도 EU의 안정 및 성장 협약에서 설정한 60% 수준은 초과하지 않는 등 재정이 EU의 재정 정책 프레임워크(framework) 내에 존재함을 확인

[그림 IV-28] 장기의 기본 소득 및 지출 전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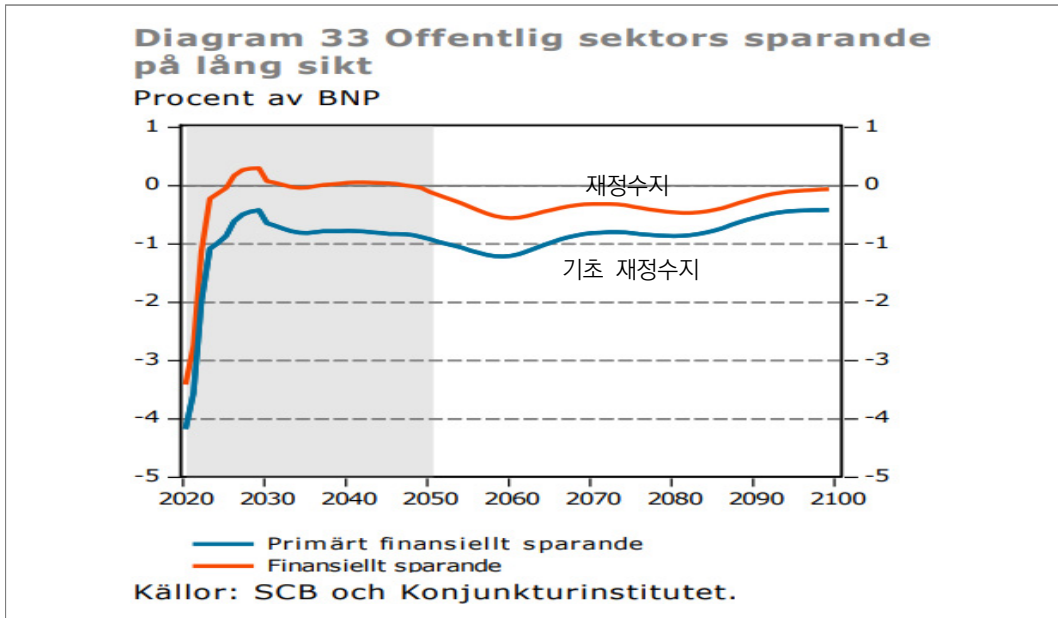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22.

[그림 IV-29] 장기의 재정수지 전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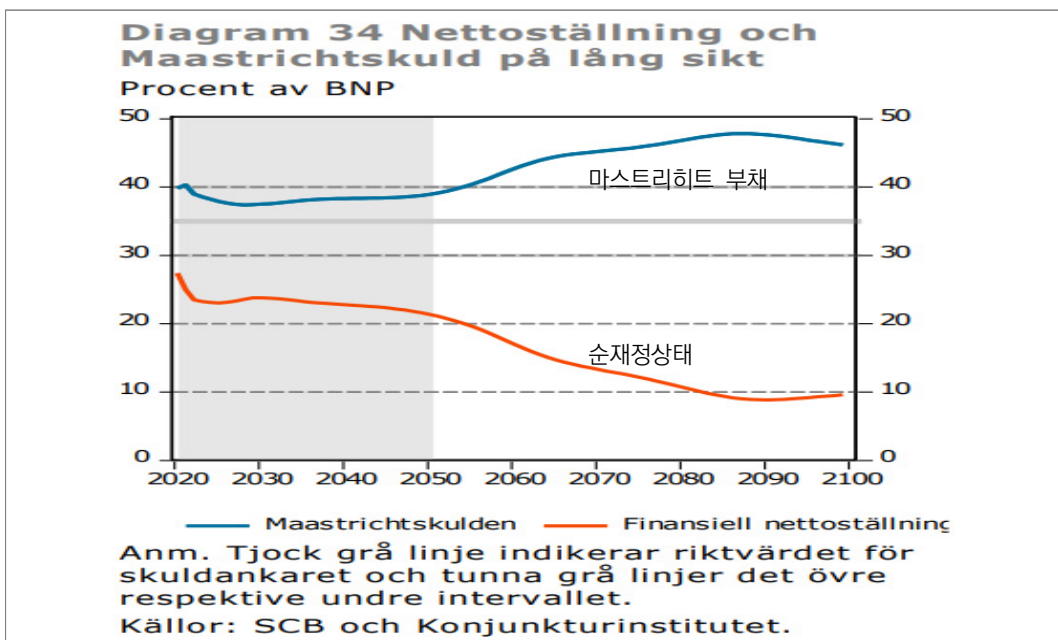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22.

[그림 IV-30] 장기의 순재정상태 및 마스트리히트 부채 전망 결과

(단위: GDP 대비 %)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22.

(단위: GDP 대비 비율)

Tabell 5 Offentliga finanser i basscenariot
Procent av BNP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Primära inkomster 기본 소득	52,6	47,1	47,7	46,6	46,9	47,0	47,3	47,2	47,2	47,2	47,3
Skatter och avgifter 세입	48,6	42,9	43,2	42,5	42,7	42,8	43,1	43,0	43,0	43,0	43,1
Primära utgifter 기본 지출	48,2	47,8	51,9	47,2	47,7	48,0	48,5	48,1	48,1	47,8	47,7
Konsumtion 소비	24,5	25,0	26,9	26,7	27,0	27,2	27,7	27,4	27,4	27,2	27,1
Inkomstpensioner 연금 소득	5,7	6,1	6,6	5,7	6,0	6,1	6,2	6,1	6,1	6,1	6,1
Sociala transferingar 사회 이전(연금 소득 제외) (exkl inkomstpensioner)	10,2	8,0	6,9	5,7	5,5	5,5	5,5	5,4	5,4	5,3	5,3
Investeringar 투자	3,9	4,5	5,1	4,9	5,0	5,0	5,0	5,0	5,0	5,0	5,0
Primärt finansiellt sparande 기초 재정 수지	4,3	-0,7	-4,2	-0,7	-0,8	-0,9	-1,2	-0,8	-0,9	-0,6	-0,4
Kapitalinkomster, netto 순자본 소득	-1,2	0,6	0,8	0,7	0,8	0,8	0,6	0,5	0,4	0,3	0,4
Finansiellt sparande 재정 수지	3,1	0,0	-3,4	0,1	0,0	-0,1	-0,6	-0,3	-0,5	-0,2	-0,1
Finansiell nettoställning 순재정 상태	-9,9	16,5	27,3	23,7	22,6	21,2	16,8	13,1	10,5	8,7	9,5
Maastrichtskuld 마스트리히트 부채	50,3	38,1	39,6	37,3	38,2	38,8	42,5	45,1	46,7	47,5	45,8

Källor: SCB och Konjunkturinstitut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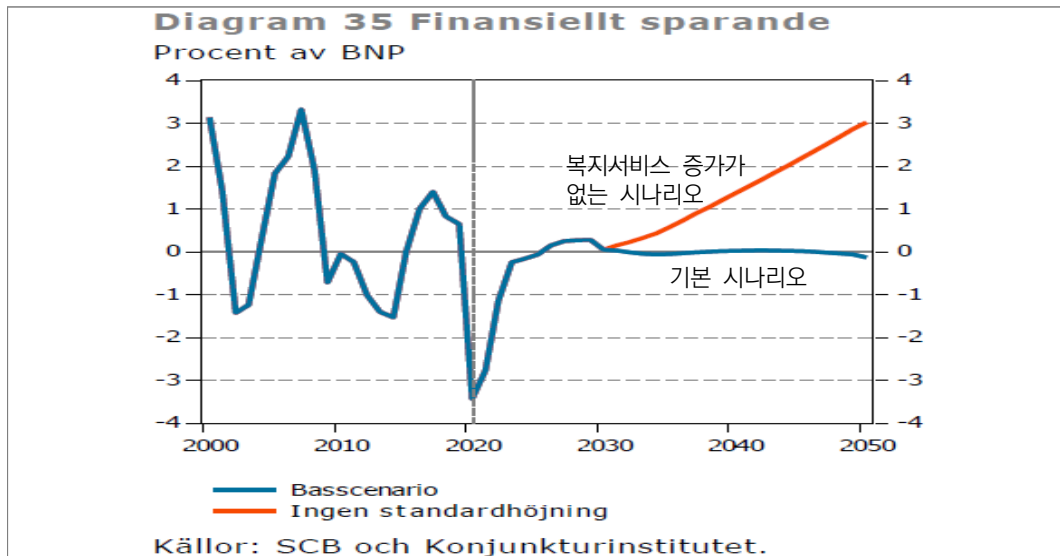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47.

7. 시나리오 분석

- (설명) 공공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다각도로 평가하기 위해 순재정상태 및 마스트리히트 부채에 대해 다섯 가지 대안 시나리오의 전망 결과를 제시
 - 1) 복지서비스 증가가 없는 시나리오 2) 고령화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시나리오
 - 3) 연금 잉여금 배분이 없는 시나리오 4) 2027년 재정흑자 목표에서 균형 목표로의 변경 시나리오 5) 이자율 및 수익률 가정 변경 시나리오 등 다섯 가지를 설정
- (대안1: 복지서비스 증가가 없는 시나리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복지서비스의 연간 표준 증가율을 0.4%로 가정한 반면 대안 시나리오에서는 0으로 설정
 - 즉 공공 소비 지출은 감소할 것이며 투자가 소비량을 따른다는 가정하에 공공 부문의 투자도 감소하면서 낮은 지출과 더 높은 수입²⁶⁾으로 인해 GDP 대비 재정 수지가 증가, 부채는 감소할 전망
 - 2050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3%, 마스트리히트 부채는 13.9%로 기본 시나리오 대비 각각 3.1%p 증가, 24.9%p 감소

[그림 IV-31] 재정수지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1)

(단위: GDP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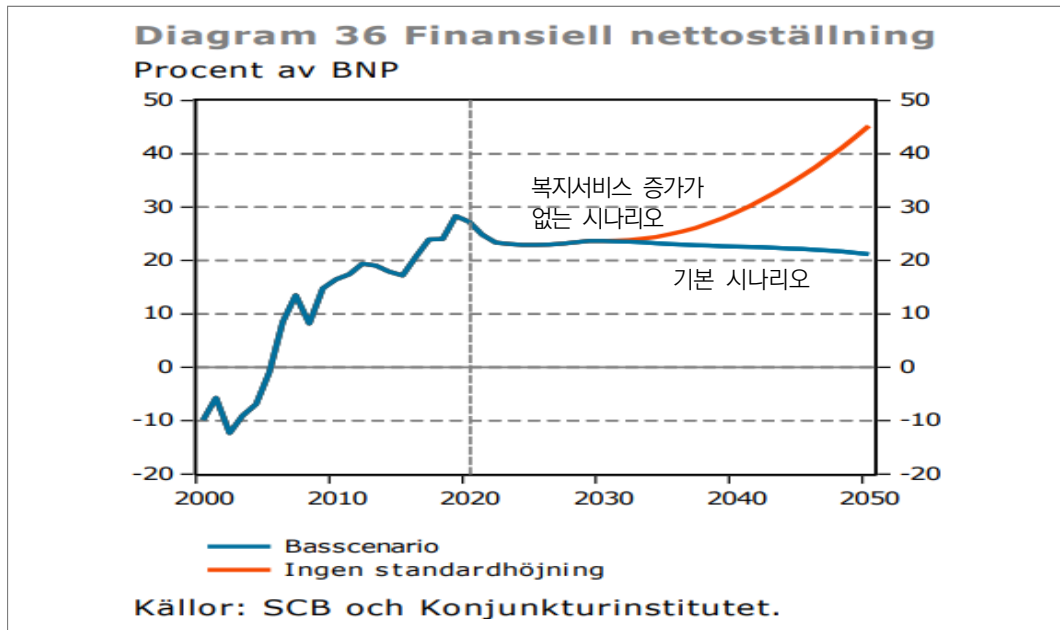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23.

26) 공공 부문의 낮은 생산량은 민간 부문의 생산량 증가를 초래한다고 가정. 따라서 민간 부문의 소비와 투자가 기본 시나리오보다 높기 때문에 세입이 약간 더 높음을 의미

[그림 IV-32] 순재정상태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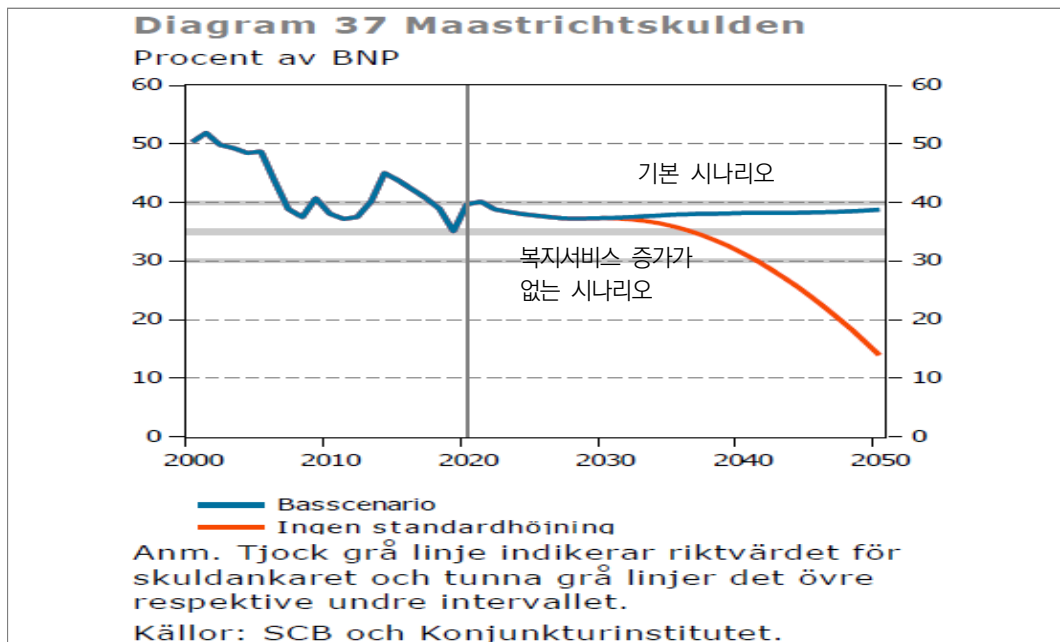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비율)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24.

[그림 IV-33] 마스트리히트 부채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1)

(단위: GDP 대비 비율)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24.

Tabell 7 Alternativscenario: Ingen standardhöjning i välfärdstjänsterna
 Procent av BNP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Primära inkomster 기본 소득	52,6	47,1	47,7	46,6	46,9	47,1	47,3	47,2	47,1	46,9	46,9
Skatter och avgifter 세입	48,6	42,9	43,2	42,5	42,8	43,0	43,2	43,2	43,1	43,0	43,0
Primära utgifter 기본 지출	48,2	47,8	51,9	47,2	46,6	45,7	45,2	43,7	42,8	41,6	40,6
Konsumtion 소비	24,5	25,0	26,9	26,7	26,0	25,1	24,6	23,4	22,5	21,5	20,6
Inkomstpensioner 연금 소득	5,7	6,1	6,6	5,7	6,0	6,1	6,2	6,1	6,1	6,1	6,1
Sociala transferingar 사회 이전(연금 소득 제외) (exkl inkomstpensioner)	10,2	8,0	6,9	5,7	5,5	5,5	5,5	5,4	5,4	5,3	5,3
Investeringar 투자 기초재정수지	3,9	4,5	5,1	4,9	4,9	4,8	4,8	4,7	4,6	4,5	4,4
Primärt finansiellt sparande	4,3	-0,7	-4,2	-0,7	0,4	1,3	2,1	3,4	4,3	5,4	6,3
Kapitalinkomster, netto 순자산 소득	-1,2	0,6	0,8	0,7	1,0	1,7	2,7	4,0	5,8	8,0	10,5
Finansiellt sparande 재정 수지 순재정상태	3,1	0,0	-3,4	0,1	1,4	3,0	4,8	7,5	10,1	13,3	16,8
Finansiell nettoställning	-9,9	16,5	27,3	23,7	29,0	45,2	71,0	106,9	153,5	210,1	277,4
Maastrichtskuld 마스트리히트 부채	50,3	38,1	39,6	37,3	31,4	13,9	-12,8	-50,2	-98,1	-156,2	-2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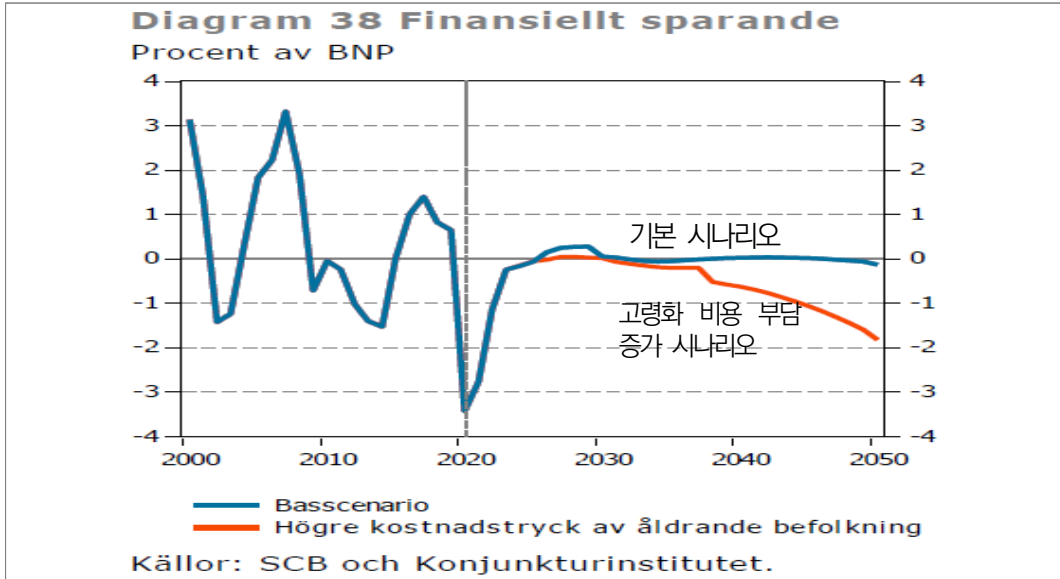
Källor: SCB och Konjunkturinstitutet.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48.

- (대안2: 고령화 비용 부담 증가 시나리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고령인구의 건강이 향상됨에 따라 정년이 연장되는 것을 가정한 반면, 대안 시나리오에서는 정년퇴직 연령을 현재 수준인 64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 기대수명이 높아져도 노인들의 건강이 향상되지 않으며 연령별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은 현재와 동일하고 연금 수급자로서의 연수는 증가
 - 기본 시나리오 대비 건강 및 돌봄에 대한 공공 지출이 증가, 낮은 노동력 참여와 높은 건강 관련 공공 소비로 인한 낮은 세수로 인해 재정수지는 악화되고 순재정상태 악화로 마스트리히트 부채도 증가
 - 2050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1.8%, 마스트리히트 부채비율은 51.2%로서 기본 시나리오 대비 각각 1.7%p 감소, 12.4%p 증가
 - 따라서 이 시나리오하에서는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국민 건강이 향상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 공공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매우 중요함을 확인

[그림 IV-34] 재정수지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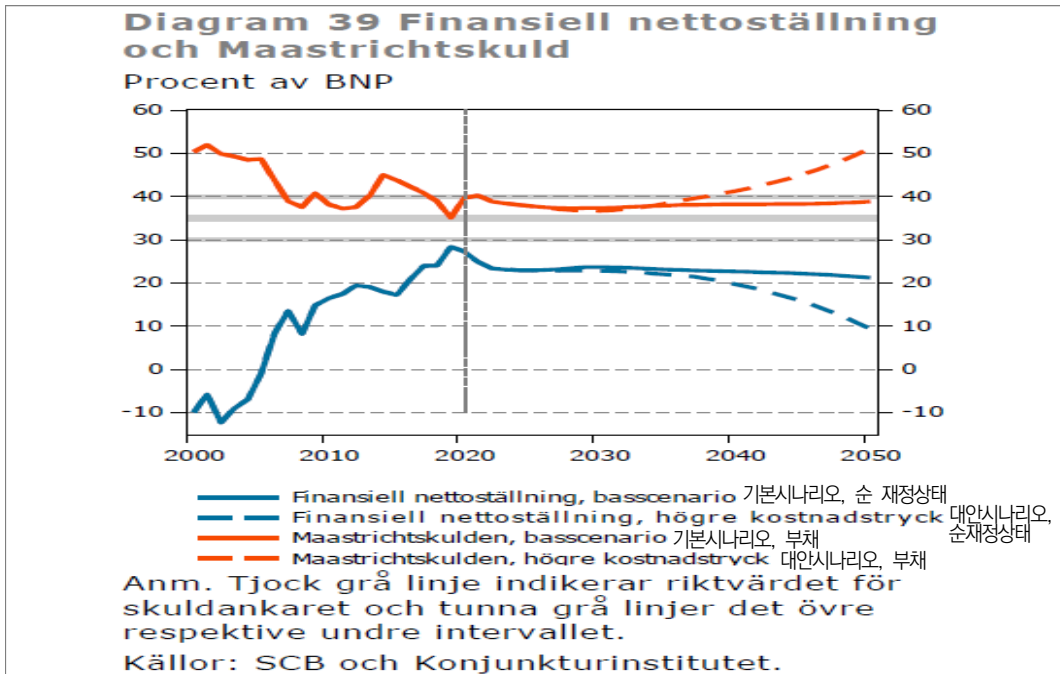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비율)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24.

[그림 IV-35] 순재정상태 및 부채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2)

(단위: GDP 대비 비율)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24.

Tabell 8 Alternativscenariot: Högre kostnadstryck på grund av åldrande befolkning
Procent av BNP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Primära inkomster 기본 소득	52,6	47,1	47,7	46,7	47,1	47,3	47,6	47,5	47,7	47,7	47,9
Skatter och avgifter 세금	48,6	42,9	43,2	42,6	42,9	43,0	43,3	43,2	43,2	43,3	43,4
Primära utgifter 공공 지출	48,2	47,8	51,9	47,4	48,4	49,5	50,6	50,5	51,3	51,4	52,1
Konsumtion 소비	24,5	25,0	26,9	26,7	27,6	28,3	29,4	29,4	30,1	30,2	30,8
Inkomstpensioner 연금 소득	5,7	6,1	6,6	5,8	6,0	6,2	6,2	6,1	6,1	6,1	6,1
Sociala transferingar 사회 이전(연금 소득 제외) (exkl inkomstpensioner)	10,2	8,0	6,9	5,7	5,6	5,7	5,6	5,6	5,6	5,6	5,6
Investeringar 투자 기초재정수지	3,9	4,5	5,1	4,9	5,0	5,1	5,2	5,2	5,3	5,3	5,4
Primärt finansiellt sparande	4,3	-0,7	-4,2	-0,7	-1,4	-2,2	-2,9	-3,0	-3,6	-3,7	-4,1
Kapitalinkomster, netto 순자본 소득	-1,2	0,6	0,8	0,7	0,7	0,4	-0,4	-1,3	-2,4	-3,6	-5,0
Finansiellt sparande 재정 수지	3,1	0,0	-3,4	0,0	-0,6	-1,8	-3,3	-4,3	-6,0	-7,3	-9,1
Finansiell nettoställning 순재정 상태	-9,9	16,5	27,3	22,8	19,7	9,3	-11,3	-34,7	-63,5	-96,1	-131,6
Maastrichtskuld 마스트리히트 부채	50,3	38,1	39,6	36,7	41,2	51,2	71,5	93,9	122,0	153,8	188,7

Källor: SCB och Konjunkturinstitut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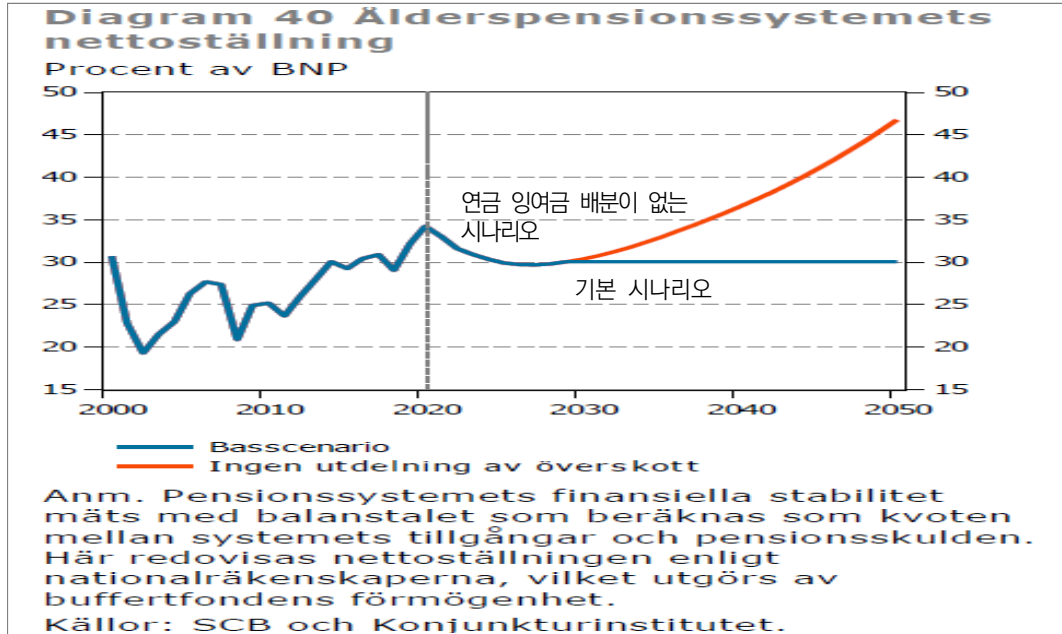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49.

- (대안3: 연금 잉여금 배분이 없는 시나리오) 자본 수익률 가정에 따라 노령연금의 순재정상태는 점차 증가하는데, 이 시나리오에서는 노령연금의 잉여금을 연금액으로 배분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기본 시나리오하에서는 순재정상태가 GDP의 30%에서 유지되도록 잉여금을 노령연금액으로 배분하여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을 가정
 - 대안 시나리오의 전망 결과 기본 시나리오 대비 노령 연금의 재정수지는 2025년부터 더 높을 것이며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수지는 연금액이 낮을수록 과세 소득 하락에 따라 감소 전망
 - 2050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1.0%, 마스트리히트 부채비율은 43.5%로서 기본 시나리오 대비 각각 1.1%p 증가, 4.7%p 증가
 - 부채의 증가는 재정수지 악화 시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채를 늘리기 때문이며 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금융 부채가 없으므로 기본 시나리오에 대비 마스트리히트 부채가 증가하는 동시에 순재정상태가 개선

- 국립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 대안 시나리오하에서는 재정은 지속가능하나 부채 증가로 인해 긴장은 고조되는 것으로 평가

[그림 IV-36] 노령연금 순재정상태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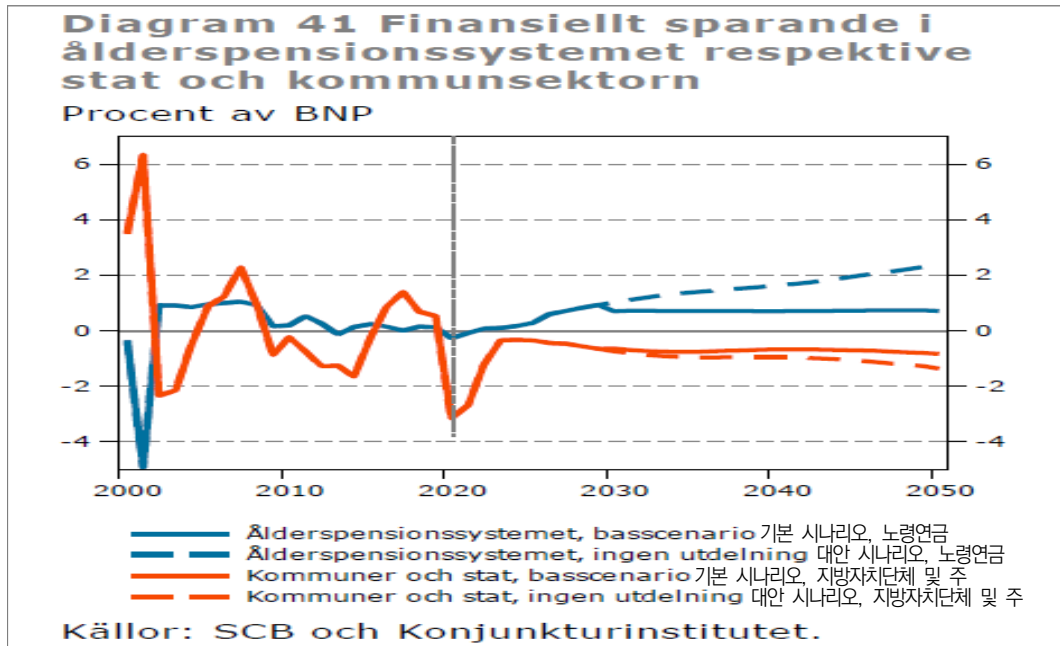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비율)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25.

[그림 IV-37] 노령연금제도와 주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지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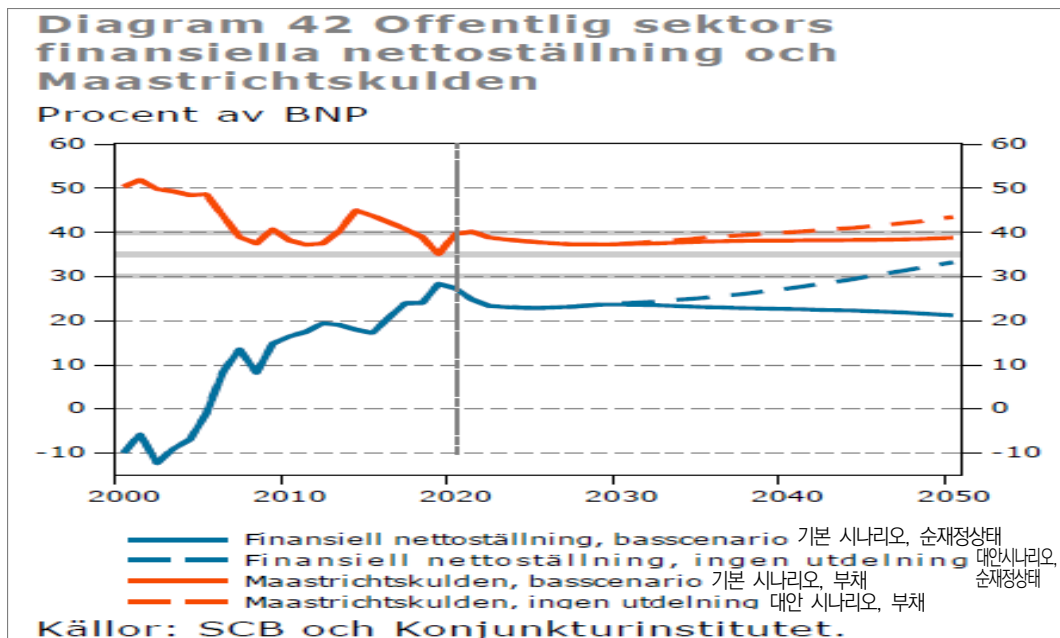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비율)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25.

[그림 IV-38] 공공 순재정상태 및 마스트리히트 부채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3)

(단위: GDP 대비 비율)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26.

Tabell 9 Alternativscenario: Ingen utdelning av överskott i pensionssystemet
 Procent av BNP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Primära inkomster 기본 소득	52,6	47,1	47,7	46,5	46,7	46,7	47,0	46,8	46,8	46,7	46,7
Skatter och avgifter 세입	48,6	42,9	43,2	42,4	42,5	42,5	42,7	42,6	42,5	42,4	42,5
Primära utgifter 공공 지출	48,2	47,8	51,9	46,9	47,0	46,9	47,6	47,1	47,0	46,6	46,5
Konsumtion 소비	24,5	25,0	26,9	26,7	27,0	27,2	27,7	27,4	27,4	27,2	27,1
Inkomstpensioner 연금 소득	5,7	6,1	6,6	5,4	5,2	5,1	5,3	5,1	5,1	4,9	4,9
Sociala transferingar 사회 이전(연금 소득 제외) (exkl inkomstpensioner)	10,2	8,0	6,9	5,7	5,5	5,5	5,5	5,4	5,4	5,3	5,3
Investeringar 투자	3,9	4,5	5,1	4,9	5,0	5,0	5,0	5,0	5,0	5,0	5,0
Primärt finansiellt sparande 기초재정수지	4,3	-0,7	-4,2	-0,4	-0,3	-0,2	-0,7	-0,2	-0,3	0,1	0,1
Kapitalinkomster, netto 순자본 소득	-1,2	0,6	0,8	0,7	1,0	1,2	1,4	1,7	2,0	2,5	3,2
Finansiellt sparande 재정 수지	3,1	0,0	-3,4	0,3	0,7	1,0	0,8	1,4	1,7	2,6	3,3
Finansiell nettoställning 순재정 상태	-9,9	16,5	27,3	23,9	27,3	33,3	38,8	45,0	55,0	68,3	86,8
Maastrichtskuld 마스트리히트 부채	50,3	38,1	39,6	37,4	40,0	43,5	51,0	57,1	63,2	69,3	73,6

Källor: SCB och Konjunkturinstitut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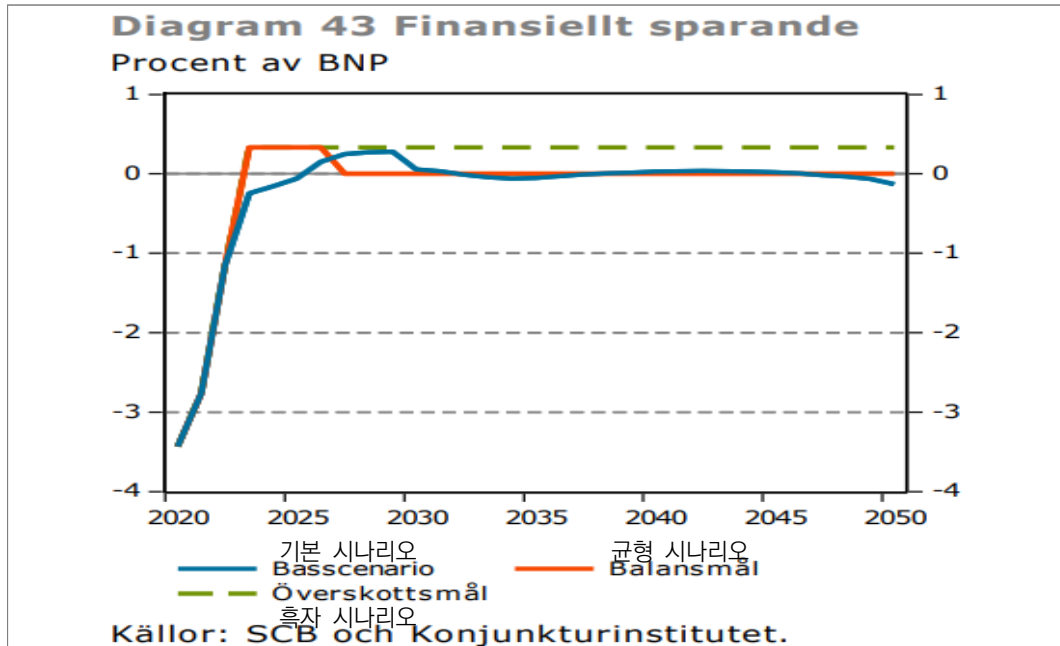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49.

- (대안4: 재정 균형 시나리오) 공공 재정에서 적자도 흑자도 없는 균형 시나리오로서 2027년까지 일반 정부 재정수지가 균형에 도달하도록 조정
 - 일반 정부의 재정수지가 어떤 목표도 향하지 않는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까지 여전히 균형에 가깝고 마스트리히트 부채와 순재정상태는 미미한 감소
 - 재정 흑자 목표 시나리오²⁷⁾에서는 2023년부터 매년 재정이 흑자인 것으로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순재정상태는 증가, 마스트리히트 부채는 GDP의 30% 이하로 감소하는 결과
 - 재정 흑자 목표 시나리오의 대안 시나리오로서 설정된 재정 균형 시나리오는 2023~2027년까지 재정 균형을 이루나 장기에서는 순재정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기본 시나리오와 비슷하고 부채는 기본 시나리오보다 다소 감소
 - 2050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0.3%, 마스트리히트 부채비율은 33.1%로써 기본 시나리오 대비 각각 0.4%p 증가, 0.7%p 감소
 - 국립경제연구원은 여전히 공공 재정은 지속가능한 것으로 평가

27) 보고서 원문 제1장을 참고

[그림 IV-39] 재정수지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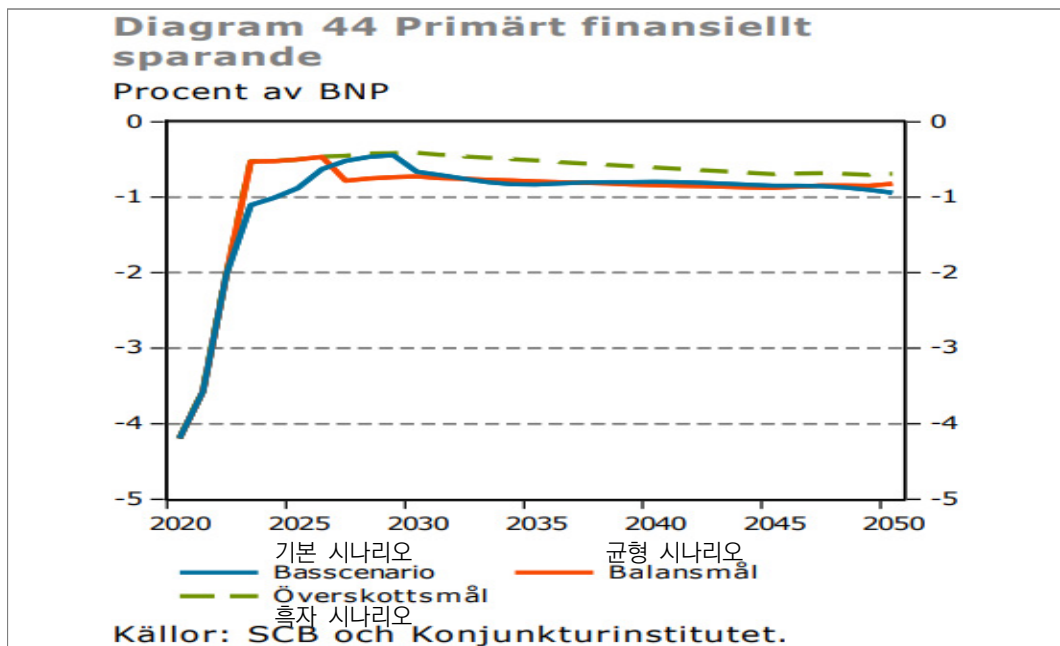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비율)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26.

[그림 IV-40] 기초 재정수지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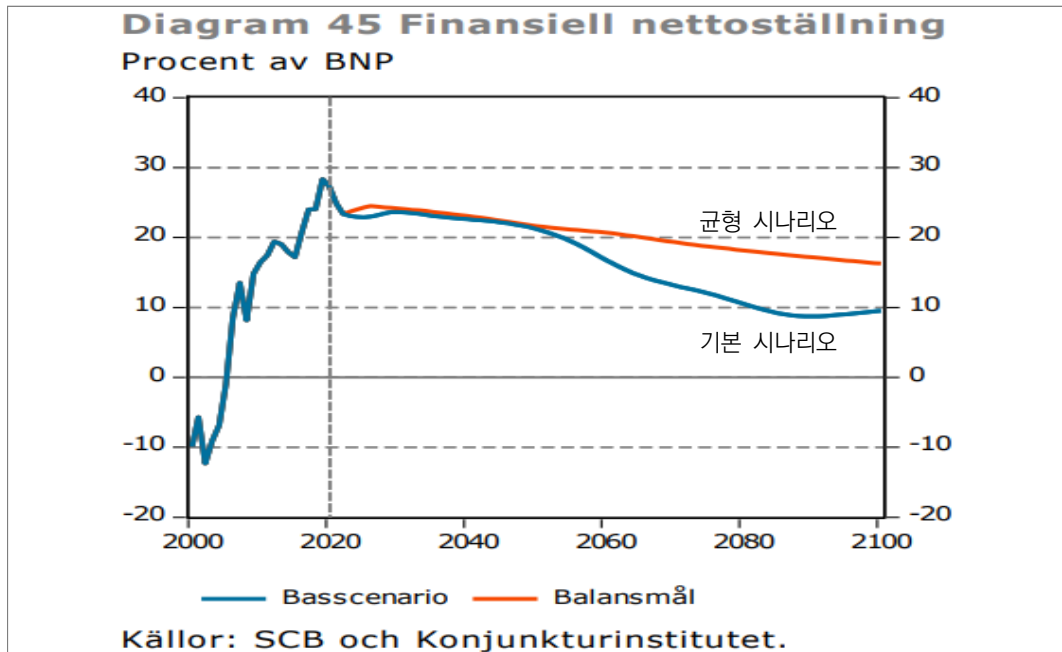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비율)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26.

[그림 IV-41] 순재정상태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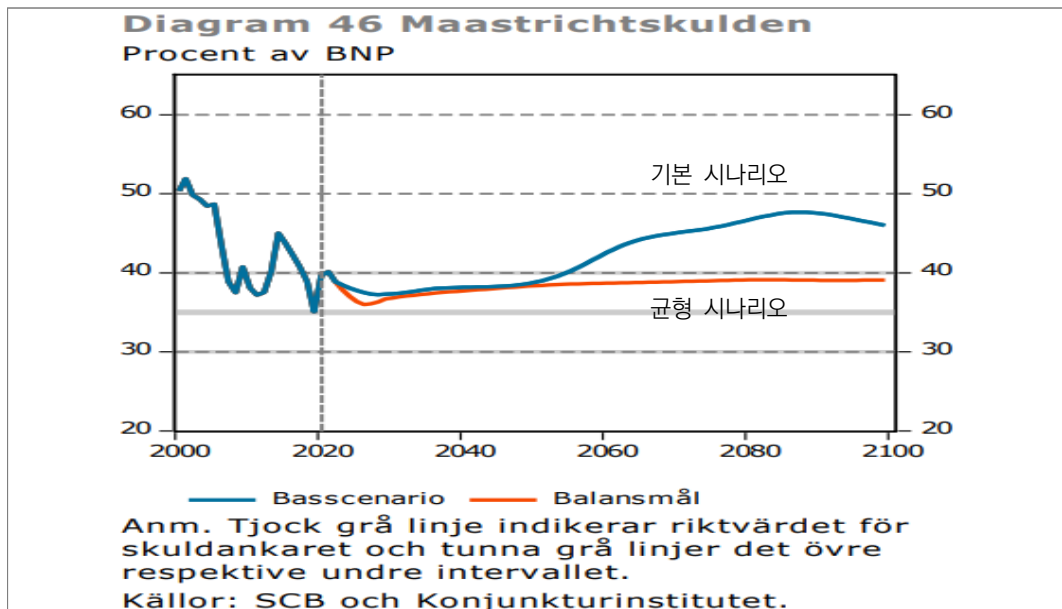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비율)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27.

[그림 IV-42] 마스트리히트 부채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4)

(단위: GDP 대비 비율)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27.

〈표 IV-8〉 전망 결과(재정 흑자 목표 시나리오)

(단위: GDP 대비 비율)

Tabell 6 Alternativscenario: Överskottsmålet nås från och med 2023
Procent av BNP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Primära inkomster 기본 소득	52,6	47,1	47,7	46,8	47,1	47,3	47,8	47,4	47,4	47,1	47,1
Skatter och avgifter 세입	48,6	42,9	43,2	42,7	42,9	43,1	43,6	43,2	43,2	42,9	42,9
Primära utgifter 공공 지출	48,2	47,8	51,9	47,2	47,7	48,0	48,5	48,1	48,1	47,8	47,7
Konsumtion 소비	24,5	25,0	26,9	26,7	27,0	27,2	27,7	27,4	27,4	27,2	27,1
Inkomstpensioner 연금 소득	5,7	6,1	6,6	5,7	6,0	6,1	6,2	6,1	6,1	6,1	6,1
Sociala transferingar 사회 이전(연금 소득 제외) (exkl inkomstpensioner)	10,2	8,0	6,9	5,7	5,5	5,5	5,5	5,4	5,4	5,3	5,3
Investeringar 투자 기초재정수지	3,9	4,5	5,1	4,9	5,0	5,0	5,0	5,0	5,0	5,0	5,0
Primärt finansiellt sparande	4,3	-0,7	-4,2	-0,4	-0,6	-0,7	-0,7	-0,7	-0,7	-0,6	-0,6
Kapitalinkomster, netto 순자본 소득	-1,2	0,6	0,8	0,7	0,9	1,0	1,0	1,0	1,0	1,0	0,9
Finansiellt sparande 재정 수지	3,1	0,0	-3,4	0,3	0,3	0,3	0,3	0,3	0,3	0,3	0,3
Finansiell nettoställning 순재정 상태	-9,9	16,5	27,3	25,4	26,7	27,0	27,2	26,6	25,9	25,2	24,6
Maastrichtskuld 마스트리히트 부채	50,3	38,1	39,6	35,6	34,0	33,1	32,2	31,7	31,4	31,0	30,8

Källor: SCB och Konjunkturinstitutet.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48.

〈표 IV-9〉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4)

(단위: GDP 대비 비율)

Tabell 10 Alternativscenario: Balansmål för offentliga finanser
Procent av BNP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Primära inkomster 기본 소득	52,6	47,1	47,7	46,5	46,9	47,1	47,7	47,3	47,4	47,1	47,1
Skatter och avgifter 세입	48,6	42,9	43,2	42,4	42,7	43,0	43,5	43,1	43,2	42,9	42,9
Primära utgifter 공공 지출	48,2	47,8	51,9	47,2	47,7	48,0	48,5	48,1	48,1	47,8	47,7
Konsumtion 소비	24,5	25,0	26,9	26,7	27,0	27,2	27,7	27,4	27,4	27,2	27,1
Inkomstpensioner 연금 소득	5,7	6,1	6,6	5,7	6,0	6,1	6,2	6,1	6,1	6,1	6,1
Sociala transferingar 사회 이전(연금 소득 제외) (exkl inkomstpensioner)	10,2	8,0	6,9	5,7	5,5	5,5	5,5	5,4	5,4	5,3	5,3
Investeringar 투자 기초재정수지	3,9	4,5	5,1	4,9	5,0	5,0	5,0	5,0	5,0	5,0	5,0
Primärt finansiellt sparande	4,3	-0,7	-4,2	-0,7	-0,8	-0,8	-0,8	-0,7	-0,7	-0,7	-0,6
Kapitalinkomster, netto 순자본 소득	-1,2	0,6	0,8	0,7	0,8	0,8	0,8	0,7	0,7	0,7	0,6
Finansiellt sparande 재정 수지	3,1	0,0	-3,4	0,0	0,0	0,0	0,0	0,0	0,0	0,0	0,0
Finansiell nettoställning 순재정 상태	-9,9	16,5	27,3	24,2	23,1	21,6	20,7	19,3	18,2	17,2	16,3
Maastrichtskuld 마스트리히트 부채	50,3	38,1	39,6	36,8	37,7	38,4	38,7	38,9	39,1	39,1	39,1

Källor: SCB och Konjunkturinstitutet.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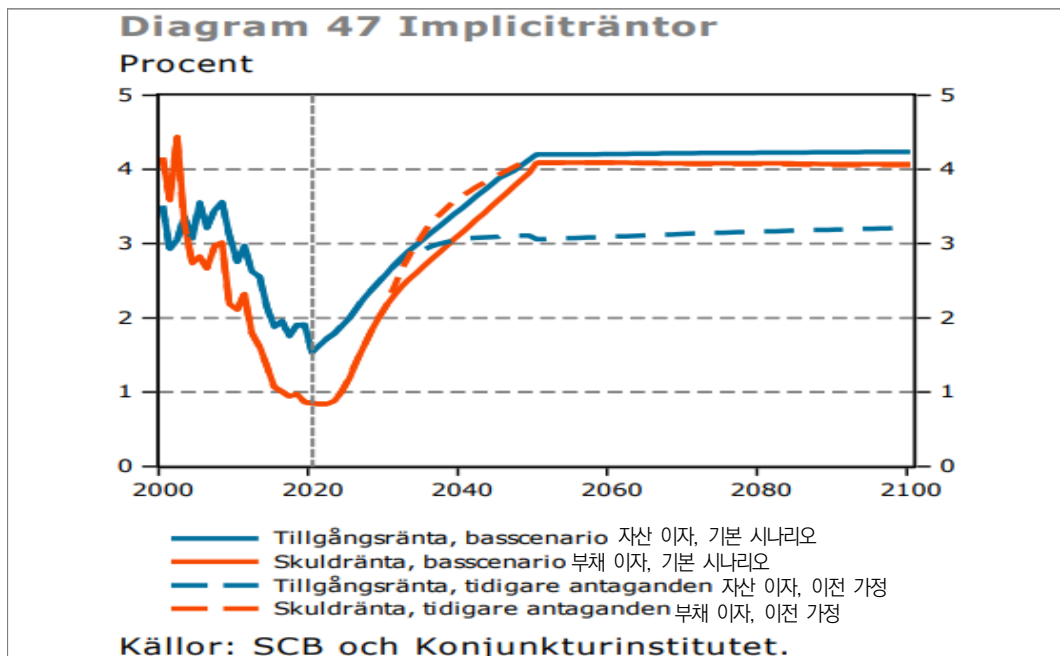
□ (대안5: 이자율 및 수익률의 이전 가정 시나리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전년도 보고서와 비교하여 수익률 및 이자율에 대한 가정을 변경*하였으나 전년도 가정을 그대로 적용한 대안 시나리오의 결과를 제시

* 이자부 자산에 대해 직접 수익은 더 높고, 일반정부 부채 및 이자부 자산에 대한 이자율은 2050년까지 더 낮도록 가정

- 이전 가정 적용으로 인해 공공 부문의 순자본소득은 더 낮을 것이며 이에 따라 2030년대 순재정상태가 기본 시나리오 대비 높으나 재정수지는 감소
- 장기적으로는 순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마스트리히트 부채도 기본 시나리오와 비교해서 증가하며 2040년경에는 부채 상한선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며 2070년대 동안에는 EU의 안정 및 성장 협약의 최대한도인 60%를 넘어설 전망
 - 2050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0.8%, 마스트리히트 부채비율은 44.2%로서 기본 시나리오 대비 각각 0.7%p 감소, 5.4%p 증가
- 이 대안 시나리오에서는 공공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이자율과 수익률에 대한 가정은 장기적으로 더욱 중요함을 확인

[그림 IV-43] 암묵적 이자율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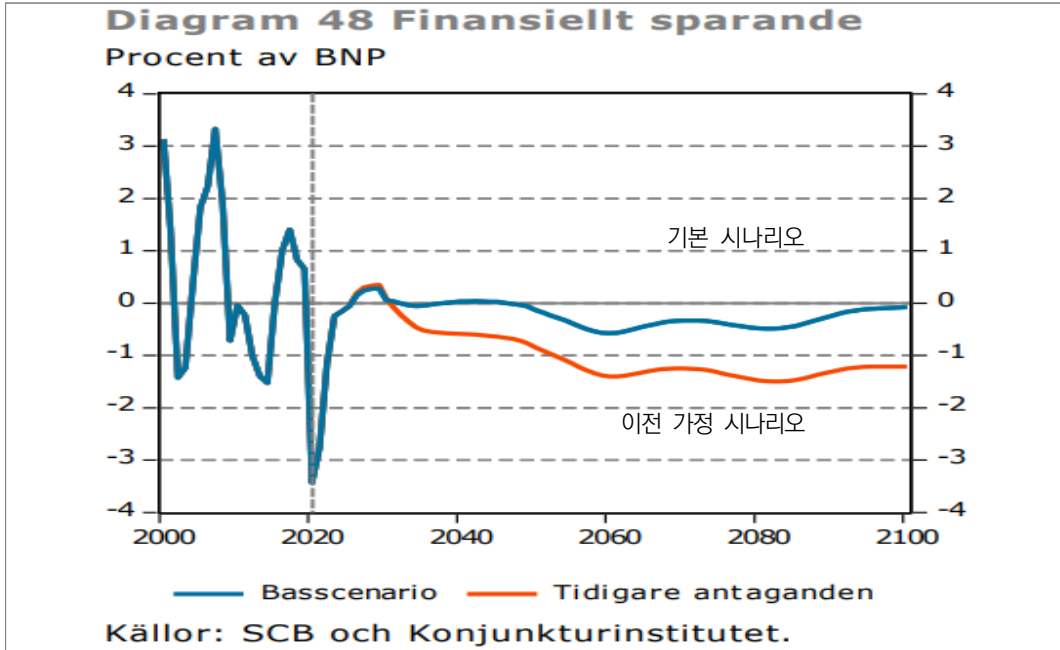
(단위: %)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27.

[그림 IV-44] 재정수지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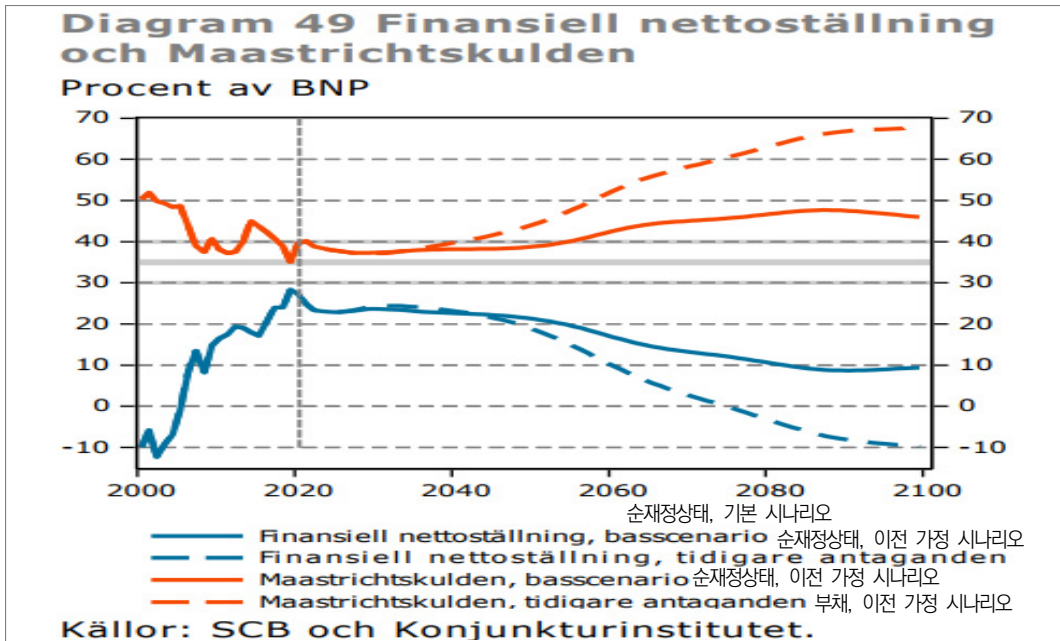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비율)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28.

[그림 IV-45] 순재정상태 및 마스트리히트 부채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5)

(단위: GDP 대비 비율)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28.

(단위: GDP 대비 비율)

Tabell 11 Alternativscenario: Tidigare års ränte- och avkastningsantaganden
 Procent av BNP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Primära inkomster 기본 소득	52,6	47,1	47,7	46,6	46,7	46,9	47,1	47,1	47,1	47,1	47,1
Skatter och avgifter 세입	48,6	42,9	43,2	42,4	42,6	42,7	42,9	42,9	42,9	42,9	42,9
Primära utgifter 기본 지출	48,2	47,8	51,9	47,2	47,6	47,5	48,1	47,6	47,7	47,3	47,3
Konsumtion 소비	24,5	25,0	26,9	26,7	27,0	27,2	27,7	27,4	27,4	27,2	27,1
Inkomstpensioner 연금 소득	5,7	6,1	6,6	5,7	5,9	5,7	5,7	5,7	5,7	5,7	5,7
Sociala transferingar 사회 이전(연금 소득 제외) (exkl inkomstpensioner)	10,2	8,0	6,9	5,7	5,5	5,5	5,5	5,4	5,4	5,3	5,3
Investeringar 투자	3,9	4,5	5,1	4,9	5,0	5,0	5,0	5,0	5,0	5,0	5,0
Primärt finansiellt sparande 기초재정수지	4,3	-0,7	-4,2	-0,7	-0,8	-0,7	-1,0	-0,6	-0,6	-0,3	-0,1
Kapitalinkomster, netto 순자본 소득	-1,2	0,6	0,8	0,7	0,2	-0,2	-0,4	-0,7	-0,9	-1,0	-1,1
Finansiellt sparande 재정 수지	3,1	0,0	-3,4	0,1	-0,6	-0,8	-1,4	-1,2	-1,5	-1,3	-1,2
Finansiell nettoställning 순재정 상태	-9,9	16,5	27,3	24,3	23,1	18,6	9,9	2,5	-3,4	-8,2	-10,0
Maastrichtskuld 마스트리히트 부채	50,3	38,1	39,6	37,2	39,8	44,2	52,3	58,4	63,2	66,8	67,7

Källor: SCB och Konjunkturinstitutet.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50.

8. 평가

- (S2지표) 스웨덴은 무한한 시계에 대한 공공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S2지표를 사용
 - S2는 순 재정 상태(finansiella nettoställningen)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안정화되기 위해 요구되는 현재 시점에서 기초 재정수지의 조정 폭을 의미
 - 예를 들어 S2가 1.0이면 기초 재정수지가 GDP의 1.0%만큼 직접적이고 영구적으로 조정되어야 함
 - S2지표에 따르면 공공 재정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지표 값이 0 또는 음수(-)이어야 함
 - 기본 시나리오하에서 2100년 기준으로 계산된 S2지표는 0.44이며 이는 현재 화폐가치로 230억크로나(SEK)의 절감 조치에 해당
 - S2의 세 가지 구성요소 중 첫 번째는 초기 재정 상태와 초기 순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며 스웨덴은 초기 순자산이 존재하므로 음(-)의 값을 가짐
 - 두 번째는 2100년까지 1차 적자의 영향에 해당하며 기초 재정수지가 거의 전 기간 동안 음수(-)이므로 두 번째 요소 값은 양수(+)를 나타냄
 - 마지막은 2100년 이후 1차 적자의 영향이며 2100년 -0.4%인 기초 재정수지가 무한히 지속될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S2지표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에 해당

〈표 IV-11〉 기본 시나리오의 S2지표(2100년 기준)

(1) Ränta på initial nettoskuld 초기 순부채에 대한 이자	-0,02
(2) Effekt av primära underskott till och med 2100 2100년까지 1차 적자의 영향	0,05
(3) Effekt av primära underskott efter år 2100 2100년 이후 1차 적자의 영향	0,41
S2 = (1) + (2) + (3)	0,44
Källa: Konjunkturinstitutet.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31.

중장기 경제재정에 관한 시산(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 ▣ 중장기 경제방침인 「기본방침」을 근거로 연 2회 중장기 전망을 시행
- ▣ 전망 결과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제출되어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 방안 논의에 활용

1. 추진근거 및 추이

- (추진근거) 명시적인 법적근거는 없으나, 「경제재정 운영 및 경제사회의 구조개혁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 2001」)²⁸⁾을 근거로, 2002년 「구조개혁과 경제재정 중기전망」(이하 「개혁과 전망」)의 참고자료로 첫 재정전망이 시행됨
- 「기본방침 2001」은 2001년 고이즈미 내각이 발표한 중장기 경제운영 방침으로, 중장기 계획을 기반으로 한 경제운영 및 예산결정을 위해 매년 중기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포함함
- 「개혁과 전망」은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목표로 하는 구조개혁의 주요내용 및 재정 전망 결과를 포함한 중기계획으로, 전망 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5년임

〈표 V-1〉 「기본방침 2001」 내 재정전망 근거 항목

제 5 장 경제 재정의 중기 전망과 정책 과정의 개혁

2. 중기 경제 재정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과정의 쇄신

(1) 중기 경제 재정 계획의 책정

향후 경제 재정 운영에 있어서 **경제재정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과 일치하는 형태로 **매년 경제 운영과 예산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매년 중기경제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재정 동향을 감안하여 **매년 개정**한다.

출처: 일본 총리실, 「今後の經濟財政運営及び經濟社会の構造改革に関する基本方針」, <https://www.kantei.go.jp/jp/kakugikettei/2001/honebuto/0626keizaizaisei-ho.html>, 검색일자: 2021. 5. 21.

28) 2007년부터 「경제재정개혁의 기본방침」으로 명칭 변경

- (추진추이) 2009년, 기존 중기계획에서 10년 단위의 중장기전망으로 확장됐으며, 전망 결과를 매년 1~2회 발표
 - 중기계획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됐으며, 2002~2006년까지는 ‘개혁과 전망’, 2007~2008년까지는 ‘진로와 전략’이란 명칭으로 매년 1회씩 발표됨
 -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화로 보다 장기적인 구조 변화에 대한 전망이 필요해짐에 따라, 2009년 「경제 재정의 중장기 정책 및 10년 전망」이 각의 결정됐으며, 기존 중기계획을 「경제재정의 중장기 시산」으로 대체하여 매년 2회씩 발표함
 - 「경제재정의 중장기 시산」은 매년 1월과 7월, 연간 2회 발표
 - 1월 전망은 기준연도의 실적치로 다음 회계연도²⁹⁾ 예산안을 활용하며, 7월 전망은 추경이 반영된 당해 예산을 활용
 - 「경제재정의 중장기 시산」은 「기본방침」을 근거로 한 중장기 경제정책³⁰⁾의 참고자료로 경제재정자문회의³¹⁾에 매년 제출되며, 거시경제 및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논의에 활용됨

2. 전망의 범위와 분야

- (전망 범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 및 세출을 전망
 - 중앙정부의 전망 범위는 일반회계, 교부세 및 양여세 배부금 특별회계, 동일본 대지진 부흥 특별회계 등이 해당
 - 지방정부의 전망 범위는 지방일반회계, 지방재정계획 등이 해당
- (전망 분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별로 전망 범위의 세부 항목이 상이함
 - (세입) 조세수입과 기타수입 그리고 국공채 발행액 등으로 크게 구분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별로 세부 항목은 상이함

29) 일본의 회계연도는 당해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임

30) 2018년에 발표된 「신 경제·재정재생계획」에서는 거시경제 목표로 중장기적으로 명목 GDP 성장률 3%, 실질 GDP 성장률 2%의 경제성장과 2020년 명목 GDP 600조엔 달성 등을 설정하였으며, 재정건전화를 목표로 2021년 기초재정수지 적자 규모 GDP 대비 -1.5% 도달, 부채 잔액 GDP 대비 180% 인하 그리고 2025년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달성을 설정함

31) 경제재정자문회의는 내각부 산하 합의제기관으로, 2001년 고이즈미 내각 때 처음 설치되었으며, 총리와 재무장관, 총무장관 등 정부인사 외 총인원의 40%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경제재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심의하며, 중장기경제 운영방침인 「기본방침」을 결정함

- (중앙정부) 국세 및 인지수입, 기타수입 그리고 국채 발행액 등으로 구성
 - 국세 및 인지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주세, 담배세, 기타 직·간접세³²⁾ 그리고 인지수입 등이 해당
- (지방정부) 지방세 수입, 교부금 등의 이전재원, 지방채 발행액 등으로 구성
 - 지방세 수입은 지방세, 주민세, 지방법인세 등이 해당
- (세출) 사회보장관계비, 투자적 경비, 기타 일반세출 그리고 국고채로 구분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별로 세부항목은 상이함
 - (중앙정부) 사회보장관계비, 투자적 경비, 기타 일반세출 그리고 국채비로 구성
 - 사회보장관계비는 공적연금,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험비 국가부담분, 고용보험 국고부담금 등의 고용산재대책비 그리고 연금관계비 등이 해당
 - 투자적 경비는 직할사업비, 지방정부보조금 등의 공공사업관계비 등이 해당
 - 기타 일반세출은 사회보장관계비와 투자적 경비를 제외한 항목으로, 인건비, 의무교육비 국가부담금, 경상·지방정부보조금 등이 해당
 - (지방정부) 사회보장관계비, 투자적 경비, 기타 일반세출 그리고 공채비로 구성
 - 사회보장관계비는 공적연금, 의료보험 등의 지방정부 부담분이 해당
 - 투자적 경비는 국가직할사업 부담금, 보조사업비, 지방정부 사업비 등이 해당
 - 기타 일반세출은 사회보장관계비와 투자적 경비를 제외한 항목으로, 인건비, 급여관계비, 기타 지방세출 등이 해당

32) 기타 직접세는 상속세와 토지가치세, 기타 간접세는 휘발유세, 석유·가스세, 항공기연세 등이 해당

〈표 V-2〉 일본 재정전망의 전망 범위

구분		전망 범위	
		세부항목	회계종류
중앙 정부	세입	1. 국세 및 인지수입: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주세, 담배세, 기타 직·간접세, 인지수입 등 2. 기타수입 3. 국채 발행액	1) 일반회계 2) 교부세 및 양여세 배부금 특별회계 3) 동일본 대지진 부흥 특별회계 등
	세출	1. 사회보장관계비: 공적연금, 의료보험, 개호보험, 고용보험 등 국가 부담분, 연금관계비 등 2. 투자적 경비: 직할사업비, 지방정부보조금 등 3. 기타 일반세출: 인건비, 의무교육비 국가부담금, 경상보조금, 지방정부보조금 4. 국채비	
지방 정부	세입	1. 지방세 수입: 지방세, 주민세, 지방법인세 2. 교부금 등 이전재원 3. 지방채 발행액	1) 지방일반회계 2) 지방재정계획 등
	세출	1. 사회보장관계비: 공적연금, 의료보험, 개호보험 등 지방정부 부담분 2. 투자적 경비: 국가직할사업 부담금, 보조사업비, 지방정부사업비 등 3. 기타 일반세출: 인건비, 급여관계비, 기타 지방세출 4. 공채비	

출처: 일본 내각부, 「經濟財政モデル」, 2018. 12., pp. 70~90.

□ (전망방법) 거시계량모형인 경제재정모델³³⁾을 사용하여 세입과 세출을 전망

○ (세입) 거시경제 블록에서 추계되는 과세 기반을 바탕으로 추계

- 소득세는 임금·봉급 총액 등의 증가율을 이용하여 추계
-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기업수입과 경기요인을 적용한 후 실효세율을 곱하여 추계
- 소비세는 수요 항목별 과세표준률을 이용해 과세 기반을 산출한 후 세율을 곱해 소비세 총액을 추계
- 이 외에 담배세, 주세 등의 간접세는 과세 기반에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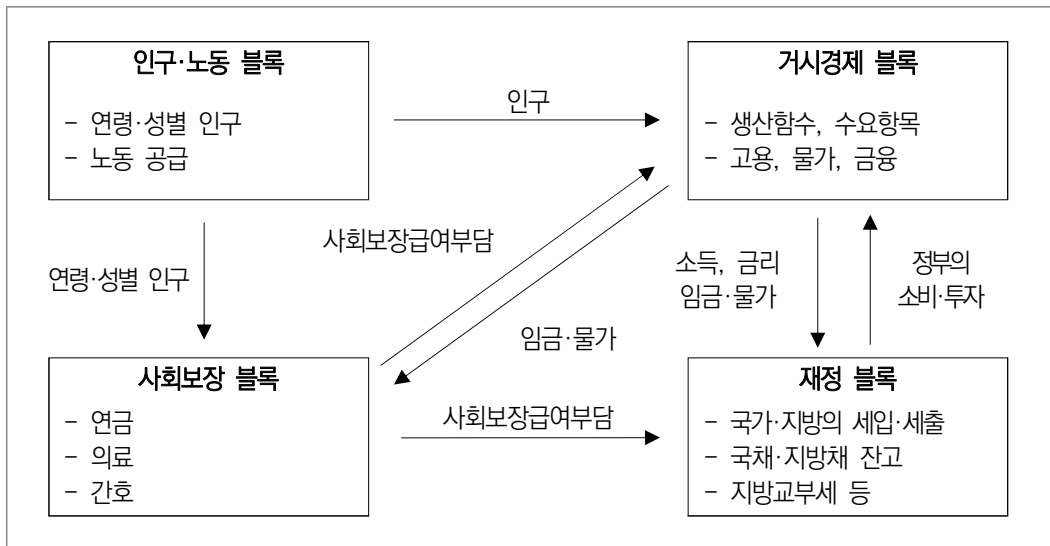
○ (세출) 사회보장 세출은 사회보장 블록에서 추계되는 급여지출을 바탕으로 추계하며, 그 외의 세출은 거시전제를 활용한 별도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계

- 사회보장 세출은 공적연금, 의료보험, 개호보험 등으로 구분
 - 공적연금은 1인당 급여액을 산출 후 임금·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하며, 후생노동성의 연금수급자 추계결과를 적용하여 급여총액 추계

33) 일본 경제사회종합연구소에 의해 2001년 11월에 개발된 거시계량모형으로, 인구, 거시경제, 재정, 사회보장까지 총 4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블록의 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경제·재정을 전망함

- 의료·개호보험은 1인당 급여액을 산출 후 임금·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하며, 모형 내 인구 추계결과와 평균 가입률 등 외생변수를 적용하여 의료·개호보험 급여총액을 추계
- 투자적 경비, 기타 일반세출 등은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
- 국공채비는 거시전제의 금리를 적용하여 추계
 - 국채는 60년, 지방채는 20년 동안 원리 균등 상환을 가정

[그림 V-1] 경제재정모델의 전망구조



출처: 일본 내각부, 「經濟財政モデル」, 2019. 12., p. 3을 참고하여 재가공

3. 전망 기간, 거버넌스 및 절차

- (전망 기간) 10년 단위의 중장기전망
 - 2021년 7월 기준, 2021~2030년까지 전망
- (거버넌스) 중장기 경제·재정정책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내각부 정책총괄관에서 전망을 총괄함
 - 전망 담당부서는 정책총괄관 경제사회시스템 담당으로, 중장기 경제정책의 기획, 입안, 조정 업무를 수행하며, 중장기 경제정책이 반영된 전망을 작성 및 공표함
 - 실질적인 재정전망은 정책총괄관 경제재정분석담당 계량분석실에서 수행하며, 계량 분석실은 재정전망 외 경제재정모델의 개선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전망절차) 「기본방침」을 근거로 한 중장기 경제정책을 시나리오로 반영하여, 계량 분석실에서 경제재정모델을 활용하여 전망하며 경제사회시스템 담당이 공표함
 - 경제재정모델은 인구, 거시경제, 사회보장, 재정 등의 블록으로 구분되며, 각 블록별 결과들이 상호 연계되어, 국가 전체의 기초재정수지, 부채 규모를 전망
 -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가 담긴 보고서는 중장기 경제정책의 목표 달성 방안 논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제출되며, 이후 내각부 홈페이지에 게시됨

4. 보고서의 구조

- 2021년 7월에 발간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
 - 제1장 서론
 - 전망보고서의 목표 및 주요 내용 설명
 - 제2장 경제에 관한 시나리오와 가정
 - 기준 시나리오와 성장실현 시나리오³⁴⁾에 대한 설명
 - 제3장 재정 정책에 대한 주요 가정

34) 성장실현 시나리오는 '경제성장 없이는 재정건전화 없음'을 골자로 한 정부의 중장기 경제정책인 「(신)경제·재정재생계획」의 주요 목적인 디플레이션 탈피, 경제 재생관련 정책의 효과가 과거 실적치 만큼 향후에도 실현된다고 가정함

- 기초 데이터 및 세입·세출에 대한 가정 설명
- 제4장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 진행 상황과 향후 전망
 - 기준연도 재정 현황 및 향후 전망 결과 설명
 - GDP, CPI 등 거시전제와 시나리오별 기초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규모 등
- 부록: 주요 전제
 - 시나리오별 거시전제 및 인구전제에 대한 세부 설명
 - 세입·세출 기초데이터에 대한 세부 설명

5. 전망전제

- (인구전제)³⁵⁾ 「일본의 장래추계인구」의 연령 계층별·성별 인구 데이터를 활용하며, 노동참여율을 외생적으로 적용하여 노동인구를 산출

〈표 V-3〉 일본의 장래추계인구 결과

(단위: 만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남	6,064.0	6,036.5	6,007.4	5,976.8	5,944.9	5,911.9	5,877.9	5,842.7	5,806.7	5,769.7
녀	6,419.6	6,394.5	6,367.7	6,339.3	6,309.5	6,278.4	6,246.1	6,212.8	6,178.3	6,142.8
합계	12,483.6	12,431	12,375.1	12,316.1	12,254.4	12,190.3	12,124.0	12,055.5	11,985	11,912.5

주: 출생률, 사망률 중위 시나리오 기준 전망 결과

출처: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日本の将来推計人口」, 2017, pp. 96~105.

- (거시전제) 총요소생산성(TFP) 외 외생변수들과 인구블록의 인구 전망 결과를 활용하여 거시전제 블록에서 경제성장률, 물가, 금리 등 주요 거시전제 등을 시나리오 별로 전망
 - (기준 시나리오) 「신 경제·재정재생계획」의 거시경제 목표 기준으로 살펴보면 명목 GDP 600조엔 도달은 2026년으로, 목표 기한인 2020년보다 6년 늦게 달성 될 것으로 전망
 - 명목(실질) GDP성장률 모두 2024년부터 2% 미만으로 하락하며, 지속적으로

35) 「경제재정모델」 보고서의 내용으로 전망 보고서에는 인구전제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음

감소하여 2030년 1.1%(0.8%)에 이르며, 목표인 3%(2%)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전망

〈표 V-4〉 거시경제전제 전망 결과: 기준 시나리오

(단위: %, 조엔, GDP 대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실질 GDP 성장률	3.7	2.2	2.0	1.8	1.5	1.2	0.9	0.9	0.9	0.8
실질 GNI 성장률	2.9	2.2	2.0	1.7	1.5	1.3	1.0	0.9	0.8	0.8
명목 GDP 성장률	3.1	2.5	2.0	1.8	1.6	1.4	1.2	1.1	1.1	1.1
명목 GDP	553.0	567.0	578.4	589.0	598.7	607.3	614.3	621.3	628.1	634.8
1인당 명목 GNI 성장률	3.4	3.4	2.4	2.4	2.2	2.0	1.7	1.7	1.7	1.7
1인당 명목 GNI(만엔)	458.0	474.0	486.0	497.0	508.0	518.0	527.0	536.0	545.0	554.0
잠재성장률	1.0	1.2	1.0	1.0	1.0	0.9	0.9	0.9	0.9	0.8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	0.1	0.7	0.6	0.6	0.7	0.7	0.7	0.7	0.7
	국내기업물가	3.6	0.6	0.2	0.3	0.3	0.3	0.2	0.2	0.2
	GDP 디플레이터	-0.6	0.3	0.0	0.1	0.1	0.2	0.2	0.2	0.2
완전실업률	2.7	2.4	2.4	2.4	2.5	2.5	2.6	2.6	2.7	2.7
명목장기금리	0.0	0.0	0.0	0.0	0.1	0.3	0.7	1.1	1.4	1.4
부채비율수지	일반정부	-7.2	-3.3	-2.4	-1.8	-1.2	-0.9	-0.7	-0.6	-0.7
	민간	11.0	7.5	6.5	5.9	5.3	4.9	4.6	4.5	4.6
	해외	-3.8	-4.2	-4.2	-4.1	-4.1	-4.0	-3.9	-3.9	-3.8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21. 7., p. 7.

- (성장실현 시나리오)³⁶⁾ 명목 GDP 600조엔 도달은 2024년으로 기준 시나리오보다 2년 앞당겨지며, 목표 기한보다 4년 늦게 달성될 것으로 전망
 - 명목 GDP성장률은 2024년 3.7%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0년 3.2%에 이르며, 목표인 3%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

36) 총요소생산성(TFP)은 디플레이션 돌입 이전의 상승률을 적용하며, 기존 0.4%에서 1.3%로 상향 조정하고, 노동참가율은 고용 정책 연구회의 '경제성장과 노동 참여' 시나리오 전망 결과를, 외국인 노동자는 「일본의 장래 추계 인구」의 전망 결과에 수용 확대 시나리오를 활용

- 실질 GDP 성장률은 2021년 3.7%에서 2022년 2.2%로 급감한 후 2023년 2.8% 까지 증가하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 1.8%에 이르며, 목표인 2%를 살짝 하회할 것으로 전망

〈표 V-5〉 거시경제전제 전망 결과: 성장실현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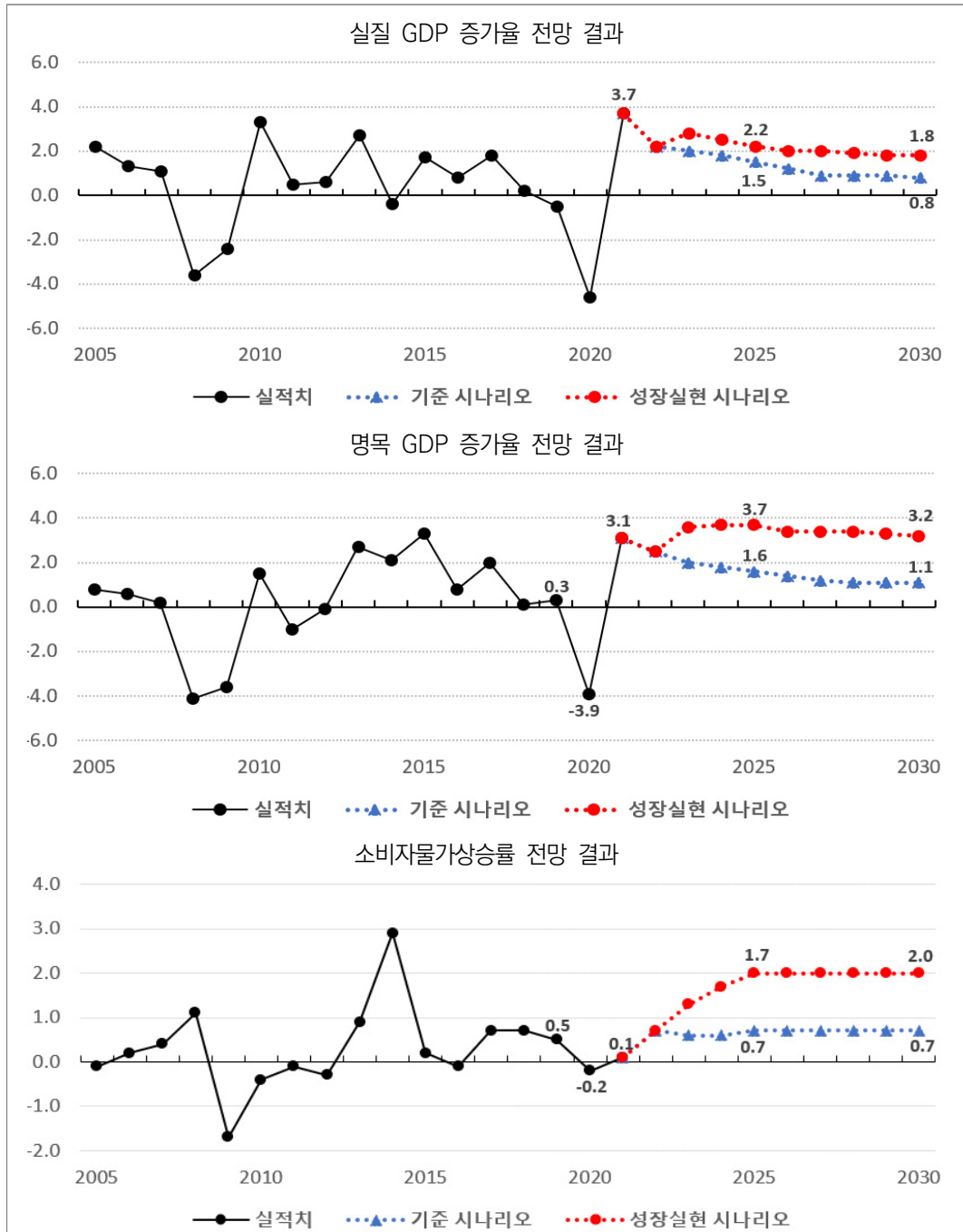
(단위: %, 조엔, GDP 대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실질 GDP 성장률	3.7	2.2	2.8	2.5	2.2	2.0	2.0	1.9	1.8	1.8	
실질 GNI 성장률	2.9	2.2	2.8	2.6	2.4	2.1	2.0	2.0	1.8	1.8	
명목 GDP 성장률	3.1	2.5	3.6	3.7	3.7	3.4	3.4	3.4	3.3	3.2	
명목 GDP	553.0	567.0	587.6	609.2	631.5	653.3	675.7	698.4	721.3	744.4	
1인당 명목 GNI 성장률	3.4	3.4	4.0	4.2	4.2	4.0	3.9	3.9	3.8	3.7	
1인당 명목 GNI(만엔)	458.0	474.0	493.0	514.0	535.0	556.0	578.0	601.0	623.0	647.0	
잠재성장률	1.0	1.2	1.4	1.7	2.0	2.0	2.0	1.9	1.8	1.8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	0.1	0.7	1.3	1.7	2.0	2.0	2.0	2.0	2.0	
	국내기업물가	3.6	0.6	0.6	0.6	0.6	0.5	0.5	0.5	0.5	
	GDP 디플레이터	-0.6	0.3	0.8	1.1	1.4	1.4	1.4	1.4	1.4	
완전실업률	2.7	2.4	2.4	2.3	2.4	2.4	2.5	2.5	2.5	2.6	
명목장기금리	0.0	0.0	0.0	0.0	0.2	0.5	1.1	1.8	2.3	2.7	
부민별수지	일반정부	-7.2	-3.3	-1.9	-0.9	0.0	0.5	1.0	1.2	1.4	1.5
	민간	11.0	7.5	6.2	5.2	4.2	3.7	3.2	2.9	2.7	2.6
	해외	-3.8	-4.2	-4.3	-4.3	-4.2	-4.2	-4.2	-4.1	-4.1	-4.1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21. 7., p. 6.

[그림 V-2] 주요 거시전제 전망 결과

(단위: GDP 대비 %)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21. 7., p. 4.

6. 전망 결과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출과 세입, 중앙·지방재정을 통합한 기초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을 기준 시나리오와 성장실현 시나리오별로 전망 결과를 제시

가. 기준 시나리오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출 및 세입

- 중앙정부의 기초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1년 -20.4조원에서 2030년 -8.9조엔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세출은 2021년 106.6조원에서 2022년 100.9조엔까지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112.9조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세입은 2021년 63조원에서 2030년 76.9조엔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V-6〉 기준 시나리오 전망 결과: 중앙정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단위: 조엔)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세출(A)	106.6	100.9	102.1	103.4	104.6	105.8	107.1	108.6	110.7	112.9
재정수지대상경비	83.4	78.5	79.3	80.6	81.8	82.8	83.6	84.2	85.0	85.8
사회보장관계비	35.8	36.8	37.3	37.9	38.4	38.8	39.3	39.8	40.3	40.7
지방교부세 등	15.9	15.2	15.4	16.0	16.5	16.9	17.0	16.9	17.1	17.2
기타	31.1	26.1	26.2	26.4	26.5	26.7	26.9	27.0	27.2	27.4
국채비	23.8	22.8	23.2	23.2	23.2	23.4	23.9	24.9	26.1	27.5
세입(B)	63.0	67.1	68.6	70.4	72.2	73.6	74.6	75.4	76.2	76.9
세수	57.4	61.4	62.9	64.6	66.3	67.7	68.6	69.4	70.1	70.8
기타수입	5.6	5.7	5.7	5.8	5.9	5.9	6.0	6.0	6.1	6.1
차액(A-B)	43.6	33.9	33.5	33.0	32.4	32.2	32.5	33.2	34.5	36.0
기초재정수지	-20.4	-11.4	-10.7	-10.2	-9.6	-9.2	-9.0	-8.7	-8.8	-8.9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21. 7., p. 7.

- 지방정부의 기초재정수지는 2021년 -0.8조원에서 2027년 3.8조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감소하여 2030년 3.6조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세출은 2021년 96.7조엔에서 2030년 103.3조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입은 2021년 82.1조엔에서 2030년 92.9조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V-7〉 기준 시나리오 전망 결과: 지방정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단위: 조엔)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세출(A)	96.7	97.0	97.4	98.1	99.0	99.8	101.0	101.9	102.7	103.3
공채비	11.8	11.5	11.4	11.2	11.2	11.2	11.5	11.5	11.5	11.3
세입(B)	82.1	83.5	84.7	86.3	88.1	89.6	90.7	91.3	92.1	92.9
세수	40.8	42.5	43.5	44.4	45.4	46.3	47.1	47.7	48.2	48.7
차액(A - B)	14.6	13.5	12.7	11.8	10.9	10.2	10.3	10.5	10.6	10.4
기초재정수지	-0.8	0.3	1.1	1.8	2.8	3.6	3.8	3.6	3.6	3.6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21. 7., p. 7.

2) 기초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가) 동일본 대지진 복구·부흥 대책 경비 및 자원³⁷⁾ 제외

-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2021년 GDP 대비 -6.8%에서 2027년 -1%까지 감소 후 유지하다 2030년 -0.9%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적자 규모는 2021년 -37.8조엔에서 2030년 -6조엔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이자수입·지출을 포함한 재정수지의 적자는 2021년 GDP 대비 -8.1%에서 2030년 -1.8%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국가채무는 2021년 GDP 대비 211%에서 2030년 202.4%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국가채무는 2021년 1,166.7조엔에서 2030년 1,284.6조엔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37)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정책 실시를 위해 필요한 자원확보에 관한 특별 조치법」(2011. 12. 2. 공포) 등의 특별법을 근거로 부흥 특별세 실시 및 개인 주민세 균등화의 인상으로 확보한 자원과 복구 관련 지출 등으로 관련 자원 및 경비 포함 여부별로 구분하여 기초재정수지와 국가채무의 전망 결과를 제시함

〈표 V-8〉 기준 시나리오 전망 결과: 기초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동일본 자원 제외)

(단위: 조엔)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기초재정수지 (명목 GDP 대비)	-37.8 (-6.8)	-17.5 (-3.1)	-12.1 (-2.1)	-10.0 (-1.7)	-7.9 (-1.3)	-6.8 (-1.1)	-6.2 (-1.0)	-6.0 (-1.0)	-6.0 (-1.0)	-6.0 (-0.9)
중앙정부 (명목 GDP 대비)	-37.0 (-6.7)	-18.1 (-3.2)	-13.8 (-2.4)	-12.8 (-2.2)	-11.9 (-2.0)	-11.6 (-1.9)	-11.4 (-1.8)	-11.2 (-1.8)	-11.1 (-1.8)	-11.2 (-1.8)
지방정부 (명목 GDP 대비)	-0.8 (-0.1)	0.6 (0.1)	1.6 (0.3)	2.8 (0.5)	4.0 (0.7)	4.8 (0.8)	5.2 (0.8)	5.1 (0.8)	5.2 (0.8)	5.2 (0.8)
재정수지 (명목 GDP 대비)	-45.0 (-8.1)	-22.7 (-4.0)	-16.9 (-2.9)	-14.3 (-2.4)	-11.7 (-2.0)	-10.3 (-1.7)	-9.5 (-1.6)	-9.8 (-1.6)	-10.5 (-1.7)	-11.4 (-1.8)
중앙정부 (명목 GDP 대비)	-42.9 (-7.8)	-22.1 (-3.9)	-17.5 (-3.0)	-16.1 (-2.7)	-14.7 (-2.5)	-14.2 (-2.3)	-14.0 (-2.3)	-14.2 (-2.3)	-14.9 (-2.4)	-15.8 (-2.5)
지방정부 (명목 GDP 대비)	-2.1 (-0.4)	-0.6 (-0.1)	0.5 (0.1)	1.8 (0.3)	3.0 (0.5)	3.9 (0.6)	4.4 (0.7)	4.4 (0.7)	4.4 (0.7)	4.4 (0.7)
국가채무 (명목 GDP 대비)	1,166.7 (211.0)	1,183.9 (208.8)	1,199.2 (207.3)	1,212.9 (205.9)	1,224.9 (204.6)	1,235.4 (203.4)	1,246.3 (202.9)	1,257.8 (202.5)	1,270.3 (202.2)	1,284.6 (202.4)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21. 7., p. 7.

나) 동일본 대지진 복구·부흥 대책 경비 및 자원 포함

-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2021년 GDP 대비 -6.9%에서 2030년 -0.8%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적자 규모는 2021년 -38.3조엔에서 2030년 -5.3조엔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이자수입·지출을 포함한 재정수지의 적자는 2021년 GDP 대비 -8.2%에서 2030년 -1.7%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국가채무는 2021년 GDP 대비 212.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 203%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21년 1,172.9조엔에서 2030년 1,288.5조엔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V-9〉 기준 시나리오 전망 결과: 기초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동일본 자원 포함)

(단위: 조엔)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기초재정수지 (명목 GDP 대비)	-38.3 (-6.9)	-17.4 (-3.1)	-12.0 (-2.1)	-9.5 (-1.6)	-7.5 (-1.2)	-6.2 (-1.0)	-5.5 (-0.9)	-5.4 (-0.9)	-5.4 (-0.9)	-5.3 (-0.8)
중앙정부 (명목 GDP 대비)	-37.5 (-6.8)	-18.1 (-3.2)	-13.7 (-2.4)	-12.4 (-2.1)	-11.4 (-1.9)	-11.0 (-1.8)	-10.7 (-1.7)	-10.5 (-1.7)	-10.5 (-1.7)	-10.6 (-1.7)
지방정부 (명목 GDP 대비)	-0.8 (-0.1)	0.7 (0.1)	1.7 (0.3)	2.8 (0.5)	4.0 (0.7)	4.8 (0.8)	5.2 (0.8)	5.1 (0.8)	5.2 (0.8)	5.2 (0.8)
재정수지 (명목 GDP 대비)	-45.5 (-8.2)	-22.7 (-4.0)	-16.8 (-2.9)	-13.8 (-2.3)	-11.3 (-1.9)	-9.6 (-1.6)	-8.9 (-1.5)	-9.1 (-1.5)	-9.8 (-1.6)	-10.8 (-1.7)
중앙정부 (명목 GDP 대비)	-43.4 (-7.8)	-22.1 (-3.9)	-17.4 (-3.0)	-15.6 (-2.7)	-14.3 (-2.4)	-13.6 (-2.2)	-13.3 (-2.2)	-13.6 (-2.2)	-14.3 (-2.3)	-15.2 (-2.4)
지방정부 (명목 GDP 대비)	-2.1 (-0.4)	-0.5 (-0.1)	0.6 (0.1)	1.8 (0.3)	3.0 (0.5)	3.9 (0.6)	4.4 (0.7)	4.4 (0.7)	4.4 (0.7)	4.4 (0.7)
국가채무 (명목 GDP 대비)	1,172.9 (212.1)	1,189.9 (209.9)	1,205.1 (208.3)	1,218.6 (206.9)	1,230.5 (205.5)	1,240.7 (204.3)	1,251.2 (203.7)	1,262.3 (203.2)	1,274.6 (202.9)	1,288.5 (203.0)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21. 7., p. 8.

나. 성장실현 시나리오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출 및 세입

□ 중앙정부의 기초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1년 -20.4조엔에서 2030년 -3조엔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세출은 2021년 106.6조엔에서 2022년 100.9조엔까지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125.2조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세입은 2021년 63조엔에서 2030년 92조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

〈표 V-10〉 성장실현 시나리오 전망 결과: 중앙정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단위: 조엔)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세출(A)	106.6	100.9	103.0	105.3	107.5	109.9	112.8	116.3	120.5	125.2
재정수지대상경비	83.4	78.5	80.2	82.5	84.7	86.8	88.8	90.7	92.8	95.0
사회보장관계비	35.8	36.8	37.5	38.2	39.0	39.8	40.7	41.7	42.6	43.5
지방교부세 등	15.9	15.2	15.9	17.0	18.0	18.7	19.3	19.7	20.3	21.0
기타	31.1	26.1	26.4	26.8	27.3	27.9	28.4	28.9	29.5	30.1
국채비	23.8	22.8	23.2	23.2	23.2	23.5	24.4	26.0	28.0	30.6
세입(B)	63.0	67.1	70.5	74.3	77.8	80.7	83.6	86.4	89.2	92.0
세수	57.4	61.4	64.7	68.4	71.8	74.5	77.2	79.9	82.5	85.2
기타수입	5.6	5.7	5.8	5.9	6.1	6.2	6.4	6.5	6.7	6.8
차액(A - B)	43.6	33.9	32.5	31.0	29.7	29.2	29.2	29.9	31.3	33.2
기초재정수지	-20.4	-11.4	-9.7	-8.2	-6.9	-6.0	-5.2	-4.3	-3.7	-3.0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21. 7., p. 6.

- 지방정부의 기초재정수지는 2021년 -0.8조엔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12.1조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세출은 2021년 96.7조엔에서 2030년 117.1조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입은 2021년 82.1조엔에서 2030년 109.6조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V-11〉 성장실현 시나리오 전망 결과: 지방정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단위: 조엔)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세출(A)	96.7	97.0	98.1	99.6	101.9	104.8	107.9	110.8	113.9	117.1
공채비	11.8	11.5	11.4	11.2	11.2	11.2	11.4	11.3	11.2	10.9
세입(B)	82.1	83.5	86.1	89.7	93.6	97.1	100.2	103.1	106.3	109.6
세수	40.8	42.5	44.1	46.1	48.3	50.4	52.3	54.1	55.9	57.6
차액(A - B)	14.6	13.5	12.0	10.0	8.3	7.7	7.7	7.7	7.6	7.5
기초재정수지	-0.8	0.3	1.8	3.8	5.8	7.5	8.6	9.6	10.8	12.1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21. 7., p. 6.

2) 기초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가) 동일본 대지진 복구·부흥 대책 경비 및 자원 제외

- 기초재정수지는 2021년 GDP 대비 -6.8%에서 2026년 -0.1%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27년 0.3%로 흑자 전환되며, 2030년 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적자 규모는 2021년 -37.8조엔에서 2026년 -0.4조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2027년 1.8조엔으로 흑자 전환될 것으로 전망
 - 이자수입·지출을 포함한 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2021년 GDP 대비 -8.1%에서 2030년 -0.1%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국가채무는 2021년 GDP 대비 211%에서 2030년 167.9%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국가채무는 2021년 1,166.7조엔에서 2030년 1,250조엔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V-12〉 성장실현 시나리오 전망 결과: 기초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동일본 자원 제외)

(단위: 조엔)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기초재정수지 (명목 GDP 대비)	-37.8 (-6.8)	-17.5 (-3.1)	-10.8 (-1.8)	-6.8 (-1.1)	-2.9 (-0.5)	-0.4 (-0.1)	1.8 (0.3)	3.6 (0.5)	5.4 (0.8)	7.1 (1.0)
중앙정부 (명목 GDP 대비)	-37.0 (-6.7)	-18.1 (-3.2)	-13.1 (-2.2)	-11.5 (-1.9)	-9.8 (-1.6)	-9.0 (-1.4)	-8.1 (-1.2)	-7.1 (-1.0)	-6.4 (-0.9)	-5.8 (-0.8)
지방정부 (명목 GDP 대비)	-0.8 (-0.1)	0.6 (0.1)	2.3 (0.4)	4.7 (0.8)	6.8 (1.1)	8.6 (1.3)	9.8 (1.5)	10.7 (1.5)	11.8 (1.6)	12.9 (1.7)
재정수지 (명목 GDP 대비)	-45.0 (-8.1)	-22.7 (-4.0)	-15.6 (-2.7)	-11.1 (-1.8)	-6.8 (-1.1)	-4.0 (-0.6)	-2.1 (-0.3)	-1.2 (-0.2)	-0.7 (-0.1)	-1.0 (-0.1)
중앙정부 (명목 GDP 대비)	-42.9 (-7.8)	-22.1 (-3.9)	-16.8 (-2.9)	-14.8 (-2.4)	-12.7 (-2.0)	-11.8 (-1.8)	-11.2 (-1.7)	-11.3 (-1.6)	-12.0 (-1.7)	-13.3 (-1.8)
지방정부 (명목 GDP 대비)	-2.1 (-0.4)	-0.6 (-0.1)	1.2 (0.2)	3.7 (0.6)	5.9 (0.9)	7.8 (1.2)	9.1 (1.4)	10.1 (1.4)	11.3 (1.6)	12.4 (1.7)
국가채무 (명목 GDP 대비)	1,166.7 (211.0)	1,183.9 (208.8)	1,197.5 (203.8)	1,207.4 (198.2)	1,214.6 (192.3)	1,220.1 (186.8)	1,225.8 (181.4)	1,232.1 (176.4)	1,239.7 (171.9)	1,250.0 (167.9)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21. 7., p. 6.

나) 동일본 대지진 복구·부흥 대책 경비 및 자원 포함

- 기초재정수지는 2021년 GDP 대비 -6.9%에서 2025년 -0.4%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후, 2026년 0.0%로 흑자 전환되며, 2030년 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적자 규모는 2021년 -38.3조엔에서 2025년 -2.5조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2026년 0.2조엔으로 흑자 전환될 것으로 전망
 - 이자수입·지출을 포함한 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2021년 GDP 대비 -8.2%에서 2030년 -0.1%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국가채무는 2021년 GDP 대비 212.1%에서 2030년 168.4%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21년 1,172.9조엔에서 2030년 1,253.8조엔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V-13〉 성장실현 시나리오 전망 결과: 기초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동일본 자원 포함)

(단위: 조엔)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기초재정수지 (명목 GDP 대비)	-38.3 (-6.9)	-17.4 (-3.1)	-10.7 (-1.8)	-6.3 (-1.0)	-2.5 (-0.4)	0.2 (0.0)	2.4 (0.4)	4.2 (0.6)	6.0 (0.8)	7.7 (1.0)
중앙정부 (명목 GDP 대비)	-37.5 (-6.8)	-18.1 (-3.2)	-13.0 (-2.2)	-11.0 (-1.8)	-9.3 (-1.5)	-8.4 (-1.3)	-7.4 (-1.1)	-6.5 (-0.9)	-5.8 (-0.8)	-5.2 (-0.7)
지방정부 (명목 GDP 대비)	-0.8 (-0.1)	0.7 (0.1)	2.4 (0.4)	4.7 (0.8)	6.9 (1.1)	8.6 (1.3)	9.8 (1.5)	10.7 (1.5)	11.8 (1.6)	12.9 (1.7)
재정수지 (명목 GDP 대비)	-45.5 (-8.2)	-22.7 (-4.0)	-15.5 (-2.6)	-10.6 (-1.7)	-6.3 (-1.0)	-3.4 (-0.5)	-1.5 (-0.2)	-0.6 (-0.1)	-0.1 (-0.1)	-0.3 (-0.1)
중앙정부 (명목 GDP 대비)	-43.4 (-7.8)	-22.1 (-3.9)	-16.7 (-2.8)	-14.3 (-2.4)	-12.2 (-1.9)	-11.2 (-1.7)	-10.6 (-1.6)	-10.7 (-1.5)	-11.4 (-1.6)	-12.7 (-1.7)
지방정부 (명목 GDP 대비)	-2.1 (-0.4)	-0.5 (-0.1)	1.3 (0.2)	3.7 (0.6)	5.9 (0.9)	7.8 (1.2)	9.1 (1.4)	10.1 (1.4)	11.3 (1.6)	12.4 (1.7)
국가채무 (명목 GDP 대비)	1,172.9 (212.1)	1,189.9 (209.9)	1,203.4 (204.8)	1,213.2 (199.1)	1,220.2 (193.2)	1,225.3 (187.6)	1,230.7 (182.1)	1,236.7 (177.1)	1,244.0 (172.5)	1,253.8 (168.4)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21. 7., p. 8.

다. 시나리오별 결과 비교

- 「신 경제·재정재생계획」의 2025년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달성은 성장실현 시나리오에선 목표보다 2년 뒤인 2027년 GDP 대비 0.3%로 달성되며, 기준 시나리오에선 전망 기간 내 미달성됨
- 2021년 기초재정수지 적자 규모 GDP 대비 -1.5% 도달은 성장실현 시나리오에선 목표보다 3년 뒤인 2024년에 달성되며, 기준 시나리오에선 전망 기간 내 미달성됨

〈표 V-14〉 시나리오별 기초재정수지 전망 결과(동일본 자원 제외)

(단위: 조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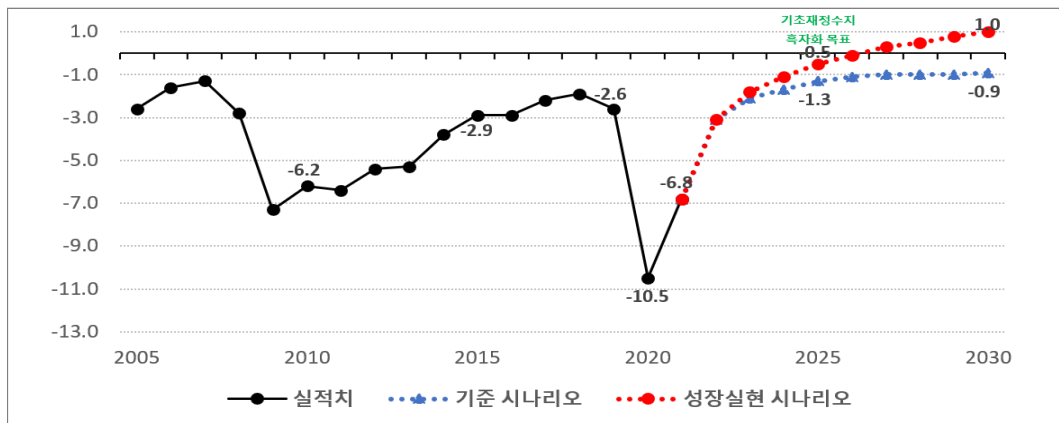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기준 시나리오 (A)	규모	-37.8	-17.5	-12.1	-10.0	-7.9	-6.8	-6.2	-6.0	-6.0	-6.0
	GDP 대비	(-6.8)	(-3.1)	(-2.1)	(-1.7)	(-1.3)	(-1.1)	(-1.0)	(-1.0)	(-1.0)	(-0.9)
성장실현 시나리오 (B)	규모	-37.8	-17.5	-10.8	-6.8	-2.9	-0.4	1.8	3.6	5.4	7.1
	GDP 대비	(-6.8)	(-3.1)	(-1.8)	(-1.1)	(-0.5)	(-0.1)	(0.3)	(0.5)	(0.8)	(1.0)
차이 (A)-(B)	규모	0.0	0.0	-1.3	-3.2	-5.0	-6.4	-8.0	-9.6	-11.4	-13.1
	GDP 대비	(0.0)	(0.0)	(-0.3)	(-0.6)	(-0.8)	(-1.0)	(-1.3)	(-1.5)	(-1.8)	(-1.9)

주: 동일본 대지진 복구·부흥 대책 경비 및 재원을 제외한 전망 결과임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20. 7., pp. 6~7.

〔그림 V-3〕 시나리오별 기초재정수지 전망 결과(동일본 자원 제외)

(단위: GDP 대비 %)



주: 동일본 대지진 복구·부흥 대책 경비 및 재원을 제외한 전망 결과임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20. 7., p. 5.

□ 「신 경제·재정재생계획」의 중간목표인 2021년 GDP 대비 국가채무 180% 도달은 성장실현 시나리오에선 7년 뒤인 2028년 176.4%로 달성되며, 기준 시나리오에선 전망 기간 내 미달성됨

〈표 V-15〉 시나리오별 국가채무 전망 결과(동일본 자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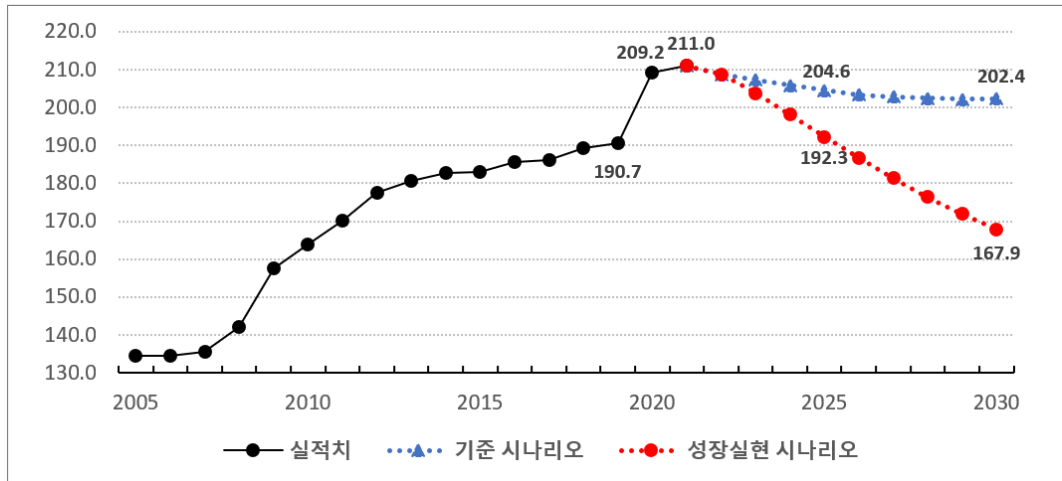
(단위: 조엔)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기준 시나리오 (A)	규모	1,166.7	1,183.9	1,199.2	1,212.9	1,224.9	1,235.4	1,246.3	1,257.8	1,270.3	1,284.6
	GDP 대비	(211.0)	(208.8)	(207.3)	(205.9)	(204.6)	(203.4)	(202.9)	(202.5)	(202.2)	(202.4)
성장실현 시나리오 (B)	규모	1,166.7	1,183.9	1,197.5	1,207.4	1,214.6	1,220.1	1,225.8	1,232.1	1,239.7	1,250.0
	GDP 대비	(211.0)	(208.8)	(203.8)	(198.2)	(192.3)	(186.8)	(181.4)	(176.4)	(171.9)	(167.9)
차이 (A)-(B)	규모	0.0	0.0	1.7	5.5	10.3	15.3	20.5	25.7	30.6	34.6
	GDP 대비	(0.0)	(0.0)	(3.5)	(7.7)	(12.3)	(16.6)	(21.5)	(26.1)	(30.3)	(34.5)

주: 동일본 대지진 복구·부흥 대책 경비 및 자원을 제외한 전망 결과임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20. 7., pp. 6~7.

〈그림 V-4〉 시나리오별 국가채무 전망 결과(동일본 자원 제외)

(단위: GDP 대비 %)



주: 동일본 대지진 복구·부흥 대책 경비 및 자원을 제외한 전망 결과임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20. 7., p. 5.

참고문헌

1. 미국 CBO

CBO, *“An Overview of CBOLT: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Long-Term Model,”* 2018. 4.

_____,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 3.

_____,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1 to 2031,* 2021. 2.

2. 미국 OMB

OMB, *Analytical Perspective 2022,* 2021.

_____, *“FY2022 Budge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021.

3. EU

EC,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 2021.

_____, *Manual on Government Deficit and Debt – Implementation of ESA 2010,* 2016.

_____, *The 2021 Ageing Report: Underlying Assumptions and Projection Methodologies,* 2021.

_____,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2019-2070),* 2021.

〈웹사이트〉

EU, “Consolidated version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https://eur-lex.europa.eu/eli/treaty/teu_2008/pro_12/oj, 검색일자: 22. 1. 17.

4. 스웨덴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_____, *Summary of the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21*, 2021.

SCB, *Sveriges framtida befolkning 2020-2070*, 2020.

5. 일본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日本の将来推計人口」, 2017.

일본 내각부, 「經濟財政モデル」, 2018. 12.

_____,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21.

<웹사이트>

일본 내각부, <https://www5.cao.go.jp>, 검색일자: 2021. 8. 16.

일본 총리실, <https://www.kantei.go.jp>, 검색일자: 2021. 9. 8.

_____, 「今後の經濟財政運営及び經濟社会の構造改革に関する基本方針」, <https://www.kantei.go.jp/jp/kakugikettei/2001/honebuto/0626keizaizaisei-ho.html>, 검색일자: 2021. 5. 21.

부록 - EU 회원국명 약어

BE	벨기에
BG	불가리아
CZ	체코
DK	덴마크
DE	독일
EE	에스토니아
EI	아일랜드
EL	그리스
ES	스페인
FR	프랑스
HR	크로아티아
IT	이탈리아
CY	사이프러스
LV	라트비아
LU	리투아니아
HU	헝가리
MT	말타
NL	네덜란드
AT	오스트리아
PL	폴란드
PT	포르투갈
RO	루마니아
SI	슬로베니아
SK	슬로바키아
FI	핀란드
SE	스웨덴
NO	노르웨이
EA	유로지역
EU	유럽연합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2019-2070)*, 2021, p. 368.

주요국의 장기재정전망과 국제비교

발 행 2021년 12월 31일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관 및 세 인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I S B N 979-11-6655-084-3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